조사보고서 2017-01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 여가, 대인관계, 건강을 중심으로

-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2016년)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 임 란 · 왕승현 · 이은영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머 리 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와 노후소득보장 실태 파악을 위해 2005년 조사를 시작해 2016년 6차 부가조사를 마치기까지 11년간 누적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는 중·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노후준비를 위한 대국민서비스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가 이용됨에 따라,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정책의 기초자료 및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자리매김해왔다.

2016년도에는 특정 이슈나 주제를 정하여 조사해오던 기존 부가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와 같은 비재무적 영역의 노후생활 실태를 부가조사 간 반복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재무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 본조사와 비재무적 영역의 노후생활 실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패널조사 자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가 고령화와 관련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기초자료로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영역까지 포괄한 노후준비 지원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를 측정한 2016년 6차 부가조사 자료의 기술통계를 활용한 기초분석 보고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송현주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임란 주임연구원, 왕승현 주임연구원, 이은영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특히 6차 부가조사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내용 선정 및 조사표 개발부터 최종으로 통계청의 변경승인을 거친 최종 조사내용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내·외부의 많은 전문가들의 노고가 있었다.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 보험연구원 강성호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박사, 서울시 복지재단 정은하 박사, 통계청 임찬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신현구 박사,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실의 노은영 차장, 김영경 대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통계조정과의 담당 과장, 사무관, 주무관께도 감사드리며, 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의 실장을 비롯하여 김헌수 박사, 성혜영 박사, 이상붕 박사 등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뿐만 아니라 전문조사기관, 아울러 검독과정에서 본 보고서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해 준 관계전문가에게 감사드린다.

2017. 1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성 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이 용 하

목 차 | Contents

요 약 ····· 1

Ⅰ. 서 론 ····· 11

Ⅱ.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 개요 ····· 15

1. 조사내용 ····· 15
2. 조사방법 ····· 20
3. 조사결과 ····· 23
4. 조사성공가구 및 개인의 특성 ····· 27

Ⅲ. 여가 ····· 33

1. 생활시간 ····· 33
2.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 37
3. 여가 활동 전반 ····· 42

Ⅳ. 대인관계 ····· 55

1. 대인관계 실태와 만족도 ····· 55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66
3. 도움이 된 사람 ····· 75
4. 배우자와의 갈등 ····· 79
5. 자녀와의 갈등 ····· 85
6. 사회적 지지 ····· 100

Ⅴ. 건강 및 생활 ····· 105

1. 건강 ····· 105

2. 생활 ····· 123

Ⅵ. 사회참여 ····· 131
1. 단체활동 ····· 131
2. 자원봉사활동 ····· 146
3. 기부활동 ····· 162

Ⅶ. 시사점 ····· 177

참 고 문 헌 ····· 181

[부록1] 6차 부가조사 조사표 ····· 183
[부록2] 가중치 산정 ····· 203
[부록3] 05표본 조사결과 ····· 211
[부록4] 부표(추가 분석결과) ····· 221

표차례

〈표 Ⅱ-1〉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 조사항목 ····· 18
〈표 Ⅱ-2〉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원칙 ····· 22
〈표 Ⅱ-3〉 13표본의 가구 응답현황 ····· 25
〈표 Ⅱ-4〉 1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통합 2차 부가조사) ····· 26
〈표 Ⅱ-5〉 13표본의 조사성공가구의 거주지역 ····· 28
〈표 Ⅱ-6〉 13표본의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원수 ····· 28
〈표 Ⅱ-7〉 13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주 특성 ····· 29
〈표 Ⅱ-8〉 13표본 조사성공한 개인의 특성 ····· 31
〈표 Ⅲ-1〉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구성 ····· 36
〈표 Ⅲ-2〉 여가활동 종류 구분 ····· 38
〈표 Ⅲ-3〉 여가활동 장소 구분 ····· 39
〈표 Ⅲ-4〉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 ····· 41
〈표 Ⅲ-5〉 여가활동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 43
〈표 Ⅲ-6〉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 45
〈표 Ⅲ-7〉 가장 선호/비선호하는 여가활동 ····· 47
〈표 Ⅲ-8〉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도 ····· 49
〈표 Ⅲ-9〉 여가활동의 제약점 (다중응답) ····· 51
〈표 Ⅲ-10〉 여가활동에 대한 변화 희망여부 ····· 53
〈표 Ⅳ-1〉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 (각 항목 '있다' 응답) ····· 56
〈표 Ⅳ-2〉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 (다중응답) ····· 58
〈표 Ⅳ-3〉 현재 관계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61
〈표 Ⅳ-4〉 현재 관계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가족 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63

〈표 Ⅳ-5〉 현재 관계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전반적 대인관계)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65
〈표 Ⅳ-6〉 노후시기 타인 도움 필요 상황 3가지(집안일, 돈 빌림, 이야기)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수 ····· 68
〈표 Ⅳ-7〉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70
〈표 Ⅳ-8〉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72
〈표 Ⅳ-9〉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 ····· 74
〈표 Ⅳ-10〉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1순위) ····· 76
〈표 Ⅳ-11〉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다중응답) ····· 78
〈표 Ⅳ-12〉 지난 1년간 겪은 배우자와의 갈등 종류와 갈등 정도 ····· 80
〈표 Ⅳ-13〉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 유무 ····· 81
〈표 Ⅳ-14〉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의 정도 ····· 83
〈표 Ⅳ-15〉 자녀수별, 동거형태별 자녀와의 갈등 측정 방식 ····· 87
〈표 Ⅳ-16〉 지난 1년간 겪은 동거자녀와의 갈등 종류와 갈등 정도 ····· 88
〈표 Ⅳ-17〉 지난 1년간 동거 자녀와의 갈등 유무 ····· 89
〈표 Ⅳ-18〉 지난 1년간 동거 자녀와의 갈등 정도 ····· 91
〈표 Ⅳ-19〉 지난 1년간 겪은 비동거자녀와의 갈등 종류와 갈등 정도 (종합) ····· 94
〈표 Ⅳ-20〉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 유무 ····· 95
〈표 Ⅳ-21〉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 정도 ····· 97
〈표 Ⅳ-22〉 사회적 지지 개별 문항 응답분포 ····· 101
〈표 Ⅳ-23〉 사회적지지 영역별 평균 비교 ····· 103
〈표 Ⅴ-1〉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 ····· 107
〈표 Ⅴ-2〉 질환 보유여부 및 치료여부 ····· 109
〈표 Ⅴ-3〉 만성질환 보유여부 및 치료/약복용여부 ····· 112
〈표 Ⅴ-4〉 4대 중증질환 보유여부 및 치료/약복용여부 ····· 114
〈표 Ⅴ-5〉 만성질환, 4대 중증질환 외 기타질환 보유여부 및 치료/약복용여부 ····· 116

〈표 Ⅴ-6〉 실천하는 생활습관 개수 별 응답자 특성분석 ····· 118
〈표 Ⅴ-7〉 실천하는 생활습관 별 응답자 특성분석 ····· 121
〈표 Ⅴ-8〉 생활 전반 만족도 ····· 124
〈표 Ⅴ-9〉 지난 1년 간 월평균 가구 소득 (세전) ····· 126
〈표 Ⅴ-10〉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적정 생활비 ····· 128
〈표 Ⅵ-1〉 단체참여 활동 여부 ····· 132
〈표 Ⅵ-2〉 단체참여 활동 갯수 ····· 134
〈표 Ⅵ-3〉 단체활동 참여여부 및 각 활동별 참여여부 ····· 135
〈표 Ⅵ-4〉 단체참여 이유 ····· 137
〈표 Ⅵ-5〉 단체활동 참여 경로 ····· 139
〈표 Ⅵ-6〉 단체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 141
〈표 Ⅵ-7〉 단체활동에 대한 변화 희망 여부 ····· 143
〈표 Ⅵ-8〉 향후 단체활동 참여의향 유무 ····· 145
〈표 Ⅵ-9〉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 147
〈표 Ⅵ-10〉 자원봉사활동 종류별 참여비율, 횟수, 시간 및 전문적 봉사여부 ····· 150
〈표 Ⅵ-11〉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분야 개수 ····· 152
〈표 Ⅵ-12〉 자원봉사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 ····· 155
〈표 Ⅵ-13〉 자원봉사를 알게 된 경로 ····· 157
〈표 Ⅵ-14〉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지 여부 ··· 159
〈표 Ⅵ-15〉 향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 ····· 161
〈표 Ⅵ-16〉 지난 1년간 기부활동 여부 ····· 163
〈표 Ⅵ-17〉 지난 1년간 기부활동 (현금 기부활동) ····· 166
〈표 Ⅵ-18〉 지난 1년간 기부활동 (현물 기부활동) ····· 168
〈표 Ⅵ-19〉 기부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 ····· 170
〈표 Ⅵ-20〉 기부처를 알게 된 경로 ····· 172
〈표 Ⅵ-21〉 기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지 여부 ····· 174
〈표 Ⅵ-22〉 향후 기부활동 의향 여부 ····· 176

〈부표 2-1〉 무응답 층 설정에 사용되는 변수 ····· 206
〈부표 2-2〉 통합 개인 가중치 (지역별) ····· 209
〈부표 3-1〉 05표본 가구 응답현황 ····· 214
〈부표 3-2〉 05표본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215
〈부표 3-3〉 05표본의 조사성공가구의 거주지역 ····· 216
〈부표 3-4〉 05표본의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원 수 ····· 217
〈부표 3-5〉 05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주 특성 ····· 218
〈부표 3-6〉 05표본 조사성공한 개인의 특성 ····· 220
〈부표 4-1〉 주중 여가활동 내용 (순위별 다빈도 응답) ····· 223
〈부표 4-2〉 주말 여가활동 내용 (순위별 다빈도 응답) ····· 224
〈부표 4-3〉 여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 항목 (종류, 장소, 횟수) ····· 225
〈부표 4-4〉 여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 항목 (동반자, 시간, 비용) ···· 227
〈부표 4-5〉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 (가족) ····· 229
〈부표 4-6〉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 (가족 외) ····· 230
〈부표 4-7〉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원 수 분포 ····· 231
〈부표 4-8〉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원수 분포 ····· 232
〈부표 4-9〉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원수 분포 ····· 233
〈부표 4-10〉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2순위 ····· 234
〈부표 4-11〉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3순위 ····· 235
〈부표 4-12〉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4순위 ····· 236
〈부표 4-13〉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5순위 ····· 237
〈부표 4-14〉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 종류 수 ····· 238
〈부표 4-15〉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 239

〈부표 4-16〉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의 결혼문제'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 240
〈부표 4-17〉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부모 부양 문제'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 241
〈부표 4-18〉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부부간 가사분담 문제'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 242
〈부표 4-19〉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배우자의 여가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 243
〈부표 4-20〉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생활습관 차이(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 244
〈부표 4-21〉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그 외 갈등'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 245
〈부표 4-22〉 지난 1년간 동거자녀와 겪은 갈등의 종류 수 ····· 246
〈부표 4-23〉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 247
〈부표 4-24〉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 248
〈부표 4-25〉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 249
〈부표 4-26〉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 250
〈부표 4-27〉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의 정도 응답분포 ····· 251
〈부표 4-28〉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문제'의 정도 응답분포 ····· 252
〈부표 4-29〉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의 종류 수 ··· 253
〈부표 4-30〉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 254
〈부표 4-31〉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 255
〈부표 4-32〉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 256
〈부표 4-33〉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 257
〈부표 4-34〉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의 갈등 정도 응답분포 ····· 258
〈부표 4-35〉 비동거자녀와 겪은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문제'의 갈등 정도 응답분포 ····· 259
〈부표 4-36〉 사회적지지 영역별 합산 점수 ····· 260
〈부표 4-37〉 단체참여활동 (친목 및 사교단체) ····· 261
〈부표 4-38〉 단체참여활동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 262
〈부표 4-39〉 단체참여활동 (지역사회모임) ····· 263
〈부표 4-40〉 단체참여활동 (시민단체모임) ····· 264
〈부표 4-41〉 단체참여활동 (그 외 단체) ····· 265
〈부표 4-42〉 단체활동에 변화를 주고싶은 항목 ····· 266
〈부표 4-43〉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 관련 봉사활동 ····· 268
〈부표 4-4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 봉사활동 ····· 270
〈부표 4-45〉 (손)자녀교육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 ····· 272
〈부표 4-46〉 문화와 관련된 봉사활동 ····· 274
〈부표 4-47〉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 ····· 276
〈부표 4-48〉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 ····· 278
〈부표 4-49〉 일반인을 위한 봉사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 ····· 280
〈부표 4-50〉 자원봉사에 변화를 주고 싶은 항목 ····· 282
〈부표 4-51〉 기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 항목 ····· 284

그림차례

[그림 Ⅱ-1] 국민노후보장패널 표본개요 ····· 23
[그림 Ⅱ-2] 1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통합 2차 부가조사) ··· 27
[그림 Ⅳ-1]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 59
[그림 Ⅳ-2] 노후시기 타인 도움 필요 상황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 ····· 66
[그림 Ⅳ-3] 자녀 유무 ····· 86
[그림 Ⅳ-4] 지난 1년간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와의 갈등 경험 비교 ····· 99
[그림 Ⅳ-5] 지난 1년간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의 갈등 정도 비교 ····· 99
[그림 Ⅴ-1] 질환 보유여부 및 각 질환 치료여부 ····· 110
[그림 Ⅴ-2] 생활습관 실천여부 ····· 120
[그림 Ⅴ-3]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적정 생활비 ····· 129
[그림 Ⅵ-1] 단체활동 참여율 및 각 활동별 참여율 ····· 136
[그림 Ⅵ-2]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각 종류별 참여율 ····· 150
[그림 Ⅵ-3] 지난 1년간 기부활동 여부 및 기부종류갯수 ····· 164

[부록 그림 3-1] 05표본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216

요 약

Ⅰ. 서론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고자 2005년부터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를 실시함

○ 2016년 실시한 6차 부가조사에서는 노후준비 4대영역 중 비재무적 영역(여가, 대인관계, 건강)에 대한 중·고령자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았음

- 기존의 부가조사에서 특정 이슈를 선정하여 조사한 방식에서 벗어나 6차 부가조사부터 비재무적 영역(여가, 대인관계, 건강 등)의 노후생활 실태를 2년마다 반복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
- 6차 부가조사의 조사내용 변경으로 향후 본조사와 부가조사를 결합하여 노후준비 4대 영역 실태파악이 가능하고, 부가조사에서 비재무적 영역의 실태를 반복 측정함에 따라 비재무적 노후준비의 종단적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본 보고서는 2016년 조사한 6차 부가조사에 대한 기초분석 보고서로 6차 부가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제1장 서론, 제2장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개요로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의 실사에 대한 내용임

-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통합 표본의 6차 부가조사의 모든 조사항목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로, 각 장은 여가, 대인관계, 건강 및 생활, 사회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7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Ⅱ.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 개요

○ KReIS 6차 부가조사에는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4대 영역 중 여가, 대인관계, 건강을 측정하였으며, 노후의 삶을 풍부히 설명할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조사함

- 2015.12~2016.3월까지 조사주제 선정 및 조사표 개발을 위한 6회의 내·외부 자문회의 개최, 조사기관과의 예비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정·보완을 거쳐 2016.4월 통계청 변경승인으로 조사표가 최종 확정됨

○ KReIS에서는 2005년 최초 구축하여 조사하고 있는 05표본과 2013년 5차 본조사에서 표본추가를 통해 구축한 13표본을 함께 조사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13표본의 응답을 토대로 기초분석한 결과로, 조사성공가구는 총 4,572가구이며, 원표본유지율은 91.2%, 유효성공률은 93.2%임

Ⅲ. 여가

○ 6차 부가조사에서는 중·고령자의 주중, 주말 여가활동 종류와 주요 장소, 동반자, 빈도 및 소요시간, 비용, 만족도 등 여가 생활 전반과 여가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와 정보를 얻는 경로, 선호하는 여가활동과 선호하지 않는 여가활동,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점, 여가활동에 대한 변화 희망 여부 등을 조사함

○ (생활시간) 중·고령자 생활시간 가운데 평균 여가시간은 주중 6.3시간, 주말 7.4시간 수준

○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 주중과 주말 모두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종류는 'TV시청'으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집'임
- 여가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혼자서'하는 비중(주중 50.2%, 주말 40.5%)이 높으나, 주말에는 '배우자와 함께(33.6%)' 하는 비중 역시 높게 나타남. 주중에는 주로 매일(81.9%)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며, 주말에는 이보다 빈도가 낮음
- 1회당 소요시간은 주중 2.9시간, 주말 3.4시간이며, 월평균 소요비용은 1만원대로,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임

○ (여가활동의 주된 이유)

- 여가활동의 주된 이유는 여가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와 친목 도모(여가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32.9%),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26.9%))임
- 80세 이상의 고연령자, 학력 수준이 낮거나, 노인단독 가구, 가구소득분위가 낮은 경우에는 '남는 시간이 많아서'의 응답비중이 높음

○ (여가활동 정보 수집 경로)

- 여가활동 정보의 주요 수집경로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62.6%)
- 남성,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 취업자,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 이용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 고연령자, 저학력자, 도지역 거주자, 노인단독 가구,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 등을 통해 여가 정보 수집 응답 비중 높아, 응답자 특성별 정보 수집 경로 차이를 보임

○ (선호·비선호 여가활동)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 가장

비선호하는 여가활동은 게임하기

-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응답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비선호하는 여가활동의 경우 게임하기, 등산하기, 낚시하기 가운데 응답자 특성별 응답분포 차이를 보임

○ (여가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으로 만족도 점수 평균은 3.53점으로, 자신의 여가 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편

- 고학력자, 유배우자, 취업자, 가구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수준이 높음

○ (여가활동의 제약점) 여가활동의 주된 제약은 경제적 부담(30.9%)과 시간 부족(19.9%) 등임

- 경제적 부담 이외에 남성(22.8%), 50대(28.7%), 대학 재학 이상(27.4%), 유배우자(22.0%), 취업자(28.7%), 서울거주자(22.7%), 소득 5분위(30.0%)의 경우 시간부족을 여가활동의 제약사항으로 여김
- 70대 이상의 고연령층, 무학(26.4%), 무배우자(21.7%), 비취업자(21.7%), 노인단독 가구(21.4%), 소득 1분위(26.2%)의 경우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여가 활동의 제약점으로 인식함

○ (여가활동 변화 희망여부)

- 현재의 여가활동 수준에서 변화를 주고 싶다는 응답은 14.9%로 낮은 수준임.

Ⅳ. 대인관계

○ 비재무적 노후준비 영역의 하나인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대인관계의 실태와 만족도, 도움을 받는 사람,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 사회적 지지수준에 대해 조사함.

○ (대인관계 실태 및 만족도)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자녀,

형제·자매, 친척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족 및 가족 외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을 보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도움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유무)
-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91.0%)과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88.7%)은 대부분 있으나,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50.5%에 불과
- 무배우자, 노인단독 가구, 가구소득 1분위의 경우 약 10%는 이러한 상황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도움이 되었던 관계)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주로 자녀와 배우자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도움이 된 관계로 자녀와 배우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고령자,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 소득 1분위의 경우 자녀 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난 1년간 도움이 된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20.4%에 해당

○ (배우자와의 갈등) 지난 1년간 배우자와 있었던 주요 갈등은 경제적 문제(21.0%)와 음주·흡연·늦은 귀가 등의 생활습관 차이(20.8%)으며, 갈등의 수준은 5점 만점에 3점 이하로 약한 편

○ (자녀와의 갈등) 비동거자녀보다 동거자녀와의 갈등 경험 빈도가 높으며,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의 종류가 다름
- (동거 자녀와의 갈등) 주요 갈등은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문제로 인한 갈등(13.7%)임. 60대의 갈등 경험 빈도가 가장 높으며, 갈등 수준은 비취업자, 소득수준 1분위에서 심한 편.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갈등 수준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비동거 자녀와의 갈등) 주요 갈등은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

해서 생긴 갈등(3.2%)임. 비취업자와 노인단독 가구 등에서 경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70대,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갈등수준이 높았음

○ (사회적지지) 남성, 저연령, 고학력자, 유배우자, 취업자, 광역시 거주자, 노인부부 가구, 고소득자의 전반적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여성, 고연령, 저학력자,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 저소득자의 경우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음
- 사회적지지의 하위 영역별로는 물질적지지(4.47점)〉정서적지지(3.73점)〉평가적지지(3.61점)〉정보적지지(3.59점) 순으로 나타남

V. 건강 및 생활

○ 중·고령자의 건강상태와 질환 및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생활만족도, 월평균 소득, 노후필요 최소·적정생활비 수준을 조사함

○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을 포함해 좋다는 응답이 81.2%
- 반면 고연령, 저학력, 무배우자, 노인단독, 저소득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낮은 편

○ (질환) 응답자의 52.0%가 현재 만성질환, 4대 중증 질환 및 기타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96.7%)이 치료를 하고 있음

- 70대 이상 고령자, 저학력,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질환을 앓는 비율이 높음

○ (생활습관)

-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4가지(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중 평균 3.27개를 실천함. 80세 이상과 무학

인 경우에만 평균 3개 미만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침식사(95.5%), 적정수면(92.2%), 정기적 건강검진(83.3%)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실천하나, 규칙적 운동은 실천 비율이 56.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가구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적정수면(87.6%), 규칙적 운동(46.4%), 정기적 건강검진(71.3%)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생활)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

○ (월평균 소득) 응답자의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 소득은 평균 248만 4천원

○ (최소·적정 생활비)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적정 생활비를 조사하였음.

- (최소 생활비) 월평균 부부기준 167만 3천원, 개인기준 103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응답함
- (적정 생활비) 월평균, 부부기준 230만 9천원, 개인기준 145만 7천원이 필요할 것으로 응답함

Ⅵ. 사회참여

○ 노후준비의 4대영역인 건강, 여가, 대인관계, 재무적 준비 외 중·고령자의 삶을 볼 수 있는 사회참여를 조사함

○ (단체활동) 응답자의 72.3%는 단체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 (종류 및 활동빈도) 단체활동 종류 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친목 및 사교단체임
- (주 참여 이유) 단체활동의 주된 참여 이유는 친목 도모(54.7%)
  - 80세 이상(12.3%)과 무학력자(12.6%)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 참여한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참여 경로) 정보 수집의 주된 경로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78.3%)
  - 80세 이상(23.5%), 무학력자(21.5%), 노인단독 가구(20.3%), 가구소득 1분위(20.0%)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단체활동 만족도) 단체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69.0%)
- (단체활동 변화 희망여부) 대부분이 단체활동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원치 않음(94.7%)
- (향후 단체활동 참여 희망여부) 응답자의 57.7%는 향후 단체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

○ (자원봉사 활동)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는 응답자의 7.4%에 불과

○ (기부활동) 지난 1년간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기부를 한 사람은 응답자의 12.7%로 저조한 편

Ⅶ. 시사점

○ 중·고령자의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경제적 부담이 낮은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필요

- 중·고령자의 여가는 TV시청, 산책 등 혼자 하는 활동에 치중. 특히 여가활동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고, 중·고령자의 일부(6.2%)는 여가의 목적이 있기 보다는 남는 시간이 많아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낮은 생산적 여가활동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 특히 타인과 어울려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늘린다면 무위에 대한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폭도 넓어질 것임
- 특히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가 가족이나 이웃이 주된 경로이나, 그 이외 대중매체 이용자와 주민센터 등의 이용자의 특

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홍보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채널이 고려될 필요

○ 노후시기 배우자나 자녀에 편중된 관계보다 넓은 사회관계망 필요

- 노후시기 배우자의 사별이나 자녀의 독립 등 관계와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 특히 고령자,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 소득 1분위의 경우 자녀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가족관계의 관리가 중요
- 노후시기의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부부 간, 부모-자녀 간 대인관계 관리법 등에 대한 공단의 노후설계교육 및 강좌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 및 수급자 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무배우자, 노인단독 가구, 저소득층의 약 10%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시기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망을 넓힐 필요

○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규칙적 운동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나 동호회 등의 모임 활성화 필요

- 규칙적 운동을 위한 지역사회나 동호회 등의 모임 활성화를 통해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여가,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것
- 만성질환 등 발견 시 대부분 적극적 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관리 및 조기치료 필요

○ 취약계층의 비재무적 노후생활실태가 열악하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 필요

-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고연령, 저학력,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의 여가, 대인관계, 건강과 같은 노후생활 실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 필요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의 결과는 6차 부가조사 원자료에 통합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수치임.
2. 자료이용자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는 보고서 작성 이후 최종 수정된 자료이므로, 보고서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조사항목 및 측정의 기준이 타 조사의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단순한 비교는 금함.
4. 가급적 6차 부가조사의 모든 조사항목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분석결과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Ⅰ. 서 론

고령화로 인한 기대여명의 상승으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는 2015년 6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12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노후준비지원법에서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노후준비를 국가와 지자체, 공단이 지원토록 함으로써 노후준비를 통해 노년기를 '피하고 싶은 노년'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노년'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노후준비를 통해 개인의 재무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와 사회복지비용과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형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2017).

성공적인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후준비는 노후소득 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적절히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노후준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부터 노후시기에 이르기까지 노후준비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후준비는 노후시기에 가장 중요한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에 대처하기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후준비가 노후를 앞둔 세대에게 해당된다면, 이미 노후에 들어선 이들의 4대 영역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노후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고령자의 경우 노후준비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노후를 맞이했으므로, 이들의 영역별 생활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노후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 이들의 노후 삶의 질 하락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2005년부터 전국의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노후시기에 들어선 중고령자들의 노후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는 2005년부터 격년으로 홀수년도에 본조사를 실시하며, 짝수년도에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의 내용이 중·고령자의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노후시기 중·고령자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에 적합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노후에 중요한 4대 영역을 토대로 할 때, 본조사에서는 재무적 영역의 실태가 심층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비재무적 영역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측정내용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6차 부가조사에서는 새로운 이슈나 주제를 선정하여 조사[1]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재무적 영역의 노후생활 실태를 밀도있게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노후에는 재무적 영역과 비재무적 영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노후보장패널 본조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재무영역을 제외한 여가, 대인관계, 건강 영역을 포괄하는 비재무적 영역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표를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본조사와 부가조사를 통해 노후에

---

1) 기존 부가조사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 1차 부가조사(2006년) '50대 가구주 가구의 가계지출 및 소득 현황'
- 2차 부가조사(2008년) '중·고령자의 만 15세 이후 일자리 변동이력과 공적연금 가입·수급 이력'
- 3차 부가조사(2010년)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
- 4차 부가조사(2012년)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 5차 부가조사(2014년)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중요한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실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조사 간 비재무영역의 실태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노후소득보장 측면뿐만 아니라 중·고령자의 재무적·비재무적 노후준비 및 실태 변화를 종·횡단면적으로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자리매김하였다.

6차 부가조사의 비재무적 영역의 노후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 개발을 위해 조사 직전년도부터 약 4개월간 내·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단 노후설계 실무 담당자의 논의를 거쳤으며, 조사 전문회사와 예비조사 및 측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표 및 조사지침이 수정·보완되었다. 최종으로는 통계청의 검토를 거쳐 조사내용이 확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6년에 실시한 6차 부가조사의 조사항목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기초분석보고서로, 조사한 모든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2].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 6차 부가조사의 개요에서 6차 부가조사의 조사내용과 실사과정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Ⅲ장부터 Ⅴ장에 걸쳐 각 장별로 비재무영역의 노후생활 실태인 여가(Ⅲ장), 대인관계(Ⅳ장), 건강(Ⅴ)에 대해 살펴보았다[3]. 그리고 Ⅵ장에서는 이 외에 6차 부가조사에서 측정한 기부 및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Ⅶ장에서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6차 부가조사의 기초분석보고서라는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 6차 부가조사의 비재무적 영역의 측정문항별 기술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분석보고서이므로 가급적 6차 부가조사의 모든 조사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장의 성격에 따라 응답

2) 분석결과 중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3) Ⅴ장 건강 및 생활 부분은 국민노후보장패널 본조사에서 조사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조사항목을 구성하였으므로 타부분에 비해 적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모든 분석은 6차 부가조사에 통합표본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조사의 재무영역을 포함한 노후생활 4대 영역을 모두 포함한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별도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6차 본조사와 연결한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6차 부가조사의 일부만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6차 부가조사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기초분석보고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6차 본조사와 연결한 재무적·비재무적 영역의 종합적 분석은 자료 이용자들의 분석 영역으로 남기며, 본 보고서의 내용이 6차 부가조사 자료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노후준비 지원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Ⅱ.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 개요

이 장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이하 KReIS) 6차 부가조사(2016년)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KReIS 6차 부가조사(2016년)에서 측정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어떠한지, 부가조사(2016년)에 조사 성공한 가구의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조사내용

2016년 6차 부가조사에서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노후준비 4대 영역 중 3대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노후준비의 4대 영역은 재무, 여가, 대인관계, 건강인데, 국민노후보장패널 본 조사에서 재무와 관련된 영역은 매우 상세히 조사하므로 본 부가조사에서는 재무를 제외한 비재무적 영역인 여가, 대인관계, 건강을 조사하였다. 조사표 구성을 위해 2015.12월부터 2016.3월까지 4개월 동안 6회에 걸친 내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다. 비재무적 노후준비 관련 내·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단의 노후설계 실무 전문가의 의견 수렴까지 반영함에 따라 조사결과를 학술 및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또한 조사 전문기관과의 논의 및 조사표 예비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문항 및 조사지침을 수정·보완하였으며, 2016년 4월 통계청의 부가조사 조사항목 및 결과표 변경에 대한 통계작성 변경승인이 내려짐에 따라 조사내용이 최종 확정되었다.

6차 부가조사에서 조사한 항목은 〈표 Ⅱ-1〉을 참고하기 바란다.

첫 번째 부분은 4대 영역 중 하나인 여가이다. 여가를 묻기 전, 주중 및 주말의 생활시간을 조사하였다. 잠, 식사 등 개인유지를 위해 필수적

으로 필요한 시간(기초시간), 일, 학습 등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간(활동시간), 기초, 활동시간이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후 본격적으로 여가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어떤 여가활동을 하는지(여가활동), 어디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지(장소), 한 달에 몇 번 여가활동을 하는지(빈도), 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동반자), 여가활동 1회 당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하는지(소요시간), 해당 여가활동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월평균 소요비용),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만족도)를 측정한다. 주중, 주말 모두 동일하게 조사한다. 이후 여가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와 여가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얻게 되는지 묻는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과 선호하지 않는 여가활동을 묻고,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후 여가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제약점이 무엇인지 1, 2순위로 조사하며,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해 변화를 주고 싶은지, 변화를 주고 싶다면 어느 항목(종류, 장소, 횟수, 동반자, 시간, 비용)에서 변화를 주고 싶은지 조사한다.

4대 노후준비영역 중 또 다른 영역 중 하나인 대인관계 영역이다. 현재 맺고 있는 대인관계와 관계만족도를 조사한다. 그 후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 있는지 조사하게 되며,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 5명을 조사하였다. 이후 가족관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는데, 배우자와의 갈등 유무와 갈등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동거여부를 고려하여 자녀와의 갈등 유무와 갈등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Cohen, S., & Syme, S. L.(1985)의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다음은 대인관계 영역과 함께 볼 수 있는 사회참여(단체참여), 자원봉사, 기부활동 부분이다. 단체참여는 지난 1년간 모임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 묻고, 참여종류 및 참여횟수를 조사한다. 모임 또는

단체활동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를 조사한 후, 가장 활동횟수가 많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묻는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은 후, 현재의 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지 묻는다. 변화를 주고 싶다면 어떤 항목(종류, 횟수, 시간)에서 변화를 주고 싶은지, 변화를 주고 싶지 않다면 향후 단체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다. 자원봉사와 기부 역시 단체활동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조사하였는데, 참여여부, 횟수, 시간(금액)을 묻고, 본 활동을 하게 된 가장 주된 동기를 조사하였다. 또한 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 경로를 확인하고, 현재 하고있는 활동에 대해 변화를 주고싶은지, 변화를 주고싶다면 어느 부분에서 원하는지 조사하였다. 이후 해당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부분은 노후준비 4대 영역 중 하나인 건강이다. 건강은 국민노후보장패널 본조사에서도 일부 측정하고 있어, 본조사에서 측정하지 않는 부분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우선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 후 질환이 있는지, 질환이 있다면 현재 치료하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미 발생한 질환 외에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하는 행동들을 조사하였는데, 아침식사하기, 적정수면 유지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후 현재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추가적으로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개인이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 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를 개인 및 부부기준으로 응답받았다.

〈표 Ⅱ-1〉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 조사항목

조사표	측정항목 및 측정내용		
여가	생활시간		· (주중, 주말) 생활시간
	여가활동		· (주중, 주말) 여가활동 종류, 장소, 빈도, 주요 동반자, 1회당 여가활동 소요시간, 월평균 여가활동 소요비용,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		· 주된 이유 1가지
	여가활동 정보 획득경로		· 주된 정보 획득경로 1가지
	선호/ 비선호 여가활동		· 선호, 비선호하는 여가활동
	여가활동 전반적 만족도		·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여가활동 제약점		· 1, 2순위까지 응답
	여가활동 변화희망여부		· 여가활동 변화 희망여부 · 변화를 주고싶은 항목 (종류, 장소, 횟수, 동반자, 시간, 비용, 기타)
대인관계	현재 대인관계		·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
	관계 만족도		·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만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아래 3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인원 수
	도움이 되는 사람		·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 5명
	가족과의 관계	배우자 유무	· 배우자 유무
		배우자와의 갈등	· 배우자와의 갈등유무 ·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자녀 유무	· (동거, 비동거) 자녀 유무
		자녀와의 갈등유무	· (동거, 비동거) 자녀와의 갈등유무 · (동거, 비동거) 자녀와의 갈등 정도
	사회적 지지		· 사회적지지 척도(18문항)
건강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		· 현재 본인이 자각하는 건강상태 · 5점 리커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질환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질환유무 · 질환 치료/ 약 복용 여부
	생활습관		· 아래 사항들 실천여부 (아침 식사하기,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생활 전반 만족도		·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 5점 리커트
	월평균 소득		· 지난 1년 기준 월평균 소득
	(최소, 적정) 월평균 생활비		· (개인/ 부부) 최소 월평균 생활비 · (개인/ 부부) 적정 월평균 생활비

조사표	측정항목 및 측정내용	
사회참여 – 단체참여	단체참여 활동	· 지난 1년동안 단체참여 활동여부, 활동종류, 활동횟수
	단체참여를 하는 주된 이유	· 단체참여를 하는 주된 이유
	단체참여 정보 획득경로	· 단체활동 정보 주 획득경로
	단체참여 전반적 만족도	· 단체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체참여활동 변화희망여부	· 단체참여활동 변화 희망여부 · 변화를 주고싶은 항목 (종류, 횟수, 시간, 기타)
	향후 단체활동 참여의향	· (미참여자, 참여자 중 변화를 희망하는 자) 향후 단체활동 참여의향
사회참여 – 자원봉사	자원봉사 활동	·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 경험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 전문적 봉사여부
	자원봉사를 하는 주된 이유	· 자원봉사를 하는 주된 이유
	자원봉사 정보 획득경로	· 자원봉사 단체, 방법 등 정보 획득경로
	자원봉사활동 변화희망여부	· 자원봉사활동 변화 희망여부 · 변화를 주고싶은 항목 (종류, 횟수, 시간, 전문적 봉사활동)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	· (미참여자, 참여자 중 변화를 희망하는 자)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
사회참여 – 기부활동	기부활동	· 지난 1년동안 기부활동 여부,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의 주된 동기	· 기부의 주된 동기
	기부 정보 획득경로	· 기부처 또는 기부대상을 알게 된 경로
	기부활동 변화희망여부	· 기부활동 변화 희망여부 · 변화를 주고싶은 항목 (종류, 횟수, 금액, 기부처)
	향후 기부 의사	· (미참여자, 참여자 중 변화를 희망하는 자) 향후 기부 의사

2. 조사방법

KReIS 6차 부가조사(2016년) 자료수집은 전문조사업체인 입소스주식회사에서 위탁하여 진행하였으며,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기존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방문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면접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KReIS는 타 조사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데, 본 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자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고령자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어 특정항목에 대해 응답을 기피하거나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기입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원들의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면접원은 조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령하고, 조사지점 및 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기초정보를 확인하였다. 기초정보를 확인 후, 조사지점의 주민센터나 마을 이장, 아파트 조사구는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협조를 얻어 조사안내 포스터 부착 및 조사진행 시 협조를 얻었다. 조사가 시작되면 면접원은 신분증과 조사준비물, 조사표 등을 가지고 직접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재방문하였으며, 방문현황을 기록하였다. 가구 내 조사대상자의 조사를 완료하면, 조사표를 최종으로 확인하여 취합하고, 각 가구에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향후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민노후보장패널 전용 수신자 부담 전화 또는 공단으로 연락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KReIS 6차 부가조사(2016년)의 실사는 다음의 원칙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패널로 구축된 가구와 그 가구의 50세 이상인 자와 그의 배우자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가구의 이사 또는 원표본 개인 조사대상자의 이동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개인조사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이 이사 또는 분가할 경우, 추적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개인조사대상자가 남아있지 않은 원가구의 경우, 미성년자만 남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구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가구원이 한 명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인조사대상자의 분가,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가구 및 개인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원가구 소멸로 간주하고 조사하지 않았다(〈표 Ⅱ-2〉 참고).

패널조사는 면접원 사전 교육 및 지침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내용 관련 사항 및 조사지역 상황 변화 등에 대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KReIS는 가구방문조사라 주로 저녁 시간대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상황을 즉각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전화를 개설하여 면접원-조사회사-국민연금연구원이 유기적으로 상황에 대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Ⅱ-2〉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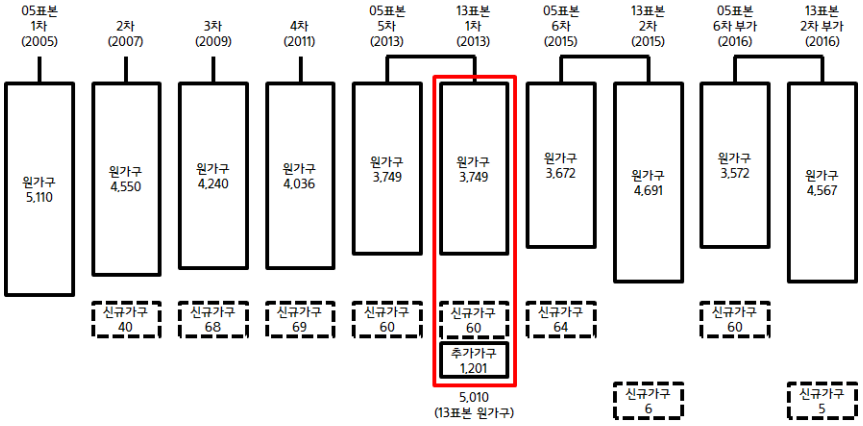
실사상황		적용 원칙
가구	-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의 분가 혹은 이혼	- 추적하여 조사
	- 원표본 추적대상자가 모두 분가하고 원가구에는 50세 미만의 가구원만 남음	- 원가구는 가구용조사만 진행 -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있는 곳은 추적하여 조사
	-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모두 분가하고 원가구에는 미성년자 가구원(만 18세 미만)만 남음	- 원가구 소멸, 조사하지 않음
	- 가구원이 한 명인 단독가구의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의 거주지 변경	- 거주지 추적하여 조사진행
	- 기존 조사에서 분가로 파악되었던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다른 집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 - 기존 가구에는 개인조사대상자가 없음	- 기존 분가가구 소멸 새로 분가한 가구를 추적하여 가구와 개인조사 진행
	- 기존 조사에서 분가로 파악되었던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다른 집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 - 기존 가구에는 또 다른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있음	- 기존 가구와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분가한 가구 모두 조사 진행
개인	- 지난 조사 당시에는 떨어져 살던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금번 조사 당시 패널가구에 합가	- 배우자와 함께 개인조사 진행
	- 지난 조사에는 개인조사대상이 아니었으나, 금번 조사 당시 만 50세 이상이 된 경우	- 배우자와 함께 개인조사 진행
	- 배우자가 금번 조사에서 만 50세 이상이 되어 새롭게 개인조사자가 된 경우	- 개인조사 진행
	- 전입하여 들어온 가구원으로서, 만 5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와 함께 개인조사 진행
조사 불가	- 가구원이 한 명인 단독가구의 가구주 사망, 해외 이주, 장기수용시설 입소	- 원가구 소멸, 조사하지 않음

3. 조사결과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2005년 구축한 표본의 대표성 유지를 위해 2013년 50대 표본을 추가한 13패널을 구축하였다([그림 Ⅱ-1] 참고). 현재 국민노후보장패널 실사는 05패널과 13패널 모두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05패널 기준으로 볼 때 6차 부가조사이며, 13패널 기준으로는 2차 부가조사이다.

[그림 Ⅱ-1] 국민노후보장패널 표본개요

(단위: 해당년도 조사성공가구 수)



주: 05표본 원가구 중 2013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원가구가 2015년도 본조사에 조사된다면, 05표본에는 해당하지만 13표본의 원가구에는 속하지 않았으므로, 13표본에는 해당하지 않음. 13표본은 2013년에 조사성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조사 하는 패널임

KReIS에서는 원표본유지율과 유효성공률 2가지를 제공하는데, 원표본유지율은 패널을 구축한 최초년도의 가구수 대비 몇 가구를 성공하였는지 산출하는 것이고, 유효성공률은 사망, 이민 등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는 가구를 제외한 유효가구 대비 조사성공가구를 계산하는 것이다.

13표본 기준 총 4,572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원표본가구는 4,567가구를 조사성공하였으며, 91.2%의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냈다. 신규가구는 원표본가구의 원표본개인이 이혼, 분가 등의 사유로 새롭게 발생한 가구인데, 6차 부가조사(2016년)에서는 5가구가 조사성공되었다. 유효성공률은 사망, 이민 등으로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는 부적격가구를 제외한 유효원가구 대비 조사성공률을 나타낸 것인데, 유효 원표본가구 4,901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유효성공률은 93.2%로 나타났다(〈표 Ⅱ-3〉).

이번 조사는 13표본의 2차년도 부가조사인데, 통상 2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며 표본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6차 부가조사(2016년)는 본조사와 부가조사를 모두 포함하여 13표본의 4번째 조사로, KReIS의 13표본은 2015년 2차 본조사에서 93.6%의 높은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냈고, 2016년 2차 부가조사에서 91.2%의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내 2.4%p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2017년도 본조사의 원표본유지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좋지만, 패널관리 및 유지의 성격이 강한 부가조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13표본도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4].

4) 13표본의 개인 응답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개인, %)

구분	원개인	조사 완료	원개인	신규개인	원표본 유지율 (%)	유효 원개인	유효 성공률 (%)
1차 본조사(2013)	8,411	8,411	8,411	0	100.0	8,411	100.0
1차 부가조사(2014)	8,411	7,944	7,888	56	93.8	8,308	95.6
2차 본조사(2015)	8,411	7,800	7,688	112	91.4	8,173	94.1
2차 부가조사(2016)	8,411	7,553	7,407	146	88.1	7,971	92.9

주: 1) 유효원표본개인은 원표본개인이 사망, 이민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한 개인 수를 의미함
2) 유효성공률은 유효 원표본개인 대비 조사성공한 원표본개인의 비율임
3) 신규개인은 2013년 원개인 구축 이후 가구원 전입·가구원 연령 증가 등의 사유로 새롭게 조사대상이 된 사람(50세 이상 개인 및 그의 배우자)을 의미함.

〈표 Ⅱ-3〉 13표본의 가구 응답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원표본 가구	조사 완료	원표본	신규 (분가)	원표본 유지율 (%)	유효 원표본 가구	유효 성공률 (%)
1차 본조사 (2013)	5,010	5,010	5,010	0	100.0	5,010	100.0
1차 부가조사 (2014)	5,010	4,777	4,774	3	95.3	4,994	95.7
2차 본조사 (2015)	5,010	4,697	4,691	6	93.6	4,942	94.9
2차 부가조사 (2016)	5,010	4,572	4,567	5	91.2	4,901	93.2

주 : 1) 유효원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에서 가구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함
2) 유효성공률은 유효 원표본가구 대비 조사성공한 원표본 가구의 비율임
3) 13표본의 신규가구는 13표본의 원표본이 출가 등의 사유로 분가했을 때 발생

〈표 Ⅱ-4〉는 13표본의 지역별 가구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2013년도에 최초 구축된 13표본의 원가구 5,010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번 부가조사(2016년)에서는 원표본유지율이 91.2%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원표본유지율이 가장 높았으며(96.9%), 제주(81.8%) 지역의 원표본유지율이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90.0% 내외의 원표본 유지율을 보였으나. 서울, 인천, 경기 등 상대적으로 유지율이 낮았으며, 전년도와는 달리 강원지역의 원표본유지율이 다소 떨어진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표본가구 유지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Ⅱ-2]).

〈표 II-4〉 1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통합 2차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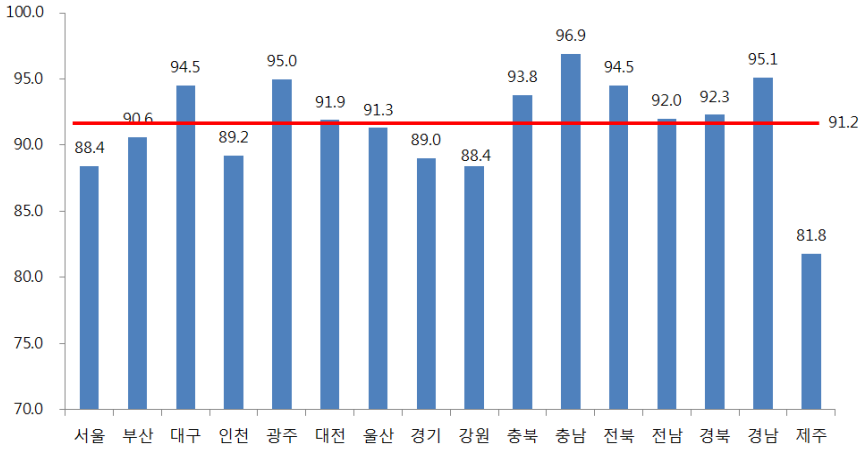
(단위: 가구, %)

지역	1차년도 원표본가구 수	2차 부가조사 조사성공 가구 수	각 지역 별 원표본유지율
서울	858	758	88.4
부산	363	329	90.6
대구	220	208	94.5
인천	241	215	89.2
광주	179	170	95.0
대전	161	148	91.9
울산	145	132	91.3
경기	984	876	89.0
강원	181	160	88.4
충북	176	165	93.8
충남	254	246	96.9
전북	219	207	94.5
전남	226	208	92.0
경북	351	324	92.3
경남	386	367	95.1
제주	66	54	81.8
전체	5,010	4,567	91.2

주: 지역구분은 최초 패널이 구축될 2013년도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구분함.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수 / 통합1차 원표본가구수) * 100

[그림 Ⅱ-2] 1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통합 2차 부가조사)

(단위: %)



이번 부가조사에서 13표본 원표본가구 중 438가구는 조사실패하였다. 조사실패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조사를 거절하거나 3회 이상 부재하여 조사를 성공하지 못한 200가구(무응답), 주소 등 추적불가로 인해 조사를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한 134가구(미상)와 사망, 장기수용시설 입소, 이민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109가구(부적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조사에 대한 반감이 있어 조사를 강력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연락처 또는 거주지가 변경되어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향후 패널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조사성공가구 및 개인의 특성

다음은 13표본 조사성공가구의 가구특성과 가구주 특성 및 조사성공가구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특성은 조사성공가구의 거주지역, 가구원 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부가조사에 조사성공한 13표본의 지역별 비중은 아래 〈표 Ⅱ-5〉와 같다.

〈표 Ⅱ-5〉 13표본의 조사성공가구의 거주지역

거주지역	서울	광역시	도	전체
가구 수	735	1,198	2,639	4,572
비율(%)	16.1	26.2	57.7	100.0

〈표 Ⅱ-6〉은 13표본 중 이번 부가조사에 성공한 가구의 가구원 수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이 2명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인가구의 비중이 26.9%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6〉 13표본의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원 수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평균	전체
가구 수	1,231	1,787	721	563	184	86	2.3	4,572
비율(%)	26.9	39.1	15.8	12.3	4.0	1.9		100.0

다음 〈표 Ⅱ-7〉은 13표본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주는 여성(33.2%)보다는 남성(66.8%)이 더 많았으며, 가구주의 62.0%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6.8세였으나, 70대 가구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30.8%) 50대, 60대, 80세 이상, 50세 미만의 순으로 연령대가 나타났다[5]. 가구주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의 95.7%가 개인조사대상자였다. 13표본에서 발생한 신규가구가 적어, 13

5) 통상적으로 가구주는 그 가계의 경제를 책임지며, 경제상황을 잘 아는 자로 정의하나, 고령가구일수록 가구주가 세대주 또는 호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표본 전체를 분석한 경향과 13표본 원가구를 분석한 특성은 전체적인 경향성이 동일하며, 13표본 신규가구의 가구주는 여성이 더 많고,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68.4세인데 원표본가구의 가구주보다 가구주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0%가 개인조사 대상자였다.

〈표 Ⅱ-7〉 13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주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13 원가구		13 신규가구 (13 분가가구)	
성별	남성	3,053	66.8	3,052	66.8	1	20.0
	여성	1,519	33.2	1,515	33.2	4	80.0
배우자유무	있음	2,834	62.0	2,834	62.1	0	0.0
	없음	1,738	38.0	1,733	37.9	5	100.0
연령대	50세 미만	202	4.4	201	4.4	1	20.0
	50대	1,260	27.6	1,259	27.6	1	20.0
	60대	1,102	24.1	1,102	24.1	0	0.0
	70대	1,406	30.8	1,405	30.8	1	20.0
	80세 이상	602	13.2	600	13.1	2	40.0
	평균연령(세)	66.8세		66.8세		68.4세	
최종 학력	무학	660	14.4	659	14.4	1	20.0
	초졸	1,090	23.8	1,088	23.8	2	40.0
	중졸	703	15.4	703	15.4	0	0.0
	고졸	1,413	30.9	1,411	30.9	2	40.0
	대학 재학 이상	704	15.4	704	15.4	0	0.0
	무응답	2	0.0	2	0.0	-	-
취업여부	취업	2,614	57.2	2,611	57.2	3	60.0
	비취업	1,957	42.8	1,955	42.8	2	40.0
	응답거절	1	0.0	1	0.0	-	-
가구주 개인조사 대상여부	대상	4,375	95.7	4,371	95.7	4	80.0
	비대상	197	4.3	196	4.3	1	20.0
전 체		4,572	100.0	4,567	100.0	5	100.0

KReIS의 개인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가구의 만50세 이상인 가구원과 그의 배우자이다. 조사성공개인은 13표본의 원가구와 그 원가구에서 분가한 신규가구에 속한 개인 중 이번 조사에 성공한 자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7,553명의 개인을 조사성공하였다. 조사에 성공한 개인 중 원표본 개인은 7,407명이며, 신규개인은 146명이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Ⅱ-8〉과 같다.

전체적으로 여성(58.5%)이 비율이 남성(41.5%)보다 높았다. 개인조사성공자의 평균연령은 66.4세로 나타났으나, 50대가 가장 많았고(30.2%), 70대(28.6%), 60대(26.2%), 80세 이상(12.2%), 50세 미만(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성공자는 고등학교 졸업(30.3%)의 학력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26.2%), 중학교 졸업(17.0%), 무학(14.2%), 대학 재학 이상(12.2%)의 학력을 보였다. 가구주(57.8%)가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의 배우자(35.5%), 가구주 및 가구주배우자의 부모(5.7%)도 개인조사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조사성공자의 48.0%는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표본개인 조사성공자는 개인조사성공자 전체 특성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신규개인 조사성공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사성공자 중 남성(55.5%)의 비율이 여성(44.5%)보다 높았고, 평균연령도 52.3세로 나타났다. 50대(63.7%)가 가장 많았고 50세 미만(25.3%)도 많았는데, 신규개인은 연령증가 및 배우자의 연령증가로 조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이러한 연령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가구주(43.8%)였으며 가구주의 배우자(32.2%)도 많았으나, 그 외(가구주의 자녀 등, 20.5%)인 자도 많았다. 조사성공자의 취업여부에서도 13표본의 원개인과 차이가 나는데, 69.9%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 13표본 조사성공한 개인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13 원개인		13 신규개인	
성별	남성	3,133	41.5	3,052	41.2	81	55.5
	여성	4,420	58.5	4,355	58.8	65	44.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533	73.3	5,428	73.3	105	71.9
	배우자 없음	2,020	26.7	1,979	26.7	41	28.1
연령대	50세 미만	209	2.8	172	2.3	37	25.3
	50대	2,278	30.2	2,185	29.5	93	63.7
	60대	1,982	26.2	1,974	26.7	8	5.5
	70대	2,161	28.6	2,155	29.1	5	4.1
	80세 이상	923	12.2	921	12.4	2	1.4
	평균연령	66.4세		66.7세		52.3세	
최종 학력	무학	1,074	14.2	1,069	14.4	5	3.4
	초졸	1,982	26.2	1,969	26.6	13	8.9
	중졸	1,283	17.0	1,272	17.2	11	7.5
	고졸	2,291	30.3	2,211	29.9	80	54.8
	대학 재학 이상	920	12.2	883	11.9	37	25.3
	무응답	3	0.0	3	0.0	0	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본인)	4,366	57.8	4,302	58.1	64	43.8
	배우자	2,683	35.5	2,636	35.6	47	32.2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427	5.7	422	5.7	5	3.4
	그 외	77	1.0	47	0.6	30	20.5
취업 여부	취업자	3,622	48.0	3,520	47.5	102	69.9
	비취업자	3,931	52.0	3,887	52.5	44	30.1
전 체		7,553	100.0	7,407	100.0	146	100.0

Ⅲ. 여가

여가는 재무, 건강, 대인관계와 더불어 노후준비 4대 영역 중 하나로 운동, 문화예술 활동, 사회참여, 여행 등 취미활동을 통해 활기찬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고령기 심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에서는 중·고령자들의 전반적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제약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조사하는 것은 응답부담 및 측정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의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 5순위까지 여가활동의 종류와 주요 장소 및 동반자, 빈도,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비용에 대해 응답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중과 주말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토대로 종류, 장소, 동반자 등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어 여가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와 정보를 얻게 된 주요 경로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여가활동과 선호하지 않는 여가활동에 대해 알아본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점 및 현재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에 대해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활시간

중·고령자의 여가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중·고령자가 하루 중 여가시간을 얼마나 갖는지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하루 24시간을 기초시간, 활동시간, 여가시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기초시간은 잠, 식사 등 개인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

요한 시간으로 수면, 식사 및 간식 먹는 시간, 그리고 병원 내원 등 개인건강관리 시간 등을 포함한다. 활동시간은 일, 학습 등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일을 하는 시간으로 일, 가사일 등의 가정관리 시간, 가족 및 가구원 돌봄 시간, 이동시간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의 경우 기초, 활동시간을 제외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으로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타의 여가활동 등을 하는 시간으로 본다[6].

〈표 Ⅲ-1〉은 중·고령자의 하루 생활시간 구성을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기초시간은 주중과 주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중에 비해 주말 활동시간은 1.4시간 적고, 여가시간은 1.1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주중 활동시간이 8.2시간으로 여성의 7.4시간에 비해 0.8시간 더 많고, 여가시간은 0.6시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에는 근소한 차이지만 남성의 활동시간이 여성의 그것에 비해 0.2시간 적고, 여가시간은 0.2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중 활동시간은 줄고, 기초시간과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말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50대, 60대의 경우 주중 활동시간과 주말 활동시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만, 이미 은퇴한 70대와 80세 이상의 경우 주중과 주말 간 활동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 차이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주중 활동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무학 6.3시간, 대학 재학 이상 8.4시간),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무학 7.6시간, 대학 재학 이상 6.0시간), 고졸과 대학 재학 이상 간 주중 생활시간 구성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본 연구의 생활시간 및 여가시간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식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참고하였다.

또한 주말에는 학력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와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비취업자인 경우 주중과 주말의 여가시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주중 생활시간 구성의 경우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주말에는 서울 거주자의 여가시간이 7.7시간, 도 거주자의 여가시간이 7.4시간, 광역시 거주자의 여가시간이 7.2시간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가구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노인단독 가구의 여가시간이 주중 7.1시간, 주말 7.6시간으로 타 가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별 차이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중·고령자일수록 주중 여가시간은 더 적었으나, 주중 여가시간에 비해 주말 여가시간의 증가폭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크게 나타나 주말 여가시간은 소득 수준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1〉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구성

(단위: 시간)

구분		주중			주말		
		기초	활동	여가	기초	활동	여가
성별	남	9.8	8.2	6.0	10.2	6.3	7.5
	여	10.0	7.4	6.6	10.2	6.5	7.3
연령대	50대	9.6	9.0	5.5	10.1	6.6	7.2
	60대	9.9	7.8	6.3	10.1	6.5	7.3
	70대	10.1	6.6	7.3	10.3	6.1	7.7
	80세 이상	10.6	5.7	7.7	10.6	5.5	7.9
학력	무학	10.1	6.3	7.6	10.2	5.9	7.8
	초졸	10.1	7.3	6.7	10.3	6.4	7.3
	중졸	10.0	7.8	6.2	10.3	6.4	7.3
	고졸	9.7	8.4	5.9	10.2	6.5	7.3
	대학 재학 이상	9.6	8.4	6.0	10.1	6.2	7.7
배우자유무	있음	9.8	8.0	6.1	10.2	6.5	7.3
	없음	10.1	6.9	7.0	10.3	6.1	7.7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5	9.2	5.3	10.1	6.8	7.1
	비취업자	10.3	6.2	7.6	10.4	5.9	7.7
거주지역	서울	10.1	7.7	6.2	10.5	5.8	7.7
	광역시	9.8	7.9	6.3	10.1	6.7	7.2
	도	9.9	7.7	6.4	10.2	6.4	7.4
가구구성	노인단독	10.1	6.8	7.1	10.2	6.1	7.6
	노인부부	9.9	7.6	6.5	10.2	6.5	7.3
	그 외	9.8	8.1	6.0	10.3	6.3	7.4
가구소득분위	1분위	10.2	6.3	7.5	10.3	5.9	7.8
	2분위	10.0	7.3	6.7	10.2	6.6	7.3
	3분위	9.8	7.9	6.2	10.1	6.7	7.1
	4분위	9.7	8.3	6.0	10.2	6.4	7.3
	5분위	9.8	8.5	5.7	10.3	6.1	7.6
전 체		9.9	7.8	6.3	10.2	6.4	7.4

2.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에서는 중·고령자의 주요 여가활동을 주중과 주말에 대해 각각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부록 1]의 조사표 참고). 주요 여가활동의 순위는 해당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즉 빈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빈도가 같을 경우에는 1회당 소요 시간이 더 큰 여가활동을 선순위에 두었다. 여가활동의 종류와 해당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조사 시에 응답자가 응답하는 내용을 조사원이 텍스트로 기입한 후 사후에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여가활동 종류 및 여가활동 장소의 구분은 〈표 Ⅲ-2〉와 〈표 Ⅲ-3〉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주중과 주말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5순위까지에 대하여 각각 여가활동 종류, 장소, 여가활동 빈도, 주요동반자, 1회당 소요시간, 월평균 소요비용,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주중과 주말에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1순위에 대해 종류, 장소, 빈도, 동반자, 만족도의 응답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응답자 특성별 분석은 배제하였으며[7], 나머지 2~5순위의 여가활동 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7) 각 순위별 여가활동 종류, 장소, 빈도, 주요 동반자, 소요시간, 소요비용, 만족도 개별항목별 응답자 인적사항별 정보 제공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표 Ⅲ-2〉 여가활동 종류 구분

구분	세부 구분	구분	세부 구분
문화 예술 활동	공연, 전시 직접관람(디너쇼, 연극, 콘서트, 마술쇼 등)	취미,오락 활동	수집활동(스크랩, 수석수집 등)
	영화보기		생활공예(십자수, 뜨개질, 꽃꽂이, 수예, 가구만들기 등)
	미술활동, 악기연주, 춤/무용, 사진촬영 등		요리하기, 다도
	기타(문화예술활동)		텃밭 가꾸기, 애완동물 돌보기, 화초(분재), 정원손질 등
스포츠 관련 활동	운동경기 직/간접 관람(경기장 방문, TV 또는 DMB, 인터넷으로 보기 등)		인테리어 하기(집, 자동차 등)
	게이트볼, 농구, 야구, 축구, 족구		등산
	당구, 포켓볼, 볼링, 탁구		낚시
	골프		인터넷 검색/채팅/SNS하기
	수영, 아쿠아로빅		게임(컴퓨터, 핸드폰)
	스키, 스노우보드, 스케이트		바둑, 장기, 체스
	헬스,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외식(일상적 외식 제외), 쇼핑(인터넷, 홈쇼핑 포함)
	배드민턴, 줄넘기, 맨손스트레칭, 훌라후프		독서
	자전거		미용(피부관리, 마사지, 네일아트 등)
	달리기(마라톤 등), 빠르게 걷기 등 유산소		자기개발을 위한 공부, 학원 등 이용
	기타(스포츠관련활동)		노래교실, 노래배우기, 합창단 연습, 노래방 등
관광 활동	국내여행		기타(취미오락활동)
	해외여행	사회활동	사회봉사활동
	기타(관광활동)		종교활동
휴식 활동	동네나 집 근처 산책하기		가족 및 친지 방문
	목욕, 사우나, 찜질방		잡담, 통화하기, 문자보내기
	낮잠		
	TV 시청, 라디오 듣기, 비디오 보기, 음악감상		친목단체 활동(계모임, 동창회, 노인정 등)
	신문, 잡지 보기		친목 단체 외 사회단체 활동(종친회, 동호회, 봉사단체 등)
	안마기 등 건강의료기		
	기타(휴식활동)		기타(사회활동)

〈표 Ⅲ-3〉 여가활동 장소 구분

구분	세부 구분	
집	집	나의 집, 타인의 집 등
실내	문화공간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센터,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서점 등
	복지 및 교육공간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학교시설, 학원 등
	오락공간	노래방, PC방, 오락장, 찜질방, 목욕탕(사우나, 온천 등), 미용관리실(피부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미용실 등) 등
	외식 및 쇼핑공간	식당, 대형마트, 커피숍, 쇼핑몰, 백화점 등
	체육공간	국민체육센터(주민체육센터, 올림픽 체육센터 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복합체육관, 헬스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포함), 수영장 등
	종교시설	교회, 절, 성당 등
	기타	실내장소 중 위 예시에 포함되지 않는 장소
실외	관광, 체험 및 오락공간	유원지, 놀이동산, 고궁,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해수욕장, 삼림욕장, 산, 강, 바다, 낚시터 등
	외식 및 쇼핑공간	재래시장, 5일장 등
	체육공간	운동경기장(축구, 야구, 게이트볼 등), 학교 운동장, 리조트, 스키장, 골프장 등
	공원 및 공터	근린공원(산책로 등), 소공원, 어린이 공원(놀이터 등), 하천변 공원(한강공원, 양재천변 등), 집 주변 공터 등
	기타	실외장소 중 위 예시에 포함되지 않는 장소

〈표 Ⅲ-4〉는 주중과 주말에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한 여가활동에 대한 종류와 장소, 여가활동의 빈도, 주요 동반자, 1회당 소요시간, 월평균 소요비용,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가활동 종류와 장소의 경우 응답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응답 비중이 높은 순으로 5가지 종류와 장소를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먼저 중·고령자가 주중에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한 여가활동은 TV시청, 라디오 듣기, 비디오 보기, 음악감상 등의 'TV시청 등'으로 75.4%로 나타났으며, 주말의 경우에도 'TV시청 등'의 응답비율이 68.3%로 나타나, 'TV시청 등'의 활동이 주중과 주말에 모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집'으로, 주중에는 81.8%, 주말은 73.2%였다.

여가활동의 빈도는 주중의 경우 '매일'한다는 응답이 81.9%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에는 '월7~8회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1%였다.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주요 동반자의 경우 '혼자'라는 응답이 주중(50.2%)과 주말(40.5%)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배우자와 함께'의 비중이 주중 29.6%, 주말 33.6%로 나타나, 주로 주말에는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소요시간은 주중에는 3.07시간, 주말에는 3.97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은 주중 약 1.0만원, 주말 1.4만원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이 주로 'TV시청 등'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주중과 주말 모두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

구분	주중		주말	
	항목	%	항목	%
종류	TV시청 등	(75.4)	TV시청 등	(68.3)
	산책하기	(4.6)	종교활동	(8.3)
	헬스 등	(2.2)	등산하기	(3.9)
	잡담하기 등	(2.1)	산책하기	(3.0)
	텃밭가꾸기 등	(1.6)	국내여행	(1.8)
장소	집	(81.8)	집	(73.2)
	공원및공터	(5.9)	종교시설	(8.3)
	복지시설 등	(3.9)	관광지 등	(6.6)
	체육공간	(3.0)	공원및공터	(4.1)
	관광지 등	(1.9)	식당 등	(2.5)
빈도	매일	(81.9)	월7~8회이상	(68.1)
	주5~6회	(7.6)	월3~4회	(10.4)
	주3~4회	(5.4)	월5~6회	(9.2)
	주1~2회	(3.2)	월1~2회	(8.4)
	월1회이하	(0.8)	월1회미만	(2.3)
동반자	혼자서	(50.2)	혼자서	(40.5)
	배우자와 함께	(29.6)	배우자와 함께	(33.6)
	가족과 함께	(11.7)	가족과 함께	(15.1)
	친구, 이웃과 함께	(7.5)	친구, 이웃과 함께	(8.3)
	모임구성원과 함께	(1.0)	모임구성원과 함께	(2.3)
소요시간 (1회당 평균, 시간)	3.07		3.97	
소요비용 (월평균, 천원)	10.18		14.19	
만족도	약간 만족	(53.3)	약간 만족	(53.0)
	보통	(27.1)	보통	(24.8)
	매우 만족	(18.9)	매우 만족	(21.5)
	약간 불만족	(0.6)	약간 불만족	(0.6)
	매우 불만족	(0.0)	매우 불만족	(0.0)

3. 여가 활동 전반

다음으로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전반에 대해 여가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선호하는 여가활동과 선호하지 않는 여가활동, 여가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여가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제약점, 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변화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여가 활동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고령자가 여가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이에 따르면 '여가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32.9%)',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26.9%)',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23.3%)'가 여가 활동의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대별로는 '여가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의 경우 50대의 응답비율이 33.7%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응답비중이 낮아져 80세 이상의 경우 23.0%에 불과했다. 반면 '남는 시간이 많아서'의 경우 50대는 2.1% 응답에 불과하였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비중이 증가해 80세 이상의 경우 16.4%로 나타남에 따라 여가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 항목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그리고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남는 시간이 많아서'의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여가활동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여가 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주변(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의 권유에 의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남들이 하니까	남는 시간이 많아서	기타
성별	남	34.5	26.8	5.9	23.8	2.7	0.6	5.6	0.0
	여	31.5	27.0	7.6	22.9	3.5	0.7	6.6	0.1
연령대	50대	37.1	29.8	5.0	22.9	2.9	0.2	2.1	0.0
	60대	33.5	26.2	7.9	23.4	3.2	0.6	5.2	0.0
	70대	27.8	24.7	7.2	25.3	3.0	1.5	10.4	0.2
	80세 이상	23.0	24.1	9.5	22.3	3.6	1.1	16.4	0.0
학력	무학	22.7	25.4	11.2	23.1	2.8	1.6	13.0	0.2
	초졸	29.4	25.5	8.1	21.9	4.0	1.2	9.8	0.1
	중졸	33.0	27.0	5.6	25.7	2.8	0.3	5.6	0.0
	고졸	35.8	27.5	6.4	23.6	3.0	0.5	3.2	0.0
	대학 재학 이상	39.0	28.6	4.0	22.5	2.9	0.0	3.0	0.0
배우자 유무	있음	34.4	27.2	6.9	23.0	3.5	0.4	4.6	0.0
	없음	27.8	25.8	6.8	24.5	2.1	1.5	11.3	0.2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34.3	30.0	6.8	22.6	2.8	0.6	2.8	0.0
	비취업자	31.3	23.5	6.9	24.1	3.5	0.8	9.9	0.1
거주 지역	서울	38.2	26.4	2.3	24.1	3.2	0.2	5.5	0.2
	광역시	32.1	26.9	8.5	23.8	2.8	0.5	5.4	0.0
	도	31.4	27.1	7.7	22.9	3.3	0.9	6.7	0.0
가구 구성	노인단독	27.9	27.4	8.0	21.5	1.2	1.9	11.9	0.2
	노인부부	32.3	26.2	7.8	23.9	3.3	0.6	5.9	0.0
	그 외	34.8	27.3	5.7	23.5	3.6	0.4	4.7	0.0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26.9	25.0	7.0	21.1	3.3	1.9	14.6	0.3
	2분위	29.4	24.4	9.4	26.0	2.8	0.7	7.4	0.0
	3분위	30.1	26.9	7.8	26.7	2.5	0.6	5.3	0.0
	4분위	35.2	26.6	6.7	23.9	4.0	0.3	3.2	0.0
	5분위	40.2	30.1	4.4	19.3	3.1	0.2	2.8	0.0
전 체		32.9	26.9	6.8	23.3	3.1	0.7	6.2	0.1

나. 여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

다음으로 〈표 Ⅲ-6〉은 중·고령자가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를 보여준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이웃, 친구 등을 통해'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2.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라고 응답한 비율도 28.0%로 나타났다. 이외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직장을 통해'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1%, '여가활동 자체에 대한 안내문, 이메일, 우편물 등을 통해'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응답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의 경우 남성,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 취업자, 광역시 거주자에서 여가활동 정보 획득 경로로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성, 고연령자, 저학력자, 도지역 거주자, 노인단독 가구, 저소득가구의 경우 여가활동의 정보를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 등'에서 획득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6〉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	가족(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 등	여가활동 자체에 대한 안내문, 이메일, 우편물 등	기타
성별	남	30.7	61.3	6.9	1.2	0.0
	여	25.8	63.8	9.1	1.2	0.1
연령대	50대	29.6	64.6	4.5	1.2	0.0
	60대	28.7	62.5	7.7	1.0	0.1
	70대	25.9	60.4	12.0	1.6	0.1
	80세 이상	25.1	58.6	15.3	1.0	0.0
학력	무학	25.7	57.9	14.1	2.3	0.0
	초졸	27.2	60.1	11.4	1.1	0.1
	중졸	26.3	65.4	7.6	0.6	0.2
	고졸	28.7	64.5	5.7	1.1	0.0
	대학 재학 이상	31.4	62.8	4.4	1.3	0.1
배우자 유무	있음	27.4	64.6	6.9	1.1	0.1
	없음	30.1	56.2	11.9	1.6	0.1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28.7	63.6	6.5	1.3	0.0
	비취업자	27.3	61.6	9.9	1.1	0.2
거주지역	서울	26.7	68.7	3.9	0.4	0.3
	광역시	35.9	56.3	7.2	0.7	0.0
	도	24.9	63.4	9.9	1.7	0.1
가구구성	노인단독	30.6	52.9	14.6	1.7	0.2
	노인부부	26.6	63.7	8.7	1.0	0.0
	그 외	28.4	64.6	5.7	1.2	0.1
가구소득 분위	1분위	26.0	57.0	15.3	1.4	0.2
	2분위	29.4	57.8	11.3	1.2	0.2
	3분위	29.2	62.1	7.3	1.3	0.0
	4분위	28.9	64.8	5.1	1.2	0.0
	5분위	26.7	68.2	4.3	0.8	0.0
전 체		28.0	62.6	8.1	1.2	0.1

다. 선호/비선호 여가활동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에서는 중·고령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관계없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 무엇인지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여가활동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과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여가활동에 대해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텍스트로 기술하고 내용을 사후에 코드화하였다.

〈표 Ⅲ-7〉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여가활동에 대해 응답빈도가 가장 높은 여가활동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중·고령자가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여가활동은 '게임하기'였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 소득 5분위를 제외하고는 선호하는 여가활동이 모두 'TV 시청'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와 가구소득 5분위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 '등산하기'로 나타나 선호하는 여가 종류의 응답특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비선호하는 여가활동의 경우, 남성, 50~60대, 무학, 초등학교 졸업 학력 소지자, 유배우자, 취업자, 도 지역 거주자, 노인 부부 및 그 외 가구, 가구소득 3분위 이상의 경우 '게임하기'를 가장 비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 70대~80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 가구소득 2분위 이하의 경우 '등산하기'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학 재학 이상,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낚시하기'를 가장 비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7〉 가장 선호/비선호하는 여가활동

(단위: %)

구분		선호		비선호	
		여가종류	응답비중	여가종류	응답비중
성별	남	TV시청 등	19.6	게임하기	8.7
	여	TV시청 등	21.0	등산하기	9.6
연령대	50대	TV시청 등	14.7	게임하기	10.2
	60대	TV시청 등	19.0	게임하기	8.6
	70대	TV시청 등	26.0	등산하기	10.9
	80세 이상	TV시청 등	34.3	등산하기	16.0
학력	무학	TV시청 등	32.2	등산하기	14.6
	초졸	TV시청 등	26.6	등산하기	10.6
	중졸	TV시청 등	20.1	게임하기	8.0
	고졸	TV시청 등	16.7	게임하기	9.2
	대학 재학 이상	등산하기	12.4	낚시하기	11.3
배우자 유무	있음	TV시청 등	19.1	게임하기	9.0
	없음	TV시청 등	24.7	등산하기	11.7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TV시청 등	19.9	게임하기	10.0
	비취업자	TV시청 등	20.9	등산하기	9.6
거주 지역	서울	TV시청 등	13.9	낚시하기	8.8
	광역시	TV시청 등	19.1	낚시하기	8.7
	도	TV시청 등	23.2	게임하기	9.1
가구 구성	노인단독	TV시청 등	25.2	등산하기	13.6
	노인부부	TV시청 등	22.9	게임하기	9.6
	그 외	TV시청 등	17.0	게임하기	8.3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TV시청 등	27.6	등산하기	12.2
	2분위	TV시청 등	28.2	등산하기	9.1
	3분위	TV시청 등	22.5	게임하기	8.3
	4분위	TV시청 등	17.4	게임하기	8.4
	5분위	등산하기	11.3	게임하기	11.0
전 체		TV시청 등	20.4	게임하기	8.6

라.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Ⅲ-8〉은 중·고령자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받은 결과이다. 세부 응답분포를 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6%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39.1%, 불만족이 3.9%, 매우 만족이 1.8%, 매우 불만족이 0.6%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전체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 수준은 5점 만점에 3.53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편차 0.63).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 수준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배우자와, 취업자의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세부분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	3.55	0.63	0.6	3.6	38.1	55.7	2.1
	여	3.52	0.63	0.6	4.2	39.9	53.7	1.6
연령대	50대	3.62	0.58	0.3	2.1	35.4	60.1	2.1
	60대	3.55	0.62	0.2	4.2	37.8	56.0	1.8
	70대	3.42	0.69	1.4	5.5	43.8	47.7	1.5
	80세 이상	3.36	0.68	1.2	6.7	48.1	42.7	1.2
학력	무학	3.31	0.68	1.8	6.6	50.7	40.3	0.6
	초졸	3.43	0.66	0.7	5.5	45.8	46.4	1.7
	중졸	3.49	0.63	0.6	4.2	41.5	52.7	1.0
	고졸	3.61	0.59	0.2	2.8	34.7	60.2	2.1
	대학 재학 이상	3.72	0.57	0.3	1.5	27.3	67.3	3.6
배우자 유무	있음	3.58	0.61	0.5	2.9	36.6	57.9	2.1
	없음	3.37	0.67	0.9	7.3	47.2	43.5	1.1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59	0.59	0.3	2.5	37.5	57.7	2.0
	비취업자	3.47	0.67	0.9	5.5	40.8	51.1	1.7
거주 지역	서울	3.52	0.61	0.3	3.3	41.9	52.9	1.7
	광역시	3.54	0.67	0.8	5.4	34.8	57.0	2.0
	도	3.53	0.62	0.6	3.5	40.1	54.1	1.8
가구 구성	노인단독	3.35	0.69	1.1	7.9	46.7	43.1	1.1
	노인부부	3.57	0.63	0.6	3.7	35.7	58.1	1.9
	그 외	3.55	0.61	0.4	2.9	39.5	55.2	2.0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3.30	0.68	1.7	7.2	51.7	38.6	0.8
	2분위	3.52	0.63	0.3	4.9	38.9	54.2	1.7
	3분위	3.51	0.63	0.3	4.5	40.9	52.7	1.6
	4분위	3.59	0.60	0.6	2.1	37.2	58.0	2.2
	5분위	3.69	0.56	0.2	1.8	29.8	65.6	2.7
전 체		3.53	0.63	0.6	3.9	39.1	54.6	1.8

마. 여가활동의 제약점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에서는 중·고령자가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제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순위까지 응답 받았다. 개인의 여가활동의 제약점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다다를 것으로 여겨져, 〈표 Ⅲ-9〉를 통해 응답자 특성에 따라 인식하는 여가활동의 제약점을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30.3%)과 시간 부족(22.8%)을 주요 제약사항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부족의 경우 여성은 17.5%로 남성보다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 60대의 경우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체력·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의 초고령자 연령층에서는 체력·건강의 비중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 경제적부담과 체력·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졸 이상에서는 경제적 부담 이외에 시간 부족의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30.5%)과 시간 부족(22.0%)을 여가활동의 제약점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무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32.5%) 외에 체력·건강이 좋지 않아서(22.1%)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경제적 부담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서울의 경우 시간 부족의 응답이 22.7%로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 구성별로는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경제적 부담(33.1%) 다음으로 체력·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이 21.4%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구와 그 외 가구는 경제적 부담 이외에 시간 부족의 응답이 많았다.

가구의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을 제약점으로 응답한 비중이 소득 1~4분위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득 5분위의 경우는 시간 부족의 응답비중이 30.0%로 나타났다.

〈표 Ⅲ-9〉 여가활동의 제약점 (다중응답)

(단위: %)

구분		시간이 부족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체력,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타
성별	남	22.8	30.3	14.8	10.0	7.9	2.2	11.9	0.1
	여	17.5	31.5	14.1	9.5	8.4	3.0	15.9	0.1
연령대	50대	28.7	30.5	16.2	10.7	7.4	1.7	4.6	0.1
	60대	19.0	31.7	15.0	9.5	9.2	2.6	12.8	0.2
	70대	11.0	31.5	12.2	8.6	7.7	3.6	25.3	0.1
	80세 이상	7.3	27.9	11.0	8.7	9.5	4.3	31.1	0.2
학력	무학	9.7	32.4	9.4	8.9	9.0	4.1	26.4	0.1
	초졸	14.0	32.6	12.9	9.0	7.4	3.9	20.0	0.2
	중졸	19.5	33.7	13.8	9.0	8.1	2.7	13.2	0.0
	고졸	24.5	30.7	16.5	10.3	7.9	1.7	8.4	0.1
	대학 재학 이상	27.4	24.5	16.6	11.2	9.5	1.6	9.0	0.2
배우자 유무	있음	22.0	30.5	15.7	10.4	7.3	2.3	11.7	0.1
	없음	13.1	32.5	10.3	7.4	11.0	3.7	21.7	0.1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8.7	30.6	14.5	9.8	7.1	2.3	7.0	0.1
	비취업자	10.0	31.3	14.4	9.6	9.4	3.0	22.1	0.1
거주 지역	서울	22.7	31.0	11.2	6.3	12.3	1.5	14.9	0.2
	광역시	18.5	30.1	17.9	10.9	7.8	2.6	12.2	0.1
	도	19.7	31.3	13.9	10.4	7.0	3.0	14.6	0.1
가구 구성	노인단독	11.7	33.1	10.3	7.9	11.4	4.1	21.4	0.1
	노인부부	17.4	30.2	15.4	10.7	7.5	2.9	15.7	0.1
	그 외	24.3	30.9	14.9	9.5	7.8	1.9	10.6	0.1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7.4	35.3	10.7	8.3	7.7	4.4	26.2	0.1
	2분위	13.3	34.1	12.7	9.5	8.3	3.1	18.8	0.2
	3분위	20.5	32.3	14.4	9.9	7.7	2.7	12.4	0.0
	4분위	22.9	29.9	16.7	9.9	8.5	2.1	10.0	0.0
	5분위	30.0	25.2	16.3	10.5	8.8	1.4	7.5	0.2
전 체		19.9	30.9	14.4	9.7	8.2	2.6	14.0	0.1

주: 없음/모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였음

바. 여가활동 변화 희망 여부

마지막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에서는 중·고령자에게 현재 여가활동 전반에 변화를 주고 싶은지의 여부와 변화를 주고 싶다면, 종류, 장소, 횟수, 동반자, 시간, 비용의 측면에서 각각 늘리고 싶은지 줄이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Ⅲ-10〉은 중·고령자들이 전반적 여가활동에 있어 변화를 주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여준다. 현재의 여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85.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변화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14.9%에 불과함에 따라, 변화를 주고 싶다는 응답자에 대해 변화를 주고 싶은 항목과 어떠한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세부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표 Ⅲ-10〉의 여가활동에 대한 변화 희망 여부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경우 변화를 희망하는 응답이 20.0%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변화 희망 응답이 줄어들어 80세 이상에서 5.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무학에서 7.4%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 12.6%였으며, 중졸 이상은 16~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자의 경우 15.9%, 무배우자의 경우 11.5%가 여가활동의 변화를 원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가 18.2%로 비취업자의 11.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 거주자 중 17.2%가 여가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도(14.3%), 서울(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로는 그 외 가구에서 17.1%로 변화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인부부 가구가 13.2%, 노인단독 가구가 11.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구성별로 살펴보면 변화를 주고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구소득 1분위에서 9.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5분위에서는 19.2%로 나타났다.

〈표 Ⅲ-10〉 여가활동에 대한 변화 희망여부

(단위: %)

구분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음	변화를 주고 싶음
성별	남	85.2	14.8
	여	85.0	15.0
연령대	50대	80.0	20.0
	60대	85.1	14.9
	70대	91.2	8.8
	80세 이상	94.4	5.6
학력	무학	92.6	7.4
	초졸	87.4	12.6
	중졸	82.7	17.3
	고졸	82.8	17.2
	대학 재학 이상	84.0	16.0
배우자 유무	있음	84.1	15.9
	없음	88.5	11.5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81.8	18.2
	비취업자	88.8	11.2
거주 지역	서울	86.8	13.2
	광역시	82.5	17.5
	도	85.7	14.3
가구 구성	노인단독	88.3	11.7
	노인부부	86.8	13.2
	그 외	82.9	17.1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90.6	9.4
	2분위	87.6	12.4
	3분위	85.0	15.0
	4분위	83.9	16.1
	5분위	80.8	19.2
전 체		85.1	14.9

Ⅳ. 대인관계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의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현재 대인관계의 실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전반적인 관계망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대인관계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 5순위를 조사함으로써, 중·고령자가 대인관계에서 의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노후시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대인관계가 중시되는 시기이므로, 배우자와 자녀와의 갈등에 대해 측정하였다. 지난 1년 동안 배우자, 자녀와 겪었던 갈등의 종류와 갈등 정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자가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의 인식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대인관계 실태와 만족도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고령자가 맺고 있는 대인관계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시점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대인관계는 크게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과 가족 외(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로 구분된다. 〈표 Ⅳ-1〉은 대인관계 항목별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있다’는 응답의 비율을 나타낸다.

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Ⅳ-1〉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 (각 항목 '있다' 응답)

(단위: %)

		가족						가족 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기타
성별	남	88.4	97.3	43.5	60.9	96.7	99.1	98.4	97.1	52.2	1.1
	여	67.1	98.1	35.9	67.9	95.6	98.7	96.6	97.8	26.0	2.4
연령대	50대	86.4	96.0	70.5	28.8	99.3	99.6	99.6	97.4	63.5	1.0
	60대	82.4	98.7	32.4	80.9	98.3	99.1	99.1	97.8	35.3	1.6
	70대	66.0	98.8	7.3	95.2	93.8	98.0	95.6	97.6	12.9	2.6
	80세 이상	41.0	98.1	2.3	95.7	82.3	96.8	87.5	97.0	4.8	4.2
학력	무학	36.4	98.1	5.7	92.3	86.5	96.8	89.7	97.2	8.6	3.2
	초졸	68.2	98.2	20.0	87.2	95.1	98.3	96.0	97.7	20.3	1.8
	중졸	83.4	9.4	34.7	73.7	97.6	98.6	98.5	97.3	32.8	1.8
	고졸	86.8	97.4	55.4	47.0	98.1	99.6	99.4	97.5	51.4	1.5
	대학재학이상	90.2	96.4	63.5	39.4	98.2	99.8	99.5	96.9	62.6	1.5
배우자 유무	있음		99.6	45.5	61.8	97.9	99.5	98.9	98.2	42.7	1.3
	없음		91.5	19.1	74.3	90.1	96.6	92.6	95.2	22.3	3.6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4.2	97.9	54.7	52.4	98.7	99.3	99.6	97.8	65.3	0.8
	비취업자	68.7	97.5	24.7	78.3	93.2	98.4	95.0	97.2	7.8	2.9
거주 지역	서울	77.7	96.8	44.2	58.4	95.5	99.1	96.5	94.9	24.0	2.2
	광역시	78.9	97.9	38.5	62.5	97.2	99.0	99.3	97.5	40.8	0.6
	도	75.6	97.9	38.2	67.9	95.8	98.7	96.9	98.4	33.2	2.2
가구 구성	노인단독		91.9	11.9	80.9	98.7	96.2	93.0	96.5	19.3	5.3
	노인부부	100.0	99.1	26.4	86.6	97.4	99.5	98.4	98.1	30.1	1.5
	그 외	80.3	98.3	57.4	43.1	96.9	99.1	97.9	97.3	49.5	1.0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43.3	95.4	12.6	88.6	88.6	96.9	91.4	97.0	8.6	5.1
	2분위	71.5	97.8	18.6	88.4	96.0	98.6	97.3	97.4	19.6	1.7
	3분위	81.1	97.5	35.5	70.5	97.2	99.1	98.5	97.8	34.7	1.3
	4분위	87.8	98.1	49.9	54.0	98.4	99.7	99.4	97.9	50.8	1.0
	5분위	90.3	99.2	66.1	36.7	98.3	99.5	99.1	97.2	62.5	0.8
전 체		76.8	97.7	39.4	64.7	96.1	98.8	97.4	97.5	38.0	1.8

〈표 Ⅳ-2〉는 가족 범주와 가족 이외 범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 유무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여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이다. 즉 이 결과는 중·고령자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100.0%로 하였을 때, 각 관계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중·고령 응답자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는 가족 범주에서는 자녀, 형제·자매, 친인척의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외의 범주에서는 친구와 이웃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 (다중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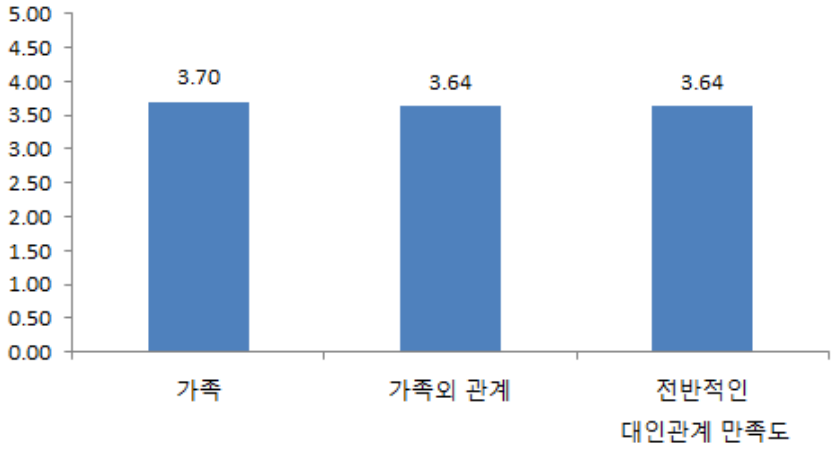
		가족						가족 외				총합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기타	
성별	남	12.0	13.2	5.9	8.3	13.2	13.5	13.4	13.2	7.1	0.2	100.0
	여	9.8	14.3	5.2	9.9	13.9	14.4	14.1	14.2	3.8	0.4	100.0
연령대	50대	11.6	12.9	9.5	3.9	13.4	13.4	13.4	13.1	8.6	0.2	100.0
	60대	11.4	13.6	4.5	11.1	13.5	13.7	13.7	13.5	4.9	0.2	100.0
	70대	9.9	14.8	1.1	14.3	14.0	14.7	14.3	14.6	1.9	0.4	100.0
	80세 이상	6.7	16.1	0.4	15.7	13.5	15.9	14.3	15.9	0.8	0.9	100.0
학력	무학	5.9	15.9	0.9	15.0	14.1	15.7	14.6	16.0	1.4	0.5	100.0
	초졸	10.0	14.4	2.9	12.8	13.9	14.4	14.1	14.3	3.0	0.3	100.0
	중졸	11.6	13.7	4.8	10.3	13.6	13.8	13.7	13.6	4.6	0.3	100.0
	고졸	11.8	13.3	7.5	6.4	13.4	13.6	13.5	13.3	7.0	0.2	100.0
	대학재학이상	12.1	12.9	8.5	5.3	13.1	13.3	13.3	13.0	8.4	0.2	100.0
배우자 유무	있음	13.4	13.4	6.1	8.3	13.1	13.4	13.3	13.2	5.7	0.2	100.0
	없음	0.0	15.6	3.3	12.7	15.4	16.5	15.8	16.2	3.8	0.7	100.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1.2	13.1	7.0	7.0	13.2	13.3	13.3	13.1	8.7	0.1	100.0
	비취업자	10.3	14.7	3.7	11.8	14.0	14.8	14.3	14.6	1.2	0.5	100.0
거주 지역	서울	10.9	13.6	6.2	8.2	13.4	13.9	13.5	13.3	6.7	0.3	100.0
	광역시	11.1	13.8	5.4	8.8	13.6	13.9	13.9	13.7	5.7	0.1	100.0
	도	10.7	13.9	5.4	9.6	13.6	14.0	13.7	14.0	4.7	0.4	100.0
가구 구성	노인단독	0.4	15.6	2.0	13.8	15.3	16.4	15.8	16.4	3.3	1.1	100.0
	노인부부	13.6	13.4	3.6	11.7	13.2	13.5	13.4	13.3	4.1	0.2	100.0
	그 외	11.1	13.6	8.0	6.0	13.4	13.8	13.6	13.5	6.9	0.2	100.0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6.9	15.2	2.0	14.1	14.1	15.4	14.5	15.4	1.4	0.9	100.0
	2분위	10.4	14.2	2.7	12.9	14.0	14.4	14.2	14.2	2.9	-	100.0
	3분위	11.4	13.7	5.0	9.9	13.6	13.9	13.8	13.7	4.9	0.2	100.0
	4분위	11.9	13.3	6.8	7.3	13.4	13.5	13.5	13.3	6.9	0.1	100.0
	5분위	12.0	13.2	8.8	4.9	13.1	13.3	13.2	13.0	8.3	0.1	100.0
전 체		10.8	13.8	5.6	9.1	13.6	14.0	13.7	13.8	5.4	0.3	100.0

다음으로 현재 관계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과 가족 외(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 그리고 전반적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을 1로,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하는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이나 가족 외 친구 등의 대인관계가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우선 가족, 가족 외 관계, 가족과 가족 외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점대 후반으로 나타나,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과 가족 외 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대인관계에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1]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가족, 가족 외 관계, 전반적 대인관계 만족도의 응답 분포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3〉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분포이다. '만족하는 편'의 응답이 59.1%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0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72점)이 여성(3.68점)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경우 3.80점으로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져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만족도는 3.52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수준별로는 고학력자일수록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무학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는 평균 3.49점으로 가장 낮고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3.87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자(3.76점)가 무배우자(3.50점)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며, 취업자(3.78점)는 비취업자(3.61점)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3.75점) 거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구성별로는 노인부부 가구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3.7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노인단독 가구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3.4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현재 관계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세부분포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성별	남	3.72	0.62	0.2	1.6	31.0	60.0	7.1
	여	3.68	0.63	0.2	2.2	32.9	58.4	6.3
연령대	50대	3.80	0.58	0.1	1.3	24.6	66.9	7.2
	60대	3.71	0.63	0.2	1.6	32.7	57.9	7.7
	70대	3.60	0.66	0.5	3.0	37.7	53.6	5.2
	80세 이상	3.52	0.67	0.4	3.3	46.0	44.6	5.7
학력	무학	3.49	0.67	0.9	3.3	45.6	45.9	4.3
	초졸	3.61	0.68	0.3	3.1	39.4	50.2	7.0
	중졸	3.67	0.62	0.0	2.0	35.0	56.6	6.3
	고졸	3.77	0.57	0.1	1.0	26.9	65.6	6.4
	대학 재학 이상	3.87	0.57	0.2	1.0	19.0	70.5	9.2
배우자유무	있음	3.76	0.60	0.1	1.4	28.4	62.7	7.5
	없음	3.50	0.67	0.8	3.8	44.2	47.1	4.1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78	0.61	0.1	1.4	27.3	62.9	8.3
	비취업자	3.61	0.64	0.4	2.5	37.4	54.9	4.9
거주지역	서울	3.61	0.59	0.2	2.4	35.9	59.2	2.3
	광역시	3.75	0.63	0.2	1.5	29.5	60.4	8.4
	도	3.71	0.64	0.2	2.0	31.9	58.5	7.5
가구구성	노인단독	3.47	0.70	0.9	4.8	44.9	44.8	4.6
	노인부부	3.77	0.61	0.1	1.4	28.4	61.6	8.5
	그 외	3.71	0.60	0.1	1.5	31.2	61.2	5.9
가구소득분위	1분위	3.46	0.70	1.0	4.6	46.1	43.9	4.4
	2분위	3.66	0.66	0.2	2.6	35.3	54.7	7.2
	3분위	3.69	0.63	0.1	1.7	34.0	57.3	6.8
	4분위	3.76	0.58	0.1	0.6	29.3	63.3	6.7
	5분위	3.86	0.55	–	0.9	20.4	70.8	7.9
전 체		3.70	0.63	0.2	1.9	32.1	59.1	6.7

다음으로 가족 외의 사회구성원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특성별 응답분포를 살펴보겠다. 〈표 Ⅳ-4〉는 가족 외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나타낸다.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만족하는 편'의 응답이 54.4%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Ⅳ-3〉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경우 만족도 평균이 3.7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가족 외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3.84점이며, 가족 외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편'의 응답비율이 6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자(3.69점)가 무배우자(3.48점)에 비해 가족 외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가족 외 관계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구성별로는 노인부부(3.68점)와 그 외 가구(3.65점)의 가족 외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노인단독 가구의 가족 외 관계 만족도가 3.4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의 가족외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3.42점인데 비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만족도 점수도 높고, 5분위의 만족도는 3.79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Ⅳ-4〉 현재 관계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가족 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세부분포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성별	남	3.65	0.61	0.1	1.4	37.4	55.2	5.9
	여	3.63	0.61	0.2	1.2	39.4	53.7	5.5
연령대	50대	3.74	0.58	0.1	0.8	30.6	62.4	6.1
	60대	3.65	0.62	0.1	1.2	38.6	53.6	6.6
	70대	3.54	0.62	0.2	1.9	45.6	48.0	4.3
	80세 이상	3.45	0.63	0.2	2.4	53.6	39.5	4.3
학력	무학	3.44	0.63	0.3	2.5	54.3	38.7	4.2
	초졸	3.55	0.64	0.3	2.0	45.3	46.9	5.4
	중졸	3.60	0.62	0.0	1.3	43.2	49.6	5.9
	고졸	3.70	0.58	0.0	0.8	33.4	60.4	5.3
	대학 재학 이상	3.84	0.55	0.1	0.4	22.8	69.1	7.7
배우자유무	있음	3.69	0.60	0.1	1.2	34.8	57.8	6.2
	없음	3.48	0.62	0.3	1.8	51.0	43.1	3.8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72	0.60	0.0	0.7	33.3	59.0	6.9
	비취업자	3.55	0.62	0.3	2.0	44.3	49.2	4.2
거주지역	서울	3.59	0.53	0.1	0.6	41.1	56.9	1.3
	광역시	3.68	0.64	0.1	1.7	36.3	54.1	7.9
	도	3.64	0.62	0.2	1.4	38.7	53.7	6.1
가구구성	노인단독	3.49	0.63	0.3	2.2	49.5	43.8	4.2
	노인부부	3.68	0.63	0.1	1.4	36.3	54.8	7.4
	그 외	3.65	0.59	0.1	1.0	37.1	57.1	4.7
가구소득분위	1분위	3.42	0.65	0.5	3.2	54.0	38.2	4.1
	2분위	3.58	0.64	0.2	1.4	44.9	46.9	6.5
	3분위	3.64	0.61	-	1.3	39.3	53.6	5.8
	4분위	3.69	0.59	0.1	0.9	34.9	58.5	5.6
	5분위	3.79	0.54	-	0.3	26.1	67.5	6.1
전 체		3.64	0.61	0.1	1.3	38.5	54.4	5.6

가족과 가족 외 관계를 포함하여 중·고령자가 현재 맺고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Ⅳ-5〉와 같다.

전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응답분포는 '만족하는 편'의 응답이 57.3%, '보통'이 37.1%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나타나,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대인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을 보였다.

응답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3.74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만족도 수준이 낮아져, 연령대가 가장 높은 80세 이상의 경우 전반적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은 3.4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수준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전반적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3.82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만족도 수준이 낮아져 무학의 경우 전반적 대인관계 만족도는 3.45점이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자(3.69점)가 무배우자(3.47점)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 취업자(3.73점)가 비취업자(3.55점)에 비해 전반적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3.67점)와 도(3.65점) 지역 거주자가 서울(3.57점) 거주자에 비해 전반적 대인관계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 가구구성에 따라서는 노인부부(3.68점)와 그 외(3.66점) 가구에 비해 노인단독 가구(3.47점)의 전반적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 현재 관계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전반적 대인관계)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세부분포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성별	남	3.65	0.58	0.1	1.2	36.3	58.2	4.3
	여	3.63	0.60	0.2	1.3	37.9	56.5	4.1
연령대	50대	3.74	0.55	0.1	0.5	29.7	64.9	4.8
	60대	3.65	0.59	0.2	1.2	36.4	58.0	4.3
	70대	3.54	0.60	0.3	2.0	44.2	50.6	2.9
	80세 이상	3.46	0.63	0.3	2.5	52.1	41.1	3.9
학력	무학	3.45	0.62	0.4	2.7	51.6	42.0	3.2
	초졸	3.54	0.63	0.3	2.2	44.7	48.4	4.4
	중졸	3.59	0.58	0.1	1.2	41.7	53.6	3.4
	고졸	3.72	0.54	0.1	0.3	31.4	64.1	4.1
	대학 재학 이상	3.82	0.53	0.1	0.6	22.6	71.1	5.6
배우자유무	있음	3.69	0.57	0.1	0.8	33.3	61.1	4.6
	없음	3.47	0.61	0.3	2.5	49.9	44.6	2.7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73	0.57	0.1	0.5	31.6	62.3	5.5
	비취업자	3.55	0.60	0.3	2.0	43.3	51.7	2.7
거주지역	서울	3.57	0.54	0.1	0.6	42.6	55.6	1.1
	광역시	3.67	0.58	0.1	1.2	34.8	59.4	4.5
	도	3.65	0.61	0.2	1.4	36.4	56.9	5.1
가구구성	노인단독	3.47	0.62	0.3	3.1	48.8	44.9	2.9
	노인부부	3.68	0.59	0.2	1.1	34.2	59.3	5.2
	그 외	3.66	0.57	0.1	0.7	36.1	59.3	3.8
가구소득분위	1분위	3.40	0.64	0.6	3.6	53.9	39.1	2.9
	2분위	3.60	0.62	0.2	1.6	41.2	52.1	4.8
	3분위	3.64	0.59	0.1	1.0	37.9	56.5	4.5
	4분위	3.69	0.56	0.1	0.5	33.8	61.5	4.1
	5분위	3.80	0.51	-	0.1	24.7	70.7	4.5
전 체		3.64	0.59	0.2	1.2	37.1	57.3	4.2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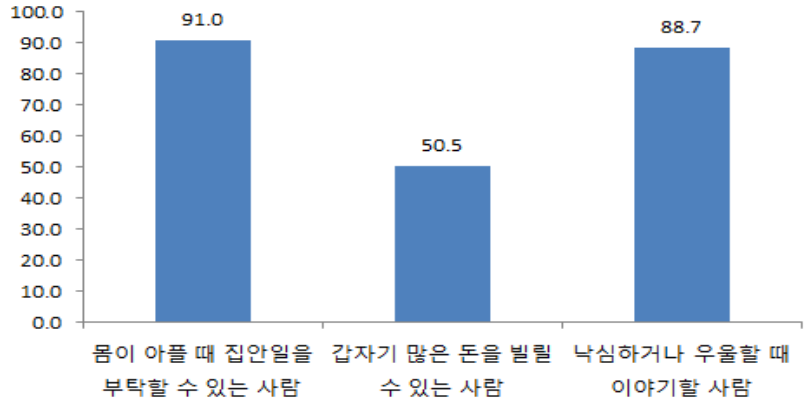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에서는 노후준비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응답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측정방식은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지 응답하고,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및 가족 외 관계를 포함하되, 파출부 등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나 사회복지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응답자의 91.0%가 있다고 하였으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50.5%가 있다고 응답했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의 경우 응답자의 88.7%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Ⅳ-2] 노후시기 타인 도움 필요 상황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

(단위: %)



그리고 노후시기 타인 도움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위의 3가지 상황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갖추어진 상황을 살펴보았다.

과반수 이상이 세 가지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배우자, 노인단독, 소득1분위의 경우는 응답자의 약 10% 가량은 급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 받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노후시기 타인 도움 필요 상황 3가지(집안일, 돈 빌림, 이야기)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수

(단위: %)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성별	남	3.7	9.5	35.9	50.8
	여	5.1	10.8	37.5	46.7
연령대	50대	2.7	8.4	34.6	54.3
	60대	4.1	9.8	35.8	50.4
	70대	6.7	12.5	38.4	42.4
	80세 이상	7.9	14.1	43.7	34.3
학력	무학	7.8	16.6	37.6	38.0
	초졸	6.4	11.5	39.1	42.9
	중졸	4.0	9.7	36.6	49.6
	고졸	3.3	9.2	34.4	53.1
	대학 재학 이상	2.0	6.3	38.2	53.5
배우자 유무	있음	2.9	8.5	36.1	52.5
	없음	9.7	15.9	38.9	35.6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3.1	8.6	33.7	54.5
	비취업자	5.9	12.0	40.2	42.0
거주 지역	서울	6.5	12.5	47.3	33.8
	광역시	2.0	6.9	32.6	58.5
	도	4.9	10.9	35.1	49.1
가구 구성	노인단독	11.4	16.9	37.8	33.9
	노인부부	2.8	9.1	36.5	51.6
	그 외	3.8	9.1	36.7	50.4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9.8	15.1	40.3	34.8
	2분위	5.3	9.3	38.5	46.9
	3분위	4.2	12.7	33.8	49.3
	4분위	3.1	8.5	35.4	52.9
	5분위	1.5	6.0	37.6	54.9
전 체		4.5	10.3	36.7	48.4

개별 상황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91.0%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1.9명으로 나타났다(〈표 Ⅳ-7〉). 성별로는 남성(93.6%)이 여성(88.9%)보다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수는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응답분포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의 경우 50대는 평균 2.04명인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어져 80대 이상에서는 1.73명으로, 아플 때 집안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 고학력자의 경우 도움을 부탁할 수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원수 역시 대학 재학 이상과 고졸의 경우 2.01명으로 나타난 반면 무학은 1.72명으로 응답해, 학력 수준이 낮아질수록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원수도 줄었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문항에 92.8%가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 1.99명으로 응답한 반면, 비취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보다 낮았다.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96.0%)이 가장 높고 서울지역은 가장 낮아 86.4%로 나타났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원수는 이와 반대로 서울 거주자는 2.04명으로 가장 많고 광역시 거주자는 1.79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로는 노인부부와 그 외의 가구구성의 경우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93.2%와 92.7%로 나타난 반면,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79.5%로 가장 낮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Ⅳ-7〉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구 분		유무(%)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원 (명)	
		없다	있다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6.4	93.6	1.91	1.34
	여	11.1	88.9	1.89	1.19
연령대	50대	7.2	92.8	2.04	1.39
	60대	9.1	90.9	1.86	1.24
	70대	11.5	88.5	1.76	1.09
	80세 이상	9.1	90.9	1.73	1.12
학력	무학	14.4	85.6	1.72	1.03
	초졸	10.5	89.5	1.80	1.15
	중졸	8.8	91.2	1.82	1.16
	고졸	8.1	91.9	2.01	1.35
	대학 재학 이상	4.8	95.2	2.01	1.44
배우자 유무	있음	6.7	93.3	1.94	1.30
	없음	16.5	83.5	1.75	1.11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7.2	92.8	1.99	1.38
	비취업자	10.9	89.1	1.79	1.10
거주 지역	서울	13.6	86.4	2.04	1.29
	광역시	4.0	96.0	1.79	1.02
	도	9.6	90.4	1.91	1.35
가구 구성	노인단독	20.5	79.5	1.77	1.21
	노인부부	6.8	93.2	1.78	1.19
	그 외	7.3	92.7	2.03	1.32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16.2	83.8	1.70	1.06
	2분위	9.9	90.1	1.74	1.12
	3분위	9.5	90.5	1.75	1.06
	4분위	6.0	94.0	2.01	1.33
	5분위	5.2	94.8	2.18	1.51
전 체		9.0	91.0	1.90	1.26

노후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많은 돈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표 Ⅳ-8〉).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0.5%로,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균 1.68명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특성에 따라 응답분포에 차이를 보이는데, 성별로는 남성(52.2%)이 여성(48.9%)에 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비율과 인원수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경우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 수준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55.3%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무학의 경우는 그 비율이 40.6%로 나타났다.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한 경우, 인원수 역시 학력 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유무별로는 유배우자가 있는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54.1%로 나타났으나, 무배우자의 경우는 38.3%에 그쳤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56.3%)가 비취업자(44.1%)보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59.4%)와 도(51.3%) 거주자가 서울(36.5%)에 비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는 서울거주자가 1.83명으로 광역시(1.72명)와 도(1.63명)에 비해 많았다.

가구구성별로는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분위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높고, 인원수도 높게 나타났다.

〈표 Ⅳ-8〉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유무(%)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원 (명)	
		없다	있다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47.5	52.5	1.71	1.03
	여	51.1	48.9	1.66	0.92
연령대	50대	44.1	55.9	1.73	0.97
	60대	47.7	52.3	1.63	0.93
	70대	55.5	44.5	1.63	1.00
	80세 이상	63.3	36.7	1.64	1.02
학력	무학	59.4	40.6	1.56	0.79
	초졸	54.8	45.2	1.56	0.91
	중졸	48.1	51.9	1.62	0.95
	고졸	45.5	54.5	1.74	0.98
	대학 재학 이상	44.7	55.3	1.84	1.13
배우자 유무	있음	45.9	54.1	1.71	0.99
	없음	61.7	38.3	1.58	0.88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43.7	56.3	1.70	0.98
	비취업자	55.9	44.1	1.66	0.97
거주 지역	서울	63.5	36.5	1.83	1.05
	광역시	40.6	59.4	1.72	1.07
	도	48.7	51.3	1.63	0.90
가구 구성	노인단독	63.3	36.7	1.61	0.96
	노인부부	46.7	53.3	1.66	1.00
	그 외	47.7	52.3	1.72	0.96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63.1	36.9	1.46	0.72
	2분위	51.2	48.8	1.64	0.95
	3분위	48.5	51.5	1.63	0.94
	4분위	45.2	54.8	1.69	1.02
	5분위	43.5	56.5	1.86	1.06
전 체		49.5	50.5	1.68	0.98

다음으로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단순한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낙심(실망)하거나 우울하게 만든 원인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말한다.

〈표 Ⅳ-9〉를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의 88.7%는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며, 평균 2.13명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응답분포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의 92.0%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며 평균 2.30명이었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낮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수도 적었다.

학력별로도 고학력자의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92.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야기할 사람이 평균 2.36명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이 낮아질수록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낮아지고 이야기할 인원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았고,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 거주자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인원수는 오히려 서울 지역이 평균 2.3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로는 노인부부와 그 외 가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78.1%로 낮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

(단위: %, 명)

구분		유무(%)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원(명)	
		없다	있다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11.6	88.4	2.08	1.35
	여	11.1	88.9	2.16	1.47
연령대	50대	8.0	92.0	2.30	1.50
	60대	10.7	89.3	2.05	1.41
	70대	15.6	84.4	1.95	1.22
	80세 이상	18.4	81.6	1.86	1.15
학력	무학	18.8	81.2	1.85	1.08
	초졸	14.9	85.1	1.95	1.29
	중졸	10.5	89.5	2.06	1.39
	고졸	8.7	91.3	2.24	1.46
	대학 재학 이상	7.1	92.9	2.36	1.61
배우자 유무	있음	8.8	91.2	2.15	1.43
	없음	19.7	80.3	2.02	1.32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9.4	90.6	2.23	1.49
	비취업자	13.5	86.5	2.01	1.30
거주 지역	서울	13.5	86.5	2.37	1.85
	광역시	7.5	92.5	2.00	1.29
	도	12.3	87.7	2.10	1.28
가구 구성	노인단독	21.9	78.1	2.02	1.37
	노인부부	9.1	90.9	1.99	1.33
	그 외	10.0	90.0	2.26	1.48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19.2	80.8	1.83	1.19
	2분위	11.7	88.3	1.94	1.28
	3분위	12.9	87.1	1.97	1.23
	4분위	10.4	89.6	2.25	1.54
	5분위	4.6	95.4	2.46	2.13
전 체		11.3	88.7	2.13	1.41

3. 도움이 된 사람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에서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은 사람을 측정하였다. 측정방식은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응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 5명을 선정하여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을 1순위로 하여 5순위까지 응답받았다. 도움이 된 사람은 응답자와의 관계를 토대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이 정보는 지난 1년에 대한 회고정보로, 응답자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나, 이를 통해 중·고령자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의지하고 도움받는 사람을 누구로 인식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Ⅳ-10〉는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의 1순위 응답의 분포로, '배우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80세 이상 고령자, 무배우자, 노인단독 가구 등의 경우는 자녀를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의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1순위)

(단위: %)

구분		배우자	자녀	본인및배우자의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	없음	총합
성별	남	76.8	13.8	2.1	0.1	1.8	0.2	3.5	0.7	0.5	0.1	0.4	100.0
	여	52.3	37.5	1.0	0.3	2.2	0.2	3.5	1.5	0.3	0.4	0.8	100.0
연령대	50대	73.5	13.4	3.5	0.0	3.1	0.2	4.7	0.4	0.7	0.1	0.4	100.0
	60대	68.6	23.9	0.6	0.1	1.9	0.1	3.2	0.8	0.4	0.1	0.4	100.0
	70대	50.6	41.1	0.1	0.2	1.1	0.1	2.7	2.0	0.1	0.6	1.3	100.0
	80세 이상	32.8	58.8	0.0	1.0	0.9	0.3	1.7	3.0	-	1.0	0.5	100.0
학력	무학	26.8	61.5	0.4	0.6	1.9	0.3	3.1	3.5	-	0.4	1.5	100.0
	초졸	52.1	38.7	0.5	0.4	1.3	0.2	2.8	2.2	0.1	0.5	1.1	100.0
	중졸	67.6	24.9	1.3	0.1	2.1	0.0	2.4	0.6	0.3	0.2	0.5	100.0
	고졸	73.1	15.9	2.2	0.0	2.6	0.2	4.7	0.3	0.5	0.2	0.3	100.0
	대학재학이상	81.9	9.0	2.4	0.0	2.0	0.1	3.2	0.2	1.2	0.1	-	100.0
배우자 유무	있음	82.4	12.6	0.7	0.0	0.9	0.0	2.3	0.3	0.3	0.1	0.4	100.0
	없음	0.2	73.7	4.1	0.7	5.9	0.6	7.6	4.0	0.9	1.0	1.2	100.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71.2	18.2	1.8	0.0	2.5	0.1	3.9	0.7	0.8	0.1	0.5	100.0
	비취업자	54.9	36.1	1.1	0.3	1.6	0.2	3.1	1.6	-	0.5	0.7	100.0
거주지역	서울	64.5	23.6	2.3	0.2	2.6	0.2	3.9	0.9	1.3	0.3	0.2	100.0
	광역시	64.9	26.9	1.4	0.2	1.8	0.1	3.4	0.9	0.2	0.0	0.1	100.0
	도	62.5	27.7	1.3	0.2	1.9	0.2	3.4	1.3	0.2	0.4	1.0	100.0
가구구성	노인단독	0.5	71.8	0.5	0.4	5.4	0.6	10.1	6.4	1.2	1.5	1.6	100.0
	노인부부	82.4	14.1	0.1	0.0	0.5	0.0	1.9	0.4	0.1	0.0	0.4	100.0
	그 외	66.9	23.5	2.8	0.2	2.3	0.2	2.8	0.1	0.5	0.1	0.5	100.0
가구소득분위	1분위	31.1	52.3	1.2	0.8	2.4	0.4	4.4	4.9	-	1.2	1.5	100.0
	2분위	55.7	34.1	1.2	0.2	2.1	0.0	4.2	1.0	0.4	0.3	0.8	100.0
	3분위	67.0	23.2	1.9	0.1	2.7	0.1	3.4	0.3	0.4	0.0	0.7	100.0
	4분위	75.4	16.9	1.5	-	1.6	0.1	3.2	0.2	0.9	0.0	0.1	100.0
	5분위	77.5	16.1	1.4	-	1.4	0.1	2.8	0.1	0.4	0.1	0.2	100.0
전 체		63.5	26.7	1.5	0.2	2.0	0.2	3.5	1.1	0.4	0.3	0.6	100.0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1순위부터 5순위의 응답을 모두 종합하여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11〉). 즉 1순위부터 5순위까지의 순위개념을 배제하고 1순위부터 5순위 문항에 응답한 모든 값을 100.0%로 하여 구성비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의 문항에 가장 많이 응답된 사람은 자녀(31.9%), 배우자(14.4%), 친구(11.8%) 등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 5명에 가장 많이 응답된 사람으로 나타난 점은 응답자의 모든 특성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1순위부터 5순위 중 해당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이라는 응답이 20.4%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년간 도움이 되었던 사람의 관계가 자녀나 배우자에 국한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고령자,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 소득 1분위에서 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다중응답)

(단위: %)

구분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	없음	총합
성별	남	16.8	30.2	2.0	0.8	8.0	1.6	12.3	5.0	3.0	0.3	20.0	100.0
	여	12.4	33.3	1.5	1.7	8.5	1.6	11.4	6.9	1.2	0.8	20.7	100.0
연령대	50대	16.5	24.6	3.5	0.1	11.6	1.5	14.3	4.8	3.6	0.3	19.1	100.0
	60대	15.5	34.3	.8	1.0	8.0	1.5	11.7	5.8	1.6	0.6	19.2	100.0
	70대	11.8	38.2	0.1	2.1	4.9	1.8	9.3	7.6	0.4	0.7	23.2	100.0
	80세 이상	7.4	40.5	0.0	5.0	3.6	2.1	8.0	8.9	0.1	1.3	23.1	100.0
학력	무학	6.3	38.5	0.1	3.7	4.6	1.9	8.3	9.5	0.3	0.9	26.1	100.0
	초졸	12.1	36.2	0.5	2.3	6.1	1.5	9.6	8.0	0.8	0.6	22.4	100.0
	중졸	15.7	34.7	1.3	0.8	7.7	1.2	11.5	5.9	1.4	0.6	19.3	100.0
	고졸	16.6	28.5	2.6	0.5	10.5	1.7	13.5	4.9	2.5	0.5	18.2	100.0
	대학재학이상	17.5	24.8	3.1	0.4	10.2	1.8	14.3	3.3	4.6	0.6	19.4	100.0
배우자 유무	있음	18.7	31.2	1.8	0.7	8.3	1.3	11.7	5.2	2.1	0.4	18.5	100.0
	없음	0.1	34.0	1.4	3.1	8.3	2.6	12.1	9.0	1.5	1.1	26.8	100.0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5.9	29.4	2.4	0.6	9.4	1.4	12.9	5.6	3.6	0.3	18.6	100.0
	비취업자	12.8	34.6	1.0	2.0	7.1	1.8	10.6	6.6	0.2	0.9	22.5	100.0
거주 지역	서울	14.6	28.6	2.0	0.9	10.6	1.8	13.4	3.9	3.7	0.7	19.8	100.0
	광역시	15.0	30.6	1.5	1.1	8.1	1.3	12.1	5.7	1.4	0.1	22.9	100.0
	도	14.0	33.6	1.7	1.5	7.6	1.7	11.1	6.9	1.6	0.7	19.5	100.0
가구 구성	노인단독	0.2	34.2	0.3	2.2	7.4	2.5	12.2	10.4	1.1	1.6	27.8	100.0
	노인부부	18.5	35.4	0.6	1.0	6.6	1.5	10.3	6.1	1.1	0.5	18.5	100.0
	그 외	15.3	28.5	3.0	1.3	9.9	1.5	12.9	4.8	3.0	0.3	19.7	100.0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7.3	36.8	0.5	2.5	5.7	1.8	9.0	9.3	0.3	1.4	25.5	100.0
	2분위	13.0	35.5	0.6	1.8	6.4	1.9	10.4	8.1	0.6	0.7	21.1	100.0
	3분위	15.1	32.1	1.4	1.0	8.0	1.6	11.1	6.0	1.4	0.6	21.6	100.0
	4분위	17.0	30.9	2.5	1.1	9.2	1.4	13.3	5.1	2.9	0.3	16.5	100.0
	5분위	17.4	26.8	2.9	.6	10.8	1.5	14.2	3.3	3.9	0.3	18.4	100.0
전 체		14.4	31.9	1.7	1.3	8.3	1.6	11.8	6.0	2.0	0.6	20.4	100.0

4. 배우자와의 갈등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에서는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갈등의 종류와 갈등 정도를 측정하였다. 부부가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의 종류로는 경제적 문제, 자녀의 결혼문제, 부모 부양문제, 부부간 가사분담 문제, 배우자의 여가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생활습관 차이, 기타의 7가지였으며, 각 갈등 종류에 대해 지난 1년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있었다'에 응답한 후 갈등 정도에 응답한다. 만약 갈등경험이 없다면 갈등의 정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갈등의 정도는'매우 약함(1점)'부터 '매우 심함(5점)'의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조사하므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본 조사항목에 응답하지 않았다.

〈표 Ⅳ-12〉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난 1년간 배우자와 있었던 주요 갈등은 경제적 문제(21.0%)와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의 생활습관 차이(20.8%)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갈등을 경험한 경우, 갈등의 정도는 5점 기준으로 대부분 3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지난 1년간 겪은 배우자와의 갈등 종류와 갈등 정도

(단위: %, 점)

갈등 종류	갈등경험 비율(%)	갈등 정도(점/5점)
경제적 문제	21.0	2.76
자녀의 결혼문제	4.5	2.82
부모부양 문제	1.7	2.60
부부간 가사분담문제	5.8	2.63
배우자의 여가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8.7	2.73
생활습관 차이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20.8	2.70
그 외	0.3	3.14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갈등 종류별 응답분포와 갈등의 정도를 살펴보면 〈표 Ⅳ-13〉, 〈표 Ⅳ-14〉와 같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갈등 경험 빈도가 높은 두 가지 종류의 갈등, 즉,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과 생활습관 차이로 인한 갈등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응답분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배우자와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소득 1분위에서 갈등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 차이로 인한 갈등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경험하는 갈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Ⅳ-13〉은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 경우, 배우자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경우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서울의 경우 2.95점, 광역시 2.85점, 도 2.67점으로 나타나, 갈등의 정도가 서울 지역 수준이 가장 높았다. 생활습관 차이로 인한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한 경우 갈등의 정도는 성별 간 인식 수준이 차이를 보였다.

〈표 Ⅳ-13〉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 유무

(단위: %)

구분		경제적문제		자녀의 결혼문제		부모 부양문제		부부간 가사분담문제		배우자의 여가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생활습관 차이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그 외 갈등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성별	남	20.0	80.0	4.6	95.4	1.6	98.4	5.6	94.4	8.3	91.7	20.0	80.0	0.2	99.8
	여	22.1	77.9	4.4	95.6	1.9	98.1	6.0	94.0	9.2	90.8	21.6	78.4	0.5	99.5
연령대	50대	21.4	78.6	4.9	95.1	2.6	97.4	6.7	93.3	9.3	90.7	24.7	75.3	0.4	99.6
	60대	21.5	78.5	5.2	94.8	1.4	98.6	4.7	95.3	8.7	91.3	19.5	80.5	0.2	99.8
	70대	18.8	81.2	3.5	96.5	0.4	99.6	4.1	95.9	6.5	93.5	14.9	85.1	0.4	99.6
	80세 이상	13.9	86.1	2.1	97.9	-	100.0	3.7	96.3	5.5	94.5	10.6	89.4	0.1	99.9
학력	무학	25.6	74.4	4.4	95.6	0.5	99.5	3.0	97.0	5.1	94.9	18.5	81.5	0.1	99.9
	초졸	24.1	75.9	3.6	96.4	0.9	99.1	5.4	94.6	7.8	92.2	19.6	80.4	0.5	99.5
	중졸	24.1	75.9	6.2	93.8	1.3	98.7	5.4	94.6	9.0	91.0	22.7	77.3	0.7	99.3
	고졸	20.5	79.5	4.5	95.5	2.3	97.7	6.0	94.0	9.7	90.3	22.3	77.7	0.1	99.9
	대학재학이상	13.7	86.3	4.0	96.0	2.3	97.7	7.0	93.0	8.3	91.7	17.4	82.6	0.4	99.6

구분		경제적문제		자녀의 결혼문제		부모 부양문제		부부간 가사분담문제		배우자의 여가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생활습관 차이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그 외 갈등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1.2	78.8	4.6	95.4	2.1	97.9	7.2	92.8	9.5	90.5	23.1	76.9	0.3	99.7
	비취업자	20.7	79.3	4.4	95.6	1.2	98.8	3.9	96.1	7.6	92.4	17.6	82.4	0.4	99.6
거주지역	서울	15.8	84.2	4.1	95.9	1.8	98.2	8.8	91.2	10.4	89.6	15.2	84.8	0.6	99.4
	광역시	22.0	78.0	7.1	92.9	1.9	98.1	4.3	95.7	9.6	90.4	25.6	74.4	0.2	99.8
	도	22.3	77.7	3.4	96.6	1.7	98.3	5.4	94.6	7.7	92.3	20.4	79.6	0.3	99.7
가구구성	노인부부	19.0	81.0	2.0	98.0	0.3	99.7	4.2	95.8	6.5	93.5	17.8	82.2	0.5	99.5
	그 외	22.9	77.1	7.0	93.0	3.1	96.9	7.4	92.6	10.8	89.2	23.7	76.3	0.2	99.8
가구소득분위	1분위	28.5	71.5	1.5	98.5	-	100.0	4.9	95.1	5.4	94.6	15.4	84.6	1.4	98.6
	2분위	19.3	80.7	1.9	98.1	0.7	99.3	4.3	95.7	5.8	94.2	17.8	82.2	0.3	99.7
	3분위	25.4	74.6	4.2	95.8	2.1	97.9	5.0	95.0	8.9	91.1	19.7	80.3	0.4	99.6
	4분위	19.3	80.7	5.1	94.9	2.0	98.0	6.5	93.5	10.6	89.4	23.9	76.1	0.0	100.0
	5분위	16.3	83.7	6.5	93.5	2.3	97.7	7.0	93.0	9.5	90.5	22.4	77.6	0.2	99.8
전 체		21.0	79.0	4.5	95.5	1.7	98.3	5.8	94.2	8.7	91.3	20.8	79.2	0.3	99.7

〈표 Ⅳ-14〉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의 정도

(단위: 점/5점)

구분		경제적문제		자녀의 결혼문제		부모 부양문제		부부간 가사분담문제		배우자의 여가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생활습관 차이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그 외 갈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2.74	0.82	2.84	0.86	2.61	0.81	2.59	0.83	2.70	0.81	2.68	0.86	2.83	0.67
	여	2.78	0.86	2.79	0.91	2.58	0.97	2.67	0.85	2.76	0.81	2.72	0.92	3.31	1.15
연령대	50대	2.75	0.90	2.80	0.93	2.44	0.89	2.53	0.82	2.71	0.82	2.65	0.92	3.27	1.00
	60대	2.80	0.79	2.83	0.85	2.80	0.79	2.78	0.87	2.82	0.79	2.70	0.83	2.99	0.71
	70대	2.72	0.76	2.87	0.83	3.39	0.49	2.86	0.67	2.65	0.87	2.82	0.86	3.68	0.47
	80세 이상	2.87	0.80	2.85	0.82	-	-	2.42	0.68	2.63	0.71	2.79	1.09	5.00	0.00
학력	무학	2.59	0.71	2.89	0.83	2.00	0.00	3.12	0.44	2.56	0.95	2.69	0.99	5.00	0.00
	초졸	2.80	0.81	2.82	0.78	2.84	1.00	2.74	0.88	2.87	0.87	2.82	0.89	3.39	0.49
	중졸	2.85	0.85	2.70	0.88	2.58	0.80	2.61	0.79	2.84	0.79	2.77	0.88	3.13	0.83
	고졸	2.68	0.87	2.81	0.92	2.70	0.88	2.66	0.89	2.60	0.79	2.62	0.91	3.00	0.00
	대학재학이상	2.87	0.82	3.00	0.89	2.29	0.86	2.43	0.72	2.83	0.76	2.68	0.79	2.72	1.66

구분		경제적문제		자녀의 결혼문제		부모 부양문제		부부간 가사분담문제		배우자의 여가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생활습관 차이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그 외 갈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75	0.85	2.74	0.86	2.52	0.93	2.60	0.84	2.77	0.78	2.72	0.88	2.91	0.91
	비취업자	2.77	0.83	2.93	0.91	2.77	0.78	2.70	0.84	2.67	0.86	2.66	0.91	3.34	1.09
거주지역	서울	2.95	0.80	2.73	0.71	3.10	0.57	2.66	0.73	2.70	0.72	2.75	0.68	2.91	1.32
	광역시	2.85	0.77	2.76	0.85	2.27	0.89	2.66	0.95	2.91	0.77	2.88	0.80	3.00	0.00
	도	2.67	0.87	2.90	0.97	2.57	0.91	2.60	0.85	2.65	0.86	2.58	0.97	3.30	0.94
가구구성	노인부부	2.76	0.80	2.78	0.80	2.52	0.65	2.68	0.86	2.79	0.88	2.72	0.93	3.23	0.69
	그 외	2.75	0.87	2.83	0.91	2.60	0.91	2.61	0.83	2.70	0.77	2.69	0.86	2.78	1.47
가구소득분위	1분위	2.80	0.79	2.69	0.92	-	-	2.69	0.86	2.80	1.09	2.96	1.04	3.66	0.57
	2분위	2.66	0.96	3.15	0.89	3.73	0.44	2.97	0.73	2.81	0.91	2.69	0.94	3.00	0.00
	3분위	2.78	0.84	2.82	0.71	2.52	0.75	2.62	0.85	2.65	0.81	2.66	0.89	3.23	1.15
	4분위	2.88	0.80	2.84	0.88	2.67	0.92	2.51	0.87	2.77	0.81	2.68	0.88	4.00	0.00
	5분위	2.64	0.83	2.76	0.96	2.45	0.92	2.62	0.80	2.74	0.71	2.69	0.83	1.94	0.85
전 체		2.76	0.84	2.82	0.89	2.60	0.89	2.63	0.84	2.73	0.81	2.70	0.89	3.14	1.03

5. 자녀와의 갈등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6차 부가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자녀가 있는 경우,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는 지와 함께 갈등을 경험한 경우 인지한 갈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핵가족화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의 종류와 갈등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와의 갈등을 동거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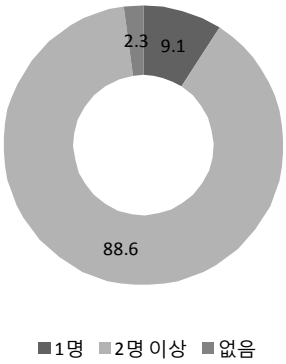
자녀와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즉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 보조와 관련한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자녀의 진로구분이성교제구분결혼문제, 그 외 기타 문제의 7가지 종류의 갈등을 지난 1년간 경험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갈등을 경험했다면 갈등의 정도를 '매우 약함(1점)'부터 '매우 심함(5점)'의 5점 리커트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응답하지 않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형태에 따라 동거자녀만 있는 경우 동거자녀 관련 갈등 유무와 갈등 정도를 응답하며, 비동거자녀만 있는 경우 비동거자녀 관련 갈등 유무와 갈등 정도를 응답한다. 동거와 비동거자녀 모두를 둔 경우 동거자녀 관련 갈등과 비동거자녀 관련 갈등 모두를 측정한다.

자녀와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녀 유무를 응답받는다. 그 결과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의 조사시점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는 97.7%로 자녀와의 갈등 유무에 대한 응답의 대상이 되었으며, 9.1%는 자녀가 1명, 88.6%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고 응답했다([그림 Ⅳ-3]).

[그림 Ⅳ-3] 자녀 유무

(단위: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동거형태에 따라 응답받을 내용이 다르다. 즉 자녀가 1명인 경우 그 자녀가 동거자녀일 경우 동거자녀 관련 갈등만 응답하며, 비동거자녀일 경우 비동거자녀 관련 갈등만 응답한다.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2명의 동거형태에 따라 2명 이상의 모든 자녀가 동거할 경우에는 동거자녀 관련 내용만 응답하며, 모두 비동거할 경우는 비동거자녀 관련 갈등만 측정한다. 만약 동거와 비동거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동거자녀 관련 갈등과 비동거자녀 관련 갈등 모두를 응답한다(〈표 Ⅳ-15〉). 이 경우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에 대해 측정하는 갈등의 종류는 동일하다.

〈표 Ⅳ-15〉 자녀수별, 동거형태별 자녀와의 갈등 측정 방식

(단위: %)

	동거자녀만 있음	비동거자녀만 있음	동거 및 비동거자녀 모두 있음	총합
1명	60.8	39.2	-	100.0
2명 이상	16.6	56.5	26.9	100.0
	⇓	⇓	⇓	
응답유형	동거 자녀 갈등 유무 및 갈등 정도 응답	비동거 자녀 갈등 유무 및 갈등 정도 응답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갈등 유무 및 갈등 정도 모두 응답	

주: 통합가중치 적용

가. 동거자녀와의 갈등

먼저 동거하는 자녀와의 사이에서 지난 1년 간 겪었던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Ⅳ-16〉은 갈등의 종류별로 지난 1년간 동거자녀와의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 보조와 관련한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자녀의 진로·이성교제·결혼문제, 그 외 문제 가운데, 지난 1년 간 동거자녀와의 사이에서 경험한 갈등은 자녀의 진로·이성교제·결혼문제와 관련된 갈등으로 응답자의 13.7%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류의 갈등의 경험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난 1년 동안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낮은 편이나, 주요 갈등은 '자녀의 진로·이성교제·결혼문제'였다. 갈등종류별로 갈등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갈등을 경험한 경우 갈등 정도는 전반적으로 3점(보통) 보다 낮은 수준으로 약한 편이었다.

〈표 Ⅳ-16〉 지난 1년간 겪은 동거자녀와의 갈등 종류와 갈등 정도

갈등 종류	갈등 경험 응답 비율(%)	갈등 정도(점/5점)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4.6	2.90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1.5	2.82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3.8	2.92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	3.1	2.86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1.0	2.58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문제	13.7	2.93
그 외	0.0	-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갈등의 종류와 갈등 정도를 응답자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표 Ⅳ-17〉 및 〈표 Ⅳ-18〉과 같다. 동거자녀와의 갈등 경험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인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문제'의 경우 60대의 갈등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의 정도는 비취업자, 소득수준 1분위 등에서 보통 이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 1분위의 경우 동거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둘러싼 갈등,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생활비 보조와 관련된 갈등의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수준 1분위가 겪는 모든 종류의 갈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지난 1년간 동거 자녀와의 갈등 유무

(단위: %)

구분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 문제		그 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성별	남	4.3	95.7	1.5	98.5	3.7	96.3	2.8	97.2	1.1	98.9	13.9	86.1	-	100.0
	여	4.9	95.1	1.5	98.5	3.8	96.2	3.3	96.7	0.9	99.1	13.5	86.5	0.0	100.0
연령대	50대	3.7	96.3	0.8	99.2	3.1	96.9	2.2	97.8	0.8	99.2	13.2	86.8	-	100.0
	60대	6.1	93.9	1.5	98.5	4.4	95.6	3.3	96.7	1.9	98.1	17.8	82.2	-	100.0
	70대	8.4	91.6	4.7	95.3	5.9	94.1	5.6	94.4	0.3	99.7	14.0	86.0	0.2	99.8
	80세 이상	2.7	97.3	3.2	96.8	5.2	94.8	5.9	94.1	0.8	99.2	4.3	95.7	-	100.0
학력	무학	6.9	93.1	2.6	97.4	4.8	95.2	4.1	95.9	0.6	99.4	5.7	94.3	0.2	99.8
	초졸	5.6	94.4	3.2	96.8	7.4	92.6	4.9	95.1	1.9	98.1	15.3	84.7	-	100.0
	중졸	8.0	92.0	0.8	99.2	3.5	96.5	4.7	95.3	0.3	99.7	15.9	84.1	-	100.0
	고졸	4.1	95.9	1.3	98.7	3.2	96.8	2.0	98.0	0.7	99.3	13.6	86.4	-	100.0
	대학 재학 이상	2.1	97.9	0.6	99.4	2.0	98.0	2.6	97.4	1.6	98.4	14.2	85.8	-	100.0
배우자 유무	있음	4.1	95.9	1.4	98.6	3.5	96.5	3.2	96.8	1.1	98.9	14.6	85.4	-	100.0
	없음	6.9	93.1	1.9	98.1	5.1	94.9	2.8	97.2	0.4	99.6	9.4	90.6	0.1	99.9

구분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 문제		그 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4.6	95.4	1.3	98.7	3.4	96.6	2.1	97.9	0.8	99.2	14.2	85.8	-	100.0
	비취업자	4.7	95.3	1.9	98.1	4.3	95.7	4.5	95.5	1.3	98.7	12.9	87.1	0.0	100.0
거주지역	서울	7.0	93.0	2.0	98.0	4.6	95.4	5.0	95.0	2.0	98.0	14.4	85.6	0.1	99.9
	광역시	4.9	95.1	0.8	99.2	2.2	97.8	1.6	98.4	0.3	99.7	18.9	81.1	-	100.0
	도	3.2	96.8	1.6	98.4	4.2	95.8	3.0	97.0	0.9	99.1	10.3	89.7	-	100.0
가구구성	노인단독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노인부부	6.1	93.9		100.0	1.4	98.6	4.7	95.3	-	100.0	-	100.0	-	100.0
	그 외	4.6	95.4	1.5	98.5	3.8	96.2	3.1	96.9	1.0	99.0	13.9	86.1	0.0	100.0
가구소득분위	1분위	11.3	88.7	2.8	97.2	13.1	86.9	10.1	89.9	0.3	99.7	10.8	89.2	-	100.0
	2분위	6.9	93.1	3.9	96.1	8.2	91.8	4.1	95.9	0.6	99.4	10.1	89.9	-	100.0
	3분위	4.2	95.8	0.5	99.5	6.6	93.4	3.8	96.2	1.0	99.0	14.3	85.7	-	100.0
	4분위	3.3	96.7	1.7	98.3	2.9	97.1	3.2	96.8	1.2	98.8	12.5	87.5	0.1	99.9
	5분위	4.9	95.1	1.4	98.6	1.8	98.2	2.0	98.0	1.0	99.0	14.7	85.3	-	100.0
전 체		4.6	95.4	1.5	98.5	3.8	96.2	3.1	96.9	1.0	99.0	13.7	86.3	0.0	100.0

주: 가구구성이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는 지난 1년간은 배우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사망 또는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임.

〈표 Ⅳ-18〉 지난 1년간 동거 자녀와의 갈등 정도

(단위: %)

구분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 문제		그 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	2.89	0.75	2.70	0.62	2.81	0.82	2.99	0.89	2.54	0.70	2.89	0.77	2.86	0.83
	여	2.91	0.84	2.91	0.91	3.00	0.96	2.77	0.91	2.62	1.02	2.96	0.90	2.95	0.95
연령대	50대	2.84	0.78	2.97	0.64	2.80	0.87	2.92	0.82	2.71	0.99	2.90	0.87	3.23	0.71
	60대	2.92	0.82	3.03	0.64	3.05	0.87	3.13	0.87	2.53	0.69	2.97	0.76	2.80	0.80
	70대	2.83	0.78	2.48	0.75	2.98	0.96	2.71	0.88	2.79	0.98	2.98	0.91	2.96	1.00
	80세 이상	3.47	0.98	3.05	1.08	2.98	1.03	2.54	0.98	2.80	1.33	3.30	0.89	2.87	0.94
학력	무학	3.06	0.76	2.78	1.09	2.88	0.97	2.63	0.84	2.80	1.33	3.18	0.77	3.09	0.81
	초졸	3.11	0.90	2.90	0.66	3.23	0.86	3.03	0.88	3.05	0.63	2.99	0.85	2.77	0.97
	중졸	2.58	0.66	2.64	1.39	3.04	0.70	2.82	0.96	3.51	0.50	2.91	0.86	2.88	0.87
	고졸	2.96	0.82	2.81	0.66	2.66	0.93	2.56	0.86	1.99	0.95	2.83	0.84	2.98	0.93
	대학 재학 이상	2.83	0.71	2.74	0.44	2.83	0.85	3.33	0.74	2.59	0.49	3.05	0.84	2.93	0.75
배우자 유무	있음	2.89	0.75	2.74	0.72	2.84	0.89	2.88	0.91	2.56	0.86	2.92	0.85	3.02	0.78
	없음	2.92	0.94	3.06	0.98	3.16	0.91	2.80	0.91	2.88	1.05	3.01	0.84	2.78	1.02

구분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 문제		그 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96	0.83	2.98	0.73	2.95	0.90	3.08	0.87	2.40	0.91	2.88	0.81	3.11	0.86
	비취업자	2.81	0.77	2.66	0.83	2.87	0.92	2.72	0.90	2.75	0.81	3.00	0.90	2.84	0.91
거주지역	서울	2.78	0.76	2.78	0.60	2.99	0.85	3.03	0.93	2.61	0.81	2.84	0.90	2.91	1.03
	광역시	2.96	0.67	2.74	0.97	2.96	0.76	2.89	0.86	1.63	0.48	3.11	0.77	2.86	0.64
	도	2.98	0.94	2.86	0.85	2.86	0.98	2.72	0.88	2.69	0.91	2.80	0.85	2.96	1.05
가구구성	노인단독	-	-	-	-	-	-	-	-	-	-	-	-	2.85	0.96
	노인부부	2.23	0.42	-	-	3.00	0.00	2.00	0.00	-	-	-	-	2.90	0.83
	그 외	2.91	0.81	2.82	0.80	2.92	0.91	2.88	0.91	2.58	0.88	2.93	0.85	2.99	0.88
가구소득분위	1분위	3.35	0.97	3.02	0.98	3.44	0.96	3.08	0.96	5.00	0.00	3.34	0.85	2.94	0.96
	2분위	2.59	1.11	2.68	0.82	3.03	0.93	2.90	1.08	4.00	0.00	2.75	0.91	2.75	0.92
	3분위	2.93	0.74	2.60	0.92	2.90	1.02	2.93	0.86	2.74	0.65	2.92	0.82	2.93	0.90
	4분위	2.77	0.80	2.81	0.85	2.74	0.71	2.77	0.81	2.62	0.56	2.91	0.90	2.93	0.80
	5분위	2.89	0.70	2.83	0.67	2.74	0.69	2.80	0.96	2.32	0.98	2.93	0.82	3.21	0.41
전 체		2.90	0.81	2.82	0.80	2.92	0.91	2.86	0.91	2.58	0.88	2.93	0.85	2.91	0.91

나. 비동거자녀와의 갈등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난 1년간 겪었던 갈등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동거자녀가 여러 명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수나 갈등의 횟수를 고려치 않고 갈등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갈등 유무는 '있었다'에 응답한다. 또한 갈등의 정도와 관련하여 동일 종류의 갈등을 여러 번 경험한 경우, 전반적인 갈등의 수준을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하에 '매우 약함(1)'에서 '매우 심함(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Ⅳ-19〉을 살펴보면, 실제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4.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비동거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의 비율이 3.2%로 비동거자녀와의 사이에서 생긴 갈등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갈등의 정도 또한 심하지 않은 편이었다. 참고로 갈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그 외의 갈등'의 경우 응답사례수가 매우 적어 높게 나타난 갈등의 정도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므로 해석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Ⅳ-19〉 지난 1년간 겪은 비동거자녀와의 갈등 종류와 갈등 정도 (종합)

갈등 종류	갈등 경험 응답 비율(%)	갈등 정도(점/5점)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1.9	2.91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1.5	2.90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3.2	2.95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	2.7	2.76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0.4	2.89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문제	2.6	2.89
그 외	0.1	4.86

주 : '그 외'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매우 적은 응답사례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와의 갈등 종류와 갈등 정도의 응답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Ⅳ-20〉 및 〈표 Ⅳ-21〉과 같다.

갈등 경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의 경우 비취업자와 노인단독 가구 등에서 갈등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갈등의 정도도 70대,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 유무

(단위: %)

구분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자녀가 결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 문제		그 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성별	남	1.8	98.2	1.6	98.4	3.2	96.8	2.7	97.3	0.3	99.7	2.7	97.3	0.1	99.9
	여	2.0	98.0	1.4	98.6	3.2	96.8	2.7	97.3	0.6	99.4	2.6	97.4	0.1	99.9
연령대	50대	0.7	99.3	0.5	99.5	2.3	97.7	1.5	98.5	0.3	99.7	4.3	95.7	-	100.0
	60대	1.8	98.2	0.8	99.2	3.3	96.7	2.4	97.6	0.5	99.5	2.6	97.4	0.2	99.8
	70대	2.3	97.7	2.5	97.5	3.7	96.3	3.7	96.3	0.6	99.4	1.8	98.2	0.0	100.0
	80세 이상	4.0	96.0	3.4	96.6	3.5	96.5	3.7	96.3	0.2	99.8	0.6	99.4	-	100.0
학력	무학	2.5	97.5	2.0	98.0	3.4	96.6	4.0	96.0	0.5	99.5	1.3	98.7	0.1	99.9
	초졸	2.3	97.7	1.7	98.3	3.9	96.1	3.0	97.0	0.4	99.6	1.7	98.3	0.2	99.8
	중졸	1.7	98.3	1.4	98.6	2.5	97.5	2.1	97.9	0.2	99.8	4.6	95.4	-	100.0
	고졸	1.5	98.5	1.2	98.8	2.8	97.2	2.5	97.5	0.3	99.7	3.0	97.0	-	100.0
	대학 재학 이상	1.8	98.2	1.3	98.7	3.6	96.4	1.8	98.2	1.3	98.7	2.4	97.6	-	100.0
배우자유무	있음	1.4	98.6	1.3	98.7	3.0	97.0	2.5	97.5	0.3	99.7	3.1	96.9	0.1	99.9
	없음	3.6	96.4	2.1	97.9	3.8	96.2	3.3	96.7	0.7	99.3	1.3	98.7	0.0	100.0

구분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자녀가 결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 문제		그 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1	98.9	1.0	99.0	2.6	97.4	1.8	98.2	0.5	99.5	3.3	96.7	-	100.0
	비취업자	2.7	97.3	1.9	98.1	3.8	96.2	3.5	96.5	0.4	99.6	2.0	98.0	0.2	99.8
거주 지역	서울	2.3	97.7	1.2	98.8	2.2	97.8	2.8	97.2	0.6	99.4	1.2	98.8	0.1	99.9
	광역시	3.3	96.7	1.9	98.1	3.0	97.0	3.1	96.9	0.3	99.7	4.2	95.8	-	100.0
	도	1.3	98.7	1.4	98.6	3.6	96.4	2.5	97.5	0.4	99.6	2.4	97.6	0.1	99.9
가구 구성	노인단독	4.7	95.3	2.3	97.7	4.5	95.5	3.4	96.6	0.7	99.3	1.4	98.6	0.1	99.9
	노인부부	1.0	99.0	1.4	98.6	2.5	97.5	2.5	97.5	0.2	99.8	2.0	98.0	0.1	99.9
	그 외	1.8	98.2	1.2	98.8	3.6	96.4	2.7	97.3	0.7	99.3	4.1	95.9	-	100.0
가구소득 분위	1분위	3.5	96.5	2.5	97.5	3.3	96.7	4.0	96.0	0.7	99.3	0.8	99.2	0.4	99.6
	2분위	2.0	98.0	2.6	97.4	4.0	96.0	2.9	97.1	0.4	99.6	1.7	98.3	-	100.0
	3분위	1.6	98.4	0.8	99.2	3.4	96.6	2.7	97.3	0.2	99.8	2.9	97.1	-	100.0
	4분위	1.6	98.4	1.0	99.0	3.1	96.9	2.5	97.5	0.5	99.5	3.4	96.6	-	100.0
	5분위	0.6	99.4	0.8	99.2	2.2	97.8	1.0	99.0	0.5	99.5	4.8	95.2	-	100.0
전 체		1.9	98.1	1.5	98.5	3.2	96.8	2.7	97.3	0.4	99.6	2.6	97.4	0.1	99.9

〈표 Ⅳ-21〉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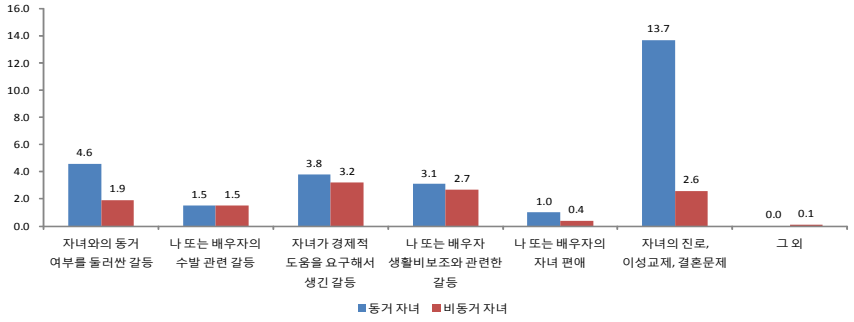
구분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 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2.86	0.83	2.82	0.77	2.90	1.06	2.67	0.82	3.38	0.61	2.80	0.77
	여	2.95	0.95	2.96	0.87	2.98	0.97	2.82	0.85	2.69	1.31	2.96	0.91
연령대	50대	3.23	0.71	3.25	0.83	2.62	0.73	2.75	0.77	2.61	1.11	2.74	0.84
	60대	2.80	0.80	2.75	0.64	2.96	1.09	2.62	0.77	3.50	0.50	2.99	0.88
	70대	2.96	1.00	2.79	0.90	3.16	0.97	2.82	0.85	2.26	1.24	2.96	0.80
	80세 이상	2.87	0.94	3.07	0.75	2.99	1.05	2.85	0.96	5.00	0.00	3.32	0.77
학력	무학	3.09	0.81	3.05	0.99	2.99	0.97	2.70	0.89	3.28	1.06	3.18	0.75
	초졸	2.77	0.97	2.81	0.75	2.91	0.99	2.78	0.89	3.03	1.26	2.93	0.99
	중졸	2.88	0.87	3.06	0.68	3.2	0.86	2.83	0.79	2.88	1.01	2.81	0.84
	고졸	2.98	0.93	2.87	0.94	3.06	1.11	2.73	0.77	2.88	1.39	2.88	0.84
	대학 재학 이상	2.93	0.75	2.66	0.47	2.43	0.92	2.80	0.86	2.58	1.01	2.89	0.68
배우자유무	있음	3.02	0.78	2.90	0.76	2.92	1.02	2.67	0.79	3.04	0.95	2.81	0.80
	없음	2.78	1.02	2.89	0.94	3.02	1.00	2.95	0.92	2.67	1.46	3.41	0.99

구분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 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3.11	0.86	2.90	0.77	2.58	0.95	2.77	0.90	2.86	1.09	2.90	0.86
	비취업자	2.84	0.91	2.90	0.85	3.17	0.99	2.75	0.81	2.92	1.30	2.87	0.84
거주 지역	서울	2.91	1.03	3.13	0.90	3.28	0.93	2.97	0.82	2.59	1.09	3.25	1.11
	광역시	2.86	0.64	3.07	0.76	2.92	0.84	2.87	0.67	3.28	1.20	2.78	0.70
	도	2.96	1.05	2.75	0.81	2.90	1.07	2.64	0.90	2.89	1.20	2.91	0.89
가구 구성	노인단독	2.85	0.96	2.83	0.94	3.07	1.02	2.97	0.87	2.71	1.34	3.37	1.04
	노인부부	2.90	0.83	2.82	0.71	2.73	0.99	2.68	0.73	3.34	1.00	2.88	0.84
	그 외	2.99	0.88	3.07	0.85	3.08	0.99	2.74	0.93	2.81	1.14	2.81	0.80
가구소득 분위	1분위	2.94	0.96	2.75	0.91	3.18	0.93	2.84	0.82	3.13	1.36	3.43	0.84
	2분위	2.75	0.92	3.02	0.70	3.01	1.15	2.80	0.96	3.23	0.95	3.14	0.86
	3분위	2.93	0.90	2.81	0.84	3.19	0.93	2.77	0.82	3.22	0.92	3.05	0.84
	4분위	2.93	0.80	3.50	0.65	2.38	0.85	2.59	0.75	2.46	1.11	2.72	0.69
	5분위	3.21	0.41	2.39	0.49	2.64	0.89	2.74	0.78	2.44	1.01	2.65	0.87
전 체		2.91	0.91	2.90	0.83	2.95	1.01	2.76	0.84	2.89	1.19	2.89	0.8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갈등 종류별로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의 경험 비율과 갈등 정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비동거자녀보다 동거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와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Ⅳ-4]).

[그림 Ⅳ-4] 지난 1년간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와의 갈등 경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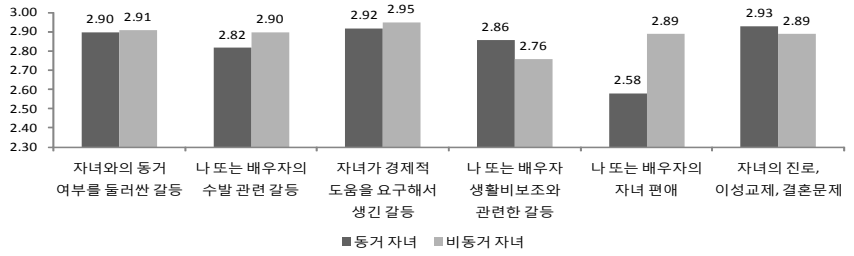
(단위: %)



그러나 [그림 Ⅳ-5]에서 알 수 있듯이, 갈등을 경험한 경우 갈등의 정도가 어느 한쪽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갈등의 종류에 따라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의 갈등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5] 지난 1년간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의 갈등 정도 비교

(단위: 점/5점)



6. 사회적 지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 부가조사에서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영역의 하나인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 수준을 파악하였다.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Cohen과 Syme이 1985년에 개발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나타내는 18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이다.

정서적 지지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나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등을 나타낸다. 정보적 지지는 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이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돕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지지는 4문항으로, 일을 대신해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평가적 지지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용이나 긍정적 자기평가 등을 의미한다(강해자, 2013; 임주영, 2009).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정서적 지지는 최저 8점~최고 40점, 정보적 지지는 최저 3점~최고 15점, 물질적 지지는 최저 4점~최고 16점, 평가적 지지는 최저 3점~최고 15점까지 나올 수 있고, 이 모든 영역을 종합한 사회적 지지의 종합적인 수준은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까지 분포할 수 있다.

참고로 사회적 지지 척도의 개별 문항의 응답분포는 〈표 Ⅳ-22〉와 같다. 다만,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이므로 개별 문항의 분포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표 Ⅳ-22〉 사회적 지지 개별 문항 응답분포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세부분포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편	매우 심함
정서적 지지	① 기분 좋을 때 그 기분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	3.73	0.67	0.3	3.5	27.0	61.1	8.0
	② 외로울 때 같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	3.72	0.76	0.4	5.2	28.5	53.5	12.4
	③ 속상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	3.75	0.81	0.5	5.3	28.8	48.9	16.4
	④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3.78	0.77	0.3	4.1	58.4	51.1	16.1
	⑤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3.75	0.75	0.3	4.4	28.4	53.6	13.3
	⑥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3.70	0.80	0.7	6.0	29.8	49.7	13.8
	⑦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	3.69	0.75	0.4	4.9	32.1	51.0	11.7
	⑧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3.69	0.75	0.4	5.0	31.6	51.4	11.6
정보적 지지	⑨ 성인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 (예: 식이요법, 운동, 민간요법 등)	3.62	0.79	0.5	6.8	34.0	47.7	10.9
	⑩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	3.63	0.78	0.5	6.3	34.1	48.5	10.7
	⑪ 쇼핑이나 병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 (예: 좋은 물건, 싸게 파는 곳 등)	3.53	0.83	0.9	9.4	35.4	44.6	9.8
물질적 지지	⑫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사다 주는 사람이 있다	3.41	0.91	2.4	13.3	34.0	41.6	8.7
	⑬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큰 돈이라도 마련해주는 사람이 있다	3.00	1.10	10.3	22.5	30.3	30.3	6.5
	⑭ 내가 몸져누워 있을 때 병수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49	0.87	2.0	10.5	32.6	45.8	9.1
	⑮ 필요시 병원비나 약값을 대주는 사람이 있다	3.50	0.84	1.7	9.7	34.1	46.4	8.1
평가적 지지	⑯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다	3.61	0.74	0.5	5.3	35.8	49.8	8.5
	⑰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	3.62	0.72	0.3	5.1	34.7	51.8	8.0
	⑱ 집안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 (예: 화초관리, 청소, 요리, 집손질 등)	3.59	0.71	0.5	5.4	34.5	53.6	6.0

각 하위 영역을 구성하는 문항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의 수준을 직접 비교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수를 고려한 평균을 산정하여 영역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시켰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표 Ⅳ-23〉을 통해 영역별 문항수를 고려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60점이며, 하위 영역별로는 물질적 지지(4.47점), 정서적 지지(3.73점), 평가적 지지(3.61점), 정보적 지지(3.59점)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특성별로도 하위 영역별 수준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 수준은 남성, 저연령, 고학력자, 유배우자, 취업자, 광역시 거주자, 노인부부 가구, 고소득자의 경우 전반적 사회적 지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분포 역시 비슷하였다. 반대로 여성, 고연령, 저학력자,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 저소득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표 Ⅳ-23〉 사회적 지지 영역별 평균 비교

(단위: 점/5점)

구분		사회적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3.61	0.56	3.73	0.59	3.59	0.67	4.51	0.96	3.62	0.63
	여	3.59	0.58	3.72	0.59	3.59	0.67	4.43	1.02	3.60	0.65
연령대	50대	3.67	0.53	3.81	0.55	3.67	0.64	4.53	0.96	3.66	0.61
	60대	3.61	0.55	3.74	0.56	3.60	0.66	4.49	0.96	3.62	0.62
	70대	3.52	0.61	3.63	0.62	3.49	0.70	4.37	1.06	3.54	0.67
	80세이상	3.45	0.65	3.54	0.68	3.45	0.73	4.35	1.05	3.46	0.72
학력	무학	3.40	0.65	3.50	0.65	3.40	0.74	4.25	1.11	3.43	0.72
	초졸	3.52	0.59	3.65	0.62	3.51	0.67	4.38	1.01	3.53	0.66
	중졸	3.57	0.56	3.69	0.58	3.57	0.68	4.44	0.98	3.60	0.63
	고졸	3.66	0.53	3.80	0.54	3.65	0.65	4.53	0.94	3.65	0.61
	대학재학이상	3.77	0.51	3.90	0.52	3.78	0.61	4.65	0.95	3.76	0.58
배우자 유무	있음	3.67	0.52	3.80	0.54	3.65	0.64	4.56	0.93	3.67	0.60
	없음	3.37	0.66	3.50	0.68	3.38	0.74	4.15	1.13	3.39	0.72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67	0.53	3.80	0.55	3.66	0.65	4.55	0.97	3.66	0.61
	비취업자	3.53	0.60	3.65	0.62	3.52	0.69	4.37	1.01	3.54	0.67
거주지역	서울	3.55	0.56	3.75	0.59	3.54	0.65	4.20	0.98	3.58	0.61
	광역시	3.67	0.49	3.75	0.51	3.64	0.63	4.69	0.85	3.66	0.59
	도	3.59	0.60	3.71	0.62	3.59	0.70	4.46	1.03	3.59	0.67
가구구성	노인단독	3.32	0.69	3.44	0.71	3.33	0.76	4.08	1.16	3.34	0.77
	노인부부	3.67	0.54	3.79	0.55	3.65	0.65	4.58	0.94	3.68	0.61
	그 외	3.63	0.53	3.76	0.55	3.62	0.64	4.49	0.95	3.63	0.61
가구소득분위	1분위	3.34	0.68	3.47	0.71	3.33	0.74	4.09	1.11	3.35	0.73
	2분위	3.55	0.58	3.67	0.60	3.53	0.68	4.40	1.02	3.57	0.64
	3분위	3.61	0.54	3.72	0.55	3.59	0.67	4.51	0.99	3.62	0.62
	4분위	3.67	0.51	3.80	0.52	3.66	0.63	4.58	0.92	3.66	0.58
	5분위	3.76	0.48	3.90	0.50	3.75	0.60	4.64	0.87	3.75	0.59
전 체		3.60	0.57	3.73	0.59	3.59	0.68	4.47	0.99	3.61	0.64

Ⅴ. 건강 및 생활

본 장에서는 중·고령자의 건강 및 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에서는 4대 노후준비영역 중 하나인 건강과 생활에 대해 조사하였다.

건강부분은 KReIS 본조사에서 측정하는 항목 외에 본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질환 및 해당 질환 치료 여부를 조사하였다. 세부적인 질환과 그 질환에 대한 치료비는 본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바, 본 부가조사에서는 만성질환과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그 외 질환으로 구분하여 3개 구분에 해당되는 질환이 있는지, 그 질환을 호전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덧붙여 본인의 건강을 위해 현재 실천하고 있는 생활습관에 대해 조사했다.

다음으로 생활부분에서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지난 1년 기준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였으며, 부부, 개인 기준의 월평균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를 조사함으로써 개인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생활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건강

가. 본인의 건강상태

개인조사대상자에게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표 Ⅴ-1〉). '매우 좋지 않음'부터 '매우 좋음'까지 5단계로 선택할 수 있다. 본 분석은 '매우 좋지 않음'을 1점, '매우 좋음'을 5점으로 놓고 응답분포와 평균을 계산하였다.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평균 3.29점, 표준편차 0.85). 응답자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를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본인의 건강상

태가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본인의 건강상태를 가장 좋게 인식하고 있었으며(평균 3.62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39.4%)이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도 건강상태를 달리 인식하고 있었는데, 무학(2.68점)보다는 대학재학 이상(3.65점)인 자들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더 좋게 인식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평균 점수가 더 높았으며, 비취업자 보다는 취업자의 평균이 더 높았다. 거주지역은 도 거주자가 광역시나 서울지역 거주자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비교적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인단독 가구의 개인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가장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구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달랐는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2분위에서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인지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3분위부터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표 Ⅴ-1〉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세부분포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성별	남	3.37	0.83	1.9	14.2	32.3	48.6	3.0
	여	3.22	0.86	2.7	18.4	34.8	42.0	2.1
연령대	50대	3.62	0.69	0.6	5.7	29.3	59.7	4.7
	60대	3.31	0.79	1.6	14.3	36.5	46.3	1.4
	70대	2.92	0.89	4.6	28.8	37.4	28.2	1.0
	80세 이상	2.64	0.84	6.8	39.4	37.3	16.1	0.4
학력	무학	2.68	0.88	7.7	36.3	36.6	19.2	0.3
	초졸	3.01	0.86	3.6	24.9	39.7	30.8	1.0
	중졸	3.25	0.81	1.8	16.1	39.0	41.5	1.7
	고졸	3.53	0.74	0.9	8.5	30.0	57.2	3.3
	대학 재학 이상	3.65	0.72	0.5	7.1	24.7	62.2	5.5
배우자유무	있음	3.39	0.81	1.7	12.9	32.9	49.7	2.9
	없음	2.94	0.90	4.6	28.3	36.4	29.4	1.3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52	0.72	0.6	8.1	33.3	54.7	3.4
	비취업자	3.03	0.91	4.4	25.8	34.1	34.2	1.5
거주지역	서울	3.35	0.85	2.0	16.2	28.6	50.6	2.5
	광역시	3.30	0.84	2.2	15.0	36.5	43.3	3.0
	도	3.26	0.86	2.6	17.2	34.2	43.8	2.3
가구구성	노인단독	2.90	0.90	5.5	28.5	37.3	27.8	0.9
	노인부부	3.27	0.85	2.6	16.2	34.8	44.2	2.2
	그 외	3.41	0.81	1.3	13.2	31.8	50.5	3.2
가구소득분위	1분위	2.72	0.86	6.7	34.4	39.3	19.4	0.2
	2분위	3.08	0.84	2.9	22.2	39.3	34.7	0.9
	3분위	3.32	0.83	2.3	14.4	34.7	46.4	2.2
	4분위	3.46	0.75	0.7	11.1	31.7	54.3	2.3
	5분위	3.64	0.71	0.4	6.9	27.1	60.0	5.6
전 체		3.29	0.85	2.4	16.4	33.7	45.0	2.5

나. 질환 및 질환 치료여부

다음은 현재 질환이 있는지, 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하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V-2〉는 만성질환,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이 외의 질환 중 1개라도 "있다"고 응답한 것과,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질환을 치료하거나 약복용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개인조사대상자의 52%는 현재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환이 있는 자의 96.7%가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질환 보유 여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50대는 질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67.9%) 60세 이상에서는 질환이 없는 자 보다 있는 자가 더 많았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질환 보유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도 질환 보유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졸업 이하는 질환보유율이 과반 이상이었으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는 질환 보유율이 과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자가 질환 보유율이 높았으며(65.8%), 취업자보다는 비취업자(63.4%)에서 질환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서울과 도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과반 이상이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역시 거주자는 과반 이하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로 질환 유무를 살펴보면, 노인단독 가구(68.0%)와 노인부부 가구(57.5%)는 질환 보유율이 높았으나 그 외 가구형태에서는 질환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3.2%). 가구 소득분위에 따라서 질환 보유 여부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질환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약 96% 이상이 치료 또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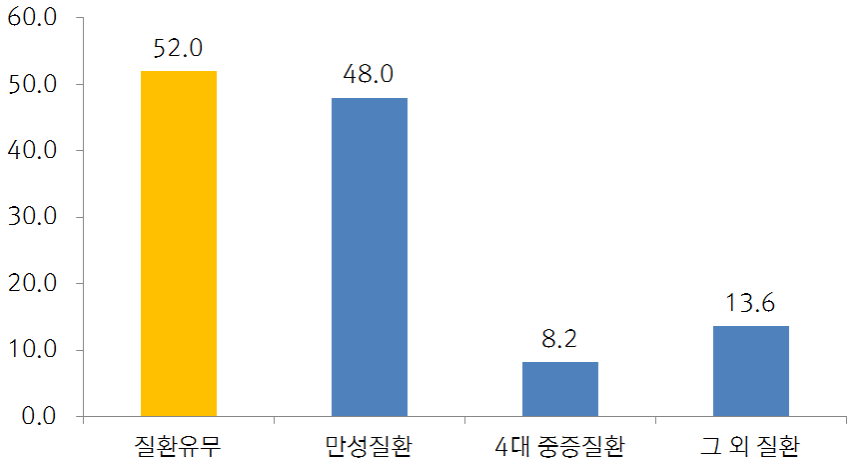
〈표 Ⅴ-2〉 질환 보유여부 및 치료여부

(단위: %)

구분		유무		치료/약복용여부	
		있음	없음	하고있다	하고있지 않다
성별	남	51.1	48.9	97.5	2.5
	여	52.8	47.2	96.1	3.9
연령대	50대	32.1	67.9	97.0	3.0
	60대	55.9	44.1	96.3	3.7
	70대	72.0	28.0	97.1	2.9
	80세 이상	79.0	21.0	97.0	3.0
학력	무학	74.5	25.5	95.6	4.4
	초졸	64.5	35.5	97.6	2.4
	중졸	53.7	46.3	98.1	1.9
	고졸	41.5	58.5	95.5	4.5
	대학 재학 이상	37.9	62.1	97.0	3.0
배우자유무	있음	47.8	52.2	97.1	2.9
	없음	65.8	34.2	95.8	4.2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41.7	58.3	96.6	3.4
	비취업자	63.4	36.6	96.8	3.2
거주지역	서울	52.0	48.0	97.1	2.9
	광역시	47.8	52.2	98.4	1.6
	도	53.9	46.1	95.9	4.1
가구구성	노인단독	68.0	32.0	96.5	3.5
	노인부부	57.5	42.5	97.1	2.9
	그 외	43.2	56.8	96.4	3.6
가구소득분위	1분위	72.4	27.6	96.5	3.5
	2분위	64.6	35.4	96.2	3.8
	3분위	52.2	47.8	97.1	2.9
	4분위	42.8	57.2	97.3	2.7
	5분위	37.6	62.4	96.4	3.6
전 체		52.0	48.0	96.7	3.3

[그림 V-1] 질환 보유 여부 및 각 질환 치료 여부

(단위: %)



[그림 V-1]은 질환 보유 여부 및 각 질환 보유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뒤에 상술하겠지만, 응답자 전체의 52.0%가 현재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48%,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은 8.2%, 그 외 질환은 13.6%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만성질환, 4대 중증질환, 그 외 질환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질환 유무와 치료 여부를 분석하였다.

〈표 V-3〉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현재 치료 또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해당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조사하였다. 개인조사대상자의 48%가 만성질환이 있으며, 이들 중 97.4%가 치료/약복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만성질환 보유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대별 만성질환 보유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50대는 만성질환 보유율이 29.3%였으나 60대부터는 50%가 넘으며 특히 80세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73.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중학교 졸업 이하인 자들의 과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들은 30%대에 불과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60.8%)가 있는 경우(44.2%)보다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았으며, 취업자(38.3%)보다는 비취업자(58.7%)의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노인가구(단독가구 62.9%, 부부가구 53.7%)가 그 외 가구보다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만성질환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치료/약복용은 모든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Ⅴ-3〉 만성질환 보유여부 및 치료/약복용여부

(단위: %)

구분		유무		치료/약복용여부	
		있음	없음	하고있다	하고있지 않다
성별	남	47.9	52.1	97.6	2.4
	여	48.1	51.9	97.3	2.7
연령대	50대	29.3	70.7	97.5	2.5
	60대	50.7	49.3	97.0	3.0
	70대	68.3	31.7	97.5	2.5
	80세 이상	73.3	26.7	98.1	1.9
학력	무학	68.4	31.6	96.6	3.4
	초졸	59.8	40.2	98.5	1.5
	중졸	50.3	49.7	98.5	1.5
	고졸	38.0	62.0	96.2	3.8
	대학 재학 이상	34.8	65.2	97.2	2.8
배우자유무	있음	44.2	55.8	97.6	2.4
	없음	60.8	39.2	97.1	2.9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8.3	61.7	97.4	2.6
	비취업자	58.7	41.3	97.5	2.5
거주지역	서울	45.5	54.5	96.6	3.4
	광역시	46.1	53.9	98.4	1.6
	도	49.7	50.3	97.3	2.7
가구구성	노인단독	62.9	37.1	97.1	2.9
	노인부부	53.7	46.3	97.7	2.3
	그 외	39.3	60.7	97.3	2.7
가구소득분위	1분위	67.2	32.8	96.9	3.1
	2분위	60.6	39.4	97.6	2.4
	3분위	48.0	52.0	97.8	2.2
	4분위	39.8	60.2	97.0	3.0
	5분위	33.8	66.2	97.8	2.2
전 체		48.0	52.0	97.4	2.6

〈표 Ⅴ-4〉는 4대 중증질환으로 불리는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 치료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 중 8.2%가 4대 중증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95.2%가 해당 질환을 치료하거나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상에 차이가 있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4대 중증질환 보유율이 높았으며, 학력대가 낮아질수록 보유율이 다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을 때, 취업자보다는 비취업자가 4대 중증질환 보유율이 높았으며, 노인가구가 그 외 가구에 비해 보유율이 다소 높았다. 거주지역별 4대 중증질환 보유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가구 소득분위별로 보면 다른 질환과 큰 차이가 없는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4대 중증질환 보유율이 낮았다. 다소 특이한 것은, 치료 또는 약복용여부는 소득분위에 따른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5분위에서 치료 또는 약복용을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 4대 중증질환 보유여부 및 치료/약복용여부

(단위: %)

구분		유무		치료/약복용여부	
		있음	없음	하고있다	하고있지 않다
성별	남	9.2	90.8	94.5	5.5
	여	7.3	92.7	96.0	4.0
연령대	50대	3.5	96.5	95.1	4.9
	60대	7.8	92.2	93.0	7.0
	70대	13.2	86.8	95.6	4.4
	80세 이상	15.9	84.1	97.5	2.5
학력	무학	12.4	87.6	94.0	6.0
	초졸	11.3	88.7	96.5	3.5
	중졸	6.8	93.2	93.5	6.5
	고졸	6.7	93.3	95.6	4.4
	대학 재학 이상	5.0	95.0	94.2	5.8
배우자유무	있음	7.7	92.3	95.0	5.0
	없음	9.6	90.4	95.8	4.2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4.3	95.7	91.9	8.1
	비취업자	12.4	87.6	96.5	3.5
거주지역	서울	7.8	92.2	96.6	3.4
	광역시	9.3	90.7	97.9	2.1
	도	7.8	92.2	93.3	6.7
가구구성	노인단독	10.1	89.9	97.4	2.6
	노인부부	9.8	90.2	94.8	5.2
	그 외	6.3	93.7	94.7	5.3
가구소득분위	1분위	11.6	88.4	96.3	3.7
	2분위	10.5	89.5	97.0	3.0
	3분위	10.3	89.7	95.9	4.1
	4분위	5.7	94.3	93.8	6.2
	5분위	4.2	95.8	90.3	9.7
전 체		8.2	91.8	95.2	4.8

〈표 Ⅴ-5〉는 만성질환, 4대 중증질환 외 기타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치료 또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의 13.6%가 기타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8.1%가 치료하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는 만성질환이나 4대 중증질환 보유경향과 유사하다. 성별에 따른 보유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보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보유율이 낮아지며, 배우자가 없거나 비취업자가 기타질환 보유율이 다소 높았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노인단독 가구에서 특히 기타 질환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기타 질환 보유율이 낮았으나 4분위보다 5분위에서의 유병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이나 4대 중증질환보다 치료 또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5〉 만성질환, 4대 중증질환 외 기타질환 보유여부 및 치료/약복용여부

(단위: %)

구분		유무		치료/약복용여부	
		있음	없음	하고있다	하고있지 않다
성별	남	11.2	88.8	90.8	9.2
	여	15.6	84.4	86.5	13.5
연령대	50대	6.5	93.5	88.2	11.8
	60대	13.8	86.2	87.7	12.3
	70대	20.4	79.6	88.4	11.6
	80세 이상	26.4	73.6	89.5	10.5
학력	무학	25.2	74.8	88.3	11.7
	초졸	17.9	82.1	89.0	11.0
	중졸	14.0	86.0	92.5	7.5
	고졸	9.2	90.8	83.0	17.0
	대학 재학 이상	7.7	92.3	89.5	10.5
배우자유무	있음	11.4	88.6	89.2	10.8
	없음	21.0	79.0	86.2	13.8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0	91.0	86.8	13.2
	비취업자	18.6	81.4	88.8	11.2
거주지역	서울	16.0	84.0	94.3	5.7
	광역시	11.0	89.0	93.7	6.3
	도	13.9	86.1	83.7	16.3
가구구성	노인단독	21.8	78.2	87.1	12.9
	노인부부	13.7	86.3	89.1	10.9
	그 외	11.2	88.8	87.8	12.2
가구소득분위	1분위	24.9	75.1	87.4	12.6
	2분위	16.4	83.6	87.9	12.1
	3분위	13.1	86.9	90.5	9.5
	4분위	8.2	91.8	85.0	15.0
	5분위	8.8	91.2	88.5	11.5
전 체		13.6	86.4	88.1	11.9

다. 생활습관

조사대상자에게 평소 실천하고 있는 생활습관을 조사하였다. 아침 식사하기, 적정수면여부, 규칙적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Ⅴ-6〉은 각 항목 별 1개라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는 4개 항목 중 평균 3.27개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실천개수 평균을 살펴보면, 대부분 3개 이상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0세 이상이거나 무학인 경우 평균 3개 미만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하는 생활습관 개수는 거의 모든 특성에서 4개 모두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6〉 실천하는 생활습관 개수 별 응답자 특성분석

(단위: 개,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실천하는 생활습관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성별	남	3.32	0.79	0.3	1.9	13.1	34.9	49.8
	여	3.24	0.85	0.4	2.8	16.7	33.1	47.0
연령대	50대	3.34	0.80	0.3	2.2	12.4	32.9	52.2
	60대	3.34	0.78	0.5	1.1	13.2	34.4	50.9
	70대	3.22	0.83	0.2	2.7	16.6	35.4	45.1
	80세 이상	2.94	0.95	0.6	6.0	26.9	32.1	34.4
학력	무학	2.96	0.92	0.6	4.8	26.6	33.7	34.4
	초졸	3.18	0.84	0.5	2.1	18.6	36.1	42.7
	중졸	3.31	0.79	0.2	1.9	13.9	34.8	49.2
	고졸	3.35	0.80	0.4	2.3	11.8	32.9	52.6
	대학 재학 이상	3.43	0.74	0.0	1.8	9.4	32.3	56.4
배우자유무	있음	3.34	0.78	0.2	1.7	12.6	34.7	50.9
	없음	3.05	0.94	0.9	4.6	23.2	31.6	39.7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28	0.79	0.3	1.8	14.3	37.0	46.6
	비취업자	3.27	0.86	0.4	3.0	15.8	30.6	50.1
거주지역	서울	3.22	0.84	0.5	3.4	13.7	38.1	44.3
	광역시	3.39	0.80	0.1	2.0	13.6	27.5	56.8
	도	3.24	0.83	0.4	2.2	16.1	35.5	45.8
가구구성	노인단독	3.05	0.92	0.7	3.9	24.5	31.5	39.5
	노인부부	3.33	0.77	0.2	1.7	12.9	35.5	49.8
	그 외	3.29	0.83	0.4	2.5	14.0	33.5	49.6
가구소득분위	1분위	3.01	0.93	0.9	5.0	23.1	35.0	36.1
	2분위	3.26	0.80	0.2	1.9	15.5	36.1	46.2
	3분위	3.29	0.81	0.3	1.6	16.1	32.6	49.5
	4분위	3.38	0.77	0.3	1.7	11.2	33.3	53.5
	5분위	3.36	0.78	0.1	2.3	11.1	34.0	52.5
전 체		3.27	0.83	0.3	2.4	15.0	34.0	48.3

〈표 Ⅴ-7〉와 [그림 Ⅴ-2]는 각각의 생활습관별 실천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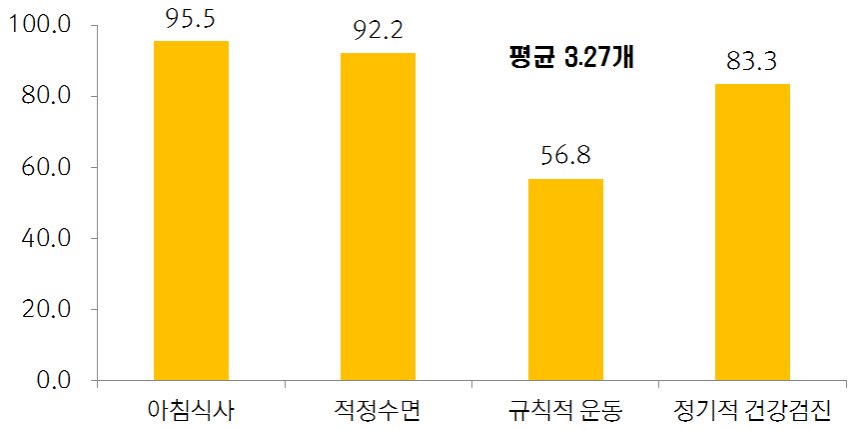
아침식사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빵이나 과일, 선식 등을 섭취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적정수면은 밤에 잠을 자고 피로감 없이 기분 좋게 깨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나, 하루 평균 6~8시간정도 자는 경우를 적정수면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은 규칙적 운동인데, 하루 평균 30분, 1주일 평균 150분 정도 본인의 건강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기적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2년에 1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로 정의한 후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95.5%가 아침식사를 하고 있으며, 92.2%가 적정수면을 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비율도 83.3%로 아침식사나 적정수면에 비해 다소 낮았다. 이보다 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6.8%).

생활습관에 따라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특성별로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50대, 배우자 없거나, 취업한 자, 서울 거주자, 노인단독 가구에서 평균에 밑도는 비율로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수면 역시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여성, 70세 이상인 자, 초등학교 졸업 이하, 배우자가 없는 자, 비취업자, 서울 거주자, 노인단독 가구일 경우 평균 비율을 밑돌았다. 규칙적 운동여부나 정기적 건강검진도 적정수면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침식사를 잘 하지만 적정수면비율도 다소 낮았고, 특히 규칙적 운동이나 정기적 건강검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5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과 적정수면을 실천하는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 V-2] 생활습관 실천여부

(단위: %)



〈표 Ⅴ-7〉 실천하는 생활습관 별 응답자 특성분석

(단위: %)

구분		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실천	비실천	실천	비실천	실천	비실천	실천	비실천
성별	남	95.7	4.3	94.0	6.0	57.6	42.4	85.1	14.9
	여	95.3	4.7	90.7	9.3	56.2	43.8	81.7	18.3
연령대	50대	93.5	6.5	92.8	7.2	59.8	40.2	88.3	11.7
	60대	96.5	3.5	92.7	7.3	59.2	40.8	85.8	14.2
	70대	97.3	2.7	91.6	8.4	54.5	45.5	79.3	20.7
	80세 이상	97.2	2.8	89.6	10.4	42.8	57.2	66.2	33.8
학력	무학	96.7	3.3	90.2	9.8	44.1	55.9	66.1	33.9
	초졸	97.3	2.7	91.1	8.9	51.5	48.5	79.1	20.9
	중졸	96.2	3.8	93.5	6.5	57.8	42.2	83.7	16.3
	고졸	93.8	6.2	92.3	7.7	60.6	39.4	88.5	11.5
	대학 재학 이상	94.8	5.2	93.7	6.3	64.8	35.2	90.1	9.9
배우자유무	있음	96.2	3.8	93.3	6.7	58.7	41.3	86.3	13.7
	없음	93.2	6.8	88.5	11.5	50.5	49.5	73.3	26.7

구분		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실천	비실천	실천	비실천	실천	비실천	실천	비실천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4.6	5.4	93.4	6.6	54.6	45.4	85.4	14.6
	비취업자	96.5	3.5	90.9	9.1	59.3	40.7	81.0	19.0
거주지역	서울	90.2	9.8	88.0	12.0	55.8	44.2	88.7	11.3
	광역시	97.8	2.2	95.2	4.8	63.0	37.0	83.0	17.0
	도	96.2	3.8	92.3	7.7	54.4	45.6	81.5	18.5
가구구성	노인단독	92.8	7.2	89.0	11.0	51.3	48.7	72.1	27.9
	노인부부	97.6	2.4	93.6	6.4	58.3	41.7	83.9	16.1
	그 외	94.6	5.4	92.1	7.9	57.2	42.8	86.0	14.0
가구소득분위	1분위	95.8	4.2	87.6	12.4	46.4	53.6	71.3	28.7
	2분위	96.8	3.2	92.7	7.3	58.1	41.9	78.9	21.1
	3분위	96.0	4.0	92.6	7.4	57.5	42.5	83.7	16.3
	4분위	95.7	4.3	93.4	6.6	60.9	39.1	88.2	11.8
	5분위	93.7	6.3	93.8	6.2	59.5	40.5	89.8	10.2
전 체		95.5	4.5	92.2	7.8	56.8	43.2	83.3	16.7

2. 생활

가. 생활 전반 만족도

조사대상자에게 현재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표 Ⅴ-8〉은 생활 전반 만족도에 대한 분포와 평균을 분석한 것이다.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표준편차 0.66).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조금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도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을 때, 취업한 경우, 노인단독 가구의 생활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만족도 외에 응답자 특성별로 응답분포를 살펴봤다. 성별에 따른 응답분포는 차이가 없었다. 50대에서는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보통'이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졸업 이하인 자는 '보통'에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졸 이상은 '만족'에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분은 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취업자는 '만족', 비취업자는 '보통'이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광역시만 '만족'비율이 높고 서울과 도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구성별로는 '보통'이 가장 많았으나, 노인단독 가구에선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타 가구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분위까지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4분위부터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1분위에서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Ⅴ-8〉 생활 전반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세부분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	3.41	0.64	0.4	5.7	48.0	44.4	1.4
	여	3.34	0.67	0.7	7.8	49.1	41.4	1.0
연령대	50대	3.53	0.63	0.2	4.5	40.0	53.2	2.1
	60대	3.39	0.62	0.4	5.6	49.7	43.5	0.8
	70대	3.20	0.67	1.2	10.0	56.4	32.0	0.4
	80세 이상	3.05	0.65	1.6	13.8	62.9	21.4	0.3
학력	무학	3.06	0.68	2.2	13.3	61.2	23.0	0.3
	초졸	3.21	0.66	0.8	10.3	57.0	31.2	0.6
	중졸	3.32	0.62	0.5	6.3	54.2	38.7	0.3
	고졸	3.49	0.62	0.1	4.5	42.8	51.0	1.5
	대학 재학 이상	3.64	0.61	0.3	2.7	32.9	60.9	3.1
배우자유무	있음	3.45	0.63	0.3	5.0	45.8	47.4	1.4
	없음	3.12	0.69	1.6	12.9	57.8	27.3	0.4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48	0.60	0.2	3.6	45.5	49.3	1.5
	비취업자	3.25	0.69	1.1	10.5	52.0	35.5	0.9
거주지역	서울	3.34	0.65	0.3	8.3	49.7	40.7	1.0
	광역시	3.41	0.67	0.5	7.2	45.0	45.3	2.0
	도	3.36	0.65	0.8	6.2	49.8	42.3	0.9
가구구성	노인단독	3.11	0.70	2.1	12.6	58.2	26.6	0.5
	노인부부	3.40	0.64	0.6	5.7	47.4	45.3	1.0
	그 외	3.42	0.64	0.2	6.1	49.7	45.5	1.5
가구소득분위	1분위	2.99	0.69	2.5	16.4	60.6	20.2	0.2
	2분위	3.27	0.63	0.4	8.4	55.3	35.6	0.3
	3분위	3.36	0.63	0.3	6.4	51.4	40.9	1.0
	4분위	3.49	0.60	0.2	3.6	44.9	50.1	1.3
	5분위	3.62	0.58	0.0	2.3	36.2	59.0	2.5
전 체		3.37	0.66	0.6	6.9	48.6	42.8	1.2

나. 월평균 소득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조사하였다(〈표 Ⅴ-9〉).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월 248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및 가구특성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가구주 성별이 남성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67.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여성가구주 가구는 130.8만원으로 나타나 약 1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5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342.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100.8만원으로 나타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별로도 월평균 가구소득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주 학력이 무학인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은 93.6만원이었으나 대학 재학 이상인 가구주 가구는 380.2만원으로 약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가구주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평균 276.5만원이었고,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 가구는 132.4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도 월평균 가구소득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주가 취업자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80.4만원이었으나 비취업자인 경우 140.2만원으로 나타나 약 2배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서울이 월 310만원 1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는 242만 2천원, 도 지역은 23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노인단독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93.6만원으로 100만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 가구는 191.1만원으로 가구 평균 월 248만 4천원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9〉 지난 1년 간 월평균 가구 소득 (세전)

(단위: 천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 성별	남	2,669.8	2,020.7
	여	1,308.5	1,097.3
가구주 연령대	50세 미만	2,930.4	1,480.0
	50대	3,426.0	2,211.4
	60대	2,190.3	1,680.0
	70대	1,347.1	1,018.3
	80세 이상	1,008.1	818.8
가구주 학력	무학	936.0	788.9
	초졸	1,405.1	1,083.0
	중졸	1,845.1	1,106.0
	고졸	2,702.4	1,708.5
	대학 재학 이상	3,801.6	2,662.3
가구주 배우자유무	있음	2,765.5	2,042.3
	없음	1,323.8	1,098.6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803.5	2,055.0
	비취업자	1,401.7	1,192.4
거주지역	서울	3,100.6	2,407.6
	광역시	2,421.8	1,627.5
	도	2,300.2	1,887.2
가구구성	노인단독	935.8	712.8
	노인부부	1,911.3	1,412.2
	그 외	3,374.1	2,126.3
전 체		2483.9	1962.7

다. 최소, 적정 생활비[8)]

〈표 Ⅴ-10〉과 [그림 Ⅴ-3]은 최소 수준의 노후생활비와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비를 조사한 결과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최소 생활비란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적정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부부기준와 개인기준으로 모두 응답받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부'를 가정하여 부부, 개인기준 모두 응답받는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167만 3천원이며, 개인기준으로 103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 필요 최소 생활비를 분석하였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인지한 필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낮아졌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필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필요 최소 생활비 수준을 높게 생각했으며, 서울지역이 광역시, 도 지역보다 최소 생활비 수준을 높게 봤다. 가구구성별로 보면 노인단독 가구에서 최소 생활비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노인부부 가구, 그 외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필요 생활비 수준을 높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생활비 수준은 최소 생활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부부기준으로 월평균 230만 9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개인기준으로 월평균 145만 7천원이 필요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적정 생활비 분석결과의 경향성은 최소 생활비와 동일하다.

---

8)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는 모두 응답자가 인식하는 비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이 아님을 밝힌다. 인용에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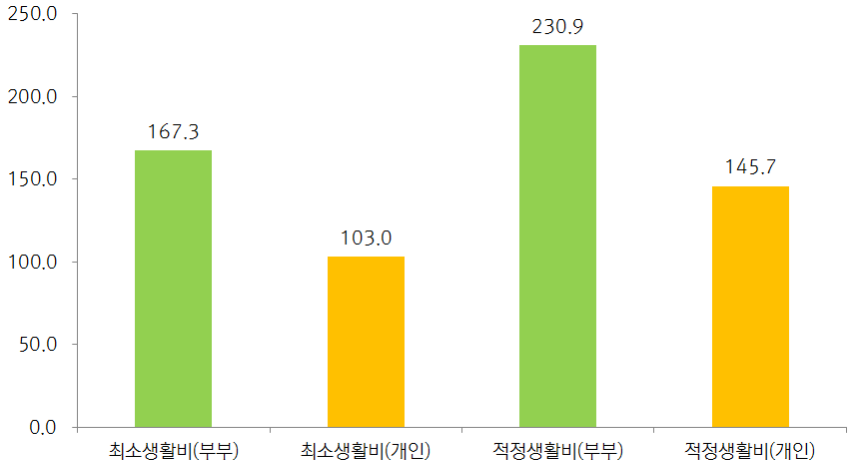
〈표 Ⅴ-10〉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적정 생활비

(단위: 만원)

구분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부부기준	개인기준	부부기준	개인기준
성별	남	172.2	106.0	237.2	149.6
	여	163.2	100.5	225.6	142.4
연령대	50대	192.8	117.7	263.3	164.6
	60대	163.8	100.7	226.9	142.8
	70대	140.3	88.4	196.9	127.0
	80세 이상	135.8	84.0	189.0	119.8
학력	무학	129.5	80.8	180.7	115.7
	초졸	142.0	88.7	200.1	126.8
	중졸	156.4	97.8	218.2	140.1
	고졸	183.2	111.7	248.7	156.2
	대학 재학 이상	210.4	127.7	289.7	179.5
배우자유무	있음	174.2	107.3	240.2	151.5
	없음	144.2	88.6	199.9	126.3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75.6	107.7	241.4	151.6
	비취업자	158.0	97.8	219.3	139.1
거주지역	서울	195.1	115.7	276.2	165.4
	광역시	167.2	101.1	227.3	141.1
	도	157.8	99.6	217.0	141.0
가구구성	노인단독	135.7	83.8	188.4	120.0
	노인부부	158.3	99.4	220.5	141.9
	그 외	183.4	111.4	251.3	156.0
가구소득분위	1분위	115.2	71.5	163.8	104.1
	2분위	138.7	90.3	195.2	128.8
	3분위	162.4	100.1	224.3	141.3
	4분위	180.7	111.3	246.9	156.2
	5분위	215.2	129.2	293.5	181.3
전 체		167.3	103.0	230.9	145.7

[그림 Ⅴ-3]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적정 생활비

(단위: 만원)



Ⅵ. 사회참여

노후준비의 4대영역인 건강, 여가, 대인관계, 재무적 준비 외에도 중·고령자의 삶을 볼 수 있는 사회참여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부가조사에서는 중·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단체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을 통해 측정하였다.

1. 단체활동

사회참여활동 중 단체참여활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단체참여활동은 친목 및 사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지역사회모임, 시민사회단체, 그 외 단체활동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표 Ⅵ-1〉은 응답자의 단체활동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의 72.3%가 지난 1년간 단체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참여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체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단체활동 참여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자의 단체활동 참여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데,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의 단체활동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 사는 자가 서울이나 도지역에 사는 자 보다 단체활동 경험이 더 많았으며, 노인단독 가구의 개인은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타 가구유형에 거주하는 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단체활동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 단체참여활동 여부

(단위: %)

구분		단체활동 경험있음	단체활동 경험없음
성별	남	76.2	23.8
	여	69.0	31.0
연령대	50대	83.1	16.9
	60대	77.8	22.2
	70대	59.1	40.9
	80세 이상	41.8	58.2
학력	무학	47.0	53.0
	초졸	61.4	38.6
	중졸	73.2	26.8
	고졸	82.0	18.0
	대학 재학 이상	84.8	15.2
배우자유무	있음	77.8	22.2
	없음	54.1	45.9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0.8	19.2
	비취업자	62.8	37.2
거주지역	서울	70.4	29.6
	광역시	76.0	24.0
	도	71.2	28.8
가구구성	노인단독	56.1	43.9
	노인부부	75.1	24.9
	그 외	74.7	25.3
가구소득분위	1분위	51.0	49.0
	2분위	66.8	33.2
	3분위	74.5	25.5
	4분위	77.5	22.5
	5분위	84.1	15.9
전 체		72.3	27.7

응답자는 1개 분야의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2〉).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1개 분야의 단체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참여 분야 개수 분포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80세 이상인 경우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8.2%). 학력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무학의 경우 아무런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과반 이상이었으며(53.0%),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45.9%). 경제활동상태나 거주지역, 가구구성별 참여 분야 분포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에서 단체참여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분위부터는 1개 분야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Ⅵ-2〉 단체참여활동 갯수

(단위: 개,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참여활동 갯수			
				0개	1개	2개	3개이상
성별	남	0.96	0.71	23.8	59.6	13.7	2.9
	여	0.85	0.71	31.0	55.0	12.0	2.0
연령대	50대	1.05	0.67	16.9	64.6	15.8	2.7
	60대	0.97	0.69	22.2	62.1	12.7	3.0
	70대	0.73	0.72	40.9	47.3	10.2	1.6
	80세 이상	0.48	0.62	58.2	35.7	5.9	0.2
학력	무학	0.54	0.63	53.0	40.2	6.6	0.2
	초졸	0.73	0.68	38.6	50.6	9.5	1.3
	중졸	0.91	0.71	26.8	58.3	12.1	2.8
	고졸	1.03	0.68	18.0	64.2	14.9	2.9
	대학 재학 이상	1.12	0.73	15.2	62.2	18.4	4.2
배우자유무	있음	0.98	0.67	22.2	60.9	14.0	2.9
	없음	0.65	0.73	45.9	44.6	8.7	0.8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01	0.67	19.2	63.7	14.4	2.7
	비취업자	0.78	0.73	37.2	49.8	10.9	2.1
거주지역	서울	0.85	0.69	29.6	57.1	11.5	1.8
	광역시	0.95	0.70	24.0	60.4	12.7	2.9
	도	0.90	0.72	28.8	55.6	13.2	2.4
가구구성	노인단독	0.67	0.67	43.9	46.1	9.3	0.7
	노인부부	0.93	0.70	24.9	59.5	13.2	2.4
	그 외	0.94	0.72	25.3	58.4	13.5	2.8
가구소득분위	1분위	0.61	0.67	49.0	42.0	8.4	0.6
	2분위	0.82	0.70	33.2	54.0	10.8	2.1
	3분위	0.91	0.67	25.5	60.4	12.1	1.9
	4분위	0.99	0.73	22.5	59.7	13.8	3.9
	5분위	1.08	0.69	15.9	64.1	16.9	3.1
전 체		0.90	0.71	27.7	57.1	12.8	2.4

가. 단체활동 종류별 참여여부

다음 〈표 Ⅵ-3〉 및 [그림 Ⅵ-1]은 단체활동 종류별 참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친목 및 사교단체는 계모임, 동창회, 종친회, 해병대 전우회 등을 말한다. 응답자의 94.4%가 친목 및 사교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보였다. 단체활동 중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활동에는 산악회, 사진동호회, 생활체육회, 아파트 커뮤니티 내 운동모임 등이 포함된다.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활동 참여율은 11.7%로 친목 및 사교단체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지역사회 모임 참여율은 7.1%로 나타났으며, 환경단체나 봉사단체 등 시민단체 참여율은 1.9%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 외 단체 참여율은 9.5%로 나타났는데, 이에 응답한 응답자 대부분이 종교단체 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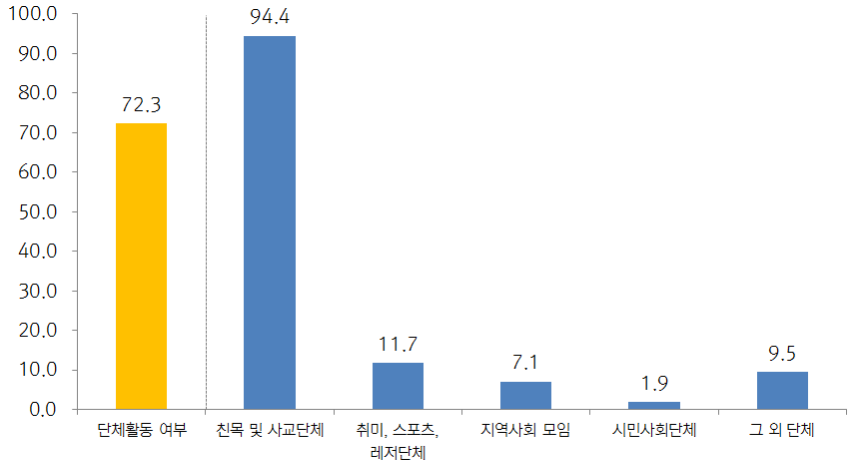
〈표 Ⅵ-3〉 단체활동 참여여부 및 각 활동별 참여여부

(단위: %)

구분	단체활동	단체활동 종류				
		친목 및 사교단체	취미, 스포츠, 레저단체	지역사회 모임	시민사회 단체	그 외 단체
참여	72.3	94.4	11.7	7.1	1.9	9.5
비참여	27.7	5.6	88.3	92.9	98.1	9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Ⅵ-1] 단체활동 참여율 및 각 활동별 참여율

(단위: %)



나. 단체활동 참여 이유

지난 1년간 1개라도 모임이나 단체활동을 한 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조사하였다(〈표 Ⅵ-4〉).

응답자 전체로 봤을 때,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단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54.7%), 활동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단체활동을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34.0%). 그 외의 사유들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나 자녀, 친구, 이웃 등 주변의 권유에 의해 활동을 했거나, 응답자 본인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거나,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활동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남들이 하거나 남는 시간이 많아서 단체참여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표 Ⅵ-4〉 단체참여 이유

(단위: %)

구분		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낌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주변의 권유에 의해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남들이 하니까	남는 시간이 많아서	기타
성별	남	32.5	57.0	7.3	1.6	1.0	0.4	0.3	0.0
	여	35.5	52.7	8.0	1.7	1.0	0.5	0.5	0.2
연령대	50대	34.5	55.7	6.2	1.7	1.2	0.5	0.1	0.2
	60대	33.1	55.8	7.9	1.7	1.0	0.2	0.4	0.0
	70대	33.7	53.1	9.7	1.5	0.4	0.8	0.8	0.0
	80세 이상	38.3	43.5	12.3	1.8	2.1	0.4	1.5	0.0
학력	무학	35.9	46.0	12.6	1.6	0.6	1.3	1.9	0.0
	초졸	31.0	56.2	8.6	1.7	1.3	0.6	0.4	0.2
	중졸	33.2	55.4	7.4	2.3	0.8	0.4	0.2	0.1
	고졸	33.7	55.7	7.4	1.7	1.0	0.2	0.2	0.1
	대학재학 이상	38.2	53.8	5.3	0.9	1.1	0.4	0.3	0.0
배우자 유무	있음	34.0	54.9	7.5	1.8	1.0	0.4	0.3	0.0
	없음	34.3	53.7	8.2	0.9	1.1	0.5	1.0	0.3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32.5	56.8	7.0	1.9	0.9	0.5	0.3	0.1
	비취업자	36.2	51.8	8.6	1.4	1.1	0.3	0.5	0.1
거주지역	서울	39.2	56.4	3.0	0.7	0.4	0.0	0.1	0.1
	광역시	34.2	52.8	9.0	1.7	1.4	0.6	0.3	0.0
	도	32.3	55.1	8.6	2.0	1.0	0.5	0.5	0.1
가구구성	노인단독	35.1	50.9	9.6	0.8	1.4	0.3	1.3	0.5
	노인부부	34.4	53.5	8.5	2.0	0.7	0.5	0.3	0.0
	그 외	33.6	56.5	6.6	1.6	1.1	0.4	0.3	0.0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32.8	52.9	8.9	1.2	1.6	0.5	1.6	0.5
	2분위	36.6	50.3	9.4	2.3	0.2	0.9	0.3	0.0
	3분위	31.7	56.2	9.1	1.3	1.1	0.4	0.2	0.1
	4분위	30.7	57.2	8.3	2.6	1.0	0.1	0.0	0.0
	5분위	38.3	54.2	4.5	1.2	1.0	0.4	0.4	0.1
전 체		34.0	54.7	7.7	1.7	1.0	0.4	0.4	0.1

다. 단체활동 참여 경로

다음은 단체활동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조사하였다(〈표 Ⅵ-5〉). 참여경로는 ①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거나 ② 가족(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 알게 되거나 ③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알게 되거나 ④ 단체의 직접 홍보(방문, 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알게 되거나 위의 4가지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⑤ 기타로 응답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이나 이웃,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78.3%).

응답자 특성별 참여경로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특성에서 '가족이나 이웃,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별차이에 따른 분포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에서는 80세 이상인 자에서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학력이 무학이거나, 노인단독 가구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비율이 높았다. 가구 소득분위로 보면 역시 가족(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 단체활동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특이한 점은 소득1, 2분위는 가족이나 이웃 외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등을 통해 단체활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으나, 3분위부터는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5〉 단체활동 참여경로

(단위: %)

구분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가족(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단체의 직접 홍보(방문, 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기타
성별	남	11.1	78.7	8.4	1.4	0.4
	여	10.0	77.9	10.0	1.5	0.6
연령대	50대	10.4	82.6	4.8	1.8	0.4
	60대	10.4	78.2	9.7	1.2	0.5
	70대	11.4	71.9	14.7	1.2	0.9
	80세 이상	10.2	63.3	23.5	2.4	0.6
학력	무학	9.7	67.1	21.5	1.4	0.3
	초졸	8.7	76.8	13.2	0.7	0.6
	중졸	10.8	77.5	10.3	1.0	0.4
	고졸	11.2	80.5	6.4	1.4	0.5
	대학 재학 이상	11.2	80.3	5.0	3.0	0.4
배우자 유무	있음	10.4	80.1	7.6	1.5	0.4
	없음	11.1	69.6	17.1	1.4	0.8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0.4	80.3	7.6	1.4	0.3
	비취업자	10.7	75.3	11.6	1.6	0.8
거주지역	서울	7.2	85.0	3.8	3.0	1.1
	광역시	20.2	73.0	6.1	0.7	0.1
	도	7.0	78.5	12.6	1.3	0.5
가구구성	노인단독	11.3	66.0	20.3	1.6	0.8
	노인부부	10.5	77.6	9.8	1.5	0.6
	그 외	10.4	81.4	6.4	1.4	0.4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8.1	69.9	20.0	1.4	0.6
	2분위	10.2	73.0	14.9	1.1	0.7
	3분위	13.3	76.9	8.1	1.3	0.3
	4분위	10.0	79.9	7.5	1.8	0.7
	5분위	9.5	84.3	4.3	1.5	0.4
전 체		10.5	78.3	9.2	1.5	0.5

라. 단체활동 만족도

다음 〈표 Ⅵ-6〉은 단체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준다. 단체활동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단체참여활동을 하는 자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3.71점으로 나타났다.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69.0%). 단체활동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Ⅵ-6〉 단체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세부분포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	3.71	0.56	1.0	0.5	27.2	69.6	1.8
	여	3.71	0.57	1.0	0.7	27.2	68.6	2.6
연령대	50대	3.73	0.55	1.0	0.4	24.8	72.2	1.6
	60대	3.70	0.57	1.0	0.5	27.5	69.0	1.9
	70대	3.69	0.60	1.0	0.8	29.5	65.0	3.6
	80세 이상	3.67	0.63	0.7	2.0	31.3	61.3	4.7
학력	무학	3.67	0.65	1.4	1.5	29.8	63.3	4.0
	초졸	3.67	0.60	0.8	1.1	32.1	62.7	3.3
	중졸	3.64	0.58	0.9	0.4	34.1	62.7	1.8
	고졸	3.73	0.54	0.9	0.4	25.0	72.1	1.6
	대학 재학 이상	3.79	0.53	1.2	0.1	18.9	77.9	1.9
배우자 유무	있음	3.71	0.56	1.0	0.4	26.7	70.0	1.9
	없음	3.68	0.61	0.8	1.5	29.8	64.4	3.5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3.71	0.57	1.2	0.5	25.7	70.9	1.7
	비취업자	3.70	0.57	0.7	0.7	29.3	66.4	2.9
거주지역	서울	3.78	0.53	0.9	0.3	21.2	75.3	2.3
	광역시	3.66	0.58	0.9	0.7	32.1	64.4	1.8
	도	3.71	0.57	1.1	0.6	26.9	69.1	2.3
가구구성	노인단독	3.68	0.61	0.7	1.8	29.7	64.1	3.7
	노인부부	3.70	0.56	0.9	0.6	28.4	67.9	2.2
	그 외	3.72	0.56	1.1	0.3	25.7	71.0	1.8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3.66	0.61	1.0	1.2	31.7	62.8	3.3
	2분위	3.68	0.56	0.5	1.2	29.9	66.5	2.0
	3분위	3.67	0.58	1.0	0.5	31.7	64.3	2.5
	4분위	3.70	0.53	0.4	0.5	29.1	68.3	1.7
	5분위	3.78	0.56	1.6	0.2	18.2	78.0	1.9
전 체		3.71	0.57	1.0	0.6	27.2	69.0	2.2

마. 단체활동 변화 희망여부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지 조사했다(〈표 Ⅵ-7〉). 변화를 원치 않은 자가 94.7%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으며, 단체활동자의 5.3%만이 변화를 주고 싶다고 응답했다.

〈표 Ⅵ-7〉 단체활동에 대한 변화 희망여부

(단위: %)

구분		변화 원치 않음	변화를 주고싶음
성별	남	94.4	5.6
	여	95.0	5.0
연령대	50대	92.3	7.7
	60대	96.3	3.7
	70대	96.8	3.2
	80세 이상	97.9	2.1
학력	무학	96.5	3.5
	초졸	96.9	3.1
	중졸	95.2	4.8
	고졸	93.4	6.6
	대학 재학 이상	93.8	6.2
배우자 유무	있음	94.5	5.5
	없음	95.8	4.2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3.8	6.2
	비취업자	96.0	4.0
거주지역	서울	95.3	4.7
	광역시	95.2	4.8
	도	94.3	5.7
가구구성	노인단독	95.7	4.3
	노인부부	95.6	4.4
	그 외	93.8	6.2
가구소득분위	1분위	96.5	3.5
	2분위	96.7	3.3
	3분위	94.8	5.2
	4분위	94.4	5.6
	5분위	93.1	6.9
전 체		94.7	5.3

바. 향후 단체활동 참여 희망여부

다음은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향후 단체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조사하였는데, 향후 단체활동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가 57.7%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Ⅵ-8〉). 응답자 특성별로 참여의향에 다소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른 참여의향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연령대의 경우, 60대 이하에서는 참여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과반 이상이었으나, 70세 이상부터는 향후 단체활동 참여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다. 학력에서도 연령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자는 향후 단체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중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향후 참여의향이 과반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향후 단체활동 참여의향이 높았으나, 배우자가 없으면 참여의향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도 참여의향분포가 달랐는데, 취업자는 참여의향이 있었으나 비취업자는 참여의향이 없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노인단독 가구에서는 향후 단체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향후 단체활동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8〉 향후 단체활동 참여의향 유무

(단위: %)

구분		참여의향 있음	참여의향 없음
성별	남	60.4	39.6
	여	55.4	44.6
연령대	50대	67.5	32.5
	60대	62.5	37.5
	70대	45.4	54.6
	80세 이상	29.5	70.5
학력	무학	34.0	66.0
	초졸	48.2	51.8
	중졸	59.1	40.9
	고졸	66.2	33.8
	대학 재학 이상	69.1	30.9
배우자 유무	있음	62.3	37.7
	없음	42.4	57.6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5.2	34.8
	비취업자	49.3	50.7
거주지역	서울	55.8	44.2
	광역시	60.3	39.7
	도	57.1	42.9
가구구성	노인단독	43.6	56.4
	노인부부	61.0	39.0
	그 외	59.2	40.8
가구소득분위	1분위	39.5	60.5
	2분위	52.7	47.3
	3분위	57.6	42.4
	4분위	63.0	37.0
	5분위	69.3	30.7
전 체		57.7	42.3

2. 자원봉사활동

본 조사에서는 사회참여를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자원봉사활동은 세 부분 중 하나이다. 자원봉사활동도 단체참여활동과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활동분야와 해당 분야에서의 참여 여부, 횟수, 시간 및 전문적인 봉사활동인지를 조사했다.

〈표 Ⅵ-9〉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 분석한 표이다. 조사대상자의 7.4%만이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율이 조금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졌으며, 배우자가 있는 자가 없는 자와 비교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도 지역 거주자가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단독 가구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분위에서 다소 참여율이 낮아졌다가 4분위부터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Ⅵ-9〉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 안함
성별	남	7.0	93.0
	여	7.8	92.2
연령대	50대	10.4	89.6
	60대	7.1	92.9
	70대	4.6	95.4
	80세 이상	2.5	97.5
학력	무학	2.5	97.5
	초졸	4.8	95.2
	중졸	6.6	93.4
	고졸	9.8	90.2
	대학 재학 이상	10.7	89.3
배우자 유무	있음	8.3	91.7
	없음	4.5	95.5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3	91.7
	비취업자	6.4	93.6
거주지역	서울	6.4	93.6
	광역시	6.6	93.4
	도	8.1	91.9
가구구성	노인단독	4.8	95.2
	노인부부	7.5	92.5
	그 외	8.1	91.9
가구소득분위	1분위	3.7	96.3
	2분위	6.9	93.1
	3분위	6.1	93.9
	4분위	8.4	91.6
	5분위	11.0	89.0
전 체		7.4	92.6

〈표 Ⅵ-10〉은 봉사활동 종류별 참여 여부와 횟수, 참여시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1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 중 40.1%가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봉사활동은 재활용품 수거, 분리나 마을청소, 불법 홍보물 제거, 환경감시, 야간 방범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봉사활동 참여자의 65.4%가 월 1회 이하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1회 참여당 평균 130.8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봉사는 본인의 직업이나 자격증, 전공 또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야와 관련된 전문 노력봉사활동 여부를 말하는데, 이러한 전문적 봉사는 약 7.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 중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봉사활동으로 해당 봉사활동은 복지시설, 병원, 가정봉사, 방과후 교실 등에서의 자원활동을 포함하며, 보육원, 양로원, 병원, 복지시설, 교도소 등에서의 봉사활동이 포함됐다. 응답자 중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35.5%였다. 참여빈도는 월 1회 이하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1회당 162.52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봉사활동은 2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문화자원봉사는 도슨트, 문화해설사, 숲 해설사 등을 포함하는데, 해당 봉사활동에는 2.9%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69.4%가 월 1회 이하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평균 220.4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봉사활동의 전문적 봉사활동은 43.7%로 나타났는데, 도슨트나 문화해설사 등은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손)자녀 교육 등과 관련한 봉사활동의 경우 (손)자녀 학교 등에서의 일일교사, 등하교 횡당보도 교통지도 등이 포함된다. 응답자 중 4.2%만이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는 대부분 주 3~4회부터 월 1회 이하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 3~4회 참여한 자가 가장 많았다. 1회당 봉사활동 시간은 평균 56.4분이었으며, 전문적 봉사활동은 7.6%로 나타났다.

문화자원봉사는 도슨트, 문화해설사, 숲 해설사 등이 포함되는데, 해당 봉사활동에는 2.9%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69.4%가 월 1회 이하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평균 220.4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봉사활동의 전문적 봉사활동은 43.7%로 나타났는데, 도슨트나 문화해설사 등은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으로 해당 봉사활동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문화행사 등에서의 안내, 통역 등을 포함한다.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0.6%로 나타났으며, 1회당 참여시간은 182.4분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6.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 관련 자원봉사 참여비율은 2.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1회당 참여시간은 238.6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18.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을 위한 봉사활동의 경우 참여율이 6.1%로 나타났으며, 1회당 참여시간은 139.2분, 전문적 봉사에 해당하는 비율은 22.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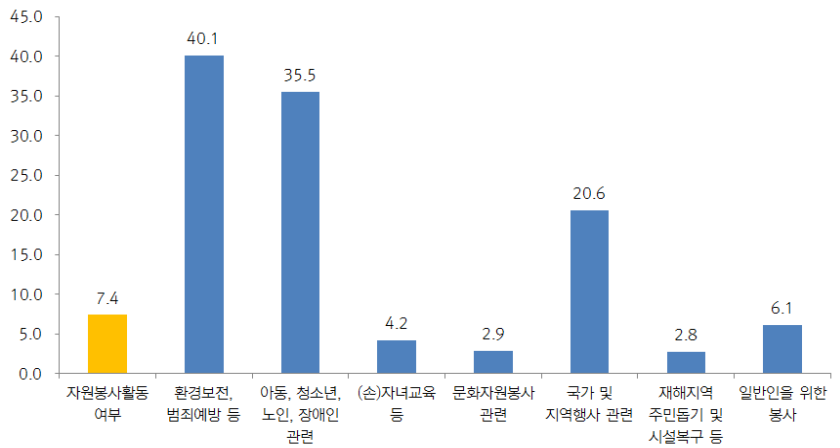
〈표 Ⅵ-10〉 자원봉사활동 종류별 참여비율, 횟수, 시간 및 전문적 봉사 여부

(단위: %, 회, 분)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다빈도 1개)	참여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여부	
		참여	비참여			해당	비해당
자원봉사활동 전체		7.4	92.6	-	-	-	-
자원봉사 종류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	40.1	59.9	월 1회 이하	130.8분	7.6	92.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제소자 등 관련	35.5	64.5	월 1회 이하	165.5분	24.3	75.7
	(손)자녀교육 등	4.2	95.8	주 3~4회	56.4분	7.6	92.4
	문화자원봉사 관련	2.9	97.1	월 1회 이하	220.4분	43.7	56.3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20.6	79.4	월 1회 이하	182.4분	6.7	93.3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	2.8	97.2	월 1회 이하	238.6분	18.0	81.8
	일반인을 위한 봉사	6.1	93.9	월 1회 이하	139.2분	22.4	77.6

[그림 Ⅵ-2]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각 종류별 참여율

(단위: %)



다음 〈표 Ⅵ-11〉은 지난 1년간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개수를 분석한 것이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이 약 7.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1개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고,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및 소득분위 4, 5분위에서 2개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Ⅵ-11〉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분야 개수

(단위: %)

구분		0개	1개	2개	3개
성별	남	93.0	5.6	1.3	0.1
	여	92.2	6.5	1.2	0.1
연령대	50대	89.6	8.5	1.7	0.2
	60대	92.9	6.0	1.0	0.0
	70대	95.4	3.9	0.7	0.0
	80세 이상	97.5	1.9	0.6	0.0
학력	무학	97.5	1.9	0.6	0.0
	초졸	95.2	3.9	0.9	0.0
	중졸	93.4	5.5	1.0	0.1
	고졸	90.2	8.1	1.5	0.2
	대학 재학 이상	89.3	8.5	2.1	0.1
배우자 유무	있음	91.7	6.7	1.5	0.1
	없음	95.5	4.1	0.3	0.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1.7	6.6	1.6	0.1
	비취업자	93.6	5.5	0.9	0.0
거주지역	서울	93.6	5.9	0.5	0.0
	광역시	93.4	5.7	0.9	0.0
	도	91.9	6.3	1.7	0.1
가구구성	노인단독	95.2	4.4	0.4	0.0
	노인부부	92.5	6.3	1.2	0.1
	그 외	91.9	6.4	1.6	0.1
가구소득분위	1분위	96.3	3.3	0.3	0.0
	2분위	93.1	5.9	1.0	0.0
	3분위	93.9	5.0	1.1	0.1
	4분위	91.6	6.4	1.8	0.2
	5분위	89.0	9.0	1.8	0.1
전 체		92.6	6.1	1.3	0.1

자원봉사를 한다고 응답한 자에게 자원봉사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물었다. 다수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참여횟수가 가장 많았던 자원봉사활동 기준으로 한 가지만 응답받았다. 결과는 다음 〈표 Ⅵ-12〉와 같다.

응답자의 36.3%가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는 응답도 24.4%가 나왔다. 또한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의견도 21.3%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소속 집단이나 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10.4%), '주변의 권유'에 의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으며(7.4%), '남들이 하기 때문에' 본인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 여 모두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번째로 높게 나온 사유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 반면, 여성은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응답이 많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도 전 연령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번째로 높게 나온 요인은 달랐는데, 50대, 60대, 80세 이상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으나, 70대에서는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력별 주된 사유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무학 및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자는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자는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응

답이 많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졸업 학력자는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주 이유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취업자는 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거나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비취업자는 활동 자체로부터의 즐거움을 느끼거나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는 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도 지역 거주자는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구구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가구 소득분위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역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자원봉사 활동 자체에서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한다 였다. 1분위와 5분위에서는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2, 3, 4분위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Ⅵ-12〉 자원봉사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활동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	주변의 권유	소속 집단, 단체 등의 요청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남들이 하니까
성별	남	37.6	29.9	6.0	11.6	14.9	0.0
	여	35.3	20.2	8.5	9.5	26.1	0.4
연령대	50대	36.5	24.9	8.7	9.0	20.9	0.0
	60대	37.9	25.2	5.0	13.4	17.7	0.8
	70대	33.2	23.1	5.8	11.3	26.6	0.0
	80세 이상	36.2	35.3	6.7	18.0	3.8	0.0
학력	무학	37.8	31.2	11.3	16.5	3.2	0.0
	초졸	29.6	33.0	7.1	14.4	14.4	1.5
	중졸	44.6	17.7	5.5	7.2	25.1	0.0
	고졸	37.1	21.3	9.3	7.9	24.4	0.0
	대학 재학 이상	33.2	28.3	4.3	14.2	20.0	0.0
배우자 유무	있음	36.8	23.7	6.8	10.9	21.9	0.0
	없음	33.1	28.4	11.3	7.9	17.7	1.6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4.5	29.6	7.6	12.2	16.1	0.0
	비취업자	38.8	16.8	7.2	7.9	28.8	0.6
거주지역	서울	49.9	13.7	2.4	12.9	21.1	0.0
	광역시	33.7	26.1	6.0	6.6	27.7	0.0
	도	33.6	26.6	9.3	11.2	19.0	0.4
가구구성	노인단독	28.7	25.0	10.8	9.6	23.4	2.5
	노인부부	36.6	26.3	6.2	11.1	19.8	0.0
	그 외	37.4	22.9	7.7	10.1	22.0	0.0
가구소득분위	1분위	36.7	25.4	2.9	4.9	27.4	2.7
	2분위	35.2	25.2	10.5	10.7	18.3	0.0
	3분위	39.8	25.2	8.6	11.9	14.4	0.0
	4분위	31.7	29.4	5.0	8.9	25.1	0.0
	5분위	37.5	20.0	8.2	11.8	22.5	0.0
전 체		36.3	24.4	7.4	10.4	21.3	0.2

주: 남는 시간이 많아서, 기타 응답은 나오지 않음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시 소속했던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했던 봉사활동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그 경로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Ⅵ-13>). 다수의 자원봉사를 한 경우, 참여횟수가 가장 많았던 자원봉사활동을 기준으로 응답받았다.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경로는 주로 '가족, 이웃, 친구'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47.9%).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33.9%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나 단체의 직접 홍보'를 통해 알게 된 경우도 많았다(12.7%).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생각보다 적었다(5.1%).

응답자 특성별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을 비교해보면, 성별, 연령대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다소 있었는데, 중학교 졸업의 학력자는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상태,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가구구성별 차이는 있었는데, 노인단독가구에서는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노인부부나 그 외 가구에서는 가족, 이웃, 친구를 통해 안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구 소득분위별로 보면, 1, 3분위에서는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등에서 정보를 획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2, 4, 5분위에서는 가족, 이웃,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Ⅵ-13〉 자원봉사를 알게 된 경로

(단위: %)

구분		대중매체를 통해	가족, 이웃, 친구를 통해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단지,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나 단체의 직접홍보를 통해	기타
성별	남	2.6	50.3	37.9	8.4	0.8
	여	7.0	46.2	30.9	16.0	0.0
연령대	50대	5.7	50.9	28.8	14.1	0.4
	60대	4.5	42.4	37.7	15.5	0.0
	70대	2.3	46.0	43.3	7.3	1.0
	80세 이상	3.7	45.4	41.4	9.5	0.0
학력	무학	7.0	45.1	41.3	6.6	0.0
	초졸	4.2	45.2	44.7	5.0	0.9
	중졸	6.0	40.3	42.2	11.6	0.0
	고졸	3.6	52.0	31.8	12.1	0.5
	대학 재학 이상	7.9	47.2	23.8	21.2	0.0
배우자 유무	있음	5.3	49.3	33.0	12.0	0.4
	없음	3.7	39.6	39.6	17.1	0.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5.5	51.7	32.5	10.0	0.4
	비취업자	4.5	42.6	36.0	16.5	0.3
거주지역	서울	3.7	39.8	37.3	17.1	2.1
	광역시	5.9	52.3	33.0	8.8	0.0
	도	5.2	48.6	33.3	13.0	0.0
가구구성	노인단독	3.2	38.4	41.9	16.6	0.0
	노인부부	4.1	47.9	35.9	12.1	0.0
	그 외	6.1	49.6	31.1	12.5	0.7
가구소득분위	1분위	2.1	36.3	48.0	13.6	0.0
	2분위	7.6	43.1	40.0	9.4	0.0
	3분위	6.7	38.4	43.9	11.0	0.0
	4분위	0.6	58.3	27.0	14.1	0.0
	5분위	6.9	51.4	26.9	13.8	1.0
전 체		5.1	47.9	33.9	12.7	0.3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 중 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지, 변화를 주고 싶다면 자원봉사활동 종류, 횟수, 시간 및 전문적 봉사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싶은지 조사하였다(〈표 Ⅵ-14〉). 자원봉사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은 13.1%, 그렇지 않은 사람은 86.9%로, 현재의 봉사활동을 유지하고 싶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자. 성별에 따른 특징은 없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변화를 주고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대별로는 큰 경향성은 없었는데, 무학과 중졸인 경우 타 학력보다 변화를 주고싶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지역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 거주자들은 변화를 주고싶지 않은 비율이 90% 이상이었으나 광역시 거주자는 비교적 변화를 주고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구성에서도 노인단독 가구에서 변화를 주고싶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가구 소득분위로 봐도 1, 2, 3분위에서는 변화를 주고싶지 않은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4〉 현재 하고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변화를 주고싶은지 여부

(단위: %)

구분		변화를 주고싶지 않음	변화를 주고 싶음
성별	남	85.3	14.7
	여	88.2	11.8
연령대	50대	82.2	17.8
	60대	90.5	9.5
	70대	92.1	7.9
	80세 이상	100.0	0.0
학력	무학	95.6	4.4
	초졸	87.0	13.0
	중졸	90.9	9.1
	고졸	85.0	15.0
	대학 재학 이상	86.6	13.4
배우자 유무	있음	86.6	13.4
	없음	88.9	11.1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5.8	14.2
	비취업자	88.5	11.5
거주지역	서울	90.6	9.4
	광역시	81.7	18.3
	도	87.8	12.2
가구구성	노인단독	90.2	9.8
	노인부부	89.4	10.6
	그 외	84.5	15.5
가구소득분위	1분위	91.6	8.4
	2분위	95.3	4.7
	3분위	90.4	9.6
	4분위	83.8	16.2
	5분위	82.7	17.3
전 체		86.9	13.1

〈표 Ⅵ-15〉는 향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묻고, 분석한 표이다. 향후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은 18.1%였다. 다소 낮은 수치로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비율이 7.4%인 것과 비교해보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의향 차이는 거의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참여의향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자 보다 있는 경우 자원봉사 의향이 더 높았고, 비취업자에 비해 취업자가 자원봉사 의향이 더 높았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도 지역 거주자의 참여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가구 외의 가구에서 자원봉사 활동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향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5〉 향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

(단위: %)

구분		참여의향 있음	참여의향 없음
성별	남	17.4	82.6
	여	18.6	81.4
연령대	50대	26.4	73.6
	60대	16.9	83.1
	70대	10.1	89.9
	80세 이상	5.3	94.7
학력	무학	7.7	92.3
	초졸	11.5	88.5
	중졸	16.2	83.8
	고졸	22.9	77.1
	대학 재학 이상	27.2	72.8
배우자 유무	있음	20.0	80.0
	없음	11.7	88.3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1.7	78.3
	비취업자	14.0	86.0
거주지역	서울	16.2	83.8
	광역시	16.8	83.2
	도	19.3	80.7
가구구성	노인단독	12.7	87.3
	노인부부	17.3	82.7
	그 외	20.2	79.8
가구소득분위	1분위	7.5	92.5
	2분위	16.1	83.9
	3분위	17.6	82.4
	4분위	18.6	81.4
	5분위	27.1	72.9
전 체		18.1	81.9

3. 기부활동

다음은 사회참여 중 기부활동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본 부가조사의 기부활동 부분에서는 지난 1년간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한 경험이 있는지, 기부했다면 기부 내용을 조사했다. 또한 기부를 한 동기를 조사하고, 기부처를 알게된 경로를 조사하였다. 덧붙여 기부활동에 대한 변화를 희망하는지, 변화를 원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주고싶은지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기부의사를 물었다.

〈표 Ⅵ-16〉은 지난 1년간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다. 조사대상자의 12.7%가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있었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부경험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력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기부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는 자 보다는 있는 자, 비취업자에 비해 취업자가 기부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구성별로 보면 노인단독 가구에서 기부경험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분위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분위가 높을수록 지난 1년간 기부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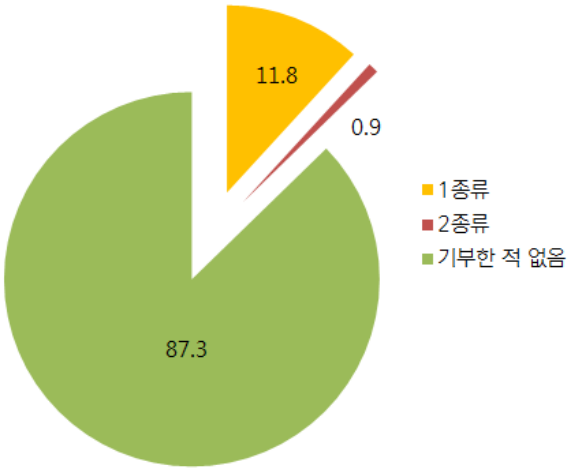
〈표 Ⅵ-16〉 지난 1년간 기부활동 여부

(단위: %)

구분		기부한 적 있음		기부한 적 없음
		1종류	2종류	
성별	남	12.8	0.7	86.5
	여	10.9	1.1	88.0
연령대	50대	16.3	1.5	82.2
	60대	10.8	0.6	88.7
	70대	7.8	0.5	91.7
	80세 이상	5.3	0.2	94.5
학력	무학	5.3	0.1	94.6
	초졸	7.4	0.8	91.8
	중졸	8.8	0.5	90.7
	고졸	14.0	1.3	84.7
	대학 재학 이상	21.6	1.3	77.1
배우자 유무	있음	12.9	1.0	86.1
	없음	8.1	0.5	91.3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4.1	1.3	84.6
	비취업자	9.2	0.4	90.4
거주지역	서울	11.0	0.9	88.2
	광역시	10.9	1.0	88.1
	도	12.4	0.9	86.7
가구구성	노인단독	9.1	0.7	90.1
	노인부부	11.2	0.7	88.0
	그 외	13.0	1.1	86.0
가구소득분위	1분위	8.1	0.4	91.5
	2분위	9.0	0.5	90.5
	3분위	8.8	0.8	90.4
	4분위	10.2	0.6	89.1
	5분위	20.6	1.8	77.6
전 체		11.8	0.9	87.3

[그림 Ⅵ-3] 지난 1년간 기부활동 여부 및 기부종류 개수

(단위: %)



다음 〈표 Ⅵ-17〉은 지난 1년간 기부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자 중 '현금' 기부활동을 한 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지난 1년간 현금 기부활동을 한 자는 93.9%로 나타났다. 1년간 총 기부횟수는 평균 6.38회로 나타났으며, 1년간 총 기부금액은 평균 330.69천원(약 33만원)이었다.

응답자별로 확인해보면, 성별에 따른 현금 기부활동여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1년간 총 기부금액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기부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현금 기부비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년찬 총 기부횟수가 70대는 평균 5.7회, 80세 이상은 7.2회 정도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1년간 총 기부금액에서은 70대가 연 평균 43만 6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80세 이상이 연 평균 21만 4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기부횟수, 기부금액에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교 졸업자는 연간 평균 4.24회 기부하였으나 대학 재학 이상인 자는 연간 평균

8.69회로 나타나 약 2배 이상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인 자가 기부금액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대학 재학 이상인 자는 연 평균 약 64만 7천원을 기부하여, 약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기부활동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현금성 기부활동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부금액에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따른 현금성 기부활동은 연간 총 기부금액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비취업자의 연간 총 기부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광역시 거주자의 기부율이 다소 낮았다. 서울 거주자의 연간 총 기부횟수과 기부금액이 가장 많고 높았으며, 광역시 거주자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이 가장 적고, 낮았다. 가구구성별로 보면 기부횟수, 기부금액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노인부부 가구는 1년 총 기부횟수가 가장 낮고, 노인단독 가구에서의 연간 총 기부금액이 다른 두 집단보다 낮았다. 가구 소득분위에 따라서는 큰 경향성을 띄진 않았는데, 2분위와 5분위에서의 기부활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간 기부 총 횟수는 5분위에서만 평균 횟수보다 많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총 기부금액 역시 5분위에서만 평균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7〉 지난 1년간 기부활동 (현금 기부활동)

(단위: %, 회, 천원)

구분		기부여부		1년간 총 기부횟수	1년간 총 기부금액
		있음	없음		
성별	남	96.8	3.2	6.09	433.26
	여	91.2	8.8	6.68	227.58
연령대	50대	94.5	5.5	6.63	380.26
	60대	93.4	6.6	6.08	237.36
	70대	92.9	7.1	5.69	436.22
	80세 이상	91.6	8.4	7.15	214.34
학력	무학	94.7	5.3	5.03	106.67
	초졸	92.3	7.7	4.96	123.31
	중졸	91.8	8.2	4.24	144.95
	고졸	93.7	6.3	6.14	274.24
	대학 재학 이상	96.0	4.0	8.69	647.69
배우자 유무	있음	94.9	5.1	6.42	359.29
	없음	88.6	11.4	6.15	168.12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5.1	4.9	6.11	294.15
	비취업자	91.9	8.1	6.88	397.48
거주지역	서울	98.3	1.7	9.73	488.30
	광역시	88.6	11.4	5.55	279.05
	도	94.7	5.3	5.63	300.26
가구구성	노인단독	90.4	9.6	6.32	206.58
	노인부부	94.9	5.1	5.33	323.53
	그 외	94.0	6.0	7.10	359.64
가구소득분위	1분위	92.4	7.6	5.99	118.62
	2분위	95.4	4.6	4.17	139.40
	3분위	93.2	6.8	5.22	229.60
	4분위	92.3	7.7	6.10	224.27
	5분위	95.0	5.0	7.67	523.05
전 체		93.9	6.1	6.38	330.69

다음 〈표 Ⅵ-18〉은 지난 1년간 기부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자 중 '현물성' 기부활동을 한 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지난 1년간 현물 기부활동을 한 자는 13.2%, 1년간 총 기부횟수는 평균 2.84회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현물성 기부활동을 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횟수도 남성은 2.31회, 여성은 3.08회로 나타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80세 이상의 연령대보다는 50대, 70대에서 현물성 기부활동을 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횟수 역시 50대가 3.40회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1.70회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특정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학이 7.0%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17.3%로 가장 높았다. 1년간 총 기부횟수는 기부 여부와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자가 3.5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물기부를 좀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간 총 기부횟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기부 여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기부횟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의 기부율이 가장 낮았지만 기부횟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로는 노인부부 가구의 기부율이 다소 낮았으나, 연간 기부 총 횟수는 노인단독 가구가 가장 낮았다. 가구 소득분위에 따라서는 큰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3분위에서 현물 기부활동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2분위에서 가장 적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간 총 기부횟수를 살펴보면, 2분위에서 연간 3.21회로, 가장 자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8〉 지난 1년간 기부활동 (현물 기부활동)

(단위: %, 회)

구분		기부여부		총 기부횟수
		있음	없음	
성별	남	8.3	91.7	2.31
	여	17.7	82.3	3.08
연령대	50대	13.9	86.1	3.40
	60대	11.5	88.5	2.45
	70대	13.1	86.9	1.70
	80세 이상	11.3	88.7	1.77
학력	무학	7.0	93.0	1.93
	초졸	17.3	82.7	2.03
	중졸	13.3	86.7	2.44
	고졸	14.7	85.3	3.50
	대학 재학 이상	9.5	90.5	2.47
배우자 유무	있음	12.4	87.6	2.84
	없음	17.4	82.6	2.83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3.4	86.6	3.12
	비취업자	12.7	87.3	2.32
거주지역	서울	9.1	90.9	3.84
	광역시	19.5	80.5	2.86
	도	11.9	88.1	2.59
가구구성	노인단독	17.0	83.0	2.08
	노인부부	11.3	88.7	2.28
	그 외	13.6	86.4	3.34
가구소득분위	1분위	12.3	87.7	1.89
	2분위	10.2	89.8	3.21
	3분위	14.9	85.1	2.95
	4분위	13.5	86.5	2.61
	5분위	13.2	86.8	3.05
전 체		13.2	86.8	2.84

〈표 Ⅵ-19〉는 기부를 하는 가장 주된 동기를 분석한 것이다. 기부처나 기부대상이 여럿인 경우, 가장 많이 기부한 단체나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응답받았다.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기부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8.3%),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에 기부를 한다는 응답(23.6%)이 그 뒤를 이었다.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기부를 한 경우도 15.8%로 나타났으며, '소속집단이나 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기부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 '주변의 권유'에 의해 기부를 하거나, '남들이 하니까', '소득공제 등의 혜택' 등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특성에서 '기부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기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특성에서는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으나, 연령대 중 70대, 학력별 구분 중 무학인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 소득분위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1, 4분위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기부를 한다고 밝혔으나 2분위에서는 '소속집단이나 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기부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 5분위에서는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기부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Ⅵ-19〉 기부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기부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주변의 권유에 의해	소속집단이나 단체 등의 요청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남들이 하니까	소득 공제 등 혜택 때문에	기타
성별	남	39.6	15.5	9.2	11.1	20.7	1.9	1.9	0.0
	여	37.1	16.1	5.6	12.5	26.3	2.1	0.0	0.4
연령대	50대	39.5	16.8	5.2	12.0	23.4	1.0	1.8	0.4
	60대	40.6	12.0	8.3	9.8	26.1	3.2	0.0	0.0
	70대	35.5	21.2	8.8	15.2	15.5	3.7	0.0	0.0
	80세 이상	31.9	16.9	18.7	8.4	19.2	3.4	1.4	0.0
학력	무학	34.5	29.1	12.5	10.7	13.2	0.0	0.0	0.0
	초졸	32.1	18.7	11.8	12.5	20.9	4.1	0.0	0.0
	중졸	34.1	12.3	7.8	13.5	27.3	4.2	0.0	0.8
	고졸	38.5	16.2	6.5	11.6	23.6	1.7	1.7	0.2
	대학 재학 이상	44.2	12.8	4.9	11.2	25.3	0.7	0.9	0.0
배우자 유무	있음	38.3	15.7	8.0	12.1	22.4	2.2	0.9	0.2
	없음	38.2	16.2	3.7	10.1	29.7	1.0	1.1	0.0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39.4	17.0	7.3	12.5	20.3	2.1	1.4	0.0
	비취업자	36.4	13.8	7.3	10.5	29.5	2.0	0.2	0.5
거주지역	서울	44.2	7.3	1.9	9.9	35.2	0.3	1.3	0.0
	광역시	31.3	21.3	10.9	10.1	24.0	1.3	1.1	0.0
	도	39.4	16.2	7.5	13.0	19.9	2.9	0.8	0.3
가구구성	노인단독	43.6	17.7	2.7	5.7	29.1	0.7	0.6	0.0
	노인부부	35.1	17.0	9.0	12.7	21.6	3.9	0.7	0.0
	그 외	39.4	14.6	7.1	12.4	23.8	1.1	1.2	0.4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35.9	20.5	6.3	13.0	16.6	7.1	0.5	0.0
	2분위	36.4	12.9	8.9	20.5	16.2	5.2	0.0	0.0
	3분위	36.1	12.8	10.2	8.5	29.7	2.8	0.0	0.0
	4분위	28.5	26.6	9.6	12.0	22.9	0.4	0.0	0.0
	5분위	44.6	12.1	5.0	10.7	24.9	0.2	2.1	0.5
전 체		38.3	15.8	7.3	11.8	23.6	2.0	0.9	0.2

〈표 Ⅵ-20〉은 기부한 단체나 개인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기부처나 기부대상이 여럿인 경우, 가장 많이 기부한 단체나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응답받았다.

기부자들은 주로 '가족, 이웃, 친구'를 통해 기부처를 안 것으로 나타났다(38.2%).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22.3%)도 많았으며,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 등'을 통해 알거나(17.7%),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나 단체의 직접 홍보를 통해' 알게 된 경우도 많았다(17.7%).

응답자별로 기부처를 알게 된 경로를 살펴봤는데, 모든 특성에서 '가족, 이웃,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경로는 특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50대 및 60대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지만, 70대 이상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학력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중학교 졸업자 이하의 학력자는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으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는 '대중매체를 통해' 안 경우가 많았으며, 대학 재학 이상인 학력자는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나 단체의 직접 홍보를 통해' 기부처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으나, 배우자가 없는 자는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거주지역에서는 서울, 광역시 거주자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도 지역 거주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로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노인(단독, 부부)가구에서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으나, 그 외 가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가구 소득분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1, 2분위에서는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단

지, 마을회관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3분위부터는 대중매체를 통해 기부처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Ⅵ-20〉 기부처를 알게 된 경로

(단위: %)

구분		대중매체를 통해	가족, 이웃, 친구를 통해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단지,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나 단체의 직접홍보를 통해	기타
성별	남	22.4	39.2	16.2	19.6	2.6
	여	22.3	37.2	19.1	15.9	5.6
연령대	50대	23.4	39.8	13.2	21.6	1.9
	60대	22.3	36.7	19.7	16.9	4.3
	70대	14.4	33.9	30.2	11.7	9.9
	80세 이상	17.0	52.4	18.8	6.0	5.7
학력	무학	13.0	46.5	30.4	6.6	3.5
	초졸	18.5	41.3	26.2	8.5	5.5
	중졸	15.8	30.2	27.2	23.1	3.7
	고졸	27.0	35.8	14.7	17.7	4.7
	대학 재학 이상	21.9	42.3	10.9	22.1	2.8
배우자 유무	있음	22.9	39.3	16.3	17.5	4.0
	없음	19.3	32.4	24.9	18.3	5.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1.9	39.8	18.8	17.3	2.2
	비취업자	23.1	35.3	15.8	18.3	7.5
거주지역	서울	28.4	38.7	6.1	18.4	8.4
	광역시	28.6	38.2	18.5	11.8	2.9
	도	18.0	38.0	20.9	19.8	3.3
가구구성	노인단독	20.6	29.1	27.6	17.8	5.0
	노인부부	18.8	39.2	20.9	15.2	6.0
	그 외	25.0	39.4	13.6	19.3	2.7
가구소득분위	1분위	12.6	40.2	32.7	10.1	4.3
	2분위	15.3	35.9	26.8	8.0	14.0
	3분위	20.0	35.7	19.6	17.8	6.8
	4분위	25.0	37.7	19.7	16.0	1.6
	5분위	26.7	39.5	9.6	22.7	1.5
전 체		22.3	38.2	17.7	17.7	4.1

다음 〈표 Ⅵ-21〉은 본인의 기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1년간 기부활동을 한 자 중 본인의 기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자는 86.6%로 나타나 비교적 많은 수가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특히 70세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 가구소득 1분위에서는 90%이상이 변화를 원치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Ⅵ-21〉 기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지 여부

(단위: %)

구분		변화 원치 않음	변화를 주고싶음
성별	남	86.3	13.7
	여	86.8	13.2
연령대	50대	83.7	16.3
	60대	85.8	14.2
	70대	96.9	3.1
	80세 이상	94.4	5.6
학력	무학	98.8	1.2
	초졸	93.0	7.0
	중졸	92.0	8.0
	고졸	81.8	18.2
	대학 재학 이상	85.5	14.5
배우자 유무	있음	86.0	14.0
	없음	89.7	10.3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4.3	15.7
	비취업자	90.5	9.5
거주지역	서울	81.3	18.7
	광역시	83.0	17.0
	도	89.6	10.4
가구구성	노인단독	93.9	6.1
	노인부부	88.9	11.1
	그 외	83.5	16.5
가구소득분위	1분위	96.4	3.6
	2분위	89.9	10.1
	3분위	89.6	10.4
	4분위	86.4	13.6
	5분위	81.7	18.3
전 체		86.6	13.4

다음은 향후 기부하고자 하는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표 Ⅵ-22〉). 조사응답자의 22.7%가 향후 기부활동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으나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80세 이상인 자의 향후 기부의향은 8.8%였으나 50대에서는 31.6%로 나타나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향후 기부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인 자의 향후 기부의향은 10.4%인데 반해 대학 재학 이상인 자는 35.3%으로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도 응답에 차이를 보이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부의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기부의향도 차이가 있었는데,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에서의 기부의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노인단독가구의 향후 기부의향이 타 가구유형보다 다소 낮았고, 가구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향후 기부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2〉 향후 기부활동 의향 여부

(단위: %)

구분		기부의향 있음	기부의향 없음
성별	남	23.1	76.9
	여	22.3	77.7
연령대	50대	31.6	68.4
	60대	20.9	79.1
	70대	14.5	85.5
	80세 이상	8.8	91.2
학력	무학	10.4	89.6
	초졸	14.3	85.7
	중졸	20.8	79.2
	고졸	28.0	72.0
	대학 재학 이상	35.3	64.7
배우자 유무	있음	25.0	75.0
	없음	15.1	84.9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7.2	72.8
	비취업자	17.8	82.2
거주지역	서울	21.9	78.1
	광역시	21.3	78.7
	도	23.5	76.5
가구구성	노인단독	16.0	84.0
	노인부부	22.3	77.7
	그 외	24.9	75.1
가구소득분위	1분위	12.7	87.3
	2분위	17.7	82.3
	3분위	20.6	79.4
	4분위	23.8	76.2
	5분위	34.5	65.5
전 체		22.7	77.3

Ⅶ. 시사점

본 보고서는 2016년 실시된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인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준비(여가, 대인관계, 건강) 실태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심층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술통계의 결과만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된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몇 가지 주요 기초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경제적 부담이 낮은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고령자의 주중과 주말의 주요 여가활동은 집에서 혼자 하는 'TV 시청'으로 나타나,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이 주로 혼자 하는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의 제약점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 역시 TV시청으로 응답해, 여가활동에 경제적 자원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 비호의적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해 사회참여가 고려될 수 있으나, 친목 이외의 단체참여활동의 비율이 낮고 자원봉사(7.4%)와 기부(12.7%) 실태가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중·고령자의 일부(6.2%)가 남는 시간이 많아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분석결과는 중·고령자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생산적 여가활동이 개발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참여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적극적 홍보를 통한 참여증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보다 타인과 어울려 할 수 있는 생산적 여가활동을 늘린다면 무위에 대한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인적자원의 수준도 함께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획득의 경로가 가족이나 지인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홍보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남성이나 고학력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 이외에 대중매체를 통해 여가정보를 습득하고, 고연령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토대로 할 때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홍보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채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우자나 자녀에 편중된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관계망이 필요하다.

노후시기 배우자의 사별이나 자녀의 독립 등 관계와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고령자,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 소득 1분위의 경우 자녀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가족관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노후시기의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부부간, 부모-자녀간 대인관계 관리법 등에 대한 공단의 노후설계 교육 및 강좌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 및 수급자 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무배우자, 노인단독 가구, 저소득층 집단의 약 10%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후시기에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망을 넓힐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규칙적 운동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나 동호회 등의 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중·고령자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등의 질환치료

와 더불어 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건강검진을 대체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규칙적 운동의 실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운동을 위한 지역사회나 동호회 등의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건강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여가시간 활용 및 대인관계 관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 등 질환이 있는 자의 약 90% 이상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비재무적 노후생활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분석결과에서 고연령, 저학력, 무배우자, 비취업자, 노인단독 가구 등의 취약계층의 여가, 대인관계, 건강 등의 비재무적 노후생활실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의 노후시기 비재무적 삶의 질이 열악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해자, 노인의 스트레스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과정, 2017.

임주영, 노인의 스트레스와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위협적 상황 인지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Cohen, S., & Syme, S. L.,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Cohne, S., & Syme, Sl. L.(eds), Social support and heath, Orlando, FL: Academic Press: 3-22, 1985.

[부록1]

6차 부가조사 조사표

제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승인번호
제32201호

KReIS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연구원은 모든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 · 개발하여 향후 고령사회에서도 연금제도가 국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구기관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대책을 수립하고자 전국의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노후보장패널 본조사는 1차년도(2005년), 2차년도(2007년), 3차년도(2009년), 4차년도(2011년), 5차년도(2013년), 6차년도(2015년) 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6차 부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를 통해 습득된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수립된 자료는 향후 노후소득보장 및 고령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NPS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Service

Ha. 가구원인적사항

※ **가구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원으로서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세대주나 호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연결된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Ha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Ha2. 가구주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_____

Ha3. 귀하는 몇 년 생 입니까?

_____년

Ha4.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⓪ 비해당 ① 배우자 있음
② 이혼 ③ 사별 ④ 미혼

Ha5. 동거여부

① 동거 → Ha6 으로
② 비동거 → Ha6-1로

Ha5-1. 비동거 사유

① 직장(직업)의 이유
② 건강상의 이유
③ 가족간 불화
④ 학업
⑤ 구직활동
⑥ 양육(미취학 자녀의 탁아)
⑦ 기타 (_____)

Ha6. 학력

⓪ 미취학
① 무학 (Ha7 로)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
⑥ 대학원

Ha6-1. 학력 이수여부

① 졸업 ② 수료 ③ 중퇴
④ 재학 ⑤ 휴학

Ha7. 종교유무

① 있음 ② 없음

Ha8. 작년 한 해 경제활동상태

⓪ 비해당
① 평소 취업자
② 평소 비취업자

Ha9. 현재 경제활동 상태

⓪ 비해당 (만15세 미만)
① 취업자 ② 비취업자

Pa. 여가

Pa1. 귀하의 하루 생활시간은 대략 어떻게 구성됩니까? 24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Pa1-1) 기초시간 : 잠, 식사 등 개인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
Pa1-1-1) 주중 _____시간
Pa1-1-2) 주말 _____시간

Pa1-2) 활동시간 : 일, 학습 등 일반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시간
Pa1-2-1) 주중 _____시간
Pa1-2-2) 주말 _____시간

Pa1-3) 여가시간 : 필수, 의무시간이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Pa1-3-1) 주중 _____시간
Pa1-3-2) 주말 _____시간

Pa2. 지난 1년 간 귀하가 주중과 주말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포함하여 활동빈도가 많은 순으로 응답해 주세요.

Pa2-1) 주중 1순위

Pa2-1-1) 여가활동 종류
* 별도 코드표 참고
Pa2-1-2) 여가활동 장소
* 별도 코드표 참고
Pa2-1-3) 여가활동 빈도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a2-1-4) 여가활동 동반자
① 혼자서
② 배우자와 함께
③ 가족과 함께
④ 친구, 이웃과 함께
⑤ 모임 구성원과 함께
⑥ 기타 (_____)
Pa2-1-5) 소요시간

□□ 시간 □□ 분

Pa2-1-6) 월평균 소요비용

□□□□ 천원

Pa2-1-7)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Pa2-2) 주중 2순위
Pa2-2-1) 여가활동 종류
* 별도 코드표 참고
Pa2-2-2) 여가활동 장소
* 별도 코드표 참고
Pa2-2-3) 여가활동 빈도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a2-2-4) 여가활동 동반자
① 혼자서
② 배우자와 함께
③ 가족과 함께
④ 친구, 이웃과 함께
⑤ 모임 구성원과 함께
⑥ 기타 (_____)
Pa2-2-5) 소요시간

□□ 시간 □□ 분

Pa2-2-6) 월평균 소요비용

□□□□ 천원

Pa2-2-7)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Pa2-3) 주중 3순위
Pa2-3-1) 여가활동 종류
* 별도 코드표 참고
Pa2-3-2) 여가활동 장소
* 별도 코드표 참고
Pa2-3-3) 여가활동 빈도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a2-3-4) 여가활동 동반자
① 혼자서
② 배우자와 함께
③ 가족과 함께
④ 친구, 이웃과 함께
⑤ 모임 구성원과 함께
⑥ 기타 (_____)
Pa2-3-5) 소요시간

□□ 시간 □□ 분

Pa2-3-6) 월평균 소요비용

□□□□ 천원

Pa2-3-7)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Pa2-4) 주중 4순위

Pa2-4-1) 여가활동 종류

* 별도 코드표 참고

Pa2-4-2) 여가활동 장소

* 별도 코드표 참고

Pa2-4-3) 여가활동 빈도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a2-4-4) 여가활동 동반자

① 혼자서
② 배우자와 함께
③ 가족과 함께
④ 친구, 이웃과 함께
⑤ 모임 구성원과 함께
⑥ 기타 (_____)

Pa2-4-5) 소요시간

□□ 시간 □□ 분

Pa2-4-6) 월평균 소요비용

□□□□ 천원

Pa2-4-7)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Pa2-5) 주중 5순위

Pa2-5-1) 여가활동 종류

* 별도 코드표 참고

Pa2-5-2) 여가활동 장소

* 별도 코드표 참고

Pa2-5-3) 여가활동 빈도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a2-5-4) 여가활동 동반자

① 혼자서
② 배우자와 함께
③ 가족과 함께
④ 친구, 이웃과 함께
⑤ 모임 구성원과 함께
⑥ 기타 (_____)

Pa2-5-5) 소요시간

□□ 시간 □□ 분

Pa2-5-6) 월평균 소요비용

□□□□ 천원

Pa2-5-7)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Pa2-6) 주말 1순위

Pa2-6-1) 여가활동 종류

* 별도 코드표 참고

Pa2-6-2) 여가활동 장소

* 별도 코드표 참고

Pa2-6-3) 여가활동 빈도
① 월 7~8회 이상
② 월 5~6회 이상
③ 월 3~4회
④ 월 1~2회
⑤ 월1회 미만
⑥ 기타 (_____)
Pa2-6-4) 여가활동 동반자
① 혼자서
② 배우자와 함께
③ 가족과 함께
④ 친구, 이웃과 함께
⑤ 모임 구성원과 함께
⑥ 기타 (_____)
Pa2-6-5) 소요시간
□□ 시간 □□ 분
Pa2-6-6) 월평균 소요비용
□□□□ 천원
Pa2-6-7)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Pa2-7) 주말 2순위
Pa2-7-1) 여가활동 종류
* 별도 코드표 참고
Pa2-7-2) 여가활동 장소
* 별도 코드표 참고
Pa2-7-3) 여가활동 빈도
① 월 7~8회 이상
② 월 5~6회 이상
③ 월 3~4회
④ 월 1~2회
⑤ 월1회 미만
⑥ 기타 (_____)
Pa2-7-4) 여가활동 동반자
① 혼자서
② 배우자와 함께
③ 가족과 함께
④ 친구, 이웃과 함께
⑤ 모임 구성원과 함께
⑥ 기타 (_____)
Pa2-7-5) 소요시간
□□ 시간 □□ 분
Pa2-7-6) 월평균 소요비용
□□□□ 천원
Pa2-7-7)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Pa2-8) 주말 3순위
Pa2-8-1) 여가활동 종류
* 별도 코드표 참고
Pa2-8-2) 여가활동 장소
* 별도 코드표 참고
Pa2-8-3) 여가활동 빈도
① 월 7~8회 이상
② 월 5~6회 이상
③ 월 3~4회
④ 월 1~2회
⑤ 월1회 미만
⑥ 기타 (_____)
Pa2-8-4) 여가활동 동반자
① 혼자서
② 배우자와 함께
③ 가족과 함께
④ 친구, 이웃과 함께
⑤ 모임 구성원과 함께
⑥ 기타 (_____)
Pa2-8-5) 소요시간
□□ 시간 □□ 분
Pa2-8-6) 월평균 소요비용
□□□□ 천원

Pa2-8-7)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Pa2-9) 주말 4순위
Pa2-9-1) 여가활동 종류
* 별도 코드표 참고
Pa2-9-2) 여가활동 장소
* 별도 코드표 참고
Pa2-9-3) 여가활동 빈도
① 월 7~8회 이상
② 월 5~6회 이상
③ 월 3~4회
④ 월 1~2회
⑤ 월1회 미만
⑥ 기타 (_____)
Pa2-9-4) 여가활동 동반자
① 혼자서
② 배우자와 함께
③ 가족과 함께
④ 친구, 이웃과 함께
⑤ 모임 구성원과 함께
⑥ 기타 (_____)
Pa2-9-5) 소요시간

□□ 시간 □□ 분

Pa2-9-6) 월평균 소요비용

□□□□ 천원

Pa2-9-7)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Pa2-10) 주말 5순위
Pa2-10-1) 여가활동 종류
* 별도 코드표 참고
Pa2-10-2) 여가활동 장소
* 별도 코드표 참고
Pa2-10-3) 여가활동 빈도
① 월 7~8회 이상
② 월 5~6회 이상
③ 월 3~4회
④ 월 1~2회
⑤ 월1회 미만
⑥ 기타 (_____)
Pa2-10-4) 여가활동 동반자
① 혼자서
② 배우자와 함께
③ 가족과 함께
④ 친구, 이웃과 함께
⑤ 모임 구성원과 함께
⑥ 기타 (_____)
Pa2-10-5) 소요시간

□□ 시간 □□ 분

Pa2-10-6) 월평균 소요비용

□□□□ 천원

Pa2-10-7)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Pa3. 귀하가 여가활동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① 여가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②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③ 주변(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의 권유에 의해
④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⑥ 남들이 하니까
⑦ 남는 시간이 많아서
⑧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Pa4. 귀하는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로 얻었습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①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② 가족(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
③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노인정,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④ 여가활동 자체에 대한 안내문, 이메일, 우편물 등을 통해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Pa5. 귀하의 향후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포함하여 응답해주세요.
Pa5-1.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 별도 코드표 참조, _____)
Pa5-2. 가장 **하고싶지 않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 별도 코드표 참조, _____)

Pa6. 귀하의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임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Pa7. 귀하가 여가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제약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시간이 부족하여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③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④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⑤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⑥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⑦ 체력,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Pc8. 귀하는 귀하의 **여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으십니까?
① 변화를 주고싶지 않음 → Pb로 이동
② 변화를 주고 싶음 → Pc8-1로 이동

Pc8-1) 여가활동 종류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없음

Pc8-2) 여가활동 장소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없음

Pc8-3) 여가활동 횟수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없음

Pc8-4) 여가활동 동반자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없음

Pc8-5) 여가활동 시간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없음

Pc8-6) 여가활동 비용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없음

Pb. 대인관계

Pb1. 현재 귀하의 대인관계를 조사합니다.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가족과 그 외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Pb1-1) 배우자
① 있다 ② 없다

Pb1-2) 자녀 (자녀의 배우자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Pb1-3) 부모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Pb1-4) 손자녀
① 있다 ② 없다

Pb1-5) 형제자매
① 있다 ② 없다

Pb1-6) 친인척
① 있다 ② 없다

Pb1-7) 친구
① 있다 ② 없다

Pb1-8) 이웃
① 있다 ② 없다

Pb1-9) 직장 동료
① 있다 ② 없다

Pb1-10) 기타
① 있다 ② 없다

Pb2. 귀하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Pb2-1)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⓪ 해당없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하는 편
③ 보통
④ 만족하는 편
⑤ 매우 만족

Pb2-2) **가족 외** (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
⓪ 해당없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하는 편
③ 보통
④ 만족하는 편
⑤ 매우 만족

Pb2-3) **전반적 대인관계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하는 편
③ 보통
④ 만족하는 편
⑤ 매우 만족

Pb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Pb3-1) 몸이 아플 때 집안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 □□ 명
② 없다

Pb3-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 □□ 명
② 없다

Pb3-3)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
① 있다 → □□ 명
② 없다

Pb4. 지난 1년간을 돌아봤을 때, 귀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 5명**을 응답해 주십시오.
Pb4-1) 1순위 (_____)
Pb4-2) 2순위 (_____)
Pb4-3) 3순위 (_____)
Pb4-4) 4순위 (_____)
Pb4-5) 5순위 (_____)

Pb5. 귀하는 현재 배우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 Pb5-1 로
② 없다 → Pb6 으로

※ 지난 1년 간 **배우자와** 아래의 문제에 대해 **갈등**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갈등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Pb5-1) **경제적 문제**
Pb5-1-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5-1-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5-2) **자녀의 결혼문제**
Pb5-2-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5-2-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5-3) **부모 부양 문제**
Pb5-3-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5-3-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5-4) **부부간 가사분담 문제**
Pb5-4-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5-4-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5-5) **배우자의 여가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부족**
Pb5-5-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5-5-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5-6) **생활습관 차이**
Pb5-6-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5-6-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5-7) **그 외 갈등**
Pb5-7-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5-7-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 귀하는 현재 **자녀**가 있습니까?
① 1명 → Pb6-1)
② 2명 이상 → Pb6-1)
③ 없음 → Pb7)

Pb6-1) **자녀와의 동거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동거자녀만 있음 → Pb6-2) 응답
② 비동거자녀만 있음 → Pb6-3) 응답
③ 동거 및 비동거자녀 모두 있음
→ Pb6-2), Pb6-3) 모두 응답

Pb6-2) **동거자녀**
Pb6-2-1)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둘러싼 갈등
Pb6-2-1-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2-1-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2-2)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Pb6-2-2-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2-2-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2-3)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Pb6-2-3-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2-3-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2-4) 나 또는 배우자의 생활비 보조와 관련된 갈등
Pb6-2-4-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2-4-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2-5)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Pb6-2-5-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2-5-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2-6)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문제
Pb6-2-6-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2-6-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2-7) 기타
Pb6-2-7-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2-7-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3) **비동거자녀**
Pb6-3-1)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둘러싼 갈등
Pb6-3-1-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3-1-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3-2)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Pb6-3-2-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3-2-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3-3)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
Pb6-3-3-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3-3-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3-4) 나 또는 배우자의 생활비 보조와 관련된 갈등
Pb6-3-4-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3-4-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3-5)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Pb6-3-5-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3-5-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3-6)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문제
Pb6-3-6-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3-6-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6-3-7) 기타
Pb6-3-7-1) 갈등유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b6-3-7-2) 갈등 정도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
③ 보통
④ 심한 편
⑤ 매우 심함

Pb7.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Pb7-1) 기분이 좋을 때 그 기분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2) 외로울 때 같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3) 속상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4)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5)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6)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7)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8)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9) 성인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10)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11) 쇼핑이나 병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12)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사다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13)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큰 돈이라도 마련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14) 내가 몸져누워 있을 때 병수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15) 필요 시 병원비나 약값을 대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16)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17)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b7-18) 집안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Pc. 건강 및 생활

Pc1.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지 않음
② 좋지 않음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Pc2. 귀하는 현재 아래에 해당되는 항목의 **질환이 있습니까**?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치료(약 복용 포함)**받고 계십니까?

Pc2-1) 만성질환
Pc2-1-1)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Pc2-1-2) 치료/ 약복용 여부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 않다

Pc2-2) 4대 중증질환
Pc2-2-1)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Pc2-2-2) 치료/ 약복용 여부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 않다

Pc2-3) 만성질환, 4대 중증질환 외 질환
Pc2-3-1)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Pc2-3-2) 치료/ 약복용 여부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 않다

Pc3. 귀하는 평소 다음의 사항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Pc3-1) 아침식사하기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Pc3-2) 적정수면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Pc3-3) 규칙적 운동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Pc3-4) 정기적 건강검진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Pc4. 귀하는 현재 **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Pc5. 귀 댁의 **월평균 소득(세 전)**은 얼마입니까?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월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

오.

월평균 [ ][ ][ ][ ][ ][ ] 천원

Pc6. 귀하가 생각하시는 **최소 수준의 노후생활비**와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비**는 매월 얼마 정도 입니까? 부부, 개인기준으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Pc6-1) 최소 생활비 (월평균)

부부기준 [ ][ ][ ][ ][ ][ ] 천원

개인기준 [ ][ ][ ][ ][ ][ ] 천원

Pc6-2) 적정 생활비 (월평균)

부부기준 [ ][ ][ ][ ][ ][ ] 천원

개인기준 [ ][ ][ ][ ][ ][ ] 천원

Pd. 사회참여활동 _ 단체참여

Pd1. 귀하는 지난 1년간 **단체 또는 모임**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단체 또는 모임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Pd1-1 로 이동

② 없다 → Pd6 으로 이동

Pd1-1) 친목 및 사교단체

Pd1-1-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d1-1-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Pd1-2)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Pd1-2-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d1-2-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Pd1-3) 지역사회모임

Pd1-3-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d1-3-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Pd1-4) 시민사회단체

Pd1-4-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d1-4-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Pd1-5) 그 외 단체

Pd1-5-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d1-5-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Pd2. 귀하가 모임 또는 단체활동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②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③ 주변(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의 권유에 의해
④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⑤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⑥ 남들이 하니까
⑦ 남는 시간이 많아서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Pd3. 귀하는 모임 또는 단체활동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의 단체에 가입한 경우 활동횟수가 가장 많은 단체를 기준으로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② 가족(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
③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노인정,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④ 단체의 직접 홍보(방문, 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Pd4. 귀하는 **모임 및 단체활동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Pd5.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습니까?
①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음 → Pd6
② 변화를 주고 싶음 → Pd5-1

Pd5-1) 단체활동 종류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 없음

Pd5-2) 단체활동 횟수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 없음

Pd5-3) 단체활동 시간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 없음

Pd6. 귀하는 **향후 단체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Pe. 사회참여활동 _ 자원봉사

Pe1.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Pe1-1) 로 이동
② 없다 → Pe5 로 이동

Pe1-1)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
Pe1-1-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e1-1-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e1-1-3) 1회당 참여시간
(_____)시간 (____) 분
Pe1-1-4) 전문적 봉사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Pe1-2)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Pe1-2-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e1-2-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e1-2-3) 1회당 참여시간
(_____)시간 (____) 분
Pe1-2-4) 전문적 봉사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Pe1-3) (손)자녀교육 등과 관련
Pe1-3-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e1-3-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e1-3-3) 1회당 참여시간
(_____)시간 (____) 분
Pe1-3-4) 전문적 봉사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Pe1-4) 문화자원봉사 관련
Pe1-4-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e1-4-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e1-4-3) 1회당 참여시간
(_____)시간 (____) 분
Pe1-4-4) 전문적 봉사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Pe1-5)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
Pe1-5-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e1-5-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e1-5-3) 1회당 참여시간
(_____)시간 (____) 분
Pe1-5-4) 전문적 봉사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Pe1-6)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 관련
Pe1-6-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e1-6-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e1-6-3) 1회당 참여시간
(_____)시간 (____) 분
Pe1-6-4) 전문적 봉사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Pe1-7) 일반인을 위한 봉사 등 관련
Pe1-7-1) 참여여부
① 참여 ② 비참여

Pe1-7-2) 참여횟수
① 매일
② 주 5~6회
③ 주 3~4회
④ 주 1~2회
⑤ 2주일에 1회
⑥ 월 1회 이하
⑦ 기타 (_____)
Pe1-7-3) 1회당 참여시간
(_____)시간 (____) 분
Pe1-7-4) 전문적 봉사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Pe2. 귀하가 **자원봉사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수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참여횟수가 가장 많았던 자원봉사활동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②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③ 주변(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의 권유에 의해
④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⑤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⑥ 남들이 하니까
⑦ 남는 시간이 많아서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Pe3. 귀하는 자원봉사 활동 시 소속했던 단체나 개인적으로 했던 봉사활동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참여횟수가 가장 많았던 활동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② 가족(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
③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노인정,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④ 단체의 직접 홍보(방문, 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Pe4.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습니까?
①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음 → Pe5
② 변화를 주고 싶음 → Pe4-1

Pe4-1) 자원봉사 활동 종류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 없음

Pe4-2) 자원봉사 활동 횟수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 없음

Pe4-3) 자원봉사 활동 시간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 없음

Pe4-4) 전문적 봉사활동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 없음

Pe5. 귀하는 **향후 자원봉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Pf. 사회참여활동 _ 기부활동

Pf1. 귀하는 지난 1년간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기부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Pf1-1) 로 이동
② 없다 → Pf5 로 이동

Pf1-1) 현금
Pf1-1-1) 기부경험여부
① 있다 ② 없다
Pf1-1-2) 지난 1년간 총 기부횟수

(_____) 회

Pf1-1-3) 지난 1년간 총 기부금액

(_____)천원

Pf1-2) 물품

Pf1-2-1) 기부경험여부

① 있다 ② 없다

Pf1-2-2) 지난 1년간 총 기부횟수

(_____) 회

Pf2. 귀하가 **기부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부처나 기부대상이 여럿인 경우, 가장 많이 기부한 단체나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기부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②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③ 주변(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의 권유에 의해
④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⑤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⑥ 남들이 하니까
⑦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때문에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Pf3. 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신 단체나 개인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기부처나 기부대상이 여럿인 경우, 가장 많이 기부하신 단체나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② 가족(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
③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노인정,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④ 단체의 직접 홍보(방문, 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Pf4. 귀하는 귀하의 **기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습니까?

①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음 → Pf5 로 이동
② 변화를 주고 싶음 → Pf4-1 로 이동

Pf4-1) 기부활동 종류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 없음

Pf4-2) 기부 활동 횟수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 없음

Pf4-3) 기부 활동 금액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 없음

Pf4-4) 기부처

① 늘리고 싶음
② 줄이고 싶음
③ 변화 없음

Pf5. 귀하는 **향후 기부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가중치 산정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통합표본 개인횡단가중치 산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우선, 통합표본을 처음 구축한 5차 본조사(2013년) 당시 원표본은 5,010가구로, 이중 6차 부가조사(2016년)에 응답한 가구는 4,572가구이다. 이 때 무응답을 조정하는 가중치를 산출하여야 하는데 6차 부가조사의 횡단면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w^{(c)} = w_i \times r_{i6}^{-1}$$

여기서 $w^{(c)}$는 w_i번째 i개체의 5차 본조사 통합표본의 가중치이고 r_{i6}^{-1}는 i 번째 개체가 속한 클래스 안에서의 5차 본조사에서 응답한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6차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조건부 응답비율이다.

이때 각 층 내의 표본 개체들이 비슷한 응답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층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Dufour 등 (2001)의 연구결과에 따라 나무모형(tree model)의 응답률의 동질성을 분류하는 기법 중 많이 쓰이는 Chi-Square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CHAID)을 사용하여 층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CHAID 알고리즘은 Kass (1980)가 제안한 방법으로 주어진 층 분류 옵션 중에서 가능한 모든 층의 분류 중에서 응답률의 동질성 검정 통계량인 카이제곱 통계량의 값을 최대로 해 주는 층 분류를 찾아서 순차적으로 분류해 나가는 층 분류 기법이다.

무응답층을 설정하는 방법은 먼저, 먼저 전국을 서울과 광역시, 도 지역으로 크게 구분한다. 세 개로 나누어진 지역 내에서 응답률이 비슷하도록 근사 CHAID 방법을 사용하여 무응답층을 설정한다. 이때 분류 기준은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사용한다. 인구학적, 경제학적, 지역적 변수를 이용하여 무응답층을 결정하는데 설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부표 2-1〉 무응답 층 설정에 사용되는 변수

변수	설명
지역	1. 서울 2.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3.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동부 읍면부	1. 동부 2. 읍면부
거주하는 주택형태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6. 기타
거주하는 주택소유형태	1. 자가 2. 전세 3. 월세 4. 자가/전월세 아님
가구원수	
50세 이상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1. 남 2. 여
가구주학력	1 무학 2 초등학교 재학/중퇴/졸업 3 중학교 재학/중퇴/졸업 4 고등학교 재학/중퇴/졸업 5 대학교(2,4년제) 재학/중퇴/졸업 6 대학원석사 재학/중퇴/졸업 7 대학원박사 재학/중퇴/졸업 8 미조사 및 무응답
가구 내 취업자 수	

이렇게 해서 서울, 광역시, 도 자료에 트리 모형을 각각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무응답 층이 만들어지면 각 cell별로 가구 무응답 보정 승수를 계산한다. 무응답 보정승수의 식은 아래와 같다.

$$f_g = \frac{\sum d_i}{\sum d_i R_i}$$

d_i=1차년도 가구 최종가중치, R_i=응답여부 지시변수 (1:응답, 0:무응답)

이렇게 결정된 무응답 층 별로 무응답 보정 승수가 계산되면, 각 층별로 계산된 무응답 보정 승수를 기본 가중치에 곱하면 표본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얻게 된다. 무응답층은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되며,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가구의 응답 여부가 그 가구에 속한 개인의 응답 여부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개인의 무응답층도 그 개인이 속한 가구의 무응답층을 그대로 사용한다.

가중치의 보정에는 기존 가중치 보정과 마찬가지로 모집단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50세 이상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벤치마킹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개인 가중치의 보정에는 동부/읍면부, 성별, 연령대 변수가 사용 되었다. 방법은 가구 가중치 보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차 본조사 때 사용한 cell collapsing 결과대로 층을 만들어서 그 층별로 raking ratio adjustment method를 적용하였다. 개인 횡단 가중치 보정에 사용한 벤치마킹 변수들은 아래와 같다.

(a) 지역별 동부/읍면부
(b) 지역별 개인 연령대 : 30대 이하/40대/50대/60대/70대 이상
(c) 지역별 개인 성별 : 남 / 여

이때, 쓰인 방법은 raking ratio adjustment method로 각 지역 내

에서 1차 최종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 최종 가중치와 기본 가중치의 비율로 보정 factor를 구한 후, 보정 factor를 이용해서 최종 가중치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가중치는 다시 가중치 절삭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지역별로 평균 가중치의 1/3 이하 이거나 3배 이상이 되는 경우를 가중치 이상점으로 규정하고 가중치 절삭을 실시하였다. 가중치 절삭은 평균 가중치의 1/3 이하의 가중치를 가지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해서는 평균 가중치의 1/3 값으로 대체, 3배 이상의 경우에는 3배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가중치 절삭 후, 지역별 총 가구 수와 절삭 후 가중치합의 비를 곱해줌으로써 지역별 가중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무응답 조정을 마친 통합 개인 가중치에 대해서는 개인 벤치마킹 변수를 이용한 가중치 보정이 이루어진다. 통합 개인 가중치 보정에서는 2010년의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통계청 연령별 인구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보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통합표본 원표본이면서 50세 이상인 개인이 그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개인의 경우, 그 개인이 속한 광역시도의 평균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부표 2-2〉 통합 개인 가중치(지역별)

시도	동/읍면부	최종가중치합
서울특별시	동부	3,022,044
부산광역시	동부	1,240,513
대구광역시	동부	755,984
인천광역시	동부	778,638
광주광역시	동부	400,929
대전광역시	동부	437,429
울산광역시	동부	307,359
강원도	동부	2,501,427
	읍면부	649,812
경기도	동부	285,905
	읍면부	258,073
경상남도	동부	577,848
	읍면부	471,848
경상북도	동부	405,749
	읍면부	598,977
전라남도	동부	234,622
	읍면부	517,781
전라북도	동부	418,725
	읍면부	283,572
충청남도	동부	192,704
	읍면부	530,612
충청북도	동부	268,708
	읍면부	261,612
제주도	동부	99,669
	읍면부	74,290

[부록3]

05표본 조사결과

국민노후보장패널의 05표본 원표본가구는 2005년에 표본으로 구축된 가구로써, 50세 이상 가구원(개인조사대상)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신규가구는 원표본가구의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이 분가하여 새롭게 구성된 가구를 의미[1]한다. 6차 부가조사(2016년)에서는 총 3,632가구[2]를 조사 성공하였는데, 원표본가구는 5,110가구 중 3,572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신규가구는 60가구가 조사되었다(<부표 3-1>).

원표본유지율은 69.9%로 나타났는데, 직전차수 조사에 비해 약 2.0%p정도 차이를 보여, 원표본가구의 조사성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성공률은 4,546 유효가구 기준 78.6%이며, 직전차수에 비해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부터 6차 부가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응답한 가구는 3,157가구이며, 원표본가구 5,110 대비 61.8%의 지속응답률을 보였다.

1) KReIS에서의 신규가구는 여타 패널가구에서의 분가 개념과는 다른데,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므로 자녀가 혼인이나 직장 등의 사유로 분가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분가가구가 아닌 신규가구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2) KReIS 6차 부가조사(2016년)의 개인 응답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개인, %)

구분	원개인	조사 완료	원개인	신규개인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개인[1]	유효 성공률[2]
1차 본조사 (2005)	8,689	8,567	8,567	0	98.6	8,689	98.6
2차 본조사 (2007)	8,689	7,684	7,591	93	87.4	8,392	90.5
3차 본조사 (2009)	8,689	7,023	6,809	214	78.4	8,075	84.3
4차 본조사 (2011)	8,689	6,691	6,343	348	73.0	7,872	80.6
5차 본조사 (2013)	8,689	6,157	5,746	411	66.1	7,393	77.7
6차 본조사 (2015)	8,689	5,978	5,471	507	63.0	7,185	76.1
6차 부가조사(2016)	8,689	5,774	5,259	515	60.5	7.039	74.7

주: 1) 유효원표본개인은 원표본개인이 사망, 이민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한 개인수를 의미함

2) 유효성공률은 유효 원표본개인 대비 조사성공한 원표본개인의 비율임

〈부표 3-1〉 05표본 가구 응답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원표본	조사 완료	원표본	신규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표본[1]	유효 성공률[2]	1~6차 부가 지속 응답 가구	지속 응답률
1차 본조사 (2005)	5,110	5,109	5,109	0	99.9	5,110	99.9	5,109	100.0
2차 본조사 (2007)	5,110	4,590	4,550	40	89.0	5,042	90.2	4,550	89.0
3차 본조사 (2009)	5,110	4,308	4,240	68	83.0	4,983	85.1	4,171	81.6
4차 본조사 (2011)	5,110	4,105	4,036	69	79.0	4,925	81.9	3,722	72.9
5차 본조사 (2013)	5,110	3,809	3,749	60	73.4	4,885	76.7	3,404	66.6
6차 본조사 (2015)	5,110	3,736	3,672	64	71.9	4,609	79.7	3,250	63.6
6차 부가조사 (2016)	5,110	3,632	3,572	60	69.9	4,546	78.6	3,157	61.8

주: 1) 유효원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에서 에서 가구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함
2) 유효성공률은 유효 원표본가구 대비 조사성공한 원표본 가구의 비율임
3) 부가조사의 표본유지율은 공식 집계하지 않으며, 참고사항임

〈부표 3-2〉는 지역별 조사가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6차 부가조사의 전체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69.9%였으나, 지역별 성공률은 차이를 보였다. 원표본유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86.1%)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61.4%)이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인천은 평균 원표본유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 전남, 광주, 경남, 경북지역은 타 지역보다 원표본가구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3-1] 참고).

〈부표 3-2〉 05표본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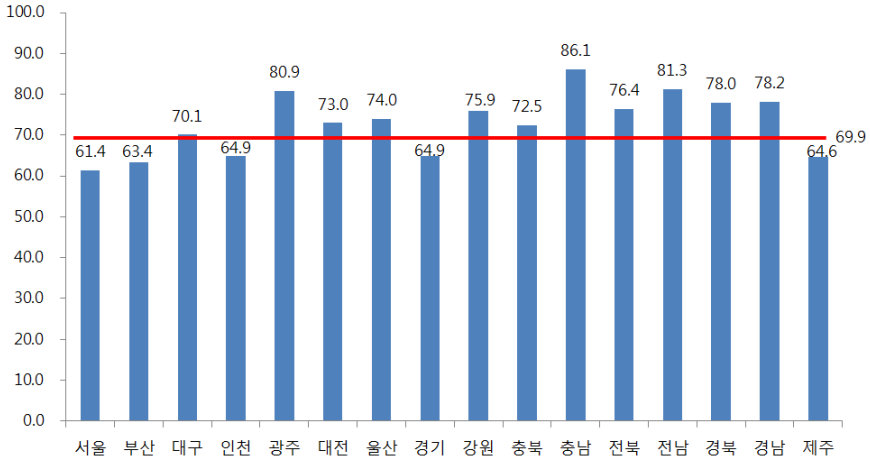
(단위: 가구, %)

지역	원표본가구 수	2016년 부가조사 조사성공 가구 수	각 지역 별 원표본유지율
서울	1,043	640	61.4
부산	388	246	63.4
대구	231	162	70.1
인천	271	176	64.9
광주	157	127	80.9
대전	174	127	73.0
울산	150	111	74.0
경기	920	597	64.9
강원	170	129	75.9
충북	189	137	72.5
충남	231	199	86.1
전북	212	162	76.4
전남	214	174	81.3
경북	323	252	78.0
경남	372	291	78.2
제주	65	42	64.6
전체	5,110	3,572	69.9

주: 지역구분은 최초 패널이 구축될 2005년도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구분함.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수 / 1차년도 원표본가구수) * 100

[부록 그림 3-1] 05표본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단위: %)



다음은 05표본 조사성공가구의 가구특성과 가구주 특성 및 조사성공가구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특성은 조사성공가구의 거주지역, 가구원 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부가조사에 조사성공한 05표본의 지역별 비중은 아래 〈부표 3-3〉과 같다.

〈부표 3-3〉 05표본의 조사성공가구의 거주지역

거주지역	서울	광역시	도	전체
가구 수	593	950	2,089	3,632
비율(%)	16.3	26.2	57.5	100.0

〈부표 3-4〉는 05표본 중 이번 부가조사에 성공한 가구의 가구원 수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이 2명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인가구의 비중이 32.1%로 높게 나타났다.

〈부표 3-4〉 05표본의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원 수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평균	전체
가구 수	1,165	1,566	450	235	135	81	2.1	3,632
비율(%)	32.1	43.1	12.4	6.5	3.7	2.2		100.0

〈부표 3-5〉는 05표본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구주는 여성(38.0%)보다는 남성(62.0%)의 비중이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56.6%)가 더 많았다. 원표본가구의 가구주는 전체가구의 특성과 비슷했으나, 신규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63.3%)가 더 많았다. 신규가구 발생의 주 원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상태 종결로 인한 가구분리이므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69.9세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연령대는 70대(39.5%)가 가장 많았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신규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66.6세였으며, 가구주 연령대는 원표본가구 및 전체 분포와 동일하게 7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28.9%)이 가장 많았으며, 원표본가구 및 신규가구 역시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가 가장 많았다. 05표본의 과반수가 비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05원가구의 가구주도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더 많았으나, 신규가구에서는 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가구주(94.3%)가 개인조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5〉 05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주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05 원가구		05 신규가구	
성별	남성	2,253	62.0	2,226	62.3	27	45.0
	여성	1,379	38.0	1,346	37.7	33	55.0
배우자유무	있음	2,056	56.6	2,034	56.9	22	36.7
	없음	1,576	43.4	1,538	43.1	38	63.3
연령대	50세 미만	211	5.8	206	5.8	5	8.3
	50대	283	7.8	269	7.5	14	23.3
	60대	1,085	29.9	1,072	30.0	13	21.7
	70대	1,434	39.5	1,414	39.6	20	33.3
	80세 이상	619	17.0	611	17.1	8	13.3
	평균연령(세)	69.9세		69.9세		66.6세	
최종 학력	무학	671	18.5	662	18.5	9	15.0
	초졸	1,051	28.9	1,031	28.9	20	33.3
	중졸	581	16.0	571	16.0	10	16.7
	고졸	896	24.7	884	24.7	12	20.0
	대학 재학 이상	431	11.9	422	11.8	9	15.0
	무응답	2	0.1	2	0.1	0	0.0
취업여부	취업	1,723	47.4	1,691	47.3	32	53.3
	비취업	1,908	52.5	1,880	52.6	28	46.7
	응답거절	1	0.0	1	0.0	0	0.0
가구주 개인조사 대상여부	대상	3,424	94.3	3,369	94.3	55	91.7
	비대상	208	5.7	203	5.7	5	8.3
전 체		3,632	100.0	3,572	100.0	60	100.0

05표본 조사성공가구의 조사성공개인의 특성을 보고자 한다. 원표본개인은 2005년 당시 구축했던 원표본가구의 개인조사대상자를 의미하며, 신규개인은 1차년도 조사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50세가 된 경우 혼인이나 합가 등으로 인해 50세 이상 가구원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조사에서는 개인조사대상자 총 5,774명을 조사성공하였으며, 이 중 원개인은 5,259명, 신규개인은 515명이다.

〈부표 3-6〉은 6차 부가조사(2016년)에 조사성공한 개인들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남성(39.5%)보다는 여성(60.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표본개인 역시 남성(38.3%)보다는 여성(61.7%)이 더 많았으나, 신규개인은 남성(52.2%)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조사된 개인의 평균연령은 70.1세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원표본개인은 60대와 7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05년 구축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시간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규개인은 평균연령이 55.0세로, 신규개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50세에 진입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5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았는데, 원표본개인은 초등학교 졸업자(33.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신규개인은 고등학교 졸업자(51.3%)가 가장 많았다. 조사완료된 개인과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역시 가구주(본인)가 가장 많고, 가구주의 배우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원표본개인은 부모의 비중이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신규개인은 가구주의 자녀 등 그 외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6〉 05표본 조사성공한 개인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05 원개인		05 신규개인	
성별	남성	2,282	39.5	2,013	38.3	269	52.2
	여성	3,492	60.5	3,246	61.7	246	47.8
연령대	50세 미만	71	1.2	5	0.1	66	12.8
	50대	673	11.7	287	5.5	386	75.0
	60대	1,943	33.7	1,901	36.1	42	8.2
	70대	2,185	37.8	2,175	41.4	10	1.9
	80세 이상	902	15.6	891	16.9	11	2.1
	평균연령	70.1세		71.6세		55.0세	
최종 학력	무학	1,053	18.2	1,033	19.6	20	3.9
	초졸	1,904	33.0	1,847	35.1	57	11.1
	중졸	1,064	18.4	991	18.8	73	14.2
	고졸	1,280	22.2	1,016	19.3	264	51.3
	대학 재학 이상	470	8.1	370	7.0	100	19.4
	무응답	3	0.1	2	0.0	1	0.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본인)	3,410	59.1	3,152	59.9	258	50.1
	배우자	1,911	33.1	1,730	32.9	181	35.1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378	6.5	367	7.0	11	2.1
	그 외	75	1.3	10	0.2	65	12.6
취업 여부	취업자	2,281	39.5	1,911	36.3	370	71.8
	비취업자	3,493	60.5	3,348	63.7	145	28.2
전 체		5,774	100.0	5,259	100.0	515	100.0

[부록4]

부표(추가 분석결과)

〈부표 4-1〉 주중 여가활동 내용 (순위별 다빈도 응답)

순위/구분	종류 (%)	장소 (%)	빈도 (%)	동반자 (%)	1회 평균 소요시간(시간)	월평균 소요비용(천원)	만족도 (점/5점)
1순위	TV시청 등 (75.4)	집 (81.8)	매일 (81.9)	혼자서 (50.2)	3.07	10.18	3.90
2순위	산책하기 (19.3)	집 (51.6)	매일 (45.9)	혼자서 (59.5)	1.73	10.42	3.95
3순위	잡담하기 등 (15.6)	집 (52.9)	매일 (31.8)	혼자서 (59.9)	1.51	13.71	3.92
4순위	잡담하기 등 (18.3)	집 (51.6)	주1~2회 (26.1)	혼자서 (56.7)	1.64	14.00	3.90
5순위	잡담하기 등 (17.8)	집 (50.7)	주1~2회 (31.9)	혼자서 (53.3)	1.83	15.35	3.91
전체	TV시청 등 (20.3)	집 (57.9)	매일 (40.1)	혼자서 (55.9)	1.97	12.71	3.92

주: 1회 소요시간의 평균값 산출시 회당 소요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활동은 제외하였으며, 월평균 소요비용의 평균값은 활동빈도가 월 1회 미만인 활동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부표 4-2〉 주말 여가활동 내용 (순위별 다빈도 응답)

순위/구분	종류 (%)	장소 (%)	빈도 (%)	동반자 (%)	1회 평균 소요시간(시간)	월평균 소요비용(천원)	만족도 (점/5점)
1순위	TV시청 등 (68.3)	집 (73.2)	월7~8회이상 (68.1)	혼자서 (40.5)	3.97	14.19	3.95
2순위	산책하기 (19.3)	집 (51.6)	월7~8회이상 (36.9)	혼자서 (48.9)	2.43	17.90	3.96
3순위	잡담하기 등 (15.6)	집 (52.9)	월3~4회 (28.1)	혼자서 (48.7)	2.31	19.78	3.96
4순위	잡담하기 등 (18.3)	집 (51.6)	월1~2회 (31.8)	혼자서 (45.0)	2.44	23.08	3.95
5순위	잡담하기 등 (17.8)	집 (50.7)	월1회미만 (29.1)	혼자서 (42.6)	3.02	23.74	3.96
전체	TV시청 등 (19.1)	집 (48.8)	월7~8회이상 (33.2)	혼자서 (45.2)	2.85	25.34	3.95

주: 1회 소요시간의 평균값 산출시 회당 소요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활동은 제외하였으며, 월평균 소요비용의 평균값은 활동빈도가 분기당 1회 미만인 활동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부표 4-3〉 여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 항목 (종류, 장소, 횟수)

(단위: %)

구분		여가활동 종류			여가활동 장소			여가활동 횟수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성별	남	88.2	0.1	11.6	80.8	0.6	18.6	84.3	0.8	14.9
	여	92.3	0.3	7.4	79.9	1.1	19.0	81.7	0.9	17.4
연령대	50대	88.8	0.3	10.8	79.6	1.2	19.2	85.0	0.8	14.2
	60대	92.3	0.0	7.7	81.6	0.9	17.5	79.5	0.9	19.5
	70대	94.8	0.0	5.2	82.7	0.4	16.9	84.5	0.0	15.5
	80세 이상	87.4	1.7	10.9	79.3	0.0	20.7	71.0	3.7	25.3
학력	무학	88.7	1.1	10.2	77.8	0.0	22.2	71.8	1.1	27.2
	초졸	94.4	0.0	5.6	85.7	0.6	13.8	84.6	0.8	14.6
	중졸	92.8	0.0	7.2	78.1	0.0	21.9	84.1	1.1	14.8
	고졸	91.1	0.4	8.5	82.4	1.4	16.2	82.7	1.1	16.2
	대학 재학 이상	81.9	0.0	18.1	72.5	1.4	26.1	83.5	0.0	16.5
배우자 유무	있음	90.3	0.2	9.5	80.0	1.1	18.9	83.1	0.9	16.0
	없음	91.2	0.3	8.5	81.8	0.0	18.2	81.8	0.7	17.4

구분		여가활동 종류			여가활동 장소			여가활동 횟수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9.6	0.3	10.1	80.3	1.1	18.6	84.1	1.0	14.8
	비취업자	92.0	0.2	7.9	80.3	0.5	19.1	80.6	0.5	18.8
거주지역	서울	90.3	0.6	9.0	82.5	2.7	14.8	86.3	0.6	13.1
	광역시	92.2	0.0	7.8	80.3	0.0	19.7	81.1	1.1	17.8
	도	89.6	0.2	10.2	79.6	0.8	19.5	82.8	0.8	16.4
가구구성	노인단독	91.9	0.0	8.1	82.5	0.0	17.5	84.9	0.0	15.1
	노인부부	91.9	0.0	8.1	83.5	0.6	15.9	81.7	0.8	17.4
	그 외	89.4	0.4	10.2	78.0	1.2	20.7	83.2	1.0	15.8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92.5	-	7.5	82.7	-	17.3	78.1	-	21.9
	2분위	94.5	-	5.5	87.2	0.5	12.3	85.6	0.6	13.7
	3분위	92.6	-	7.4	82.4	0.2	17.4	81.4	0.8	17.8
	4분위	86.8	-	13.2	78.3	0.9	20.8	84.3	1.6	14.1
	5분위	89.1	0.7	10.1	76.7	1.9	21.4	83.8	0.7	15.5
전 체		90.5	0.2	9.3	80.3	0.9	18.8	82.9	0.9	16.3

〈부표 4-4〉 여가활동에 변화를 주고 싶은 항목 (동반자, 시간, 비용)

(단위: %)

구분		여가활동 동반자			여가활동 시간			여가활동 비용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성별	남	62.5	2.4	35.1	82.8	1.7	15.5	73.6	5.5	21.0
	여	60.7	2.0	37.2	82.1	1.9	16.1	73.4	4.6	22.0
연령대	50대	63.3	2.4	34.3	88.4	1.0	10.6	78.7	3.3	18.0
	60대	54.4	1.8	43.8	76.8	2.4	20.8	70.0	5.6	24.5
	70대	64.9	2.9	32.1	74.7	2.8	22.4	67.8	4.8	27.4
	80세 이상	63.0	0.0	37.0	64.5	1.7	33.9	46.9	12.1	41.0
학력	무학	59.9	0.0	40.1	65.9	1.1	33.0	60.1	4.8	35.2
	초졸	57.5	2.6	39.8	79.6	2.0	18.4	74.7	4.3	21.0
	중졸	59.6	2.3	38.1	82.9	2.1	15.0	70.5	1.9	27.7
	고졸	64.5	2.0	33.5	83.3	2.2	14.5	77.8	5.1	17.1
	대학 재학 이상	62.0	2.8	35.2	88.8	0.3	11.0	69.5	9.4	21.1
배우자 유무	있음	60.7	2.7	36.6	82.8	2.0	15.1	73.8	5.5	20.7
	없음	65.1	0.0	34.9	80.4	0.6	19.0	71.9	2.7	25.4

구분		여가활동 동반자			여가활동 시간			여가활동 비용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0.7	3.0	36.3	85.9	1.9	12.2	76.9	4.7	18.4
	비취업자	63.0	0.8	36.3	76.0	1.6	22.4	67.3	5.6	27.1
거주지역	서울	60.2	4.7	35.0	87.2	0.6	12.2	87.1	1.9	11.0
	광역시	53.9	1.3	44.8	73.1	1.9	25.0	63.6	3.1	33.3
	도	66.1	1.9	32.0	86.0	2.1	11.9	74.6	7.0	18.4
가구구성	노인단독	68.0	0.0	32.0	84.2	0.0	15.8	71.9	0.9	27.2
	노인부부	58.0	1.8	40.1	77.3	2.5	20.2	72.8	5.2	22.0
	그 외	62.3	2.9	34.8	85.1	1.7	13.2	74.2	5.7	20.2
가구소득분위	1분위	61.9	-	38.2	73.2	0.9	26.0	72.1	2.2	25.7
	2분위	65.6	2.6	31.2	78.8	4.2	17.1	71.5	6.5	22.0
	3분위	62.1	1.5	36.4	81.1	1.3	17.6	73.8	4.2	22.0
	4분위	64.7	1.9	33.4	86.8	0.7	12.5	74.0	7.9	18.1
	5분위	57.2	3.6	39.2	84.9	2.4	12.7	74.0	4.0	22.0
전 체		61.5	2.2	36.3	82.4	1.8	15.8	73.5	5.0	21.5

〈부표 4-5〉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 (가족)

(단위: %)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	88.4	11.6	97.3	2.7	43.5	56.5	60.9	39.1	96.7	3.3	99.1	0.9
	여	67.1	32.9	98.1	1.9	35.9	64.1	67.9	32.1	95.6	4.4	98.7	1.3
연령대	50대	86.4	13.6	96.0	4.0	70.5	29.5	28.8	71.2	99.3	0.7	99.6	0.4
	60대	82.4	17.6	98.7	1.3	32.4	67.6	80.9	19.1	98.3	1.7	99.1	0.9
	70대	66.0	34.0	98.8	1.2	7.3	92.7	95.2	4.8	93.8	6.2	98.0	2.0
	80세 이상	41.0	59.0	98.1	1.9	2.3	97.7	95.7	4.3	82.3	17.7	96.8	3.2
학력	무학	36.4	63.6	98.1	1.9	5.7	94.3	92.3	7.7	86.5	13.5	96.8	3.2
	초졸	68.2	31.8	98.2	1.8	20.0	80.0	87.2	12.8	95.1	4.9	98.3	1.7
	중졸	83.4	16.6	98.4	1.6	34.7	65.3	73.7	26.3	97.6	2.4	98.6	1.4
	고졸	86.8	13.2	97.4	2.6	55.4	44.6	47.0	53.0	98.1	1.9	99.6	0.4
	대학재학이상	90.2	9.8	96.4	3.6	63.5	36.5	39.4	60.6	98.2	1.8	99.8	0.2
배우자 유무	있음	100.0	-	99.6	0.4	45.5	54.5	61.8	38.2	97.9	2.1	99.5	0.5
	없음	-	100.0	91.5	8.5	19.1	80.9	74.3	25.7	90.1	9.9	96.6	3.4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4.2	15.8	97.9	2.1	52.7	47.3	52.4	47.6	98.7	1.3	99.3	0.7
	비취업자	68.7	31.3	97.5	2.5	24.7	75.3	78.3	21.7	93.2	6.8	98.4	1.6
거주 지역	서울	77.7	22.3	96.8	3.2	44.2	55.8	58.4	41.6	95.5	4.5	99.1	0.9
	광역시	78.9	21.1	97.9	2.1	38.5	61.5	62.5	37.5	97.2	2.8	99.0	1.0
	도	75.6	24.4	97.9	2.1	38.2	61.8	67.9	32.1	95.8	4.2	98.7	1.3
가구 구성	노인단독	2.2	97.8	91.9	8.1	11.9	88.1	80.9	19.1	89.7	10.3	96.2	3.8
	노인부부	100.0	-	99.1	0.9	26.4	73.6	86.6	13.4	97.4	2.6	99.5	0.5
	그 외	80.3	19.7	98.3	1.7	57.4	42.6	43.1	56.9	96.9	3.1	99.1	0.9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43.3	56.7	95.4	4.6	12.6	87.4	88.6	11.4	88.6	11.4	96.9	3.1
	2분위	71.5	28.5	97.8	2.2	18.6	81.4	88.4	11.6	96.0	4.0	98.6	1.4
	3분위	81.1	18.9	97.5	2.5	35.5	64.5	70.5	29.5	97.2	2.8	99.1	0.9
	4분위	87.8	12.2	98.1	1.9	49.9	50.1	54.0	46.0	98.4	1.6	99.7	0.3
	5분위	90.3	9.7	99.2	0.8	66.1	33.9	36.7	63.3	98.3	1.7	99.5	0.5
전 체		76.8	23.2	97.7	2.3	39.4	60.6	64.7	35.3	96.1	3.9	98.8	1.2

주: 배우자가 있으나 가구구성이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는 혼인상태가 '배우자 있으나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임

〈부표 4-6〉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 (가족 외)

(단위: %)

		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1		기타2		기타3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	98.4	1.6	97.1	2.9	52.2	47.8	1.1	98.9	0.1	99.9	0.0	100.0
	여	96.6	3.4	97.8	2.2	26.0	74.0	2.4	97.6	0.3	99.7	0.1	99.9
연령대	50대	99.6	0.4	97.4	2.6	63.5	36.5	1.0	99.0	0.1	99.9	0.0	100.0
	60대	99.1	0.9	97.8	2.2	35.3	64.7	1.6	98.4	0.2	99.8	0.0	100.0
	70대	95.6	4.4	97.6	2.4	12.9	87.1	2.6	97.4	0.2	99.8	0.0	100.0
	80세 이상	87.5	12.5	97.0	3.0	4.8	95.2	4.2	95.8	0.6	99.4	0.5	99.5
학력	무학	89.7	10.3	98.2	1.8	8.6	91.4	3.2	96.8	0.0	100.0	0.0	100.0
	초졸	96.0	4.0	97.7	2.3	20.3	79.7	1.8	98.2	0.2	99.8	0.1	99.9
	중졸	98.5	1.5	97.3	2.7	32.8	67.2	1.8	98.2	0.1	99.9	0.1	99.9
	고졸	99.4	0.6	97.5	2.5	51.4	48.6	1.5	98.5	0.2	99.8	0.0	100.0
	대학재학이상	99.5	0.5	96.9	3.1	62.6	37.4	1.5	98.5	0.3	99.7	0.0	100.0
배우자 유무	있음	98.9	1.1	98.2	1.8	42.7	57.3	1.3	98.7	0.1	99.9	0.0	100.0
	없음	92.6	7.4	95.2	4.8	22.3	77.7	3.6	96.4	0.4	99.6	0.2	99.8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9.6	0.4	97.8	2.2	65.3	34.7	0.8	99.2	0.1	99.9	0.0	100.0
	비취업자	95.0	5.0	97.2	2.8	7.8	92.2	2.9	97.1	0.3	99.7	0.1	99.9
거주 지역	서울	96.5	3.5	94.9	5.1	48.0	52.0	2.2	97.8	0.1	99.9	0.0	100.0
	광역시	99.3	0.7	97.5	2.5	40.8	59.2	0.6	99.4	0.0	100.0	0.0	100.0
	도	96.9	3.1	98.4	1.6	33.2	66.8	2.2	97.8	0.3	99.7	0.1	99.9
가구 구성	노인단독	93.0	7.0	96.5	3.5	19.3	80.7	5.3	94.7	0.6	99.4	0.3	99.7
	노인부부	98.4	1.6	98.1	1.9	30.1	69.9	1.5	98.5	0.2	99.8	0.0	100.0
	그 외	97.9	2.1	97.3	2.7	49.5	50.5	1.0	99.0	0.1	99.9	0.0	100.0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91.4	8.6	97.0	3.0	8.6	91.4	5.1	94.9	0.5	99.5	0.3	99.7
	2분위	97.3	2.7	97.4	2.6	19.6	80.4	1.7	98.3	0.2	99.8	-	100.0
	3분위	98.5	1.5	97.8	2.2	34.7	65.3	1.3	98.7	0.3	99.7	0.0	100.0
	4분위	99.4	0.6	97.9	2.1	50.8	49.2	1.0	99.0	-	100.0	-	100.0
	5분위	99.1	0.9	97.2	2.8	62.5	37.5	0.8	99.2	-	100.0	-	100.0
전 체		97.4	2.6	97.5	2.5	38.0	62.0	1.8	98.2	0.2	99.8	0.1	99.9

주: 직장동료는 현재 직장동료 뿐만 아니라 과거 직장동료도 포함함

〈부표 4-7〉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원 수 분포

(단위: %)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성별	남	47.9	31.9	11.9	3.7	3.1	1.5
	여	46.6	33.3	11.9	4.0	2.6	1.6
연령대	50대	41.8	34.1	14.7	3.8	3.4	2.3
	60대	47.6	34.7	10.0	3.6	2.9	1.3
	70대	53.2	29.6	10.0	4.7	2.1	0.5
	80세 이상	57.2	26.0	10.1	3.3	1.9	1.6
학력	무학	54.4	29.5	10.2	3.1	2.2	0.7
	초졸	51.5	31.5	9.4	4.3	1.9	1.3
	중졸	50.4	31.0	11.6	3.2	3.0	0.9
	고졸	42.7	34.0	13.9	4.0	3.4	2.0
	대학재학이상	42.8	35.1	12.6	4.4	3.0	2.0
배우자 유무	있음	45.7	33.0	12.6	3.9	3.0	1.7
	없음	52.8	31.1	9.5	3.7	2.1	0.8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44.0	34.0	12.5	4.1	3.4	2.0
	비취업자	50.9	31.0	11.3	3.7	2.1	1.0
거주 지역	서울	43.5	31.7	10.7	8.5	4.9	0.7
	광역시	45.0	39.4	11.8	1.8	0.8	1.2
	도	49.5	29.7	12.4	3.4	3.1	2.0
가구 구성	노인단독	54.2	29.1	9.6	3.5	2.5	1.0
	노인부부	53.2	30.0	9.9	3.1	2.5	1.4
	그 외	40.8	35.6	14.1	4.6	3.1	1.8
가구소득 분위	1분위	55.9	27.7	11.0	3.0	1.8	0.6
	2분위	55.4	28.8	8.2	4.0	2.6	1.0
	3분위	51.0	34.1	9.2	2.5	2.5	0.7
	4분위	42.4	35.6	11.7	5.3	3.1	1.9
	5분위	37.4	33.8	17.6	4.6	3.5	3.0
전 체		47.2	32.6	11.9	3.9	2.8	1.5

〈부표 4-8〉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원수 분포

(단위: %)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성별	남	53.0	32.9	8.5	2.7	2.5	0.4
	여	55.6	30.0	10.5	1.3	2.2	0.4
연령대	50대	50.6	33.2	11.7	1.9	2.0	0.5
	60대	57.0	30.7	7.6	1.8	2.8	0.1
	70대	57.5	30.4	7.5	1.9	2.2	0.4
	80세 이상	58.1	27.5	10.2	2.3	1.6	0.4
학력	무학	58.4	30.0	9.6	1.0	1.1	0.0
	초졸	62.7	25.8	7.5	1.6	2.2	0.2
	중졸	57.4	31.2	7.3	1.4	2.3	0.4
	고졸	50.2	33.9	10.7	2.0	2.6	0.5
	대학재학이상	47.5	33.6	11.9	3.5	2.7	0.6
배우자 유무	있음	53.2	32.0	9.8	2.2	2.4	0.4
	없음	59.9	28.5	8.5	0.7	2.3	0.1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52.6	32.9	10.0	1.9	2.1	0.5
	비취업자	56.9	29.2	8.9	2.0	2.8	0.2
거주 지역	서울	44.6	38.5	11.0	3.9	1.1	0.9
	광역시	55.7	28.0	10.2	2.3	3.4	0.4
	도	56.1	31.4	8.9	1.3	2.1	0.3
가구 구성	노인단독	60.8	26.1	8.5	1.4	3.0	0.2
	노인부부	56.7	29.9	8.4	2.2	2.5	0.4
	그 외	51.2	33.6	10.7	1.9	2.2	0.4
가구소득 분위	1분위	64.9	26.6	6.8	1.0	0.7	-
	2분위	58.0	27.6	9.9	1.6	2.8	0.2
	3분위	57.5	30.3	7.5	2.0	2.6	0.1
	4분위	53.5	33.7	8.2	1.6	2.6	0.5
	5분위	45.3	34.7	13.8	2.9	2.5	0.9
전 체		54.4	31.4	9.6	2.0	2.4	0.4

〈부표 4-9〉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원수 분포

(단위: %)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성별	남	41.9	30.7	15.8	5.0	5.1	1.5
	여	39.5	32.6	14.5	5.9	5.7	1.9
연령대	50대	34.1	33.3	17.2	6.2	7.1	2.2
	60대	44.0	30.7	13.5	5.5	4.9	1.5
	70대	46.1	31.0	13.3	4.1	4.3	1.3
	80세 이상	50.4	27.3	13.6	5.0	3.1	0.7
학력	무학	46.7	33.1	14.0	3.4	2.2	0.7
	초졸	48.1	28.4	12.3	5.6	4.5	1.1
	중졸	43.1	32.1	13.1	4.9	5.6	1.3
	고졸	36.0	32.5	17.8	6.0	5.6	2.2
	대학재학이상	33.7	33.5	15.9	6.0	8.4	2.5
배우자 유무	있음	39.8	31.6	15.4	5.8	5.6	1.8
	없음	43.7	32.0	13.8	4.3	4.7	1.5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37.2	32.7	16.1	5.7	6.1	2.1
	비취업자	44.5	30.6	13.9	5.2	4.6	1.2
거주 지역	서울	38.0	32.5	12.5	4.5	8.1	4.4
	광역시	43.2	33.3	13.7	4.8	3.6	1.5
	도	40.2	30.7	16.6	6.1	5.4	0.9
가구 구성	노인단독	45.1	31.5	11.9	4.6	5.2	1.7
	노인부부	46.0	30.0	12.9	4.7	5.1	1.3
	그 외	35.2	33.2	17.6	6.3	5.7	2.0
가구소득 분위	1분위	50.1	31.1	11.0	4.1	3.0	0.8
	2분위	50.2	26.1	12.2	4.9	5.4	1.1
	3분위	45.6	30.1	14.2	4.6	4.3	1.2
	4분위	35.9	33.5	16.8	6.2	5.4	2.2
	5분위	28.5	35.2	18.7	6.8	8.1	2.6
전 체		40.6	31.7	15.1	5.5	5.4	1.7

〈부표 4-10〉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2순위

(단위: %)

구분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	없음	총합
성별	남	4.0	66.3	3.1	0.7	5.9	0.5	8.8	2.6	2.1	0.2	5.6	100.0
	여	4.3	65.0	2.0	2.4	6.7	0.5	7.4	4.0	0.8	0.7	6.2	100.0
연령대	50대	4.6	58.3	5.5	0.1	10.9	0.4	10.2	1.9	2.2	0.2	5.8	100.0
	60대	4.5	71.5	0.5	1.1	4.5	0.5	7.3	3.3	1.5	0.5	4.8	100.0
	70대	3.5	68.6	0.4	3.5	2.9	0.5	7.0	5.2	0.2	0.6	7.5	100.0
	80세 이상	2.3	69.3	-	5.5	2.0	1.3	5.2	6.1	0.3	1.0	7.0	100.0
학력	무학	2.3	64.8	-	5.5	3.4	0.6	5.9	7.6	0.2	1.1	8.7	100.0
	초졸	4.0	66.7	0.4	3.1	5.0	0.8	6.5	5.2	0.8	0.3	7.3	100.0
	중졸	4.5	70.4	1.9	0.5	5.1	0.6	7.2	2.9	1.2	0.4	5.2	100.0
	고졸	5.2	65.2	3.8	0.5	8.4	0.4	8.2	2.0	1.5	0.4	4.5	100.0
	대학재학이상	3.2	60.0	5.5	0.3	7.6	0.3	12.6	1.0	3.0	0.5	5.9	100.0
배우자 유무	있음	5.4	70.3	2.9	0.5	5.1	0.2	6.9	1.9	1.5	0.3	5.0	100.0
	없음	0.1	49.8	1.3	5.4	10.4	1.5	12.0	8.3	1.0	1.0	9.1	100.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4.1	63.5	4.0	0.9	7.4	0.4	8.9	3.1	2.4	0.3	5.1	100.0
	비취업자	4.3	67.9	1.0	2.5	5.2	0.7	7.1	3.7	0.3	0.7	6.8	100.0
거주지역	서울	4.6	60.6	3.0	0.8	7.3	0.6	12.0	1.6	2.9	0.7	5.9	100.0
	광역시	5.5	66.9	1.7	1.3	8.4	0.6	6.5	3.7	0.4	0.1	4.9	100.0
	도	3.5	66.6	2.7	2.0	5.1	0.5	7.4	3.8	1.3	0.6	6.4	100.0
가구구성	노인단독	0.1	49.9	0.3	4.5	7.8	1.9	12.5	10.7	0.9	1.5	9.8	100.0
	노인부부	4.7	76.2	0.8	0.4	3.5	0.3	5.7	2.6	0.9	0.5	4.6	100.0
	그 외	5.0	61.9	4.6	1.8	8.2	0.3	8.6	1.9	1.9	0.1	5.8	100.0
가구소득분위	1분위	2.4	61.9	0.1	4.4	4.2	0.9	7.3	7.6	0.3	1.3	9.6	100.0
	2분위	4.9	67.7	0.6	1.5	5.9	1.2	7.5	5.3	0.3	0.6	4.6	100.0
	3분위	3.8	66.5	2.4	1.3	5.9	0.4	7.5	3.0	1.0	0.4	7.7	100.0
	4분위	4.6	69.1	3.6	1.2	5.8	0.2	7.7	2.2	2.1	0.2	3.3	100.0
	5분위	5.1	62.9	4.7	0.5	9.2	0.2	9.8	0.6	2.6	0.1	4.3	100.0
전 체		4.2	65.6	2.5	1.6	6.4	0.5	8.1	3.4	1.4	0.5	5.9	100.0

〈부표 4-11〉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3순위

(단위: %)

구분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	없음	총합
성별	남	2.1	41.3	2.6	1.4	12.2	1.4	14.0	5.1	3.7	0.4	15.7	100.0
	여	2.9	37.7	2.2	2.9	13.7	1.5	13.7	7.5	1.0	1.0	15.8	100.0
연령대	50대	2.5	31.8	4.7	0.2	18.8	1.3	16.9	4.6	4.2	0.4	14.7	100.0
	60대	2.4	46.0	1.2	2.0	10.8	1.5	14.1	5.0	1.7	0.7	14.6	100.0
	70대	3.0	44.3	0.1	3.4	8.6	1.2	9.8	9.7	0.5	0.7	18.7	100.0
	80세 이상	1.4	38.6	0.1	9.0	7.3	2.3	9.6	11.3	0.1	2.1	18.1	100.0
학력	무학	1.8	37.0	0.1	5.6	8.4	2.6	8.7	12.7	0.5	1.5	21.1	100.0
	초졸	2.6	41.5	0.7	4.1	9.6	1.5	11.1	10.1	0.6	0.5	17.6	100.0
	중졸	4.0	45.7	1.2	1.8	11.3	1.1	14.2	4.8	1.4	0.3	14.0	100.0
	고졸	2.3	38.1	4.0	0.8	17.0	1.4	15.1	4.3	3.0	0.7	13.4	100.0
	대학재학이상	1.8	33.2	4.2	0.7	14.8	1.1	18.5	2.5	5.6	1.1	16.6	100.0
배우자 유무	있음	3.3	43.6	2.8	1.4	13.0	0.9	13.7	5.1	2.3	0.5	13.4	100.0
	없음	.0	25.0	1.1	5.0	13.1	3.2	14.3	10.9	2.1	1.5	23.8	100.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1	39.0	3.3	1.0	14.4	1.3	15.2	5.8	4.1	0.3	13.5	100.0
	비취업자	3.0	39.7	1.4	3.7	11.5	1.6	12.2	7.1	0.3	1.2	18.3	100.0
거주지역	서울	2.1	32.9	2.4	1.6	13.6	1.4	19.2	2.7	4.2	0.9	19.1	100.0
	광역시	3.1	38.1	2.2	1.9	12.4	0.9	14.8	6.0	2.5	0.3	17.9	100.0
	도	2.5	42.1	2.5	2.7	13.2	1.7	11.5	7.9	1.5	0.9	13.7	100.0
가구구성	노인단독	0.1	25.9	0.5	3.2	12.8	3.0	13.7	12.6	1.5	2.2	24.5	100.0
	노인부부	3.3	51.2	1.1	2.1	9.3	1.2	11.0	6.4	1.1	0.4	12.8	100.0
	그 외	2.7	33.9	3.9	2.1	16.0	1.2	16.0	4.7	3.4	0.6	15.6	100.0
가구소득분위	1분위	1.5	37.3	0.5	4.1	10.9	1.6	9.2	11.9	0.4	1.8	20.6	100.0
	2분위	2.5	43.4	0.7	3.1	10.1	2.0	12.2	9.6	0.8	0.6	14.9	100.0
	3분위	3.2	42.2	1.4	2.0	10.1	1.6	13.2	6.2	2.0	0.9	17.3	100.0
	4분위	2.5	41.0	3.4	1.8	15.4	1.4	14.6	4.1	2.7	0.2	13.0	100.0
	5분위	2.5	33.9	5.0	1.1	17.4	1.0	18.1	2.8	4.4	0.4	13.6	100.0
전 체		2.5	39.3	2.4	2.2	13.0	1.5	13.8	6.4	2.3	0.7	15.8	100.0

〈부표 4-12〉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4순위

(단위: %)

구분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	없음	총합
성별	남	0.7	19.6	1.2	1.3	12.2	2.8	18.7	7.9	4.4	0.6	30.5	100.0
	여	1.6	17.6	1.3	1.6	12.3	3.0	17.7	10.5	2.0	0.9	31.5	100.0
연령대	50대	1.4	12.6	2.2	0.2	16.3	3.0	22.1	7.1	5.7	0.5	28.9	100.0
	60대	1.5	20.5	0.9	1.3	13.5	2.1	17.9	9.7	2.6	0.8	29.1	100.0
	70대	0.9	25.1	-	2.1	7.0	3.4	13.8	10.7	0.5	0.8	35.6	100.0
	80세 이상	0.5	23.4	-	5.7	4.5	4.5	12.4	12.7	-	1.4	34.9	100.0
학력	무학	0.3	20.3	-	4.0	5.6	3.2	13.0	13.6	0.6	0.9	38.5	100.0
	초졸	1.2	23.0	0.3	2.4	9.2	2.8	14.1	11.3	1.2	0.7	33.7	100.0
	중졸	1.5	22.4	1.0	1.0	11.7	2.2	18.2	10.2	2.1	0.9	28.7	100.0
	고졸	1.6	14.9	2.2	0.6	14.7	2.7	22.4	7.8	3.8	0.7	28.5	100.0
	대학재학이상	0.4	14.2	1.5	0.5	16.8	4.1	18.8	5.5	7.6	0.7	29.9	100.0
배우자 유무	있음	1.6	19.7	1.5	1.2	13.8	2.7	18.7	8.5	3.5	0.7	28.2	100.0
	없음	-	14.6	0.5	2.3	7.1	3.6	16.4	11.9	1.9	1.1	40.7	100.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2	17.7	1.5	0.8	14.0	2.5	19.9	8.5	5.8	0.5	27.7	100.0
	비취업자	1.2	19.5	0.9	2.2	10.3	3.4	16.3	10.2	0.2	1.1	34.8	100.0
거주지역	서울	1.1	16.9	1.3	1.3	15.9	3.2	15.9	6.2	5.6	1.0	31.6	100.0
	광역시	1.2	14.8	1.4	1.1	11.7	2.4	21.3	8.0	2.2	0.3	35.7	100.0
	도	1.2	20.8	1.2	1.7	11.2	3.0	17.6	11.0	2.7	0.9	28.8	100.0
가구구성	노인단독	-	15.5	-	1.3	6.8	3.6	15.4	12.5	1.0	1.6	42.4	100.0
	노인부부	1.3	23.8	0.5	1.5	12.1	2.7	17.2	10.5	1.8	0.8	27.6	100.0
	그 외	1.5	15.3	2.2	1.5	13.9	2.8	19.8	7.4	4.7	0.5	30.5	100.0
가구소득분위	1분위	1.2	22.4	0.3	1.6	6.5	3.1	13.3	12.0	0.4	1.5	37.7	100.0
	2분위	1.0	21.1	0.3	2.3	9.5	3.2	14.3	13.8	0.7	1.3	32.5	100.0
	3분위	0.7	19.4	0.6	1.2	12.9	2.8	17.5	9.8	2.0	0.8	32.2	100.0
	4분위	1.8	18.0	2.4	1.9	13.7	1.8	22.5	7.7	4.9	0.3	25.2	100.0
	5분위	1.3	13.7	2.1	0.9	16.0	3.6	21.0	5.5	6.2	0.4	29.2	100.0
전 체		1.2	18.5	1.2	1.5	12.2	2.9	18.2	9.3	3.1	0.8	31.1	100.0

〈부표 4-13〉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5순위

(단위: %)

구분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	없음	총합
성별	남	0.4	9.8	1.0	0.7	8.0	3.2	16.4	8.6	4.0	0.3	47.7	100.0
	여	0.8	8.9	0.8	1.1	7.6	2.8	14.8	11.2	1.7	1.0	49.4	100.0
연령대	50대	0.6	6.7	1.7	0.3	9.2	2.8	17.6	9.7	5.3	0.2	45.9	100.0
	60대	0.5	9.8	0.6	0.7	9.3	3.3	16.0	9.9	1.8	0.9	47.2	100.0
	70대	1.0	11.9	-	1.1	5.2	3.4	13.0	10.3	0.6	0.9	52.7	100.0
	80세 이상	0.1	12.5	-	3.8	3.4	2.1	11.1	11.2	0.1	0.9	54.7	100.0
학력	무학	0.1	8.7	0.2	2.6	3.5	3.0	10.8	9.9	0.2	0.4	60.6	100.0
	초졸	0.8	11.1	0.3	1.3	5.3	2.4	13.5	11.0	1.1	0.7	52.4	100.0
	중졸	0.8	10.0	0.9	0.5	8.4	2.1	15.3	10.8	2.1	1.0	48.0	100.0
	고졸	0.8	8.7	0.9	0.5	9.6	3.7	17.3	10.3	3.7	0.6	44.2	100.0
	대학재학이상	0.2	7.4	2.0	0.3	9.9	3.5	18.5	7.2	5.7	0.5	44.8	100.0
배우자 유무	있음	0.8	10.0	1.1	0.5	8.6	2.8	17.1	10.0	3.1	0.6	45.5	100.0
	없음	-	6.9	0.2	2.3	4.9	3.8	10.3	10.0	1.4	0.9	59.2	100.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0.7	8.7	1.2	0.6	8.5	2.7	16.7	9.7	5.0	0.3	45.9	100.0
	비취업자	0.6	9.9	0.5	1.3	6.9	3.3	14.2	10.4	0.2	1.1	51.7	100.0
거주지역	서울	1.1	8.8	1.2	0.4	13.7	3.4	16.0	8.1	4.7	0.7	42.0	100.0
	광역시	0.3	6.5	0.9	0.8	6.3	2.7	14.7	10.2	1.7	-	55.9	100.0
	도	0.6	10.7	0.7	1.1	6.4	3.0	15.7	10.6	2.5	0.9	47.6	100.0
가구구성	노인단독	0.1	8.1	0.4	1.7	4.2	3.3	9.2	10.0	0.8	1.3	60.9	100.0
	노인부부	0.9	11.6	0.3	0.8	7.6	3.0	15.7	10.5	1.4	0.9	47.2	100.0
	그 외	0.5	7.8	1.4	0.7	8.9	2.9	17.2	9.7	4.3	0.3	46.2	100.0
가구소득분위	1분위	0.3	10.1	0.2	1.3	4.3	2.9	11.0	10.2	0.3	1.0	58.2	100.0
	2분위	0.9	11.2	0.2	2.0	4.5	3.2	13.8	10.6	0.5	0.6	52.6	100.0
	3분위	0.9	9.3	0.7	0.6	8.4	2.9	13.8	10.7	1.9	0.7	50.1	100.0
	4분위	0.4	9.5	1.5	0.6	9.5	3.3	18.4	11.4	3.7	0.6	40.9	100.0
	5분위	0.5	7.3	1.4	0.6	10.1	2.8	19.1	7.6	5.8	0.3	44.4	100.0
전 체		0.6	9.3	0.9	0.9	7.8	3.0	15.5	10.0	2.7	0.6	48.6	100.0

〈부표 4-14〉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 종류 수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갈등종류 수 (%)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성별	남	0.53	0.96	69.4	15.4	10.3	3.3	1.0	0.6
	여	0.44	0.89	74.5	13.4	7.7	3.0	0.9	0.5
연령대	50대	0.60	1.02	66.2	16.1	11.5	4.1	1.3	0.7
	60대	0.50	0.92	70.5	15.2	9.6	3.3	0.8	0.5
	70대	0.32	0.72	79.2	12.6	5.9	1.6	0.6	0.1
	80세 이상	0.15	0.54	90.7	5.9	2.2	0.6	0.2	0.3
학력	무학	0.21	0.58	85.8	9.2	3.9	0.6	0.4	0.1
	초졸	0.42	0.83	74.6	13.7	7.9	3.2	0.5	0.2
	중졸	0.58	1.01	68.0	15.1	11.2	3.4	1.6	0.8
	고졸	0.57	0.99	67.8	15.9	10.5	4.3	0.9	0.6
	대학 재학 이상	0.48	0.97	72.9	14.8	7.9	1.8	1.7	0.9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0.57	0.99	67.6	16.1	10.6	3.6	1.3	0.7
	비취업자	0.38	0.83	77.2	12.3	7.1	2.5	0.6	0.4
거주지역	서울	0.44	0.98	77.9	9.6	6.7	3.1	1.7	1.0
	광역시	0.56	0.97	68.2	15.0	11.9	3.4	0.9	0.6
	도	0.46	0.88	71.9	15.6	8.3	3.0	0.8	0.4
가구구성	노인부부	0.50	0.85	67.7	18.8	10.0	2.7	0.6	0.1
	그 외	0.60	1.06	67.8	14.8	10.5	4.3	1.5	1.0
가구소득분위	1분위	0.24	0.62	83.3	10.8	4.3	1.2	0.3	0.0
	2분위	0.36	0.74	77.8	11.4	8.5	2.1	0.3	-
	3분위	0.53	0.95	69.1	16.6	8.6	4.0	1.3	0.4
	4분위	0.59	1.03	67.6	15.3	10.9	3.9	0.9	1.3
	5분위	0.58	1.02	68.0	15.3	11.0	3.4	1.7	0.7
전 체		0.48	0.92	72.2	14.3	8.9	3.1	1.0	0.5

주: 가구구성이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는 지난 1년간은 배우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사망 또는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임.

〈부표 4-15〉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7.0	28.7	48.4	15.3	0.6
	여	7.3	28.1	45.2	18.6	0.9
연령대	50대	9.2	28.2	42.8	18.6	1.2
	60대	5.6	25.6	52.5	15.6	0.7
	70대	4.0	34.9	46.3	14.6	0.2
	80세 이상	3.3	29.3	43.9	23.5	-
학력	무학	6.1	35.5	51.7	6.7	-
	초졸	5.8	26.5	50.8	16.0	1.0
	중졸	7.2	23.2	47.9	21.3	0.5
	고졸	8.4	33.5	40.8	16.5	0.8
	대학 재학 이상	6.4	20.8	53.4	18.3	1.1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7.5	28.0	47.7	15.7	1.2
	비취업자	6.6	28.9	45.5	18.7	0.1
거주지역	서울	4.4	20.0	53.7	20.3	1.5
	광역시	5.3	21.9	55.1	17.5	0.2
	도	8.7	33.5	41.1	15.9	0.8
가구구성	노인단독	-	14.1	61.8	24.1	-
	노인부부	6.2	28.4	48.5	16.7	0.1
	그 외	8.0	28.4	45.3	17.1	1.3
가구소득분위	1분위	4.4	30.1	46.6	18.9	-
	2분위	14.4	24.7	42.0	18.4	0.5
	3분위	7.3	26.5	48.2	17.2	0.7
	4분위	4.8	23.0	52.6	18.5	1.1
	5분위	6.9	37.5	41.6	13.0	1.0
전 체		7.2	28.4	46.8	16.9	0.8

〈부표 4-16〉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의 결혼문제'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4.0	32.1	42.1	19.7	2.1
	여	6.9	33.3	34.6	24.6	0.7
연령대	50대	6.8	34.3	32.4	25.5	1.0
	60대	2.8	35.1	41.4	17.8	2.8
	70대	5.4	25.1	46.3	23.2	-
	80세 이상	6.2	23.8	48.5	21.5	-
학력	무학	4.0	28.3	42.5	25.2	-
	초졸	2.2	32.9	47.6	15.3	1.9
	중졸	7.9	34.2	37.6	20.3	-
	고졸	5.4	34.9	36.6	20.2	3.0
	대학 재학 이상	4.7	25.6	34.9	34.8	-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0	34.7	39.8	18.8	0.7
	비취업자	4.4	29.7	37.0	26.3	2.5
거주지역	서울	2.5	34.9	49.7	12.9	-
	광역시	4.2	36.5	40.0	17.6	1.8
	도	7.7	27.9	32.7	30.1	1.7
가구구성	노인부부	5.1	29.5	47.3	18.0	-
	그 외	5.4	33.5	36.3	23.0	1.9
가구소득분위	1분위	15.8	16.0	52.1	16.2	-
	2분위	3.8	16.3	47.3	26.7	5.9
	3분위	1.9	30.3	51.2	16.5	-
	4분위	6.3	29.8	37.9	26.0	-
	5분위	6.2	39.4	29.1	22.5	2.9
전 체		5.3	32.6	38.7	21.9	1.5

〈부표 4-17〉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부모 부양 문제'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7.6	36.7	42.3	13.4	-
	여	16.4	27.9	37.4	18.3	-
연령대	50대	14.7	39.0	33.3	12.9	-
	60대	5.9	25.5	51.2	17.4	-
	70대	-	-	60.5	39.5	-
	80세 이상	-	-	-	-	-
학력	무학	-	100.0	-	-	-
	초졸	8.8	32.5	24.3	34.4	-
	중졸	8.4	37.0	43.2	11.4	-
	고졸	9.3	30.3	41.6	18.9	-
	대학 재학 이상	22.8	29.3	44.0	3.9	-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3.5	38.2	31.2	17.0	-
	비취업자	8.7	18.3	59.8	13.2	-
거주지역	서울	-	11.9	66.2	21.9	-
	광역시	21.3	38.8	31.6	8.3	-
	도	11.9	36.5	34.1	17.5	-
가구구성	노인부부	8.6	31.0	60.3	-	-
	그 외	12.4	32.3	37.8	17.4	-
가구소득분위	1분위	-	-	-	-	-
	2분위	-	-	26.5	73.5	-
	3분위	6.3	45.0	39.2	9.5	-
	4분위	17.5	12.1	56.7	13.8	-
	5분위	14.7	40.4	29.7	15.1	-
전 체		12.1	32.2	39.8	15.9	-

〈부표 4-18〉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부부간 가사분담 문제'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11.1	29.8	48.0	11.1	-
	여	9.8	28.2	46.9	15.1	-
연령대	50대	12.6	30.5	48.1	8.9	-
	60대	8.6	25.6	45.4	20.4	-
	70대	0.9	27.5	56.0	15.5	-
	80세 이상	10.9	36.0	53.1	-	-
학력	무학	-	4.4	79.1	16.5	-
	초졸	12.0	19.4	51.4	17.3	-
	중졸	8.6	32.7	48.2	10.5	-
	고졸	11.8	27.2	44.3	16.7	-
	대학 재학 이상	9.6	41.3	45.2	3.9	-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1.1	29.8	47.0	12.1	-
	비취업자	9.1	27.0	48.5	15.4	-
거주지역	서울	5.3	33.5	51.1	10.1	-
	광역시	16.8	17.6	48.2	17.4	-
	도	11.1	30.7	45.1	13.1	-
가구구성	노인부부	9.5	30.0	43.8	16.7	-
	그 외	11.1	28.1	49.7	11.1	-
가구소득분위	1분위	12.1	20.3	53.5	14.1	-
	2분위	3.4	18.3	56.3	22.1	-
	3분위	11.8	27.3	48.1	12.7	-
	4분위	12.5	37.4	36.9	13.3	-
	5분위	9.7	28.8	51.2	10.3	-
전 체		10.5	29.0	47.5	13.0	-

〈부표 4-19〉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배우자의 여가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7.9	28.4	49.3	14.5	-
	여	5.8	29.7	47.6	16.2	0.7
연령대	50대	8.6	26.4	51.2	13.2	0.6
	60대	4.4	28.2	48.8	18.2	0.4
	70대	8.3	36.9	36.4	18.4	-
	80세 이상	8.9	23.8	62.4	4.9	-
학력	무학	17.0	25.9	41.7	15.4	-
	초졸	6.4	24.4	46.2	21.7	1.3
	중졸	4.0	27.6	49.5	18.4	0.6
	고졸	8.2	34.0	47.1	10.6	-
	대학 재학 이상	5.0	23.7	54.3	17.0	-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5.4	28.3	49.8	16.4	-
	비취업자	9.2	30.3	46.1	13.5	1.0
거주지역	서울	2.4	38.1	46.8	12.7	-
	광역시	7.4	12.2	63.4	16.7	0.4
	도	8.6	34.7	40.4	15.8	0.5
가구구성	노인부부	9.6	21.9	49.6	17.9	1.0
	그 외	5.2	33.4	47.5	13.9	-
가구소득분위	1분위	16.1	19.4	37.0	23.3	4.1
	2분위	9.6	23.2	43.4	23.8	-
	3분위	11.0	23.1	56.7	8.9	0.4
	4분위	5.7	30.3	45.5	18.5	-
	5분위	1.5	36.8	47.4	14.3	-
전 체		6.8	29.1	48.4	15.3	0.4

〈부표 4-20〉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생활습관 차이(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9.1	29.7	46.5	13.8	0.9
	여	10.6	27.3	42.7	18.1	1.3
연령대	50대	12.2	28.3	43.0	15.5	1.0
	60대	7.5	30.5	47.0	14.4	0.7
	70대	5.7	29.0	43.9	20.2	1.2
	80세 이상	16.8	14.4	49.1	12.6	7.2
학력	무학	12.0	29.8	37.4	18.2	2.6
	초졸	9.0	22.2	48.5	18.8	1.5
	중졸	7.8	27.7	45.7	17.2	1.6
	고졸	12.1	30.7	41.7	14.6	0.9
	대학 재학 이상	6.9	31.6	48.5	13.1	-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3	27.6	45.8	16.5	0.8
	비취업자	10.8	30.2	42.5	14.8	1.7
거주지역	서울	4.9	23.5	62.9	8.7	-
	광역시	4.8	23.4	51.4	19.5	0.9
	도	14.1	32.9	35.8	15.7	1.5
가구구성	노인부부	10.9	27.1	42.7	17.9	1.3
	그 외	9.0	29.7	45.9	14.5	0.9
가구소득분위	1분위	8.8	23.7	36.2	25.4	6.0
	2분위	14.2	22.0	44.6	19.2	-
	3분위	11.9	26.5	46.2	14.8	0.6
	4분위	10.0	28.7	45.0	15.7	0.7
	5분위	6.7	33.7	44.9	13.6	1.2
전 체		9.9	28.5	44.6	15.9	1.1

〈부표 4-21〉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그 외 갈등'에 대한 갈등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편	매우 심함
성별	남	-	32.3	52.7	15.1	-
	여	12.1	7.1	31.2	37.4	12.2
연령대	50대	-	25.6	36.1	23.9	14.4
	60대	-	25.8	49.4	24.9	-
	70대	-	-	32.3	67.7	-
	80세 이상	-	-	-	-	100.0
학력	무학	-	-	-	-	100.0
	초졸	-	-	61.0	39.0	-
	중졸	-	28.7	29.8	41.5	-
	고졸	-	-	100.0	-	-
	대학 재학 이상	35.0	24.9	-	13.6	26.5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	34.2	53.3	-	12.6
	비취업자	14.7	-	26.0	55.6	3.7
거주지역	서울	24.7	17.6	-	57.6	-
	광역시	-	-	100.0	-	-
	도	-	19.0	46.1	20.6	14.3
가구구성	노인부부	-	15.2	46.6	38.2	-
	그 외	27.0	19.2	22.8	10.5	20.4
가구소득분위	1분위	-	-	39.0	55.8	5.2
	2분위	-	-	100.0	-	-
	3분위	-	36.5	24.3	18.6	20.6
	4분위	-	-	-	100.0	-
	5분위	39.1	27.8	33.1	-	-
전 체		7.8	16.0	38.8	29.5	7.9

〈부표 4-22〉 지난 1년간 동거자녀와 겪은 갈등의 종류 수

(단위: %)

구분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성별	남	91.8	5.8	1.7	0.5	0.3
	여	91.1	6.5	1.7	0.3	0.3
연령대	50대	88.5	8.5	2.4	0.3	0.3
	60대	92.5	5.4	1.4	0.5	0.3
	70대	93.9	3.8	1.6	0.5	0.2
	80세 이상	96.3	2.2	0.9	0.1	0.5
학력	무학	94.5	4.1	0.8	0.3	0.3
	초졸	93.5	4.1	1.4	0.5	0.6
	중졸	92.0	5.1	2.6	0.1	0.2
	고졸	89.6	7.8	1.8	0.5	0.2
	대학 재학 이상	89.4	8.3	1.6	0.5	0.2
배우자유무	있음	90.6	6.9	1.8	0.3	0.3
	없음	94.0	3.8	1.4	0.7	0.1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0.5	7.0	1.9	0.5	0.2
	비취업자	92.5	5.3	1.6	0.3	0.4
거주지역	서울	88.2	7.0	2.8	1.2	0.8
	광역시	88.7	9.2	1.8	0.3	0.0
	도	93.8	4.5	1.3	0.2	0.2
가구구성	노인단독	100.0	-	-	-	0.0
	노인부부	99.9	-	0.1	-	0.0
	그 외	82.4	12.7	3.5	0.8	0.6
가구소득분위	1분위	97.4	1.6	0.3	0.3	0.3
	2분위	97.5	1.2	0.7	0.3	0.3
	3분위	92.4	5.1	2.1	0.3	0.1
	4분위	89.7	7.4	2.1	0.4	0.4
	5분위	84.0	12.4	2.5	0.7	0.3
전 체		91.4	6.2	1.7	0.4	0.3

주: 가구구성이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는 지난 1년간은 배우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사망 또는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임.

〈부표 4-23〉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1.8	28.8	47.7	21.7	-
	여	4.1	25.9	48.2	19.1	2.7
연령대	50대	3.6	26.6	54.7	12.8	2.4
	60대	3.7	27.2	42.9	26.2	-
	70대	2.5	32.7	44.0	20.8	-
	80세 이상	-	19.8	28.9	35.6	15.7
학력	무학	-	23.7	48.9	25.0	2.4
	초졸	3.3	24.6	32.0	38.5	1.6
	중졸	4.3	38.1	52.2	5.3	-
	고졸	4.0	20.9	53.0	19.5	2.6
	대학 재학 이상	-	35.1	47.0	17.8	-
배우자유무	있음	1.6	27.8	51.4	17.8	1.4
	없음	7.0	25.2	38.8	26.8	2.1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6	23.7	47.2	23.8	1.7
	비취업자	2.4	32.0	49.0	15.2	1.4
거주지역	서울	2.0	33.7	51.2	10.4	2.7
	광역시	1.5	19.9	59.9	18.8	-
	도	5.7	26.2	33.9	32.5	1.7
가구구성	노인단독	-	-	-	-	-
	노인부부	-	77.0	23.0	-	-
	그 외	3.1	26.4	48.3	20.5	1.6
가구소득분위	1분위	6.0	11.4	30.8	45.5	6.3
	2분위	20.8	27.5	23.5	28.2	-
	3분위	-	31.5	44.3	24.3	-
	4분위	2.2	39.3	37.4	21.1	-
	5분위	1.6	23.5	61.0	11.7	2.2
전 체		3.1	27.1	48.0	20.2	1.6

주: 가구구성이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는 지난 1년간은 배우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사망 또는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임.

〈부표 4-24〉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	35.3	61.9	-	2.8
	여	5.2	29.6	36.2	27.5	1.6
연령대	50대	-	21.6	59.5	18.9	-
	60대	6.2	-	78.0	15.8	-
	70대	-	64.5	26.5	5.4	3.5
	80세 이상	10.7	17.3	34.4	31.3	6.3
학력	무학	10.5	35.7	25.7	22.0	6.2
	초졸	-	27.4	55.3	17.3	-
	중졸	18.2	49.8	-	14.5	17.5
	고졸	-	32.9	53.3	13.8	-
	대학 재학 이상	-	25.6	74.4	-	-
배우자유무	있음	1.7	35.2	51.7	9.6	1.7
	없음	6.4	21.8	34.9	33.0	3.8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	25.1	54.9	17.5	2.6
	비취업자	5.6	39.2	41.0	12.5	1.7
거주지역	서울	-	31.8	58.8	9.4	-
	광역시	13.5	22.5	40.1	23.8	-
	도	1.5	35.1	43.2	16.0	4.1
가구구성	노인단독	-	-	-	-	-
	노인부부	-	-	-	-	-
	그 외	2.8	32.1	47.9	15.0	2.2
가구소득분위	1분위	11.5	-	76.2	-	12.4
	2분위	-	54.8	22.5	22.8	-
	3분위	-	69.9		30.1	-
	4분위	6.5	23.4	56.4	9.5	4.2
	5분위	-	31.9	52.8	15.3	-
전 체		2.8	32.1	47.9	15.0	2.2

주: 가구구성이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는 지난 1년간은 배우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사망 또는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임.

〈부표 4-25〉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4.1	33.1	40.9	21.9	-
	여	6.2	22.6	41.0	25.1	5.0
연령대	50대	9.8	20.1	49.7	20.3	-
	60대	-	33.3	30.7	33.7	2.3
	70대	3.3	28.5	43.0	16.9	8.3
	80세 이상	3.6	35.9	27.9	24.6	8.0
학력	무학	3.3	36.9	34.8	18.1	6.9
	초졸	2.0	16.8	42.8	33.1	5.3
	중졸	-	22.4	51.2	26.5	-
	고졸	11.7	28.7	42.6	15.5	1.5
	대학 재학 이상	-	45.7	25.4	28.8	-
배우자유무	있음	6.2	29.5	40.5	22.4	1.5
	없음	2.5	20.3	42.5	27.9	6.9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4.7	26.0	41.4	25.0	2.9
	비취업자	5.9	28.5	40.5	22.2	2.7
거주지역	서울	-	32.8	39.0	24.5	3.8
	광역시	5.6	14.1	59.3	21.1	-
	도	8.2	28.0	36.6	24.1	3.1
가구구성	노인단독	-	-	-	-	-
	노인부부	-	-	100.0	-	-
	그 외	5.3	27.3	40.7	23.8	2.8
가구소득분위	1분위	2.4	13.9	34.0	37.1	12.6
	2분위	-	35.6	31.9	26.1	6.4
	3분위	11.4	21.7	33.7	31.6	1.6
	4분위	-	41.5	43.4	15.1	-
	5분위	4.6	26.2	59.4	9.8	-
전 체		5.3	27.2	41.0	23.7	2.8

주: 가구구성이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는 지난 1년간은 배우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사망 또는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임.

〈부표 4-26〉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4.1	27.9	33.0	35.0	-
	여	7.2	31.4	40.0	19.4	1.9
연령대	50대	5.3	22.3	47.7	24.7	-
	60대	2.8	24.0	30.6	42.6	-
	70대	4.4	40.8	37.4	14.1	3.3
	80세 이상	9.3	49.6	22.0	15.7	3.5
학력	무학	-	56.7	27.9	11.4	4.0
	초졸	1.5	29.8	36.1	29.6	3.0
	중졸	8.9	29.6	31.7	29.8	-
	고졸	13.3	28.4	47.0	11.3	-
	대학 재학 이상	-	16.6	33.9	49.5	-
배우자유무	있음	6.7	27.2	38.9	26.4	0.8
	없음	2.1	44.1	27.7	23.6	2.6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4.3	21.7	36.3	37.8	-
	비취업자	7.1	35.6	37.6	17.8	1.9
거주지역	서울	2.8	31.3	28.1	36.0	1.8
	광역시	7.0	21.8	46.5	24.7	-
	도	8.3	31.3	41.9	17.6	0.9
가구구성	노인단독	-	-	-	-	-
	노인부부	-	100.0	-	-	-
	그 외	6.0	28.8	37.7	26.4	1.1
가구소득분위	1분위	-	33.0	34.9	22.9	9.2
	2분위	10.2	32.9	13.1	43.7	-
	3분위	1.4	36.8	29.6	32.2	-
	4분위	6.1	28.1	48.1	17.8	-
	5분위	11.3	24.0	38.1	26.6	-
전 체		5.9	29.9	37.1	25.9	1.1

주: 가구구성이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는 지난 1년간은 배우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사망 또는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임.

〈부표 4-27〉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의 정도 응답분포

(단위: 점,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편	매우 심함
성별	남	6.9	37.6	50.0	5.5	-
	여	12.1	39.4	25.5	20.4	2.5
연령대	50대	16.3	19.2	42.1	22.4	-
	60대	6.4	39.2	49.2	5.3	-
	70대	-	60.7	-	39.3	-
	80세 이상	-	73.3	-	-	26.7
학력	무학	-	73.3	-	-	26.7
	초졸	-	17.4	59.7	22.9	-
	중졸	-	-	48.6	51.4	-
	고졸	30.7	54.6	-	14.7	-
	대학 재학 이상	-	40.7	59.3	-	-
배우자유무	있음	10.3	37.9	37.8	14.0	-
	없음	-	45.8	37.6	-	16.7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9.9	30.1	40.5	9.5	-
	비취업자	-	46.2	35.2	16.1	2.4
거주지역	서울	7.0	38.1	41.3	13.6	-
	광역시	37.0	63.0	-	-	-
	도	7.9	35.0	39.9	14.3	2.9
가구구성	노인단독	-	-	-	-	-
	노인부부	-	-	-	-	-
	그 외	9.5	38.5	37.7	13.0	1.3
가구소득분위	1분위	-	-	-	-	100.0
	2분위	-	-	-	100.0	-
	3분위	-	37.9	50.6	11.5	-
	4분위	-	41.8	54.1	4.1	-
	5분위	21.80	39.7	23.1	15.4	-
전 체		9.5	38.5	37.7	13.0	1.3

주: 가구구성이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는 지난 1년간은 배우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사망 또는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임.

〈부표 4-28〉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문제'의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편	매우 심함
성별	남	2.6	28.4	46.7	22.4	-
	여	4.9	24.9	42.9	23.9	3.4
연령대	50대	5.8	24.4	45.6	22.6	1.6
	60대	-	29.2	45.5	24.0	1.3
	70대	2.1	31.3	37.6	24.3	4.7
	80세 이상	-	24.1	26.0	45.1	4.8
학력	무학	-	16.3	55.0	22.8	5.9
	초졸	2.9	25.6	44.3	24.3	2.8
	중졸	1.5	34.6	38.9	21.9	3.2
	고졸	5.8	26.8	46.8	19.8	0.8
	대학 재학 이상	2.8	22.4	43.0	30.2	1.6
배우자유무	있음	4.0	26.8	44.5	22.9	1.7
	없음	2.6	24.4	45.4	25.1	2.5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2	28.3	46.7	20.5	1.3
	비취업자	4.8	23.5	41.3	27.6	2.7
거주지역	서울	4.5	32.8	40.5	18.9	3.3
	광역시	1.6	18.0	50.2	28.2	2.1
	도	5.7	30.9	41.8	21.1	0.5
가구구성	노인단독	-	-	-	-	-
	노인부부	-	-	-	-	-
	그 외	3.8	26.5	44.6	23.2	1.8
가구소득분위	1분위	-	12.7	52.7	22.6	12.0
	2분위	9.8	27.9	40.1	22.1	-
	3분위	2.8	29.2	42.0	25.4	0.6
	4분위	7.2	21.5	46.8	22.5	2.1
	5분위	2.3	28.8	44.4	22.8	1.7
전 체		3.8	26.5	44.6	23.2	1.8

주: 가구구성이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는 지난 1년간은 배우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사망 또는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임.

〈부표 4-29〉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의 종류 수

(단위: %)

구분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성별	남	93.7	4.4	1.2	0.5	0.2
	여	93.1	5.1	1.0	0.6	0.2
연령대	50대	96.0	3.2	0.5	0.2	0.0
	60대	92.5	5.8	0.8	0.5	0.3
	70대	90.9	5.8	2.0	0.9	0.4
	80세 이상	90.8	5.4	2.4	1.1	0.3
학력	무학	91.7	5.6	1.6	0.6	0.5
	초졸	91.6	5.6	1.8	0.6	0.3
	중졸	92.2	6.0	0.9	1.0	0.0
	고졸	94.4	4.2	0.9	0.4	0.0
	대학 재학 이상	96.2	2.9	0.2	0.3	0.5
배우자유무	있음	93.7	4.6	1.0	0.5	0.1
	없음	92.1	5.4	1.3	0.6	0.5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94.7	4.3	0.6	0.3	0.2
	비취업자	91.9	5.4	1.7	0.8	0.3
거주지역	서울	95.8	2.3	1.4	0.3	0.2
	광역시	91.3	7.0	0.9	0.7	0.1
	도	93.4	4.6	1.1	0.6	0.3
가구구성	노인단독	90.1	6.7	1.6	0.9	0.7
	노인부부	92.9	5.4	0.9	0.8	0.0
	그 외	94.6	3.7	1.1	0.3	0.2
가구소득 분위	1분위	90.8	6.3	1.6	0.8	0.6
	2분위	91.4	5.7	1.7	0.9	0.2
	3분위	93.1	5.1	1.1	0.6	0.2
	4분위	94.2	4.4	0.7	0.7	0.1
	5분위	95.9	3.2	0.8	0.1	0.1
전 체		93.3	4.8	1.1	0.6	0.2

〈부표 4-30〉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3.1	33.6	37.7	25.5	-
	여	7.4	21.3	45.1	21.7	4.5
연령대	50대	-	16.7	44.0	39.2	-
	60대	5.8	26.9	48.9	18.4	-
	70대	9.0	20.6	40.6	24.9	4.9
	80세 이상	3.3	37.1	32.7	22.6	4.2
학력	무학	2.0	20.5	46.3	29.1	2.2
	초졸	6.7	36.6	34.6	17.3	4.8
	중졸	7.8	21.3	46.0	25.0	-
	고졸	7.8	17.7	46.2	25.4	2.9
	대학 재학 이상	-	31.5	43.4	25.0	-
배우자유무	있음	0.6	26.2	45.2	26.8	1.3
	없음	11.4	26.5	38.6	19.3	4.1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9	20.1	43.6	30.1	3.2
	비취업자	6.7	28.6	41.5	20.7	2.4
거주지역	서울	10.4	22.9	35.0	28.1	3.5
	광역시	-	27.2	61.6	9.5	1.7
	도	8.9	27.2	26.0	34.7	3.2
가구구성	노인단독	9.2	23.9	43.9	19.1	3.8
	노인부부	1.1	36.4	33.2	29.2	-
	그 외	4.9	21.3	46.8	23.7	3.3
가구소득분위	1분위	8.5	18.9	47.8	19.6	5.1
	2분위	2.5	50.1	16.8	30.5	-
	3분위	4.6	27.3	41.6	23.5	3.0
	4분위	3.7	24.6	47.0	24.8	-
	5분위	-	-	78.7	21.3	-
전 체		5.6	26.3	42.1	23.3	2.6

〈부표 4-31〉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	39.8	38.1	22.1	-
	여	2.6	27.1	46.9	18.3	5.2
연령대	50대	-	24.7	25.6	49.7	-
	60대	-	36.3	52.9	10.9	-
	70대	1.9	44.3	29.3	21.6	2.8
	80세 이상	1.7	15.1	63.2	15.1	5.0
학력	무학	5.1	24.0	39.5	24.2	7.3
	초졸	1.2	34.6	47.8	15.0	1.4
	중졸	-	20.3	53.4	26.3	-
	고졸	-	47.9	21.1	27.2	3.8
	대학 재학 이상	-	34.0	66.0	-	-
배우자유무	있음	0.6	31.8	45.4	21.4	0.7
	없음	2.6	35.5	37.9	17.8	6.2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	35.4	39.4	25.2	-
	비취업자	2.0	32.1	44.2	17.8	3.9
거주지역	서울	2.9	22.7	36.1	34.9	3.4
	광역시	-	19.3	59.8	15.1	5.8
	도	1.7	42.9	35.3	19.3	0.9
가구구성	노인단독	1.9	41.8	34.7	14.7	6.8
	노인부부	0.9	33.4	48.4	17.3	-
	그 외	1.6	25.4	41.0	28.9	3.2
가구소득분위	1분위	2.7	42.2	39.1	9.6	6.4
	2분위	-	23.5	51.4	25.1	-
	3분위	2.5	35.7	42.9	15.8	3.0
	4분위	-	8.7	32.1	59.2	-
	5분위	-	61.1	38.9	-	-
전 체		1.3	33.2	42.7	20.1	2.7

〈부표 4-32〉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긴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8.0	29.3	35.5	18.9	8.3
	여	5.5	25.3	41.1	21.7	6.4
연령대	50대	2.4	46.0	39.1	12.5	-
	60대	9.1	24.3	38.5	18.3	9.9
	70대	4.6	17.1	45.8	22.7	9.9
	80세 이상	8.2	26.0	29.0	31.9	4.9
학력	무학	9.3	12.9	53.8	17.4	6.6
	초졸	7.3	28.5	32.7	28.5	2.8
	중졸	-	20.0	47.9	23.6	8.4
	고졸	6.7	22.4	45.3	9.5	16.0
	대학 재학 이상	9.0	59.9	9.9	21.1	-
배우자유무	있음	6.9	28.0	38.8	18.9	7.4
	없음	5.8	24.8	38.1	24.3	7.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0.8	40.1	31.6	15.2	2.3
	비취업자	4.1	19.2	42.8	23.7	10.3
거주지역	서울	1.6	15.3	49.8	20.2	13.2
	광역시	-	35.7	39.7	21.0	3.6
	도	9.7	26.2	36.3	20.4	7.5
가구구성	노인단독	6.0	23.4	36.3	26.5	7.8
	노인부부	10.7	31.9	33.1	22.0	2.3
	그 외	3.0	24.6	45.3	15.4	11.7
가구소득분위	1분위	1.3	22.3	42.8	23.9	9.7
	2분위	14.9	14.0	33.5	30.5	7.2
	3분위	3.6	14.5	52.3	19.1	10.6
	4분위	9.9	57.2	18.4	14.6	-
	5분위	3.7	47.6	35.7	7.6	5.4
전 체		6.6	27.1	38.6	20.5	7.3

〈부표 4-33〉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보조와 관련한 갈등'의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4.9	39.8	39.3	15.0	1.0
	여	4.1	33.0	40.9	20.7	1.3
연령대	50대	3.8	34.4	45.2	16.6	-
	60대	2.5	47.1	38.3	10.7	1.4
	70대	5.3	31.3	39.8	23.6	-
	80세 이상	7.1	29.2	40.2	18.9	4.5
학력	무학	7.6	34.8	39.0	17.2	1.4
	초졸	7.0	30.4	41.8	19.4	1.4
	중졸	1.4	36.5	39.7	22.4	-
	고졸	1.0	42.5	41.1	13.7	1.8
	대학 재학 이상	3.8	37.4	34.0	24.8	-
배우자유무	있음	3.4	42.0	39.2	14.8	0.6
	없음	6.9	21.9	42.5	26.1	2.5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4	33.9	37.0	21.3	1.4
	비취업자	3.5	36.9	41.7	16.7	1.1
거주지역	서울	1.2	31.6	36.1	31.1	-
	광역시	1.5	23.4	63.7	9.6	1.7
	도	6.9	43.6	29.7	18.5	1.3
가구구성	노인단독	5.6	20.2	48.2	23.7	2.3
	노인부부	1.1	43.9	42.4	11.6	1.0
	그 외	7.9	35.3	32.9	23.2	0.8
가구소득분위	1분위	4.7	26.5	51.9	14.4	2.5
	2분위	4.3	45.5	16.2	33.9	-
	3분위	6.3	29.4	45.6	18.8	-
	4분위	1.3	50.1	39.5	6.5	2.6
	5분위	-	46.3	33.3	20.5	-
전 체		4.4	36.0	40.2	18.2	1.2

주: 가구구성이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는 지난 1년간은 배우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사망 또는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임.

〈부표 4-34〉 비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의 갈등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	6.9	47.7	45.4	-
	여	30.2	8.9	29.4	24.9	6.6
연령대	50대	29.6	-	50.7	19.7	-
	60대	-	-	49.8	50.2	-
	70대	43.5	10.6	22.0	23.9	-
	80세 이상	-	-	-	-	100.0
학력	무학	11.7	-	48.2	28.9	11.2
	초졸	23.7	7.5	11.2	57.6	-
	중졸	19.2	-	54.0	26.7	-
	고졸	25.4	11.0	30.2	16.9	16.5
	대학 재학 이상	22.4	13.3	48.0	16.3	-
배우자유무	있음	12.1	7.0	46.0	34.9	-
	없음	35.4	10.2	18.0	24.8	11.5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2.4	-	46.6	31.0	-
	비취업자	20.5	17.3	21.9	30.6	9.7
거주지역	서울	26.2	8.9	44.3	20.7	-
	광역시	10.6	12.8	32.7	26.1	17.8
	도	22.7	6.9	31.7	35.9	2.8
가구구성	노인단독	27.3	15.6	27.5	18.4	11.2
	노인부부	12.9	-	26.9	60.2	-
	그 외	21.9	7.8	41.3	25.8	3.2
가구소득분위	1분위	22.1	6.5	22.3	34.9	14.2
	2분위	8.1	12.3	27.6	52.0	-
	3분위	11.2	-	44.6	44.2	-
	4분위	34.3	-	50.8	14.8	-
	5분위	24.2	22.1	38.8	14.9	-
전 체		21.5	8.3	34.7	30.8	4.7

〈부표 4-35〉 비동거자녀와 겪은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문제'의 갈등 정도 응답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약함	약한 편	보통	심한 편	매우 심함
성별	남	2.6	31.8	51.6	11.4	2.6
	여	4.8	22.7	50.1	16.2	6.2
연령대	50대	2.0	40.2	45.0	7.2	5.5
	60대	5.0	19.6	51.0	19.8	4.5
	70대	6.5	12.2	62.7	16.1	2.5
	80세 이상	-	8.1	62.1	19.4	10.5
학력	무학	4.5	3.3	66.8	21.2	4.3
	초졸	12.8	8.6	56.8	16.3	5.5
	중졸	-	41.3	40.9	13.0	4.8
	고졸	3.4	26.7	53.8	11.1	5.0
	대학 재학 이상	-	29.4	52.1	18.6	-
배우자유무	있음	3.6	29.4	52.4	11.2	3.3
	없음	5.0	8.7	39.6	33.6	13.1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4	32.5	47.4	12.5	6.2
	비취업자	7.3	18.5	55.9	16.3	2.0
거주지역	서울	7.1	13.8	44.0	17.7	17.4
	광역시	4.1	24.5	61.4	9.0	0.9
	도	3.0	30.3	44.6	16.9	5.2
가구구성	노인단독	7.3	5.1	47.1	24.7	15.8
	노인부부	2.9	28.2	51.7	12.0	5.2
	그 외	3.8	29.3	50.8	13.7	2.3
가구소득분위	1분위	4.9	3.6	39.9	46.8	4.7
	2분위	6.4	2.1	72.3	9.9	9.4
	3분위	0.7	25.7	46.3	22.1	5.1
	4분위	-	40.7	48.5	9.4	1.5
	5분위	8.7	30.7	51.8	4.3	4.5
전 체		3.8	26.9	50.8	14.0	4.5

〈부표 4-36〉 사회적지지 영역별 합산 점수

(단위: 점)

구분		사회적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65.02	10.13	29.87	4.68	10.77	2.01	13.54	2.87	10.85	1.90
	여	64.64	10.39	29.77	4.73	10.78	2.02	13.29	3.06	10.80	1.95
연령대	50대	66.10	9.51	30.51	4.37	11.02	1.93	13.58	2.88	10.99	1.83
	60대	65.06	9.88	29.91	4.51	10.81	1.97	13.48	2.89	10.86	1.87
	70대	63.29	11.02	29.07	4.98	10.48	2.11	13.11	3.17	10.62	2.01
	80세 이상	62.11	11.77	28.32	5.45	10.33	2.20	13.06	3.15	10.39	2.16
학력	무학	61.23	11.69	28.00	5.22	10.19	2.23	12.76	3.34	10.29	2.16
	초졸	63.43	10.69	29.18	4.92	10.52	2.01	13.15	3.04	10.58	1.97
	중졸	64.29	10.08	29.48	4.66	10.70	2.03	13.31	2.94	10.80	1.88
	고졸	65.87	9.52	30.39	4.36	10.94	1.95	13.58	2.83	10.96	1.84
	대학재학이상	67.79	9.15	31.22	4.13	11.33	1.82	13.96	2.85	11.28	1.75
배우자 유무	있음	66.03	9.38	30.37	4.31	10.96	1.92	13.69	2.78	11.02	1.80
	없음	60.74	11.94	27.97	5.45	10.15	2.22	12.46	3.40	10.16	2.16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66.03	9.60	30.41	4.38	10.97	1.94	13.66	2.91	10.99	1.83
	비취업자	63.46	10.82	29.16	4.97	10.56	2.08	13.11	3.03	10.63	2.01
거주 지역	서울	63.95	10.07	29.99	4.72	10.63	1.96	12.60	2.95	10.73	1.84
	광역시	66.00	8.90	30.03	4.06	10.93	1.90	14.07	2.56	10.97	1.77
	도	64.57	10.86	29.66	4.96	10.76	2.09	13.37	3.09	10.78	2.02
가구 구성	노인단독	59.76	12.46	27.51	5.69	9.99	2.27	12.24	3.49	10.02	2.30
	노인부부	66.03	9.65	30.31	4.42	10.95	1.96	13.74	2.83	11.03	1.83
	그 외	65.33	9.60	30.10	4.41	10.87	1.93	13.47	2.85	10.89	1.82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60.06	12.15	27.72	5.65	10.00	2.23	12.28	3.33	10.06	2.20
	2분위	63.86	10.40	29.34	4.80	10.60	2.05	13.19	3.06	10.72	1.91
	3분위	64.90	9.79	29.73	4.42	10.78	2.00	13.53	2.97	10.86	1.85
	4분위	66.10	9.21	30.40	4.17	10.98	1.89	13.74	2.77	10.98	1.75
	5분위	67.61	8.70	31.19	4.00	11.25	1.79	13.91	2.60	11.25	1.77
전 체		64.81	10.27	29.82	4.71	10.78	2.02	13.40	2.98	10.82	1.93

〈부표 4-37〉 단체참여활동 (친목 및 사교단체)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성별	남	95.2	4.8	1.6	1.2	1.7	7.4	18.8	65.7	3.6
	여	93.6	6.4	2.7	1.7	1.5	5.8	16.6	68.9	3.0
연령대	50대	95.2	4.8	0.2	0.6	1.4	7.3	19.6	67.6	3.2
	60대	94.8	5.2	2.4	1.3	1.0	5.9	17.5	68.6	3.3
	70대	93.6	6.4	4.6	2.6	2.2	6.7	13.4	66.8	3.6
	80세 이상	87.2	12.8	9.3	4.8	5.5	3.9	11.2	61.5	3.8
학력	무학	91.4	8.6	9.5	4.4	3.9	3.3	12.7	62.6	3.5
	초졸	93.4	6.6	4.9	2.5	1.7	5.0	12.6	70.9	2.4
	중졸	94.1	5.9	2.0	1.3	1.0	6.6	16.4	69.0	3.7
	고졸	95.7	4.3	0.4	0.6	1.1	6.9	19.9	68.1	3.0
	대학 재학 이상	94.1	5.9	0.2	0.9	2.1	9.1	21.2	62.1	4.4
배우자 유무	있음	95.3	4.7	1.6	1.2	1.2	7.1	18.5	67.3	3.0
	없음	89.9	10.1	4.8	2.5	3.3	3.9	13.0	67.7	4.8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95.3	4.7	1.9	1.1	1.6	7.3	18.5	66.3	3.4
	비취업자	93.0	7.0	2.5	1.9	1.6	5.6	16.4	68.9	3.2
거주 지역	서울	94.7	5.3	0.2	0.9	1.3	8.4	16.6	66.3	6.3
	광역시	97.0	3.0	1.4	0.5	1.0	9.7	19.6	66.5	1.4
	도	93.0	7.0	3.2	2.0	1.9	4.4	17.0	68.2	3.2
가구 구성	노인단독	89.4	10.6	6.2	2.9	2.9	4.1	12.0	68.3	3.6
	노인부부	94.4	5.6	2.6	1.8	1.3	7.3	17.1	67.2	2.7
	그 외	95.5	4.5	1.0	0.8	1.5	6.5	19.1	67.3	3.7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89.3	10.7	8.0	4.3	3.0	4.8	12.0	62.4	5.5
	2분위	92.9	7.1	4.5	2.4	2.8	5.3	12.9	68.9	3.2
	3분위	94.9	5.1	1.3	0.7	0.8	5.3	17.1	72.5	2.3
	4분위	95.3	4.7	0.7	0.6	1.4	6.9	17.6	69.0	3.8
	5분위	96.1	3.9	0.6	1.0	1.4	8.8	22.5	62.7	2.9
전 체		94.4	5.6	2.1	1.4	1.6	6.6	17.6	67.4	3.3

〈부표 4-38〉 단체참여활동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성별	남	14.8	85.2	1.0	2.7	7.2	13.6	15.6	58.3	1.7
	여	8.9	91.1	2.1	3.0	6.2	17.1	11.2	59.0	1.3
연령대	50대	15.0	85.0	0.9	2.5	6.2	17.1	17.7	54.3	1.3
	60대	10.1	89.9	0.9	1.9	4.9	10.8	11.5	68.0	1.9
	70대	8.9	91.1	5.6	7.4	9.7	13.6	6.0	56.8	0.8
	80세 이상	4.7	95.3	0.0	0.0	14.4	19.0	5.2	61.4	0.0
학력	무학	4.6	95.4	3.9	12.2	8.5	8.8	6.9	59.7	0.0
	초졸	6.8	93.2	4.5	2.9	10.0	13.7	6.1	60.6	2.3
	중졸	9.6	90.4	1.7	0.9	11.3	14.2	6.4	65.5	0.0
	고졸	13.7	86.3	0.6	2.1	4.5	16.3	14.8	60.9	0.9
	대학 재학 이상	18.1	81.9	1.2	4.1	6.8	14.3	20.3	50.0	3.2
배우자 유무	있음	12.6	87.4	1.4	2.0	6.4	14.2	15.1	59.3	1.6
	없음	7.7	92.3	2.3	9.2	9.9	21.0	4.1	52.5	1.0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3.1	86.9	0.8	2.0	6.6	14.3	14.1	60.3	2.0
	비취업자	9.8	90.2	2.8	4.5	7.2	16.2	13.5	55.2	0.6
거주지역	서울	12.1	87.9	1.9	5.6	10.1	14.6	15.3	48.4	4.1
	광역시	12.5	87.5	0.5	0.9	2.5	11.5	13.9	69.9	0.8
	도	11.2	88.8	1.8	2.8	7.9	17.0	13.3	56.1	1.0
가구구성	노인단독	6.6	93.4	1.8	8.8	10.4	27.5	3.5	47.9	0.0
	노인부부	10.0	90.0	2.6	2.6	5.9	14.3	10.2	63.5	0.9
	그 외	14.2	85.8	0.8	2.4	6.9	14.1	16.9	56.9	2.0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7.5	92.5	4.7	4.5	11.9	23.2	3.7	52.0	0.0
	2분위	7.5	92.5	1.4	5.6	9.2	14.1	12.3	55.8	1.7
	3분위	9.7	90.3	2.4	2.0	3.1	16.9	7.8	65.7	2.0
	4분위	13.8	86.2	0.6	2.6	8.8	9.1	10.6	67.8	0.6
	5분위	15.9	84.1	0.9	2.5	6.0	16.3	22.1	50.0	2.2
전 체		11.7	88.3	1.5	2.8	6.8	15.0	13.9	58.5	1.5

〈부표 4-39〉 단체참여활동 (지역사회모임)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 일에 1회	월 1회	기타
성별	남	7.1	92.9	0.0	2.0	0.8	1.4	9.1	81.1	5.6
	여	7.1	92.9	0.2	1.4	1.5	3.2	6.5	80.7	6.5
연령대	50대	5.6	94.4	0.0	1.0	1.3	4.5	10.4	78.8	4.0
	60대	8.0	92.0	0.2	1.2	1.7	1.2	6.8	80.6	8.3
	70대	7.7	92.3	0.0	5.0	0.8	0.0	7.2	80.1	6.9
	80세 이상	8.2	91.8	0.0	0.0	0.0	0.0	0.0	98.3	1.7
학력	무학	7.1	92.9	1.2	0.0	2.2	0.0	5.0	79.7	11.9
	초졸	9.2	90.8	0.0	1.5	0.0	1.8	5.3	82.5	8.8
	중졸	9.1	90.9	0.0	1.4	1.9	2.6	8.1	82.7	3.3
	고졸	6.3	93.7	0.0	0.6	1.8	3.1	10.3	79.8	4.4
	대학 재학 이상	4.7	95.3	0.0	6.8	0.0	2.0	6.7	78.0	6.5
배우자 유무	있음	7.3	92.7	0.0	1.5	1.2	2.8	7.6	80.6	6.3
	없음	6.5	93.5	0.5	2.4	1.0	0.0	8.4	82.6	5.0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7.2	92.8	0.1	1.2	0.6	2.1	8.3	80.6	7.0
	비취업자	7.0	93.0	0.0	2.5	2.0	2.6	7.0	81.3	4.6
거주지역	서울	2.3	97.7	0.0	3.7	0.0	0.0	10.4	61.3	24.6
	광역시	7.0	93.0	0.0	0.7	4.0	3.1	4.1	88.2	0.0
	도	8.9	91.1	0.1	1.9	0.2	2.2	8.9	79.8	6.7
가구구성	노인단독	6.9	93.1	0.0	1.8	1.5	0.0	8.9	82.0	5.8
	노인부부	8.8	91.2	0.0	2.7	1.3	1.3	7.4	80.0	7.2
	그 외	5.9	94.1	0.2	0.5	0.9	4.1	7.9	81.6	4.8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7.6	92.4	0.0	0.0	1.3	0.0	7.6	75.5	15.6
	2분위	9.6	90.4	0.0	1.3	0.0	1.1	7.6	84.4	5.6
	3분위	6.9	93.1	0.0	0.7	1.7	0.0	10.4	82.1	5.1
	4분위	8.8	91.2	0.3	0.8	2.3	4.3	5.9	86.5	0.0
	5분위	4.8	95.2	0.0	5.8	0.0	5.3	7.2	71.7	9.9
전 체		7.1	92.9	0.1	1.7	1.2	2.3	7.8	80.9	6.1

〈부표 4-40〉 단체참여활동 (시민단체모임)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 일에 1회	월 1회	기타
성별	남	2.1	97.9	-	1.6	15.9	14.2	9.1	55.2	4.0
	여	1.7	98.3	-	7.6	5.8	16.9	18.4	46.3	5.0
연령대	50대	2.1	97.9	-	8.8	4.7	7.9	10.3	64.7	3.6
	60대	2.1	97.9	-	0.0	12.2	20.9	16.6	43.7	6.7
	70대	1.5	98.5	-	3.5	23.2	20.9	8.3	40.4	3.6
	80세 이상	0.7	99.3	-	0.0	77.0	0.0	23.0	0.0	0.0
학력	무학	0.3	99.7	-	0.0	0.0	0.0	71.3	28.7	0.0
	초졸	1.3	98.7	-	6.3	24.1	17.7	6.9	38.5	6.5
	중졸	2.0	98.0	-	17.1	5.0	36.2	9.7	20.9	11.1
	고졸	2.0	98.0	-	1.3	15.9	10.6	14.2	58.0	0.0
	대학 재학 이상	3.1	96.9	-	0.0	2.4	8.6	16.0	67.2	5.8
배우자 유무	있음	2.0	98.0	-	4.6	5.5	16.5	14.9	53.1	5.3
	없음	1.7	98.3	-	3.2	41.6	9.9	5.8	39.5	0.0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7	98.3	-	0.9	1.8	17.0	12.3	63.9	4.0
	비취업자	2.2	97.8	-	8.4	21.9	13.7	14.9	36.1	5.1
거주지역	서울	2.7	97.3	-	0.0	10.7	9.9	8.8	55.5	15.1
	광역시	1.6	98.4	-	2.3	28.5	19.5	20.5	29.2	0.0
	도	1.8	98.2	-	7.6	4.0	16.6	12.9	57.9	1.0
가구구성	노인단독	2.1	97.9	-	4.1	45.9	9.2	7.5	33.3	0.0
	노인부부	1.9	98.1	-	9.8	6.4	21.7	11.4	43.5	7.2
	그 외	1.8	98.2	-	0.0	6.4	11.9	16.8	61.6	3.3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1.3	98.7	-	6.0	66.6	15.2	0.0	12.2	0.0
	2분위	1.4	98.6	-	17.7	0.0	24.7	8.3	40.1	9.2
	3분위	2.0	98.0	-	0.0	3.2	32.2	20.7	38.5	5.4
	4분위	2.0	98.0	-	9.6	11.0	9.1	14.8	53.2	2.2
	5분위	2.2	97.8	-	0.0	6.9	2.8	11.5	73.7	5.1
전 체		1.9	98.1	-	4.4	11.1	15.5	13.5	51.0	4.5

〈부표 4-41〉 단체참여활동 (그 외 단체)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 일에 1회	월 1회	기타
성별	남	6.6	93.4	1.6	0.0	6.2	57.5	13.1	19.1	2.6
	여	12.1	87.9	1.3	0.9	7.0	58.3	10.6	17.9	4.0
연령대	50대	8.2	91.8	1.7	0.0	9.3	58.1	12.7	16.8	1.5
	60대	9.1	90.9	1.5	0.5	3.9	55.2	12.0	22.1	4.7
	70대	11.5	88.5	0.8	0.7	5.9	57.9	11.4	18.7	4.6
	80세 이상	14.5	85.5	2.1	3.7	7.8	65.2	6.9	10.7	3.6
학력	무학	11.9	88.1	0.0	0.8	11.9	61.4	5.2	12.6	8.0
	초졸	8.9	91.1	2.8	2.2	3.2	54.1	14.6	16.8	6.4
	중졸	9.5	90.5	0.0	0.0	8.3	54.4	11.5	22.4	3.3
	고졸	7.9	92.1	2.7	0.5	3.9	63.4	11.6	15.9	2.0
	대학 재학 이상	12.5	87.5	0.0	0.0	10.3	54.9	11.0	22.1	1.6
배우자 유무	있음	8.7	91.3	1.7	0.0	6.0	58.4	12.5	18.3	3.2
	없음	13.4	86.6	0.6	2.5	9.0	56.9	8.1	18.4	4.5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7.3	92.7	1.0	0.0	2.9	59.3	12.6	20.6	3.5
	비취업자	12.6	87.4	1.7	1.1	9.8	57.0	10.5	16.4	3.5
거주지역	서울	9.7	90.3	2.7	0.0	6.4	52.0	8.8	21.8	8.2
	광역시	6.4	93.6	0.0	0.0	2.0	67.6	12.7	17.7	0.0
	도	10.9	89.1	1.4	1.0	8.1	57.1	11.8	17.4	3.1
가구구성	노인단독	14.3	85.7	0.8	2.9	11.2	53.2	9.8	16.9	5.3
	노인부부	9.3	90.7	1.8	0.0	2.9	60.3	14.3	16.9	3.7
	그 외	8.6	91.4	1.2	0.3	8.3	57.8	9.6	20.0	2.6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13.1	86.9	1.9	2.8	9.7	55.3	7.2	16.1	7.1
	2분위	11.1	88.9	0.0	1.0	2.1	64.7	12.9	15.8	3.5
	3분위	8.2	91.8	2.5	0.0	4.9	61.5	12.4	16.5	2.2
	4분위	8.4	91.6	2.0	0.0	5.2	63.0	14.4	13.0	2.4
	5분위	9.2	90.8	0.5	0.0	10.1	49.5	10.3	26.5	3.1
전 체		9.5	90.5	1.4	0.6	6.7	58.0	11.4	18.3	3.5

〈부표 4-42〉 단체활동에 변화를 주고싶은 항목

(단위: %)

구분		단제활동 종류			단체참여 횟수			단체활동 시간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성별	남	87.8	7.0	5.2	84.0	7.6	8.4	79.4	7.0	13.5
	여	81.7	5.9	12.5	80.5	6.8	12.8	75.5	6.8	17.7
연령대	50대	84.2	5.9	9.9	86.4	7.2	6.4	82.0	6.7	11.3
	60대	85.4	9.8	4.8	79.4	9.8	10.7	70.0	9.8	20.2
	70대	92.7	1.8	5.4	78.8	1.8	19.4	76.2	1.8	22.0
	80세 이상	80.3	0.0	19.7	56.7	0.0	43.3	87.0	0.0	13.0
학력	무학	74.0	12.6	13.4	73.4	12.6	14.0	47.5	12.6	39.8
	초졸	92.8	0.0	7.2	86.8	0.0	13.2	83.7	0.0	16.3
	중졸	93.7	1.3	5.0	92.6	3.2	4.2	90.7	1.3	8.0
	고졸	84.7	7.8	7.5	80.2	8.7	11.1	75.9	8.7	15.4
	대학 재학 이상	76.1	9.3	14.6	78.8	9.3	11.8	74.9	9.3	15.8
배우자 유무	있음	88.0	3.6	8.4	85.5	4.5	10.1	80.3	4.1	15.6
	없음	64.3	24.4	11.3	62.1	24.4	13.5	60.3	24.4	15.4

구분		단제활동 종류			단체참여 횟수			단체활동 시간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87.8	4.6	7.6	85.0	5.7	9.3	79.9	5.3	14.8
	비취업자	78.1	10.5	11.4	76.2	10.5	13.3	72.3	10.5	17.2
거주지역	서울	85.2	5.7	9.1	84.3	5.7	10.0	85.0	5.7	9.4
	광역시	87.9	0.0	12.1	79.7	3.1	17.2	63.0	1.9	35.1
	도	83.3	9.3	7.3	82.7	9.3	8.0	81.3	9.3	9.3
가구구성	노인단독	56.2	28.1	15.7	52.9	33.2	13.8	52.2	33.2	14.6
	노인부부	89.1	4.0	6.9	84.0	4.0	12.0	82.7	4.0	13.3
	그 외	86.7	4.5	8.8	85.7	5.0	9.3	78.5	4.5	17.0
가구소득 분위	1분위	92.0	0.0	8.0	69.7	0.0	30.3	67.7	0.0	32.3
	2분위	77.9	18.0	4.1	74.3	18.0	7.6	74.5	18.0	7.5
	3분위	92.0	1.8	6.2	85.7	3.6	10.7	85.5	3.6	11.0
	4분위	80.4	8.1	11.5	78.9	9.3	11.8	70.6	8.1	21.3
	5분위	82.3	7.6	10.1	86.5	7.6	5.9	79.1	7.6	13.3
전 체		84.8	6.5	8.8	82.2	7.2	10.6	77.5	6.9	15.6

〈부표 4-43〉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 관련 봉사활동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성별	남	45.5	54.5	1.2	1.7	9.9	9.5	12.2	60.8	4.7	129.0	10.4	89.6
	여	36.0	64.0	1.6	2.7	2.3	9.4	9.6	69.7	4.7	132.6	5.0	95.0
연령대	50대	39.4	60.6	0.6	1.9	4.3	8.1	13.5	68.2	3.4	131.2	7.4	92.6
	60대	34.8	65.2	1.8	1.9	11.8	9.7	8.1	60.5	6.3	130.0	11.3	88.7
	70대	44.1	55.9	4.5	5.7	4.6	10.9	6.9	61.5	5.9	123.5	4.2	95.8
	80세 이상	57.2	42.8	0.0	0.0	6.6	0.0	14.7	78.7	0.0	167.1	0.0	100.0
학력	무학	69.3	30.7	6.8	0.0	0.0	0.0	10.5	82.7	0.0	128.1	0.0	100.0
	초졸	49.4	50.6	2.0	5.6	4.4	4.1	15.0	64.0	4.9	149.9	7.4	92.6
	중졸	49.9	50.1	1.6	2.4	11.0	16.2	12.5	51.3	5.0	121.1	9.0	91.0
	고졸	36.2	63.8	0.7	1.8	5.8	11.6	5.0	69.1	5.9	118.4	6.7	93.3
	대학 재학 이상	29.7	70.3	0.0	0.0	5.3	6.0	19.3	66.7	2.8	153.3	11.8	88.2
배우자 유무	있음	39.6	60.4	1.2	2.6	4.4	9.7	9.8	67.4	4.9	130.2	8.0	92.0
	없음	43.0	57.0	2.4	0.0	15.4	7.9	17.1	53.7	3.4	134.2	5.4	94.6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44.6	55.4	1.6	2.3	4.4	9.3	10.5	67.0	4.8	124.6	10.0	90.0
	비취업자	33.6	66.4	1.1	2.1	9.1	9.6	11.5	62.1	4.4	142.6	3.0	97.0
거주지역	서울	15.8	84.2	0.0	0.0	2.7	14.2	3.3	33.2	46.6	109.1	37.3	62.7
	광역시	36.1	63.9	0.0	0.0	12.9	11.7	8.3	67.2	0.0	129.8	5.0	95.0
	도	48.1	51.9	1.9	3.0	4.4	8.4	12.3	67.7	2.2	133.0	5.7	94.3
가구구성	노인단독	44.2	55.8	0.0	0.0	13.3	12.0	14.6	60.1	0.0	125.9	4.0	96.0
	노인부부	40.5	59.5	1.9	4.6	6.4	10.5	7.7	62.5	6.4	128.6	8.9	91.1
	그 외	39.0	61.0	1.3	0.9	4.3	8.1	12.5	68.5	4.3	133.4	7.3	92.7
가구소득분위	1분위	35.8	64.2	0.0	0.0	24.6	2.0	5.5	68.0	0.0	144.8	2.4	97.6
	2분위	48.9	51.1	0.0	3.5	7.7	14.4	21.2	49.0	4.2	107.4	4.6	95.4
	3분위	35.6	64.4	6.0	1.6	5.7	11.4	10.3	49.5	15.5	136.4	10.5	89.5
	4분위	49.3	50.7	0.0	4.9	6.8	7.2	2.8	74.2	4.1	132.7	11.5	88.5
	5분위	34.4	65.6	1.0	0.0	0.0	9.6	14.7	74.6	0.0	134.3	5.1	94.9
전 체		40.1	59.9	1.4	2.2	6.0	9.4	10.9	65.4	4.7	130.8	7.6	92.4

〈부표 4-4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 봉사활동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성별	남	23.8	76.2	3.9	8.5	3.0	12.5	13.1	55.2	3.8	172.76	37.7	62.3
	여	44.3	55.7	2.6	2.3	1.8	32.0	16.0	37.7	7.6	162.57	18.9	81.1
연령대	50대	37.5	62.5	1.3	5.2	3.3	20.0	13.7	52.6	3.9	168.70	23.2	76.8
	60대	40.4	59.6	1.9	2.0	1.3	35.0	14.2	36.7	8.9	163.17	28.8	71.2
	70대	23.3	76.7	8.3	8.0	0.0	35.6	17.6	27.5	3.0	173.01	21.5	78.5
	80세 이상	21.6	78.4	46.6	0.0	0.0	16.3	25.6	11.5	0.0	90.69	13.7	86.3
학력	무학	16.2	83.8	0.0	0.0	0.0	28.3	24.0	47.7	0.0	91.39	20.5	79.5
	초졸	25.5	74.5	11.0	6.2	4.8	10.9	22.0	45.1	0.0	153.76	5.8	94.2
	중졸	30.6	69.4	0.0	0.0	6.3	34.0	9.4	48.2	2.1	159.65	19.2	80.8
	고졸	41.3	58.7	3.4	3.8	1.6	27.8	14.5	40.9	8.0	170.44	23.0	77.0
	대학 재학 이상	36.9	63.1	0.0	6.5	0.0	25.6	16.1	42.5	9.2	168.76	39.5	60.5
배우자 유무	있음	36.9	63.1	3.3	3.2	2.0	26.5	15.5	43.8	5.8	166.55	25.2	74.8
	없음	27.0	73.0	0.0	11.5	3.5	25.2	12.8	34.3	12.7	156.82	16.8	83.2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8.7	71.3	1.4	5.2	0.0	17.4	14.7	51.7	9.6	175.65	25.7	74.3
	비취업자	45.1	54.9	4.4	3.1	4.1	34.4	15.6	34.6	3.7	156.29	23.1	76.9
거주지역	서울	61.7	38.3	0.0	4.3	0.0	30.4	6.8	43.7	14.8	155.01	23.9	76.1
	광역시	41.7	58.3	4.2	5.5	1.4	32.4	23.0	32.3	1.3	149.65	26.0	74.0
	도	26.1	73.9	4.2	3.1	4.0	20.2	16.0	48.3	4.2	181.60	23.6	76.4
가구구성	노인단독	22.5	77.5	0.0	3.7	6.4	26.9	14.5	42.5	5.8	138.01	22.2	77.8
	노인부부	36.7	63.3	5.8	5.3	4.5	28.0	17.4	38.2	0.7	180.27	20.2	79.8
	그 외	36.8	63.2	1.2	3.2	0.0	25.1	13.7	46.1	10.8	157.73	27.6	72.4
가구소득분위	1분위	27.2	72.8	8.4	18.9	5.7	40.7	17.6	3.5	5.2	134.54	11.2	88.8
	2분위	32.5	67.5	10.3	9.4	3.8	32.9	8.0	32.4	3.1	133.95	32.6	67.4
	3분위	39.7	60.3	3.6	2.2	1.8	28.8	18.1	38.5	7.0	180.89	21.4	78.6
	4분위	28.4	71.6	2.0	0.0	5.1	26.0	14.6	50.9	1.5	183.78	26.8	73.2
	5분위	40.7	59.3	0.0	3.1	0.0	20.8	15.5	50.9	9.7	162.44	24.6	75.4
전 체		35.5	64.5	3.0	4.1	2.2	26.3	15.2	42.8	6.5	165.52	24.3	75.7

〈부표 4-45〉 (손)자녀교육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성별	남	8.0	92.0	-	-	42.0	36.1	4.5	17.3	-	58.28	0.0	100.0
	여	1.3	98.7	-	-	0.0	11.3	0.0	88.7	-	47.73	42.7	57.3
연령대	50대	3.0	97.0	-	-	38.3	39.1	0.0	22.6	-	72.98	-	100.0
	60대	3.2	96.8	-	-	41.6	58.4	0.0	0.0	-	47.52	-	100.0
	70대	7.1	92.9	-	-	35.1	21.8	16.1	27.0	-	48.07	-	100.0
	80세 이상	4.7	95.3	-	-	100.0	0.0	0.0	0.0	-	30.00	-	100.0
학력	무학	0.0	100.0	-	-	-	-	-	-	-	-	-	-
	초졸	5.4	94.6	-	-	40.6	40.0	19.4	0.0	-	41.98	0.0	100.0
	중졸	5.4	94.6	-	-	40.2	59.8	0.0	0.0	-	43.21	0.0	100.0
	고졸	4.2	95.8	-	-	41.7	27.4	0.0	30.9	-	69.44	0.0	100.0
	대학 재학 이상	3.1	96.9	-	-	0.0	0.0	0.0	100.0	-	52.89	47.4	52.6
배우자 유무	있음	4.3	95.7	-	-	34.6	33.9	4.3	27.2	-	56.63	8.7	91.3
	없음	3.7	96.3	-	-	33.4	16.1	0.0	50.5	-	54.79	0.0	100.0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4.7	95.3	-	-	40.7	40.5	0.0	18.8	-	62.08	0.0	100.0
	비취업자	3.5	96.5	-	-	22.5	14.9	10.9	51.7	-	45.44	22.3	77.7
거주지역	서울	1.5	98.5	-	-	0.0	100.0	0.0	0.0	-	120.00	0.0	100.0
	광역시	2.8	97.2	-	-	0.0	42.8	0.0	57.2	-	48.16	0.0	100.0
	도	5.4	94.6	-	-	43.6	24.4	4.7	27.3	-	53.05	9.6	90.4
가구구성	노인단독	4.8	95.2	-	-	39.8	0.0	0.0	60.2	-	48.05	0.0	100.0
	노인부부	3.5	96.5	-	-	36.3	41.3	11.8	10.6	-	47.15	0.0	100.0
	그 외	4.6	95.4	-	-	32.5	32.2	0.0	35.3	-	62.95	13.1	86.9
가구소득분위	1분위	9.2	90.8	-	-	63.5	16.4	20.1	0.0	-	36.02	0.0	100.0
	2분위	2.0	98.0	-	-	0.0	0.0	0.0	100.0	-	60.00	0.0	100.0
	3분위	7.6	92.4	-	-	34.6	33.8	0.0	31.6	-	57.92	20.0	80.0
	4분위	3.5	96.5	-	-	49.5	50.5	0.0	0.0	-	45.08	0.0	100.0
	5분위	2.1	97.9	-	-	0.0	34.0	0.0	66.0	-	85.29	0.0	100.0
전 체		4.2	95.8	-	-	34.5	31.7	3.7	30.1	-	56.40	7.6	92.4

〈부표 4-46〉 문화와 관련된 봉사활동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성별	남	4.7	95.3	-	10.1	-	6.7	26.6	56.6	-	272.29	55.7	44.3
	여	1.5	98.5	-	0.0	-	0.0	0.0	100.0	-	96.95	15.3	84.7
연령대	50대	2.6	97.4	-	15.9	-	0.0	0.0	84.1	-	241.50	33.2	66.8
	60대	2.8	97.2	-	0.0	-	16.8	0.0	83.2	-	180.00	18.6	81.4
	70대	5.8	94.2	-	0.0	-	0.0	69.0	31.0	-	227.16	86.9	13.1
	80세 이상	0.0	100.0	-	-	-	-	-	-	-	-	-	-
학력	무학	0.0	100.0	-	-	-	-	-	-	-	-	-	-
	초졸	0.0	100.0	-	-	-	-	-	-	-	-	-	-
	중졸	1.9	98.1	-	0.0	-	47.5	0.0	52.5	-	180.00	52.5	47.5
	고졸	1.2	98.8	-	0.0	-	0.0	0.0	100.0	-	180.00	0.0	100.0
	대학 재학 이상	9.7	90.3	-	9.9	-	0.0	26.0	64.1	-	236.10	53.5	46.5
배우자 유무	있음	3.2	96.8	-	7.4	-	4.9	19.4	68.3	-	226.32	45.3	54.7
	없음	0.7	99.3	-	0.0	-	0.0	0.0	100.0	-	60.00	0.0	100.0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8	97.2	-	12.3	-	8.1	0.0	79.6	-	164.06	9.0	91.0
	비취업자	2.9	97.1	-	0.0	-	0.0	44.5	55.5	-	297.99	91.5	8.5
거주지역	서울	5.3	94.7	-	0.0	-	0.0	0.0	100.0	-	328.78	50.2	49.8
	광역시	1.9	98.1	-	47.7	-	0.0	0.0	52.3	-	208.60	0.0	100.0
	도	2.6	97.4	-	0.0	-	8.6	34.2	57.1	-	163.41	52.1	47.9
가구구성	노인단독	1.1	98.9	-	0.0	-	0.0	0.0	100.0	-	60.00	0.0	100.0
	노인부부	3.5	96.5	-	0.0	-	0.0	40.0	60.0	-	216.45	61.5	38.5
	그 외	2.7	97.3	-	14.4	-	9.5	0.0	76.1	-	235.66	30.1	69.9
가구소득분위	1분위	5.2	94.8	-	0.0	-	0.0	0.0	100.0	-	151.76	0.0	100.0
	2분위	0.0	100.0	-	-	-	-	-	-	-	-	-	-
	3분위	2.0	98.0	-	0.0	-	0.0	0.0	100.0	-	180.00	0.0	100.0
	4분위	0.0	100.0	-	-	-	-	-	-	-	-	-	
	5분위	5.8	94.2	-	10.1	-	6.7	26.5	56.7	-	243.31	62.0	38.0
전 체		2.9	97.1	-	7.1	-	4.7	18.7	69.4	-	220.41	43.7	56.3

〈부표 4-47〉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성별	남	26.4	73.6	6.0	4.0	0.0	-	2.1	86.1	1.8	181.46	6.1	93.9
	여	16.1	83.9	4.9	8.4	3.5	-	5.1	77.3	0.9	183.49	7.5	92.5
연령대	50대	21.7	78.3	5.2	3.7	-	-	5.8	83.4	1.9	184.85	5.4	94.6
	60대	17.1	82.9	0.0	12.0	-	-	0.0	88.0	0.0	178.58	6.6	93.4
	70대	22.4	77.6	18.7	8.2	-	-	2.7	67.7	2.6	181.78	0.0	100.0
	80세 이상	28.2	71.8	0.0	0.0	-	-	0.0	100.0	0.0	175.83	0.0	100.0
학력	무학	32.6	67.4	7.2	14.5	0.0	-	6.7	71.7	0.0	170.53	0.0	100.0
	초졸	22.8	77.2	9.5	5.0	0.0	-	0.0	83.1	2.3	180.89	0.0	100.0
	중졸	17.5	82.5	14.8	4.6	0.0	-	0.0	72.6	8.0	195.11	12.3	87.7
	고졸	19.1	80.9	2.0	4.9	0.0	-	4.5	88.5	0.0	181.76	4.4	95.6
	대학 재학 이상	22.0	78.0	3.3	7.2	6.8		5.0	77.8	0.0	180.57	14.6	85.4
배우자 유무	있음	21.5	78.5	5.6	6.7	1.7	-	2.2	82.7	1.1	184.53	6.3	93.7
	없음	14.5	85.5	4.4	0.0	0.0	-	14.4	77.3	3.9	162.62	10.3	89.7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5.8	74.2	6.2	8.1	0.0	-	3.5	80.8	1.4	185.73	6.0	94.0
	비취업자	13.1	86.9	3.5	0.0	5.9	-	3.3	85.8	1.5	172.96	8.8	91.2
거주지역	서울	2.0	98.0	0.0	37.9	0.0	-	62.1	0.0	0.0	180.00	62.1	37.9
	광역시	21.5	78.5	0.0	0.0	0.0	-	8.6	91.4	0.0	169.41	3.3	96.7
	도	25.2	74.8	7.3	7.2	2.1	-	0.5	81.0	1.9	186.48	6.6	93.4
가구구성	노인단독	15.0	85.0	6.6	0.0	0.0	-	6.1	87.3	0.0	160.18	0.0	100.0
	노인부부	23.2	76.8	8.6	9.5	0.0	-	0.0	79.6	2.4	180.21	1.9	98.1
	그 외	19.6	80.4	2.7	3.8	3.1	-	6.0	83.7	0.8	187.11	11.8	88.2
가구소득분위	1분위	11.3	88.7	0.0	0.0	0.0	-	0.0	100.0	-	213.01	0.0	100.0
	2분위	17.4	82.6	8.6	0.0	0.0	-	3.7	87.7	-	141.39	0.0	100.0
	3분위	24.1	75.9	7.5	16.7	6.3	-	0.0	63.8	-	157.62	6.3	93.7
	4분위	23.7	76.3	7.1	7.3	0.0	-	7.6	78.0	-	223.70	9.8	90.2
	5분위	19.8	80.2	2.5	0.0	0.0	-	3.0	94.4	-	176.91	7.7	92.3
전 체		20.6	79.4	5.5	6.0	1.5	-	3.4	82.1	1.4	182.37	6.7	93.3

〈부표 4-48〉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성별	남	3.7	96.3	7.4	13.1	-	0.0	0.0	55.4	24.1	228.65	21.9	78.1
	여	2.1	97.9	0.0	0.0	-	13.6	10.8	41.9	33.7	253.62	12.5	87.5
연령대	50대	2.8	97.2	8.6	15.0	-	0.0	9.6	37.4	29.5	240.68	10.9	89.1
	60대	4.1	95.9	0.0	0.0	-	14.0	0.0	65.1	20.8	242.12	17.5	82.5
	70대	1.0	99.0	0.0	0.0	-	0.0	0.0	0.0	100.0	300.00	100.0	0.0
	80세 이상	3.1	96.9	0.0	0.0	-	0.0	0.0	100.0	0.0	90.00	0.0	100.0
학력	무학	0.0	100.0	-	-	-	-	-	-	-	-	-	-
	초졸	0.0	100.0	-	-	-	-	-	-	-	-	-	-
	중졸	2.7	97.3	0.0	0.0	-	41.5	0.0	58.5	0.0	304.36	0.0	100.0
	고졸	3.7	96.3	7.0	0.0	-	0.0	7.8	61.0	24.2	192.68	22.1	77.9
	대학 재학 이상	3.3	96.7	0.0	29.2	-	0.0	0.0	16.7	54.1	300.88	20.0	80.0
배우자 유무	있음	2.9	97.1	4.7	8.2	-	0.0	5.2	50.7	31.3	228.16	20.2	79.8
	없음	1.9	98.1	0.0	0.0	-	61.8	0.0	38.2	0.0	330.97	0.0	100.0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7	96.3	5.4	9.5	-	0.0	0.0	48.4	36.6	236.97	17.4	82.6
	비취업자	1.5	98.5	0.0	0.0	-	26.1	20.8	53.1	0.0	243.87	20.8	79.2
거주지역	서울	2.3	97.7	0.0	0.0	-	0.0	0.0	0.0	100.0	375.67	36.9	63.1
	광역시	1.4	98.6	0.0	66.8	-	0.0	0.0	33.2	0.0	230.31	0.0	100.0
	도	3.4	96.6	5.6	0.0	-	7.9	6.3	60.8	19.5	213.04	17.4	82.6
가구구성	노인단독	1.1	98.9	0.0	0.0	-	0.0	0.0	100.0	0.0	90.00	0.0	100.0
	노인부부	1.5	98.5	0.0	0.0	-	0.0	0.0	100.0	0.0	144.26	35.6	64.4
	그 외	4.0	96.0	5.6	9.8	-	7.8	6.2	33.2	37.4	274.43	14.0	86.0
가구소득분위	1분위	1.2	98.8	0.0	0.0	-	0.0	0.0	100.0	0.0	90.00	0.0	100.0
	2분위	0.9	99.1	0.0	0.0	-	0.0	0.0	100.0	0.0	60.00	0.0	100.0
	3분위	0.7	99.3	0.0	0.0	-	0.0	0.0	100.0	0.0	120.00	0.0	100.0
	4분위	5.3	94.7	0.0	0.0	-	13.7	0.0	74.7	11.6	211.18	28.6	71.4
	5분위	3.5	96.5	9.6	16.8	-	0.0	10.7	9.8	53.0	319.54	12.4	87.6
전 체		2.8	97.2	4.2	7.4	-	5.9	4.7	49.5	28.3	238.63	18.2	81.8

〈부표 4-49〉 일반인을 위한 봉사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

(단위: %)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성별	남	5.4	94.6	7.2	-	0.0	15.3	8.0	69.6	0.0	113.96	39.3	60.7
	여	6.6	93.4	6.8	-	3.4	25.7	16.2	42.2	5.8	155.21	11.7	88.3
연령대	50대	6.2	93.8	13.7	-	0.0	42.9	4.2	39.2	0.0	130.24	21.1	78.9
	60대	8.8	91.2	0.0	-	5.0	0.0	7.3	79.0	8.7	130.83	28.5	71.5
	70대	0.0	100.0	-	-	-	-	-	-	-	-	-	-
	80세 이상	0.0	100.0	-	-	-	-	-	-	-	-	-	-
학력	무학	0.0	100.0	-	-	-	-	-	-	-	-	-	-
	초졸	5.8	94.2	19.2	-	14.6	0.0	0.0	66.1	0.0	116.95	0.0	100.0
	중졸	4.5	95.5	0.0	-	0.0	27.8	0.0	72.2	0.0	101.56	46.6	53.4
	고졸	8.1	91.9	7.0	-	0.0	31.0	21.8	34.2	6.0	147.25	23.7	76.3
	대학 재학 이상	4.2	95.8	0.0	-	0.0	0.0	0.0	100.0	0.0	154.38	18.6	81.4
배우자 유무	있음	5.8	94.2	8.5	-	2.6	22.8	12.3	49.4	4.4	138.83	23.4	76.6
	없음	8.1	91.9	0.0	-	0.0	16.7	16.4	66.9	0.0	141.05	18.1	81.9

구분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 시간 (1회, 분)	전문적 봉사활동 여부	
		참여	비참여	매일	주 5~6회 이하	주 3~4회	주 1~2회	2주일에 1회	월 1회	기타		해당	비 해당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6	93.4	0.0	-	0.0	16.8	16.9	60.7	5.6	135.48	26.3	73.7
	비취업자	5.3	94.7	19.3	-	5.8	30.5	6.0	38.3	0.0	146.20	15.1	84.9
거주지역	서울	6.4	93.6	0.0	-	0.0	20.0	0.0	80.0	0.0	169.91	0.0	100.0
	광역시	5.6	94.4	20.1	-	10.1	59.7	0.0	10.1	0.0	136.65	10.1	89.9
	도	6.2	93.8	4.4	-	0.0	9.4	21.1	59.3	5.8	132.16	32.3	67.7
가구구성	노인단독	8.4	91.6	0.0	-	0.0	0.0	24.4	75.6	0.0	120.00	0.0	100.0
	노인부부	4.5	95.5	14.9	-	7.5	9.8	0.0	67.8	0.0	133.40	21.8	78.2
	그 외	6.9	93.1	4.6	-	0.0	31.8	16.8	40.8	6.0	145.50	26.9	73.1
가구소득분위	1분위	5.5	94.5	0.0	-	0.0	40.9	40.2	19.0	0.0	120.00	50.4	49.6
	2분위	6.1	93.9	38.1	-	0.0	0.0	0.0	61.9	0.0	107.26	0.0	100.0
	3분위	4.4	95.6	13.1	-	0.0	28.5	0.0	58.4	0.0	187.18	0.0	100.0
	4분위	7.4	92.6	0.0	-	7.5	0.0	7.7	84.7	0.0	105.36	35.9	64.1
	5분위	6.4	93.6	0.0	-	0.0	39.0	21.5	29.7	9.8	159.36	24.8	75.2
전 체		6.1	93.9	6.9	-	2.1	21.7	13.0	52.7	3.6	139.21	22.4	77.6

〈부표 4-50〉 자원봉사에 변화를 주고싶은 항목

(단위: %)

구분		자원봉사 종류			자원봉사 활동횟수			자원봉사 활동시간			전문적 봉사활동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성별	남	90.7	4.8	4.5	91.8	4.8	3.3	91.8	4.8	3.3	77.5	4.8	17.6
	여	86.4	2.6	11.0	90.0	2.6	7.4	81.1	6.5	12.4	62.6	2.6	34.8
연령대	50대	86.9	3.9	9.2	93.7	3.9	2.4	85.5	6.9	7.7	66.5	3.9	29.6
	60대	100.0	0.0	0.0	95.4	0.0	4.6	100.0	0.0	0.0	89.5	0.0	10.5
	70대	66.9	13.1	20.0	78.3	13.1	8.6	78.3	13.1	8.6	59.7	13.1	27.2
	80세 이상	-	-	-	-	-	-	-	-	-	-	-	-
학력	무학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초졸	100.0	0.0	0.0	93.4	0.0	6.6	100.0	0.0	0.0	91.2	0.0	8.8
	중졸	91.0	0.0	9.0	100.0	0.0	0.0	100.0	0.0	0.0	69.7	0.0	30.3
	고졸	81.6	5.1	13.4	93.6	5.1	1.4	82.8	9.0	8.3	59.5	5.1	35.4
	대학 재학 이상	95.1	4.9	0.0	78.1	4.9	17.0	78.1	4.9	17.0	78.1	4.9	17.0
배우자 유무	있음	87.7	4.2	8.1	90.5	4.2	5.3	85.2	6.5	8.3	69.4	4.2	26.4
	없음	94.1	0.0	5.9	94.1	0.0	5.9	94.1	0.0	5.9	72.8	0.0	27.2

구분		자원봉사 종류			자원봉사 활동횟수			자원봉사 활동시간			전문적 봉사활동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1.4	4.1	4.5	92.3	4.1	3.6	92.3	4.1	3.6	79.5	4.1	16.4
	비취업자	83.2	3.0	13.8	88.5	3.0	8.5	75.7	8.6	15.7	52.8	3.0	44.2
거주지역	서울	91.0	9.0	0.0	73.2	9.0	17.8	73.2	9.0	17.8	47.6	9.0	43.4
	광역시	81.8	0.0	18.2	94.6	0.0	5.4	79.9	6.5	13.7	61.7	0.0	38.3
	도	91.6	4.6	3.8	92.6	4.6	2.8	92.6	4.6	2.8	79.0	4.6	16.4
가구구성	노인단독	89.5	0.0	10.5	89.5	0.0	10.5	89.5	0.0	10.5	51.9	0.0	48.1
	노인부부	93.5	3.5	3.0	93.4	3.5	3.1	96.5	3.5	0.0	86.4	3.5	10.1
	그 외	85.8	4.2	10.0	89.8	4.2	6.0	80.9	7.4	11.7	63.6	4.2	32.2
가구소득분위	1분위	87.0	0.0	13.0	87.0	0.0	13.0	87.0	0.0	13.0	76.1	0.0	23.9
	2분위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3분위	93.9	0.0	6.1	100.0	0.0	0.0	86.9	13.1	0.0	53.8	0.0	46.2
	4분위	87.4	0.0	12.6	90.9	0.0	9.1	81.8	0.0	18.2	81.8	0.0	18.2
	5분위	86.3	8.0	5.7	87.5	8.0	4.6	87.5	8.0	4.6	64.1	8.0	27.9
전 체		88.5	3.7	7.9	90.9	3.7	5.4	86.3	5.7	8.0	69.8	3.7	26.5

〈부표 4-51〉 기부활동에 변화를 주고싶은 항목

(단위: %)

구분		기부 종류			기부 횟수			기부 금액			기부처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성별	남	83.6	8.5	7.8	81.1	8.5	10.4	85.6	7.9	6.5	63.9	7.9	28.2
	여	85.6	2.4	12.0	79.4	2.4	18.2	89.8	6.1	4.1	76.3	2.4	21.3
연령대	50대	89.6	5.8	4.5	85.4	5.8	8.8	89.3	5.8	4.8	71.9	5.8	22.3
	60대	81.2	0.0	18.8	74.7	0.0	25.3	91.3	3.2	5.5	70.9	0.0	29.1
	70대	87.2	0.0	12.8	87.2	0.0	12.8	100.0	0.0	0.0	76.7	0.0	23.3
	80세 이상	29.0	42.1	29.0	29.0	42.1	29.0	29.0	24.0	47.0	0.0	24.0	76.0
학력	무학	0.0	0.0	10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초졸	73.0	0.0	27.0	81.5	0.0	18.5	100.0	0.0	0.0	68.4	0.0	31.6
	중졸	87.6	0.0	12.4	45.1	0.0	54.9	80.6	12.4	7.0	38.7	0.0	61.3
	고졸	89.4	3.0	7.5	90.2	3.0	6.8	89.8	4.7	5.5	74.7	3.0	22.2
	대학 재학 이상	78.9	13.0	8.1	70.9	13.0	16.1	82.1	11.9	6.0	70.9	11.9	17.2
배우자 유무	있음	84.9	4.3	10.8	82.1	4.3	13.6	88.9	6.0	5.0	72.0	3.9	24.1
	없음	82.6	13.9	3.5	66.7	13.9	19.4	78.9	13.9	7.2	56.6	13.9	29.5

구분		기부 종류			기부 횟수			기부 금액			기부처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늘리고 싶음	줄이고 싶음	변화 없음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5.0	4.7	10.3	82.3	4.7	13.1	91.4	4.7	3.9	73.9	4.7	21.4
	비취업자	83.5	7.6	8.9	74.3	7.6	18.0	77.0	13.6	9.4	59.2	6.4	34.4
거주지역	서울	75.7	10.7	13.5	72.5	10.7	16.7	85.6	14.4	0.0	64.6	10.7	24.6
	광역시	89.6	6.7	3.6	83.5	6.7	9.7	85.8	5.7	8.5	75.4	5.7	19.0
	도	86.2	1.7	12.1	82.3	1.7	16.0	90.1	3.8	6.1	69.8	1.7	28.5
가구구성	노인단독	56.8	34.5	8.7	56.8	34.5	8.7	65.5	34.5	0.0	49.7	34.5	15.8
	노인부부	88.3	1.4	10.3	85.5	1.4	13.0	95.5	4.5	0.0	80.8	1.4	17.8
	그 외	85.0	5.1	9.9	79.6	5.1	15.3	85.9	6.0	8.1	67.0	4.6	28.5
가구소득분위	1분위	61.5	0.0	38.5	61.5	0.0	38.5	100.0	0.0	0.0	50.2	0.0	49.8
	2분위	82.9	0.0	17.1	71.8	0.0	28.2	100.0	0.0	0.0	63.2	0.0	36.8
	3분위	88.8	5.0	6.2	83.5	5.0	11.5	88.8	9.0	2.2	73.4	2.9	23.7
	4분위	84.1	0.0	15.9	83.1	0.0	16.9	87.5	0.0	12.5	75.1	0.0	24.9
	5분위	85.2	8.3	6.6	80.7	8.3	11.1	85.2	9.9	4.9	69.8	8.3	21.9
전 체		84.6	5.4	9.9	80.2	5.4	14.3	87.7	7.0	5.3	70.2	5.1	24.7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2016년도

정책보고서 2016-01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연구 -유족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용하, 최인덕 외	2017.1.
연구보고서 2016-0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민기채, 조성은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2	성직자 노후보장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유희원,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3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옥금,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유호선, 유현경	2017.1.
정책보고서 2016-05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정인영, 유희원 외	2017.1.
조사보고서 2016-01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임란 외	2017.1.
연구보고서 2016-02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송현주, 임란	2017.1.
연구보고서 2016-03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2016	박성민	2017.3.
연구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	최기홍, 신승희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5	국민연금의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7.3.
정책보고서 2016-06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혜영, 김아람	2017.3.
조사보고서 2016-02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연금제도팀	2017.3.
연구보고서 2016-06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추계 2016	한정림, 신승희	2017.3.
연구보고서 2016-07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추계 2016	한정림, 김형수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8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2016	김형수	2017.3.
정책보고서 2016-07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윤병욱, 송창길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08	국내채권 기대수익률 산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헌	2017.3.
연구보고서 2016-09	해외주식운용 장기성과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연구	강대일, 황정욱	2017.3.
연구보고서 2016-18	독자적 투자전략과 펀드성과의 관계 분석	이지연	2017.3.
정책보고서 2016-10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이지연 외	2017.3.
프로젝트 2016-01	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7.3.
연구보고서 2016-10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1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2017.3.
연구보고서 2016-12	공적연금 연계모형 구축과 기초율 산정 연구 2016	박성민,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3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7.3.
연구보고서 2016-14	국민연금의 장기 거시경제 영향 연구	성명기, 홍기석	2017.3.
연구보고서 2016-15	자산군 프로파일 변경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11	해외투자시 동태적 환헤징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2017.3.
연구보고서 2016-16	팩터 기반 인덱스의 전술적 활용 방안-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손경우, 최영민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12	해외 주요 연금의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박태영, 이정화	2017.3.
정책보고서 2016-13	국민연금의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비교에 관한 연구	정문경, 태엄철 외	2017.3.
연차보고서 2016-01	2017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	최영민, 박태영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09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이용하, 최옥금 외	2017.4.
프로젝트 2016-02	통일 대비 효율적인 연금통합 방안 연구	이용하, 이철수 외	2017.4.
프로젝트 2016-03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최옥금, 이상붕 외	2017.4.
연구보고서 2016-17	국민연금 액티브운용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액티브 위험 한도 설정 체계를 중심으로	강대일, 이지연 외	2017.4.
워킹페이퍼 2016-01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위탁규모 증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문경, 이정화	2017.4.
연구자료 2016-01	2016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7.4.
프로젝트 2016-04	국민연금과 국민경제 연구	성명기 편	2017.5.
용역보고서 2016-01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김성태, 권규호 외	2017.5.

2015년도

연구보고서 2015-01	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노후준비	송현주, 임란	2016.3.
연구보고서 2015-02	결측치 대체방법 연구 -국민노후보장패널 소득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박주완, 김호진	2016.3.
연구보고서 2015-03	중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6.3.
연구보고서 2015-04	국민연금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명기, 이준상	2016.3.
연구보고서 2015-05	미국의 경기국면의 예측과 투자전략	손경우, 최영민	2016.3.
연구보고서 2015-06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GIPS®기준의 국민연금 성과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정문경, 이지연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7	노인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과 빈곤완화 효과 분석 -한국, 미국, 영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상붕, 이은영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8	국민연금가입자 중기전망방법 개선 연구	박성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09	기초연금 재정시뮬레이션	신경혜,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0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및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추계를 위한 소득지수 개선방안 연구	한정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11	사망률 전망 모형의 선택과 전망된 사망률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수익비와 재정효과 분석	최장훈, 권미애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2	출산율과 사망률 변경에 따른 인구전망	최장훈,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3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측정	최기홍, 신승희	2016.3.
연구보고서 2015-14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정책의 평가: OG모형 파레토개선 접근법	최기홍, 신성휘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5	재무곤경위험을 고려한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에 관한 연구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강대일, 조재호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6	외부 위탁운용 매니저의 군집투자 행태(herding)와 유인에 관한 연구	이지연, 태엄철	2016.3.
정책보고서 2015-01	기초연금 급여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연동방법 검토	최옥금, 한신실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2	고령화의 진전과 공사적 연금자산 성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박태영, 원상희	2016.3.
정책보고서 2015-03	국민연금기금의 통화 오버레이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노상윤	2016.3.
정책보고서 2015-04	국민연금 부동산투자 다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상윤, 주상철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5	CVaR를 사용한 전략적 자산 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6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7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하, 김원섭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9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 방안	정인영, 민기채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0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 분석에 따른 노후준비 전략	성혜영, 이은영	2016.3.
정책보고서 2015-11	국민연금 목표초과 수익률 산출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조사보고서 2015-01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박주완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1	2016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	최영민, 박태영 외	2016.3.
Working Paper 2015-01	가입자 및 수급자 추계의 기초율 추정	김진미	2016.3.
프로젝트 2015-01	해외 연기금의 기금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6.3.
정책보고서 2015-12	정년제와 공적연금제도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김헌수, 유현경	2016.5.
연구보고서 2015-17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전망방법 개선 연구	한정림, 허재준 외	2016.5.
연차보고서 2015-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박성민, 신경혜 외	2016.5.
연구자료 2015-01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 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6.5.
프로젝트 2015-02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용하, 민기채 외	2016.5.
프로젝트 2015-0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종합적 고찰	이용하, 김원섭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1	싱가포르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시사점	이준희	2016.5.
용역보고서 2015-02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주은선, 김진석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3	기금규모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 분석	이재현	2016.5.

2014년도

연구보고서 2014-01	가입기간별 기초율을 적용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Ⅱ)	박성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2	공적연금 가입자 추계 방법 연구	박주완, 한정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이력자료에 의한 계층별 특성치의 통계적 추정	최기홍, 신승희	2014.12
연구보고서 2014-04	국민연금제도변수 중기 전망 연구	성명기, 최장훈	2014.12
연구보고서 2014-05	국민연금과 거시경제 모의실험모형 연구	성명기	2014.12
연구보고서 2014-06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최적공분산 추정에 관한 연구	최영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7	경제적불평등과 노후최저보장제도의 관계 및 시사점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이상붕, 서대석	2015.3
연구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0	남부유럽 연금개혁 연구	권혁창, 정창률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1	독거노인의 생애노동이력과 이전소득 효과 연구	송현주, 성혜영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2	부도위험을 고려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과 거래전략에 관한연구	강대일, 조재호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3	고연령 사망률 추정과 미래 사망률 전망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최장훈,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4	시간변동성 성과평가지표를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5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	한정림, 박주완	2015.3
연구보고서 2014-16	유족연금 및 중복급여 산출방법 개선방안	신경혜, 신승희	2015.3
연구보고서 2014-17	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인(ESG)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손경우, 주상철	2015.3

정책보고서 2014-01	국민연금 국내부동산 벤치마크 사용자지수 산출에 관한 연구	노상윤, 민성훈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2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 외화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손경우	2014.12
정책보고서 2014-03	공적연기금 리스크 관리체계의 국제비교	최영민, 박태영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4	국민연금 국내 인프라투자 벤치마크 지수 개선방안 연구	노상윤, 유승동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5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헌수, 김원식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6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공개)	강대일, 정문경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8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개선방안	박태영, 이정화	2015.3
정책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안연구	정인영, 김경아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0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간 역할분담관계에 관한연구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1	단시간 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최옥금, 조영은	2015.3
정책보고서 2014-12	연금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후준비 수준 제고 방안	성혜영, 송현주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3	우리나라 노년층의 노후소득격차 발생요인 분석과 지원방안연구	김경아, 김헌수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4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제도 가입확대방안	유호선, 박주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1	유족연금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유호선, 김경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연구	이용하, 정인영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3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제5차(2013년도)국민노후보장패널(KReIS)분석보고서-	송현주, 이은영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1	최적사회보장과 창조경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임양택	2014.12

용역보고서 2014-02	1. 독일연금통합의 전개과정 평가(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 북한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원섭 이철수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재진, 이정우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4	반납·추납 보험료 대여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및 수요도 조사(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승훈	2015.3
용역보고서 2014-05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보장체계 국제비교 연구	김상호, 배준호 외	2015.6
연차보고서 2014-01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기금정책팀	2014.12
프로젝트 2014-01	OECD 주요 국가의 기초보장 급여적정성 평가방법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저자 약력

• **송 현 주**
인하대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박사(가계경제학)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임 란**
연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석사(사회복지학)
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 **왕 승 현**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경제학)
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 **이 은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석사(통계학)
현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

조사보고서 2017-01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
: 여가, 대인관계, 건강을 중심으로
-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2016년) 기초분석보고서 -

2017년 12월 인쇄
2017년 12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주
편집인 : 이 용 하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TEL : 063-713-6778 / FAX : 063-715-6564

ISBN 978-89-6338-381-1